

2012年

京畿鄉土史學

第17輯



 韓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京畿鄉土史學

第17輯

韓國文化院聯合會 京畿道支會



경기도의 정체성을 밝히는 원천 자료로서의 기능

『경기향토사학』 제17집이 발간되기까지 집필에 수고하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최무장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과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의 대안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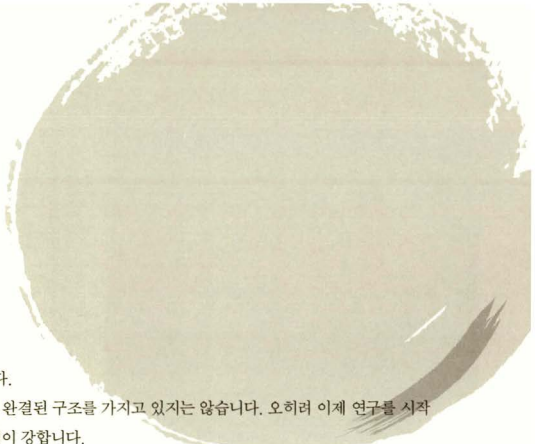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영입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때로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화합하여 새로운 문화 형태로 재창조하는 과정이 경기도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유물,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역사의 다양한 경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적 색깔이 혼재하고 있어 쉽게 알아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향토사학』은 매년 경기도 31개 시, 군문화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연구위원들이 1년간 경기도 역사문화를 조사·발굴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신앙, 생활사 등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각 지역의 세세한 역사적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귀중한 역사유적, 유물들이 제자리를 잃거나 사라지고 있고, 더욱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후학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연



구위원들의 열정이 녹아있습니다.

각 논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경기향토사학』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조사, 발굴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느껴지는 연구집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17집이 발간되기 까지 열정적으로 조사·발굴해 주신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연구집이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원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1. 연천지역의 선사와 고대 문화 최무장	7
2. 여주 흔암리(欣岩里)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고찰 조성문	39
3. 하남의 도미나루가 시사(示唆)하는 백제도성(百濟都城) 이강범	63
4. 남양주 봉선사 대종명문(奉先寺 大鐘銘文)이해 - 남양주 유일한 보물종(제397호) - 엄중호	101
5. [三幕寺]의 名稱 表記와 創寺 由來 김정석	113
6. 경기 파주지역의 時祭 연구 권효숙	131
7. 포천의 영평팔경가(永平八景歌) 이석구	149
8. 조선후기 안성시지역 삼읍(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부역실총(賦役實總)』을 중심으로 - 홍완표	173
9.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 양경직	205
10. 근대 문화재 제408호 연천유엔(UN)화장장 이준용	245
11. <구술자료> 내가 겪은 6·25 천재원	259
12. 경기중부전선과 동두천지구 6·25 남침(南侵) 자료조사 연구 이병수	273
13. 6·25 한국전쟁 초기전쟁사 - 의정부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 최영희	311

연천지역의 선사와 고대 문화

최 무 장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I. 시작말

II. 본론

1. 선사와 고대유적
2.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
3. 남계리 구석기시대 유적
4. 임진강변의 구석기시대 유적
5. 원당리 6차 발굴
6. 불탄 석기(burnt stone tools)
7. 신석기 시대
8. 원당리 신석기시대 주거지
9. 청동기 시대
10. 원삼국시대(철기시대)
11. 삼국시대

III. 종합고찰

집필자

최 무 장

연천선사박물관장,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한국선사 고고학 개론』(2004).

I. 시작말

연천지역은 중부내륙에 위치, 지리적으로 동경 126도 36~127 북위 37.55~38.16의 범위이다.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우며 면적은 673.22km이다. 경기도에서 6번째 큰 지역이며, 연천지역의 행정구역은 10곳으로 나누어져 있다.¹⁾

연천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원 삼국시대)와 역사시대의 봉수대, 성지, 분묘와 요지 등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문화유적은 기본적으로 임진강과 한탄강의 강둑(bank)에 위치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임진강은 화강암(granite) 또는 화강편마암(gneiss)으로 되어 있으며, 시기는 약 20 억년으로 추정된다. 한탄강은 화강암 또는 화강 편마암의 기반암위에 백외리 층(강자갈 층)이 있으며, 그 위에 현 북한 칠원 평강에서 4km 지점의 오리산(해발 452m) 과 그 곳 북동방향으로 4km 지점의 해발 680m 지점 등에서 적어도 3번의 화산이 폭발되어 한탄강 북쪽 강안까지 현무암이 덮여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탄강 강변의 현무암층은 3층으로 50만 년과 16만 년 전의 것이 확인 되었으나, 층위는 그 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진강의 면적은 8,117.5km²이며, 물이 흐르는 길이는 254km이다. 임진강은 북한 함경남도 덕원군 풍산면 두류산에서 시작되어 중면 여척리의 용소를 거쳐 임진강 안으로 진입된다. 그리고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서 한탄강과 합류된다. 임진강은 장남면 석포에서 파주군으로 흘러나가 교하(交河)에서 한탄강과 만난다.

한탄강은 강원도 평강군 백자산에서 시작되었다. 그 길이는 130km이며, 포천군 창수면을 거쳐 연천읍 부곡리 다락터에 들어와서 청산면 신답리 아우라지에서 영편천과 접촉된다. 현무암절벽이 하천을 따라 조성된 곳에는 20~40m의 현무암 주상절리가 형성되었다.

1) 2읍 : 연천읍과 전곡읍

8개면 :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과 장남면

II. 본론

1. 선사와 고대유적

구석기시대 유적은 전곡리 유적, 남계리 유적, 왕징면 강서리, 중면 삼곶리, 장남면 원당리 등에 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은 백학면 학곡리, 군남면 삼거리, 장남면 원당리 등 약 20여 곳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동기 시대 유적은 29기의 지석묘와 기타 유적지 약 20여 곳이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은 연천군 차탄리, 연천읍 상일리,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양원리, 백학면 학곡리, 장남면 원당 3리, 왕징면 북삼리 등이다. 원삼국시대(철기시대) 유물산포지도 약 27 곳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역사시대, 즉 삼국시대 유적은 한반도 중심지인 연천군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 지역으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확인된 산성(山城)은 4곳으로 군자산성, 성령산성, 초성리 산성과 대전리 산성 등이 있다. 성지는 7곳으로 은대리, 옥계리, 삼거리, 우정리, 당포, 무등리와 호로고로 등이며, 그 외 수철성(전곡리, 양원리)도 있다.

2.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

한탄강 제방의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프랑스에서 1983년에 최초로 발견된 주먹도끼와 유사한 유형이 발견되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가 되었다.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1978년 동두천 제2사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한탄강변에서 주먹도끼 4점을 채집하여 서울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1979년에 서울대학교의 김원룡 교수가 발굴팀을 조직하여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등이 참가한 제3차 발굴이 1980년 12월까지 실시되었다. 그 이후에 전곡리유적은 1996년까지 제 10차 발굴이 실시되었다.

전곡리 구석기시대 유적의 연대는 27만년에서 10만년 전까지 판단되고 있다. 필자가 3차 때 발굴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²⁾

1980년 가을에 발굴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구덩이(pit)는 s1w4-1v pit 로 분류되었다. 이 구덩이에서 출토된 석기는 아舍利안 전통을 가진 중기구석기시대(mousterian)에 해당된다. 이 구덩이는 5 평방미터 크기이다.

2) 최무장[전곡리유적 3차 발굴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4.

층위 (상층에서 하층)

1층 : 부식토(humus soil)

2층 : 황색점토, 30~50_{cm} 두께, 아舍利안 전통의 중기 구석기시대 층위

3층 : 홍색점토, 20~30_{cm} 두께, 중기구석기시대 초기 층위

4층 : 홍황색 굵은 모래층, 50~70_{cm} 두께

5층 : 적황색 고운 모래층, 0.4~20_{cm} 두께

6층 : 적황색 굵은 모래층, 10~50_{cm} 두께

7층 : 흑황색 진흙층, 0.3~20_{cm} 두께

층위 두께 220_{cm}로 모두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퇴적되었다. 2층과 3층에서는 30점의 석제도구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에서 15점이 석기이다. 석제는 석영, 석영암(규암), 맥석영(vein-quartz) 등이며, 2층의 석제도구는 11점으로 외날찍개 1점, 클리버(cleaver) 1점, 첨두기(point) 1점, 밀개(end-scraper) 1점 등이다.

3층은 2층보다 오래된 시기의 것으로 같은 아舍利안 전통의 중기구석기 시대이지만 초기에 해당된다.

2층의 석기는 규암제, 강자갈 상단부위에서 석편이 떼여졌다.

1) 외날찍개의 크기는 길이 9.1, 너비 7.5, 두께 5.2_{cm} <도면 1>, 무게 370그램.

2) 클리버 <도면 2>는 큰 석편의 상단 넓은 부위를 거칠게 제2가공하여 석기 제작한 것으로 그 크기는 길이 10.8, 너비 7.1, 길이 4.1_{cm}, 무게 520그램.

3) 석영제 첨두기(point) <도면 3>는 석편의 한 부위를 대칭적으로 손질하여 뾰족하게 제작한 것이다. 손잡이 부위의 크기는 길이 7.0, 너비 5.6, 길이 1.0_{cm}, 무게 49.2그램.

4) 석영제 밀개(end-scraper) <도면 4>는 석편의 넓은 부위 일단을 제2가공하여 밀개를 제작한 것으로 크기는 3.7×2.5×1.8_{cm}, 무게 32그램.

3층의 석기에는 4점의 외날찍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점만 살펴보겠다.

<도면 1> 외날찍개



<도면 2> 클리버



<도면 3> 첨두기



<도면 4> 밀개



- 1) 석영암 외날썩개<도면 5>, 3점의 비교적 큰 석편이 강자갈 일대에서 떼어져서 썩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8.9×6.5×3.6cm, 무게 278그램.
- 2) 원형석기<도면 6>, 석영계 강자갈 양면에서 석편이 여러 점 떼어져서 원형석기가 제작되었다. 크기 7.3×6.3×6.2cm, 무게 430그램.

〈도면 5〉 외날썩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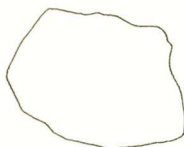
〈도면 6〉 원형석기



2점의 클리버 중 1점만 살펴보겠다.

- 1) 클리버<도면 7>, 맥석영제 석편, 석편 등면의 넓은 일단이 거칠게 손질되어 클리버가 제작되었다. 크기 9.×5.8×3.8cm, 무게 127 그램, 2점의 긁개(side-scraper) 중 1점만 살펴보겠다.
- 2) 긁개<도면 8>, 맥석영제, 석편 등면의 우변(edge)이 거칠게 제2가공되어 긁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4.6×3.2×1.2cm, 무게 32그램.
- 3) 1점의 밀개(end-scraper)<도면 9>, 맥석영제, 석편의 일단이 거칠게 제2가공되어 밀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3.2×2.0×1.2cm, 무게 12그램.
- 4) 송곳(borer) 1점<도면 10>, 맥석영제, 석편 등면의 한 끝이 제2가공되어 송곳이 제작되었다. 크기 3.2×2.5×1.2cm, 무게 8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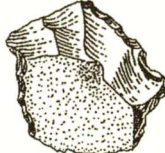
〈도면 7〉 클리버



〈도면 8〉 긁개



〈도면 9〉 밀개



〈도면 10〉 송곳



3층에서는 외날쩍개 4점, 원형석기 1점, 클리버 2점, 굽개 2점, 밀개 1점과 송곳 1점등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이 3층의 석기는 중기구석기시대에 해당되지만 2층 것보다는 이른 시기의 것으로 중기구석기시대 초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3. 남계리 구석기시대 유적³⁾

남계리 구석기시대 유적은 연천군 남계리 265번지 일대에 위치, 지리좌표는 북위 38 1, 동경 127 02이다. 이 유적은 전곡리 유적에서 서남 방향으로 2.5km 지점에 있다. 이 유적의 해발은 50m 이며, 이 유적에서 서남 방향으로 2.5km 지점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되는 합수구가 있다.

발굴면적은 4.5×4.5m 의 4개 구덩이로 설정하였다. 각 구덩이의 순서를 남계리 I, II, III, IV 로 정하였다.

각 구덩이의 순서는 B.M 을 중심으로 서북방향으로부터 북동방향으로 배치하였다. 이 중에 II 호 구덩이는 성토된 점토의 밑에 있어 붕괴위험 때문에 발굴하지 않았다.

발굴은 건국대 박물관장의 최무장이 실시하였으며, 시기는 1989년 8월 26일 ~ 9월 30일까지 35 일간이다.

발굴된 4개의 핏트 중 1핏트만 3.4 층이 문화층이고 나머지는 3, 4 와 5 핏트 등은 3층만 문화층이다.

남계리 I 핏트 층위(동남벽)

1층 : 표토 34~60cm 두께

2층 : 황갈색 점토, 17~14cm 두께

3층 : 갈황색점토, 36~36cm 두께, 문화층

4층 : 황적색 점토, 68~64cm 두께, 문화층

5층 : 임반(현무암)

석기는 남계리 I 핏트에서 석물이 3층에서 9점, 4층에서 11점 등 모두 20점이 출토되었다. 3층에서는 석편 2점, 굽개 2점, 밀개 1점, 석핵 2점, 강자갈 2점등 모두 9점 출토되었다.

1) 밀개<도면 11>, 맥석영제, 크기 5.7×5.1×2.2cm, 무게 65 그램, 타격각은 93도 이다. 준비된 타격면을 가졌으며, 타격면의 대칭 일단을 벽개면에서 등면방면으로 제2가공하여 날을 만들었다. 등면의 왼쪽 일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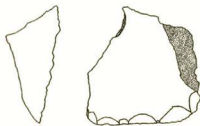
2) 굽개<도면 12>, 맥석영제, 크기 7.2×5.9×4.9cm, 무게 190그램, 타격각은 94도. 타격면은 준

3) 문화재연구소연천남계리구석기유적발굴보고서], 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보고 제11책, 1991년

비되었다. 타격점이 파손되어 움푹 들어갔다. 등면의 우변을 안면에서 등면으로 제2가공하여 날을 만들었다. 등면에 자연면이 남아있다.

- 3) 석핵 1점(도면 13), 맥석영제, 크기 $7.0 \times 4.8 \times 3.8\text{cm}$, 무게 144그램. 이 석핵사에서 많은 석편이 제거되었다. 이 석핵은 미완성 석기에 접근되고 있다.

〈도면 11〉 밀개



〈도면 12〉 굽개



〈도면 13〉 석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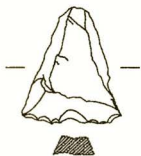
4층에서는 밀개 1점, 굽개 4점, 찔두기 1점, 석편 3점, 석핵 1점과 강자갈 1점 등 모두 11점이다. 이 중에서 3점(밀개 1점, 찔두기 1점, 굽개 1점)만 살펴보겠다.

- 1) 밀개 1점(도면 14), 맥석영제, 크기 $3.1 \times 2.5 \times 0.6\text{cm}$, 무게는 7그램, 타격각은 55도이다. 삼각형 소형 석편제, 타격면은 준비되었다. 등면의 대칭되는 일단을 안면에서 등면으로 제2가공하여 밀개를 만들었다.

- 2) 찔두기 1점(도면 15), 맥석영제, 크기는 $4.2 \times 2.8 \times 1.2\text{cm}$, 무게는 14그램, 타격각은 75도이다. 소형의 삼각형 석편제, 등면의 일단을 제2가공하여 찔두기를 제작하였다.

- 3) 굽개 1점(도면 16), 맥석영제, 크기는 $7.0 \times 6.6 \times 2.8\text{cm}$, 무게 140그램이며, 타격각은 75도이다. 준비된 삼각형 석편의 양면 굽개를 교차 가공하여 굽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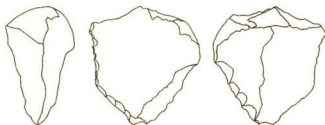
〈도면 14〉 밀개



〈도면 15〉 찔두기



〈도면 16〉 굽개



남계리 I 핏트는 3과 4층이 문화층이다. 3층의 유물은 밀개와 굽개 등 석편 석기위주이다. 4층은 밀개, 굽개, 찔두기, 석편과 석핵 등이다.

굽개 4점중 1점은 양극타격법에 의해서 떼여낸 석편으로 석편등면의 오른쪽 일변이 거칠게 가공되어 석기가 제작되었다. 이 양극석편제 굽개는 4층의 연대가 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석기가 일찍이 중국 서후도(西候度)와 주구점(周口店) 제1지점에서 출토 된바있다.

4. 임진강변의 구석기시대 유적⁴⁾

임진강변의 원당리유적은 필자가 6차 발굴하였다. 그중에서 1차(1996년 발굴)과 6차(2003년) 발굴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 원당리 유적의 1차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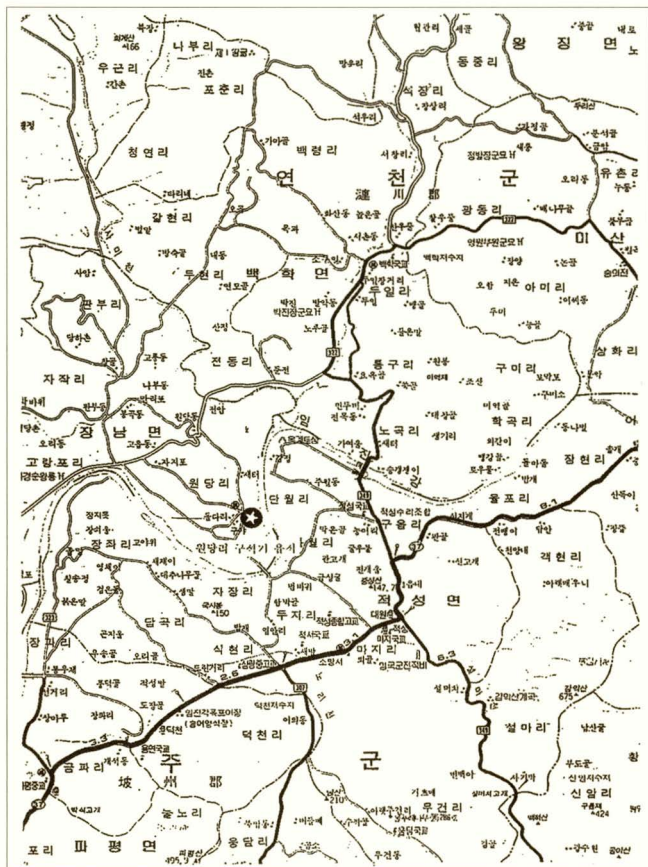
1996년 7월 26일~27일 사이의 홍수로 인하여 대단히 중요한 지질학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홍수에 의한 급류가 발굴중인 북쪽의 인삼밭 정상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다 휩쓸고 지나갔으며 그 결과 인삼밭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일부가 완전히 노출되어 새로운 지질구조가 노출되었다.〈도면17〉

먼저 유적에서 남쪽방향(대각선 방향)으로 약 15m 지점, 장남교 북단의 서쪽의 길이 약 10여 m의 노둣단면이 노출되었다. 이곳의 해발은 29.32로 유적지 보다 약 4m 이상이 낮다. 이곳의 퇴적층 두께는 정확히 2m이며, 이 층위는 크게 3층으로 나누어 졌다. 아래 층(바닥층)은 현무암반이며, 그 윗층은 고운 회백색 진흙층으로 40cm두께, 그 위층은 점토(또는 Loam) 층으로 1.60m이다.

한편 유적지와 연계된 서북 방향의 인삼밭 끝 부분은 해발 35.17m 이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20m이상 인삼밭이 있었는데 상기한 홍수로 쓸려 내려가 바닥이 완전히 노출 되었다. 노출된 바닥

4) 건국대학교 박물관(원천원당리유적 발굴보고서), 학술총서 3책, 1977

〈도면 17〉 경기도 연천군 원당리 구석기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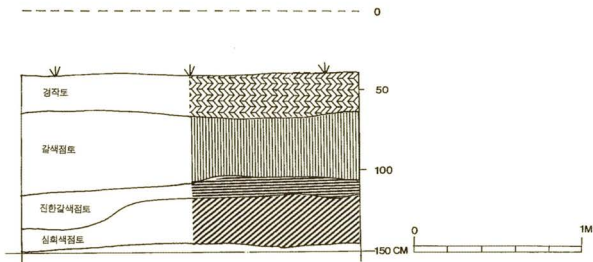


은 현무암반이며, 화산 폭발시 용암이 남북 방향으로 흐른 흔적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무암반은 강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여 크기 $20 \times 10 \times 5\text{cm}$ 크기 정도로 떨어져 나오기 시작 하는 과정을 또한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다. 균열되어 떨어져 나온 현무암 자갈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무정형 이지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종합하면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강상대지(bank)는 점토층(또는 Loam)으로서 현무암반의 부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산사태(solifluction) 등에 의해서 퇴적된 층이라는 화층이 상기한 유적을 중심으로 장남포 복단의 단면과 인삼밭의 현무암반의 노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인삼밭 복단의 현무암반 균열작용과 현무암 강자갈로 떨어져 나오는 과정은 강물이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 인삼밭 정상방향으로 옮겨가는 과정까지 뚜렷이 제시되고 있었다.

1996년 1차 발굴에서 4개 Pits 를 각 각 $5 \times 5\text{m}$ 로 시굴하였다. Pits 설정은 가능한 인삼밭과 가까운 곳에 하였다. Pit 사이에 간격은 1~2pits는 5m, 3pit~4pit까지는 10m 간격을 두었다. 1, 3pits는 4층까지 내려가고 2, 4pits는 바다(현무암층)까지 내려갔다. 1pit 층위만 살펴보겠다. <도면 18>

<도면 18> 1 pit 북벽 층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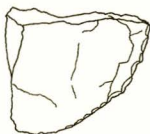


- 층위 150cm 두께, 1. 경작토 26cm
 2. 갈색점토(부식토) 52~42cm
 3. 진한 갈색점토 20~10cm
 4. 심회색점토 30~14cm, 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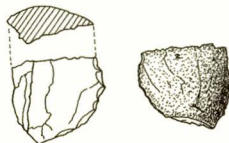
1pit 4층 출토 석기는 총 6점으로 이 중 4점이 석기이다. 석제는 석영제 3점, 석영암제 1점, 천매암제 1점 등이다.

- 1) 굽개 1점<도면 19>, 석영제, 타격면은 준비되었다. 등면의 오른 쪽면을 따라서 약 1cm 두께로 자연면이 남아있다. 벽개면상의 타격점은 뚜렷하지 않다. 벽개 면상의 등으로부터 안면 방향으로 가볍게 제2가공 되어 굽개를 만들었다. 크기 4.7×4.2×1.8cm.
- 2) 굽개 1점<도면 20>, 석영제, 타격면이 준비되었다. 등 면에 자연면이 남아 있다. 벽개면상의 타격점은 뚜렷하지 않다. 벽개면상 우면에서 등으로부터 안쪽으로 제2가공되어 굽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3.5×3.7×1.6cm.
- 3) 홈석기 1점<도면 21>, 천매암제, 자연타격면제의 석편. 벽개면상의 타격점에 깊이 홈이 파져 있다. 이 석편상의 중간에 크게 일격을 가하여 홈석기(Notch)를 만들었다. 등면은 전체가 자연면이다. 크기 6.7×7.0×1.3cm.
- 4) 부리형 밀개 1점<도면 22>, 석영제, 자연타격면, 벽개면상의 타격점은 뚜렷하다. 벽개면상과 오른 쪽 중간에서 거칠게 가공 되어 새 부리형 밀개가 제작되었다. 크기 4.9×5.5×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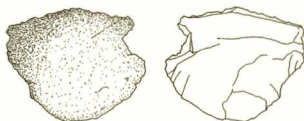
<도면 19> 굽개



<도면 20> 굽개



<도면 21> 홈석기



<도면 22> 부리형 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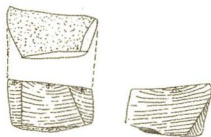
5. 원당리 6차 발굴⁵⁾

원당리 6차 발굴은 5차 때 실시한 경기 연천군 장남 2리 985번지, 약 700평의 나머지 부분(약 300평)을 정밀 조사 하였다. 이곳은 임진강 북동쪽의 작은 숲 지역이다. 그 주위 지역은 농경지로 개간되었지만 유일하게 원 토양을 간직하고 있어 5차와 6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곳은 3, 4차 발굴지로부터 동남방향으로 212m 지점에 있다. 3, 4차 발굴지역의 해발은 36,529m 이며, 5, 6차 발굴 지역의 해발은 33,418m로서 약 3m의 차이가 있다. 그곳은 현 임진강변에서 72m지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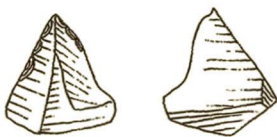
6차(2003년)의 발굴은 5차의 4pit 주위에 5×5m pit 을 4개 설치하여 굴착하였다. 그리고 Pit 번호 5, 6, 7, 8을 부여 하였다.

6차의 4개 pits는 전혀 교란되지 않았으며, 문화층위는 5차와 동일하게 II층(암갈색 점토층)에서 전형적인 중기구석기시대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5차 때 발견하지 못한 르발르와 석핵(Levalloisian core) 4점, 그 중 1점<도면 23>이 출토되었다. 또한 대표적인 석기는 대형 첨두기 1점<도면 24>과 3점의 주먹도끼, 그 중 1점<도면 25>, 칼 3점, 그 중 1점과 전형적인 타격면이 준비된 석핵(prepared core) 9점 등이 출토되었다. 그 외 톱니석기, 홈석기, 긁개, 밀개와 초퍼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23〉 르발르와 석핵



〈도면 24〉 석영제 첨두기



〈도면 25〉 주먹도끼



5) 경기고고학 연구소·연천원당리 구석기시대유적발굴조사보고서(6차), 학술총서 5책.

원당리 유적의 6차레 발굴결과 다음과 같이 임진강변의 구석기시대 유적 층위를 분류 할 수 있다.
 해발이 36m 정도의 3, 4차 발굴지역은 문화층 2층 : 중기구석기시대, 3층 : 유물 없음, 4층 : 전
 기구석기시대이며, 해발이 33m 정도의 5, 6차 발굴지역은 문화층 2층 : 중기구석기시대, 3층 : 전
 기구석기시대로 분류된다. 석기도 2층 은 준비된 석핵과 르발르와 석핵등이 출토되며, 이 증거로
 서 석편은 대부분 준비된 타격면을 가졌다. 3, 4차 4층은 전형적인 외날찍개 위주이며, 5, 6차 3층
 의 석편석기는 모두 자연타격면(Natural cortex)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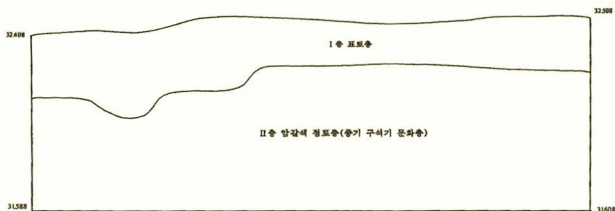
임진강 유역의 문화층은 크게 구석기시대 전기와 중기로 나누어지며, 출토된 석기의 유형과 상
 대편년은 3, 4차 4층과 5, 6차 3층은 전기구석기시대로서 50만년 전후이며, 2층의 2003년 준비된
 석핵과 르발르와 석핵의 출토의 중기구석기시대로서 5만년을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6차 발굴의 5pit의 층위 단면(도면 26)과 유물 출토 상태(도면 27)만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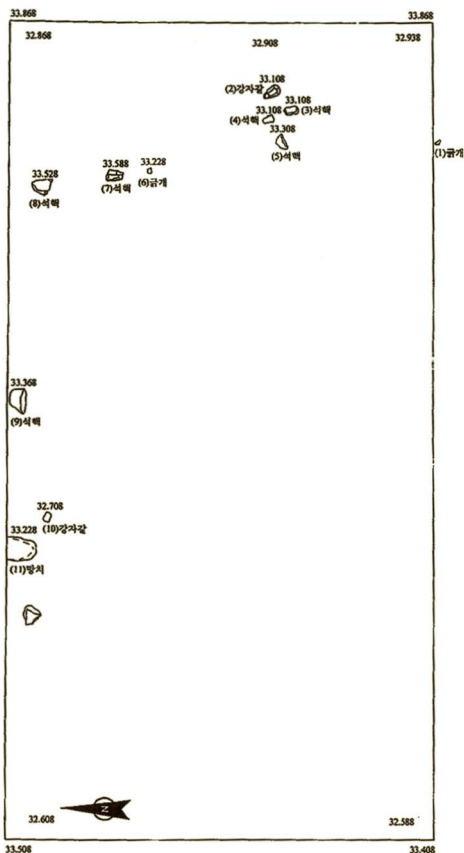
5 pit 북벽단면1층 : 표토 25~50cm

2층 : 암갈색 점토층, 55~70cm, 중기 구석기시대 문화층.

〈도면 26〉 5pit 층위 단면(서벽)



〈도면 27〉 5pit 평면도(유물출토상태)



6. 불탄 석기(burnt stone tools)⁶⁾

임진강변의 제방(bank)에서 최초로 불 탄 석기를 최무장이 발견하여 영문논문으로 「The burnt stone tools on Imjin river terrace」라는 제목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 13집(2007년 11월)에 발표하였다.

38점의 규암(석영암 quartzite)제의 석기를 진상리에서 발견되었다. 규암석제가 대단히 견고하여 쉽게 깰 수가 없어서 당시 사람들은 강가에서 규암자갈을 주워다가 쌓아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 또는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 적어도 3~5시간 정도 태우면 규암 자갈이 붉은 색을 나타내면서 열을 받게 된다. 이러한 규암 석제의 불을 끄기 위하여 물을 부어 식게 한 다음, 식은 규암 강자갈을 타격을 가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다. 이 불탄석기 제작 방법은 최초로 프랑스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시기는 후기구석기시대중기로 기원전 약 2만 년경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최초로 불탄석기를 임진강변에서 발견 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이 불탄석기를 발견하여 작은 책자를 발표하였다.⁷⁾

임진강변의 진상리에서 발견된 38점의 불탄 석기는 1점의 외날썰개(chopper), 3점의 주먹도끼(Handaxe), 5점의 침두기, 4점의 굽개, 2점의 톱니석기, 3점의 조각기, 2점의 타격된 석핵(struck core), 1점의 석편, 2점의 용기된 석핵(nodule), 5점의 사용된 석편, 2점의 타격면이 준비된 석핵(prepared core), 1점의 등면 석핵 등이다. 불탄석기는 기본적으로 르발르와 석기제작 기술(levallouis technique)로 제작 되었다. 즉 르발르와 석기제작 방법은 강자갈 일단(end)에서 가로로 석편을 떼어내어 평탄한 타격면(striking platform)을 만든 다음 그 위에서 세로(수직방향)로 타격을 가하여 긴 석편을 떼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상기한 르발르와 수법으로 최초로 프랑스에서 확인되었다. 이 제작수법은 중기구석기시대에 제작된 많은 석기들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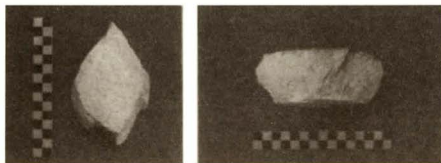
- 1) 1점의 외날썰개 <사진 1>, 강자갈의 우편에서 2점의 큰 석편이 떼여 졌다. 크기 13.2×7.5×5.8cm.
- 2) 3점의 주먹도끼 중 1점 <사진 2>, 강자갈 주위에서 석편이 제거되었다. 강자갈의 용기면과 편평면에는 자연면이 남아있다. 크기 17.8×7.8×6.0cm.
- 3) 5점의 침두기 중에 1점 <사진 3>, 5점의 작은 석편(chips)이 등면의 1단에서 제거되어 끝이 뾰족한 침두기가 제작되었다. 자연면이 편평면에 남아 있다. 크기 15.5×7.8×5.7cm.
- 4) 4점의 굽개 중에서 1점 <사진 4>은 르발르와 수법으로 긴 석편(blade) 1점이 제거되고, 그 석편 좌우 변(edge)에 제2가공(retouched)이 되어 굽개가 제작되었다. 등면 일부에 자연면이 남아있다. 크기 18.3×8.3×5.5cm.

6) Choi mou chang「The burnt stone tools on Imjin river terrace」, 한국선사 고고학보 13집. 한국선사고고학회, 2007, pp. 5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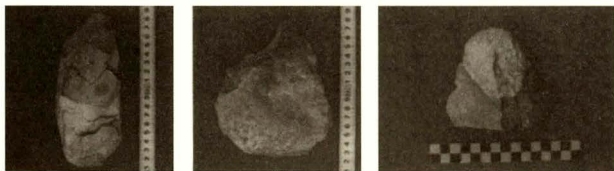
7) 최무장, 「동원리 선사와 역사문화」, 한국동원박물관출판, 2012년, p. 1~37.

- 5) 2점의 톱니석기(denticulates)중에 1점(사진 5), 준비된 석핵에서 제거된 긴 석편(BLADE)의 좌, 우 변을 거칠게 제2가공하여 톱날을 만들었다. 등면 일부에 자연면이 남아 있다. 크기 $11.0 \times 4.8 \times 3.8\text{cm}$.
- 6) 3점의 조각기(burin)중에 1점(사진 6), 작은 삼각형 석편의 뾰족 끝이 왼쪽으로 날카롭게 손질되었다. 크기 $6.3 \times 4.5 \times 1.5\text{cm}$.
- 7) 2점의 석핵(core) 중 1점(사진 7), 긴 강자갈에서 르발르와 수법으로 2점의 긴 석편(blade)이 제거된 흔적이 남아 있다. 편평면(plano surface)에 자연면 일부가 남아 있다. 크기 $19.6 \times 9.0 \times 8.0\text{cm}$.
- 8) 용기된 석핵(nodule core) 2점 중 1점(사진 8), 2점의 비교적 큰 석편이, 이 석핵에서 제거된 흔적이 남아 있다. 편평면에 타격점이 뚜렷이 남아 있다. 크기 $15.5 \times 10.5 \times 5.0\text{cm}$.
- 9) 4점의 돔형 석핵(domed core) 중 1점(사진 9)은 규암 강자갈 주위에서 6점의 석편이 제거되었다. 자연면이 등면 중심부에 남아 있다. 또한 강자갈 끝 부위(butt)에 준비된 타격면 흔적이 남아 있다. 크기 $15.5 \times 11.0 \times 9.0\text{cm}$.
- 10) 석편이 제거된 흔적의 석편(two flakes were struck from big flake) 2점 중 1점(사진 10), 3편의 작은 석편이 비교적 큰 석편에서 제거된 흔적이 뚜렷하다. 자연면이 석편 1단에 잔존, 이 석편은 큰 석핵에서 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11) 5점의 비교적 큰 석편(flake) 중 1점(사진 11)은 4면(side)을 가진 4각형 석편이다. 자연면이 편평면 일부에 남아 있다. 크기 $7.3 \times 6.5 \times 2.4\text{cm}$.
- 12) 전형적인 르발르와 석핵(levallouis core or prepared core)중 1점(사진 12)은 우면에서 2점의 석편이 제거되었다. 자연면이 일부 남아 있다. 타격면에 타격점이 뚜렷이 남아 있다. 크기 $15.5 \times 10.7 \times 3.4\text{cm}$.

〈사진 1〉 외날찍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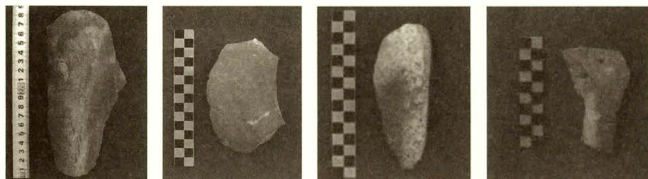
〈사진 2〉 주먹도끼



〈사진 3〉 첨두기



〈사진 4〉 금개



〈사진 5〉 톱니석기



〈사진 6〉 조각기



〈사진 7〉 석핵



〈사진 8〉 돔형석핵



〈사진 9〉 돔형석핵



〈사진 10〉 석편 제거흔적



〈사진 11〉 석편



〈사진 12〉 큰 석편 제거 흔적



상기한 불탄 석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될 수 있다. 1)용기된 석핵(basic shaping of nodule), 2)돔형으로 등면이 준비 된것(prepared of domed dorsal surface), 3)준비된 타격면 석핵, 4)석편(flake)에서 제거 된 작은 석편(사진 10~11) 등이다.

예를 들면 5편의 준비된 석편은 준비된 석핵에서 떼여졌다. 즉 준비 된 석핵(prepared)에서 석편은 떼여 내어 그 석편을 제2가공 시켜 석기를 제작하고 또한 큰 석핵에서 떼여 낸 두툼고 큰 석편에서 다시 작은 석편은 떼여내어 그 석편으로 소형 석편 석기를 제작하였다. 대개 석재로 사용한 규암제의 강자갈은 길이가 20cm, 너비 20cm, 두께가 10cm정도의 비교적 큰 강자갈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석편(flake)과 긴 석편(blade)등이 준비된 석핵에서 떼여졌다. 석편 제거 시 석핵의 타격면, 타격점 등이 대단히 뚜렷하다.

종합적으로 진상리 채집의 불탄 석기 유형과 제작 방법은 서구 유럽형과 일치하다. 다만 이해하여야 할 것은 준비된 석핵의 타격면위에 간접 타격용(bar-hammer) 즉 나무 막대기 또는 긴 돌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타격을 가하여 석편과 긴 석편을 떼어 내었다. 이 방법은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시대 까지 이어 졌다.

7. 신석기 시대

상기한 임진강변의 원당리 유적 출토⁸⁾의 신석기유적 외에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三巨里)유적은 722-2 번지 밭에 위치, 동경 126.36°-127.11°, 북위 37.55°-38.16°의 범위 내에 있다. 이 유적은 1999년 9월에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와 소형 유구 1기,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와 소형 유구 2기가 발굴되었다. 그 외 연천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집성표가 다음〈표 1〉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1〉 연천 지역 신석기유적 집성표

유적명	위치	즐문토기 문양 구성									
		단사 선문	중 어골문	주 어골문	횡 어골문	능 집서문	형 자문	사선문	조문	족관문 점열문	횡선문
삼거리 선사유적2	군남면 삼거리 743-3전							●			
삼거리 선사유적3	군남면 삼거리 733전					●					
선곡리 선사유적1	군남면 선곡리 840							●			
선곡리 선사유적2	군남면 선곡리 696-1	●			●				●		●
선곡리 선사유적3	군남면 선곡리 687-3				●			●			
학곡리 선사유적1	백학면 학곡리 270전		●		●			●			
학곡리 선사유적2	백학면 학곡리 449-1전		●		●			●			
학곡리 유물산포지 IV	백학면 학곡리				●						
학곡리 좁석식 적석묘	백학면 학곡리				●						
우정리 선사유적1	미산면 우정리 380전	●			●			●		●	
우정리 선사유적2	미산면 우정리 136	확인불가									
우정리 유물산포지Ⅲ	미산면 우정리	확인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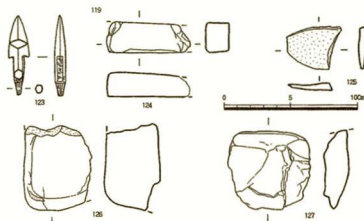
8) 경기고고학연구소 [연천원당리구석기시대유적 발굴조사보고서 5차], 학술총서 4책, 2003년.

유적명	위치	줄문토기 문양 구성									
		단사 선문	중 어골문	주 어골문	횡 어골문	능 집서문	사격 자문	사선문	조문	죽관문 점열문	횡선문
우정리 유물산포지Ⅳ	미산면 우정리				●						
우정리 좁석식 적석묘	미산면 우정리							●			
동이리 선사유적1	미산면 동이리 88전										
동이리 선사유적2	미산면 동이리 68전				●				●		
삼화리 선사유적1	미산면 삼화리 249전							●			
북삼리 유물산포지Ⅰ	와징면 북삼리										
삼꽃리 선사유적1	중면 삼꽃리	●			●			●			
횡산리 좁석식 적석묘	중면 횡산리	확인불가									
고릉리 유물산포지	전곡읍 고릉리				●					●	●

삼거리 집자리(주거지)⁹⁾ 1호는 잔존 규모는 남동-북서 3.64m, 북동-남서 길이 3.46m 이며, 노지는 중앙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 주거지 잔존 깊이 30cm 정도, 바닥은 생토 층인 명갈색 모래층이다.

출토유물은 토기편 122점과 석기 5점이다. <도면 28>

<도면 28> 1호 주거지 출토 토기류(107~122:1/3) 및 석기류(123~127:1/2)



9) 경기도 박물관(연천 삼거리 유적), 경기도 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제9책 2002년, pp. 22~25.

토기는 구연부편 16점, 동체부편 103점, 저부편 3점 등이다. 태토는 굵은 점토, 내면에 굵은 석립이 드물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 내면에 일부에는 흑갈색도 있다. 소성상태 양호, 구연부는 직선으로 내경, 구연끝 평탄, 구연부 길이 0.95cm, 폭 0.25cm이다.

1) 석기(도면 28), 주거지 상부 출토, 이단 경축, 점판암제, 축신은 단면 능형, 경부는 1단경의 가로 단면 6각형, 2단경은 단면 원형. 크기, 길이 6.2cm, 축신 길이 3.2cm, 축신 최대 너비 1.5cm, 축신 오른쪽 윗부분은 사암제의 숫돌 편, 숫돌 표면에 황마연된 흔적이 있다. 크기, 길이 6.4cm, 너비 2.3cm, 두께 2cm. 숫돌 옆의 오른 쪽 석기편, 규암제의 자갈돌편 크기, 길이 4.0cm, 너비 3.3cm, 두께 0.7cm. 석촉, 아래 좌, 마연된 규암제 숫돌편, 크기, 길이 6.6cm, 너비 5.1cm, 두께 4.2cm. 이 숫돌편 우편 석기, 규암제의 용도 미상, 크기, 길이 6.2cm, 너비 6.0cm, 두께 1.8cm 이다.

또한 [연천 삼거리 유적] 발굴보고서 22페이지에 연천군 지역에서 채집된 도표(표 2)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연천 지역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집성표

유적명	위 치	채집유물
상리 유물산포지	연천읍 상리 416	마제석촉
신답리 유물산포지	전곡읍 신답리 산13	용도미상석기
남계리 선사유적	군남면 남계리 485-3	무문토기, 편인석부
삼거리 선사유적2	군남면 삼거리 743-3	무문토기, 원판형석기, 어망추
삼거리 선사유적3	군남면 삼거리 733전	무문토기
선곡리 선사유적1	군남면 선곡리 840	무문토기, 홍도
선곡리 선사유적2	군남면 선곡리 696-1	무문토기, 마제석촉
선곡리 선사유적3	군남면 선곡리 687-3	무문토기, 원판형석기, 타제석부
진상리 선사유적1	군남면 진상리 709전	무문토기
진상리 선사유적2	군남면 진상리 722전	무문토기, 어망추
초성리 유물산포지	청산면 초성리 답177	갈돌
학곡리 선사유적1	백학면 학곡리 270전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학곡리 선사유적2	백학면 학곡리 449-1전	무문토기, 합인석부, 어망추
우정리 선사유적1	미산면 우정리 380전	무문토기
우정리 선사유적2	미산면 우정리 136	마제석검
동이리 선사유적1	미산면 동이리 88전	무문토기
북삼리 유물산포지	왕징면 북삼리 182-14임	마제석검
삼꽃리 선사유적1	중면 삼꽃리 421	무문토기, 마제석부
삼꽃리 선사유적2	중면 삼꽃리 109전	무문토기
원당리 선사유적2	장남면 원당리 384전	무문토기, 석촉, 반월형석도, 굴지구
원당리 유물산포지Ⅲ	장남면 원당리	마제석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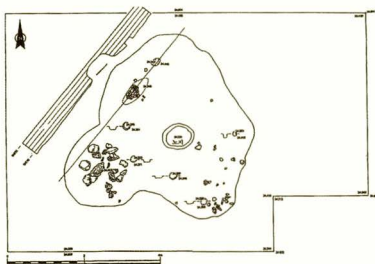
8. 원당리 신석기시대 주거지¹⁰⁾

2pit 서북쪽에 치우친 유구 1기는 기본적으로 주거지 1기로 볼 수 있다. 다만 북동 부분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다. 유구는 북서 길이 540× 동서 최대 너비 460cm이며, 기둥 구멍이 6곳 확인되었다.〈도면 29〉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는 74~96cm이다. 기둥구멍으로 보면 주거지는 남북방향 이다. 기둥 구멍의 크기는 구경 24cm(깊이 9.8cm)~16cm(깊이 10.9cm) 등 일정하지 않다. 중간에 불에 탄 아름다운 노지가 잘 남아 있다. 원형의 노지는 점토위에 태양처럼 남아 있었다. : 최대 구경 84cm, 불에 탄 흔 14cm의 테가 있다. 노지는 북-남쪽으로 두 번째 기둥구멍에서 동쪽으로 90cm 지점에 있다. 북에서 서쪽으로 하나 정도의 기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2기의 합구식(合口式)무덤(관)〈도면 30〉 1기가 확인 되었다. 무덤 1기의 유구 길이는 95cm, 깊이 40cm, 2기 토기 최대 너비 34cm이다. 2기 빗살무늬 토기는 북쪽의 것은 구연부만 남아 있고(3분지 1정도), 서쪽 토기는 2/3 정도가 남아있었으며〈도면 31〉, 주거지 안쪽으로 토기편이 3점 확인되었다. 그리고 남동쪽의 다섯 번째 기둥구멍에서 북쪽으로 34cm지점에 4점의 빗살무늬 토기 저부편이 출토되고, 이 다섯 번째 기둥의 동남쪽(기둥의 외부)에 10여점의 유공 빗살무늬 토기편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합구식 무덤의 북쪽으로 20cm지점에 타제의 돌도끼 1점이 놓여 있었다.〈도면 32〉, 크기는 9.4×6.5×3.5cm이다. 도끼는 규암제 강자갈 1단의 양면에서 정교하게 석편을 적어도 9편 이상 떼어 내어 가로 날을 일직선으로 세우고, 용기된 1면의 오른쪽 편에서도 크게 석편을 떼어 내었다. 그리고 용기 1면의 아랫단에서도 크게 두편의 석편이 제거되어 신석기시대 전형적인 돌도끼를 제작하였다. 다섯 번째(북동방향)로 기둥구멍이 하나 더 있어야 할 텐데 확인이 어려웠다. 5번 기둥구멍과 6번 사이는 184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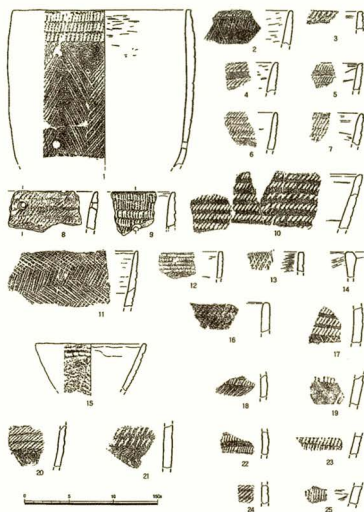
주거지 외부 서북편에 길이 130cm × 너비 120cm 되는 부석 시설이 있었다. 약 20여개의 화강편 마암이며, 크기는 40×24×8.0cm~24×10×5.0cm이다. 이 부석시설(적석)은 주방용(음식익힘)으로 추정된다. 상기한 빗살무늬 합구식 무덤이 주거지 경계에 있는 것은 이 주거지 거주자 중 일인이 죽게 되 자 무덤을 그 곳을 만들고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10) 경기 고고학연구소 「연천 원당리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 조사보고서, 5차」 경기 고고학 연구소 학술총서 4책 P.327~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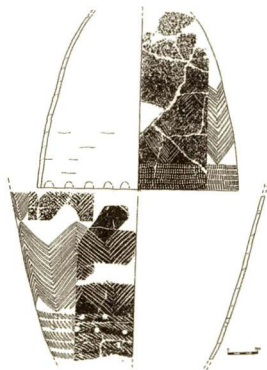
〈도면 29〉 주거지 유구 및 토기편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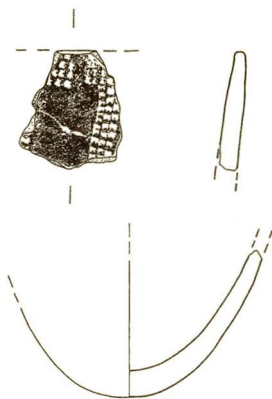
〈도면 30〉 1호 주거지 출토 토기류(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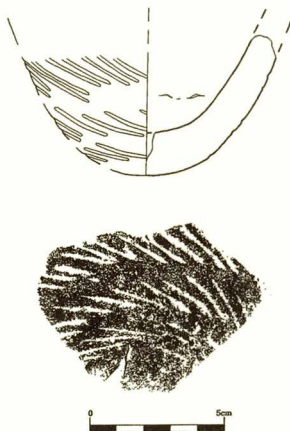


〈도면 31〉 빗살무늬토기 합구식 옹관(?)



〈도면 32〉 구연부편





상기한 임진강변의 원당리 유적 출토의 신석기유적외에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유적¹¹⁾은 722-2번 지 발에 위치, 동경 126.36°-127.11°, 북위 37.55°-38.16°의 범위 내에 있다. 이 유적은 1999년 9월에 발굴이 실시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6기와 소형 유기 1기,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와 소형 유구 2기가 발굴되었다. 그 외 연천 지역 신석기시대 유적 집성표가 다음<표 2, 3>과 같이 제시되었다.

〈표 3〉 연천 지역 지석묘 집성표

유적명	위 치	상석 크기(cm)	비 고
통현리 1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2리 339-1	330×220×40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52호
통현리 2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2리 199-2	315×265×50	
통현리 3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2리 197-4	390×350×45	
통현리 4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1리 254-16	260×100×25-30	‘할머니 고인돌’
통현리 5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리 251-29	270×215×45	위치 이동됨
통현리 6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1리 251-29	315×195×35	위치 이동됨

11) 경기도 박물관(연천삼거리 유적), 경기도 박물관 유적조사 보고서 제9책, 2002년, p.25-

유적 명	위 치	상석 크기(cm)	비 고
통현리 7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2리 89	100×95×10	위치 이동됨
통현리 8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1리 254-16	430×290×30	‘할아버지 고인돌’, 위치 이동됨
통현리 9호 지석묘	연천읍 통현1리 254-16	255×250×25	위치 이동됨
차탄리 지석묘	연천읍 차탄2리 228-3	390×350×60	
전곡리 1호 지석묘	전곡읍 전곡6리 552	260×230×60	위치 이동됨
전곡리 2호 지석묘	전곡읍 전곡리 430-13	310×210×55	위치 이동됨
전곡리 3호 지석묘	전곡읍 전곡리 430-13	185×135×40	
전곡리 4호 지석묘	전곡읍 전곡리 331-1	245×135×15	위치 이동됨
은대리 1호 지석묘	전곡읍 은대3리 557-36	250×180×30	
은대리 2호 지석묘	전곡읍 은대3리 557-36	160×120×35	
양원리 1호 지석묘	전곡읍 양원리 408-3	380×340×45	연천군 향토유적 제3호
양원리 2호 지석묘	전곡읍 양원리 414-3	345×315×35	
초성리 1호 지석묘	청산면 초성3리 288-9	220×145×70	위치 이동됨
초성리 2호 지석묘	청산면 초성3리 288-9	230×270×45	위치 이동됨
학곡리 1호 지석묘	백학면 학곡리 273-3·4	280×270×45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8호
학곡리 2호 지석묘	백학면 학곡리 298-1	210×185×20~40	
학곡리 3호 지석묘	백학면 학고리 239-3	220×70	
학곡리 4호 지석묘	백학면 학곡리 264-1	110×85×18	위치 이동됨
학곡리 5호 지석묘	백학면 학곡리 241		땅속에 매몰되어 있음
원당리 지석묘	장남면 원당3리 1123-1		유실됨. 석검 1점이 출토됨
진상리 지석묘	군남면 진상리 723-1	285×230×25~40	남쪽 강안에도 지석묘가 위치함
삼거리 지석묘	군남면 삼거리 720-14	280×165×40	위치 이동됨
선곡리 지석묘	군남면 선곡리 292-2		땅속에 매몰되어 있음

삼거리 집자리(주거지) 1호는 잔존 규모는 남동-북서 3.64m, 북동-남서 길이 3.46m 이며, 노지는 중앙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잔존 깊이는 30cm 정도, 바닥은 생토 층인 명갈색 모래 층이다.

출토유물은 토기편 122점과 석기 5점이다. 토기는 구연부편 16점, 동체부편 103점, 저부편 3점 등이다. 태토는 굵은 점토, 내면에 굵은 석립이 드물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황갈색, 내면에 일부에는 흑갈색도 있다. 소성상태 양호, 구연부는 직선으로 내경, 구연끝 평탄, 구연부 길이 0.95cm, 폭 0.25cm이다.

석기<도면 30>, 주거지 상부 출토, 이단 경축, 점판암제, 축신은 단면 능형, 경부는 1 단경의 가로 단면 6각형, 2단경은 단면 원형. 크기, 길이 6.2cm, 축신 길이 3.2cm, 축신 최대 너비 1.5cm, 축신 오른 쪽 유물은 사암제의 숫돌 편, 숫돌 표면에 횡마연된 흔적이다. 크기, 길이 6.4cm. 또한 1연천 삼거리 유적¹²⁾ 발굴보고서 22페이지에 연천군지역에서 채집된 도표(표1)를 제시하고 있다.

너비 2.3cm, 두께 2cm. 숫돌 옆의 오른쪽 석기편, 규암제의 자갈들편 크기, 길이 4.0cm, 너비 3.3cm, 두께 0.7cm. 석촉, 아래 좌, 마연된 규암제 숫돌편, 크기, 길이 6.6cm, 너비 5.1cm, 두께 4.2cm. 이 숫돌편 우편석기, 규암제의 용도 미상, 크기 길이 6.2cm, 너비 6.0cm, 두께 1.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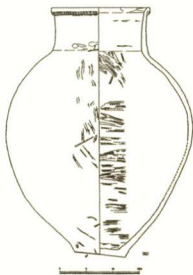
9. 청동기 시대

연천군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한 보도¹²⁾가 비교적 자세히 되어있다.

삼거리유적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3기, 소형유구 2기 등이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장축방향은 8.9호가 북동-남서방향, 7호는 남북방향이며, 주거지 내부에 노지가 있으며 장축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둥구멍은 8호와 9호 주거지에서 각 각 2개씩 확인되었다 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의 토기류는 이중구연 단선문<도면 33> 출토 토기, 이중구연 단선선문 공렬토기, 구순각목문 토기, 갈색 마연 장경호, 단도마연 토기, 파수 부호 형 토기, 심발형 토기, 호형 토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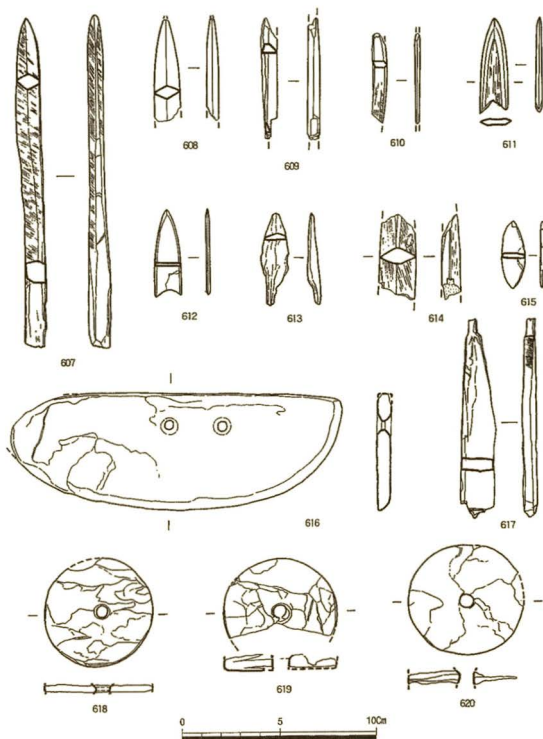
〈도면 33〉 출토 토기(1/3)



12) 경기도 박물관 「연천 삼거리유적」, 경기도 박물관 유적조사 보고서 제9책 2002년, p.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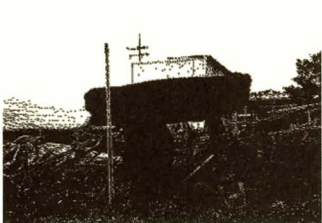
석기류는 9호 주거지(p.130, 9호 주거지)에서 갈돌, 갈판, 반월형 석도, 찰절구, 석제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한다. 9호 석촉은 삼각형 입촉과 이탄 경촉으로 중부 지방의 일반적인 석촉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도면 34〉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표 2〉도 제시되고 있다.

〈도면 34〉 석기류(1/2)



또한 청동기시대 지석묘 집성표(표 3) 도 제시되고 있다. 지석묘의 숫자는 29기로 보고 있다. 예로 연천구지역의 한 지석묘(사진 1과 2)는 북방식 고인돌(통현리 고인돌)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사진 1〉 통현리 고인돌 조사전 모습(남→북)



〈사진 2〉 고인돌 덮개돌 드러낸 모습(남→북)



10. 원삼국시대(철기시대)

연천지역의 원삼국시대 유적이 많이 발견 된 것으로 [연천 삼거리 유적] 보고서에 제시 되고 있다(각주 10, p.25~26). 일반적으로 정식 발굴된 곳은 없다. 다만 원삼국시대 유적이 임진강변의 충적대지상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한 보고서의 도표에는 29곳의 유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표 4〉 실질적으로 이 시기(기원전 300~0년)는 철기시대로 볼 수 있다. 즉 철기시대 후기 또는 백제 초기의 증석식 적석묘가 집중적으로 분포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 연천 지역 원삼국시대 유물산포지 집성표

유적명	위 치	채집유물
삼거리 선사유적3	군남면 삼거리 733전	회색연질토기
선곡리 선사유적1	군남면 선곡리 840	회색연질토기
선곡리 선사유적2	군남면 선곡리 696-1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선곡리 선사유적3	군남면 선곡리 687-3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진상리 선사유적2	군남면 진상리 722전	흑회색연질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황지리 선사유적	군남면 황지리 625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남계리 선사유적4	군남면 남계리 485-3	회색연질토기, 원형토제품

유적명	위 치	채집유물
구미리 유물산포지Ⅰ	백학면 구미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구미리 유물산포지Ⅱ	백학면 구미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구미리 유물산포지Ⅲ	백학면 구미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학곡리 선사유적1	백학면 학곡리 270전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학곡리 유물산포지Ⅲ	백학면 학곡리	경질무문토기
우정리 유물산포지Ⅰ	미산면 우정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우정리 선사유적2	미산면 우정리136	경질무문토기, 연황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동이리 선사유적1	미산면 동이리 88전	경질무문토기, 연황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동이리 선사유적2	미산면 동이리 68전	경질무문토기, 황갈색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삼곶리 선사유적1	중면 삼곶리 421	경질무문토기, 적갈색연질토기
삼곶리 선사유적2	중면 삼곶리 109전	회색연질토기
복삼리 유물산포지Ⅰ	왕징면 복삼리	경질무문토기, 회색연질토기
복삼리 유물산포지Ⅱ	왕징면 복삼리	경질무문토기, 시루
복삼리 유물산포지Ⅲ	왕징면 복삼리	경지름문토기, 회색연질토기
삼거리 증석식 적석묘	군남면 삼거리 707-1	회백색연질토기
학곡리 증석식 적석묘	백학면 학곡리 20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우정리 증석식 적석묘1	미산면 우정리 381	토제구슬, 경질토기
우정리 증석식 적석묘2	미산면 우정리 329	연질토기
동이리 증석식 적석묘	미산면 동이리 66-1	
황산리 증석식 적석묘	중면 황산리 233	승석문경질단경호
삼곶리 증석식 적석묘	중면 삼곶리 421	단경호, 심발형토기, 철촉, 경식

최근에 확인된 원 삼국시대 유적¹³⁾은 최근 발굴된 강내리유적, 연천 삼곶리 마을 유적 등이다. 강내리 유적은 여(呂), 철(凸)자형 주거지 6기, 방형 주거지 7기, 장방형 주거지 2기가 발굴되었다 한다. 내부 시설은 “ㄱ”자형 구들과 “ㅡ”자형 부뚜막, 노지,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출토 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 토기 편 등이다. 또한 삼곶리 마을 유적은 21기 그리고 수혈유적은 81기가 조사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6기의 주거지내에서 철기 생산과 관련된 시설물 11기가 확인되었다 한다. 경기 북부 임진강 일대에서 철기 생산 마을 유적의 확인은 처음 예이다. 그 외 백학면 학곡리, 구미리, 미산면 우정리, 군남면 삼거리, 선곡리, 중면 삼곶리, 황산 등지에서도 유물이 수습되었다 한다.

13) (재)국방문화재 연구원(연천 장단리 유적), 국방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 보고 제 16책, 2011.

11. 삼국시대

연천지역은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다수 위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유적은 군사산성, 대전리 산성, 전곡리 토성, 당포성, 은대리 성들이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구려 석실분은 강내리 고분군, 신답리 고분, 대전리 고분과 원당리 고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강내리 고분군은 고구려식 석실분이며, 3개의 묘역으로 분류되고, 3기의 석실이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토 유물은 무기류는 없으며, 드물게 금제구슬, 은제 팔찌, 유리구슬 등 장신구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보고, 이는 귀족집단 묘역으로 보고 있다. 신답리 고분은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 2기 확인, 출토 유물은 병형토기, 회청색 경질토기편, 흑색 연질토기편 등이라 한다.

신답리 고분¹⁴⁾은 2) 구조가 명확한 1호분은 말갈조정 천정이 확인되었다 한다. 3)은 벽석은 현실 바닥에 깬 판석의 가장자리 기초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답리 고분은 고구려의 봉토분으로 보고 있다.

연천 은대리성 지표및 시굴 조사¹⁵⁾결과는 출토된 토기 편들에 의하면 성벽 가장 하층 출토로 은대리성은 고구려에 축조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천 호루고루(정밀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호루고루는 은대리성, 당포성과 함께 고구려식 강안(江岸) 평지성의 성곽형태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¹⁶⁾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강이북 지역의 관방유적 현황은 118곳으로 제시되고 있다.

14) 한국토지공사 박물관(연천신답리 고분(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2001, 1~25 페이지.

15) 단국대학교매장문화연구소. 연천군(연천 은대리성지표 및 시.발굴조사보고, 매장문화재연구소학술조사 총서 제20책, 2004년

1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연천호루고루(정밀지표조사 보고서), 토지 박물관학술조사 총서 제2집. 1999년.

III. 종합고찰

연천군 지역은 한반도 중심지역으로 큰 강,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다. 임진강변의 원당리유적은 전기구석기시대, 중기구석기시대와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이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후기의 대표적 인 타제석기로서 불탄석기(Burnt stone tools)가 확인되어 적어도 기원전 50만년에서 1만년전 까지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더욱 한탄강가의 전곡리 유적은 주먹도끼 출토지역으로 적어도 기원전 20만년에서 10만년까지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확인되고, 그 옆 서쪽에 있는 남계리유적에서도 중기구석기시대(기원전 85,000~35,000년)의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 신석기시대(기원전 6,000~1,000년)의 유적이 원당리 유적과 삼거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 8곳 유적이 더 확인되었다.〈표 1〉

청동기 시대(기원전 1,000~300년)의 유적은 현재 29곳의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었으며, 〈표 2〉 고인돌 유적도 29기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표 4〉

원삼국시대(철기시대, 기원전 300~0년) 유적도 강내리유적, 삼꽃리 유적 등 상당수가 확인되고 있다.

삼국시대유적은 대표적으로 산성, 토성, 마을 유적과 적석묘 유적 등이 있으며, 고구려 봉토분도 확인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연천군 지역은 기원전 50만 년 전부터 1910(조선왕조 말)년 까지 사람들이 생활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여주 혼암리(欣岩里)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고찰

조 성 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 I. 서언
- II. 주거지
- III. 출토유물
 - 1. 토기류
 - 2. 석기류
 - 3. 탄화미
 - 4. 어구
- IV. 유형의 분류
- V. 결언

집필자

조 성 문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여주군사 편찬위원, 국사편찬위원 사료조사위원

I. 서언

한반도에서 청동기(靑銅器) 문화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1,000년 경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는 인류가 청동기라는 금속재료를 주로 사용하며 문명을 꽃피운 시대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보다 다양한 석기들이 사용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지에서 자주 발굴되는 농사용 도구인 돌낫, 반달돌칼, 목재가공용으로 보이는 돌도끼, 사냥에 쓰던 돌망치, 돌화살촉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초기 철기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300년으로 추정한다면 약 700년 동안 지속되었을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임병태(1969), 후동직(1973), 이백규(1974) 등이 주장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2분기설이다.

전기는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문화와 공렬토기(孔列土器), 각형토기(角形土器), 적색마연토기(赤色磨研土器)를 표지로 하며, 후기는 세형동검(細形銅劍) 문화와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흑도장경호(黑陶長頸壺) 등으로 대표된다. 두 번째로 전기와 후기 사이에 중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3분기설이다. 부여 송국리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하인수(1989), 송만영(1995) 등이 송국리식 토기, 주거지, 군집형태의 취락을 바탕으로 중기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로 돌대문토기문화를 전기에 앞선 초기(早期)로 구분하는 4분기설이다. 안재호(2000)가 주장하는 조기는 압록강 유역과 요동지역의 발작물 중심의 농경문화가 한반도의 신석기 말기문화와 접촉하여 성립한 시기를 말한다.

최근에는 초기(미사리식 돌대문토기¹⁾)-전기(가락동식·역삼동식·훈암리식토기)-중기(송국리식토기)-후기(수석리식 원형점토대토기)로 구분하는 4분기설과 초기(미사리식토기)-전기(가락동식·역삼동식·훈암리식토기)-후기(송국리식토기)로 구분하는 신3분기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학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여주 훈암리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유적 및 유구들이 청동기시대 전기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행원은 한반도 이남지역의 청동기시대의 문화요소를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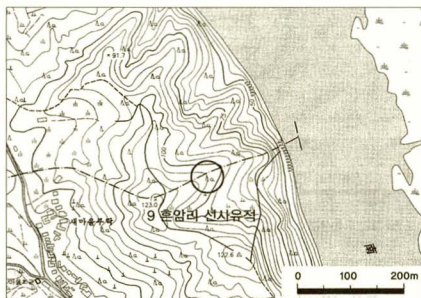
1) 돌대문토기: 점토대토기, 그릇 표면에 띠 모양의 홈을 덧붙여 무늬를 낸 토기.

〈표 1〉 청동기시대의 시기별 문화요소

시 기	조 기	전 기	후 기
토 기	말기 즐문토기, 미사리식토기(돌대문)	미사리식토기,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 검단리식토기 송국리식토기
석 기	삼각만입석촉, 반월형석도	미제석검, 삼각만입 · 이단경석 촉,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석촉
청동기	不在	비파형동검, 동촉	비파형동검, 동촉, 동모, 동부, 동착
주거지	미사리식 주거지 주거규모 - 대형 주거방식 - 공동거주형	(미사리식), 둔산식, 관산리식주거지 주거규모 - 대형 주거방식 - 공동거주형	장방형주거지 송국리식주거지 주거규모 - 소형 주거방식 - 독립거주형
분 묘	不在(?)	지석묘, (주구)석관묘, 토광묘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웅관묘 등
입 지	총적지	총적지, 산지, 구릉	총적지, 산지, 구릉
문 화 유 형	미사리유형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 · 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검단리유형

여주 혼암리 제12호 주거지에서 발견된 불에 탄 버,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동기시대는 원시적 농경 및 수렵의 단계에서 벗어나 거주지와 농토가 연계된 본격적인 농경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 이제 여주 혼암리의 주거지 및 출토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청동기시대 여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혼암리 선사유적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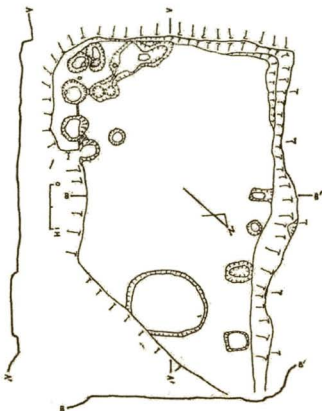
II. 주거지

여주 혼암리에서 옛날 선사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팔 때마다 무수한 토기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소문을 듣고 1962년 김원룡이 혼암리의 석기와 토기류를 채집해 『考古美術』에 소개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와 동 대학박물관이 공동으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 7차례에 걸쳐 면밀한 발굴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모두 16기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제4호, 제5호, 제8호 주거지와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주거지를 살펴보겠다.

1. 제4호 주거지

제4호 주거지는 1974년도 발굴에서 그 전체 규모가 발견되었다. 길이는 동서방향으로 7.6m, 너비는 남북으로 4.5m의 장방형이다. 산사면의 풍화된 암반층을 거의 수직으로 깎고 들어가 구축한 주거지로 수혈의 깊이는 북벽이 85cm내외다. 주거지 내부에 유기물질이 부식한 흔적이 없어 평탄한 암반면 위에 7-10cm두께의 백회색점토 다져 주거면을 만들었다. 주거지내의 시설물은 북벽 가까이에서 직경 10cm, 깊이 7cm의 경사진 주공이 발견되었고 노지(爐址)는 없었다. 서남쪽 모서리와 북벽 쪽에서 발견된 직경 35-55cm, 깊이 15-25cm의 밀집된 수혈공은 제4호 주거지가 마을 공동창고와 같은 저장고의 기능을 하였다고 추측하게 한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이망추, 석제방추차, 석도편, 마제석창, 석봉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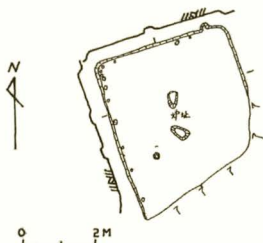
〈그림 2〉 제4호 주거지



2. 제5호 주거지

제5호 주거지는 제4호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수십년이 지난 뒤에 건축되었다가 화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길이 4.7m, 너비 3.93m의 장방형으로 수혈의 깊이는 15cm내외다. 바닥은 풍화된 화강암을 깎아 평탄하게 만들었으며 썩은 유기물질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돛자리 등을 깔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직경 10-14cm내외의 주공이 발견되었고 중앙에서 2개의 노지가 발견되었는데 길이 50cm, 폭 28-29cm, 깊이 10cm 정도의 포탄형이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편, 반월형석도, 석부, 석추, 숫돌, 어망추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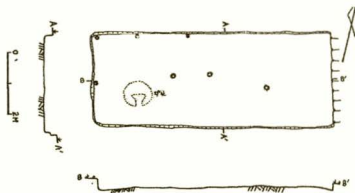
〈그림 3〉 제5호 주거지



3. 제8호 주거지

제8호 주거지는 주거지 벽면의 높이가 낮아 수혈이라기 보다는 토실로 구분하고 있다. 길이 7.45m, 너비 3m, 주거지의 벽 중에서 가장 깊은 남벽의 깊이가 20cm이다. 바닥에는 10cm 두께의 적갈색점토가 깔려있으며 주공은 중앙에 3개 벽쪽으로 4개 등 7개가 발견되었다. 기둥의 배열에서 맛배지붕의 주거지임을 추정할 수 있다. 노지는 서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바닥을 10cm정도 파내고 그 위에 20cm정도의 점토를 입힌 U자 형태의 개량형이다. 출토된 유물은 갈색무문토기편, 석추, 석검편, 대석, 숫돌, 각종 스크레이퍼(scraper)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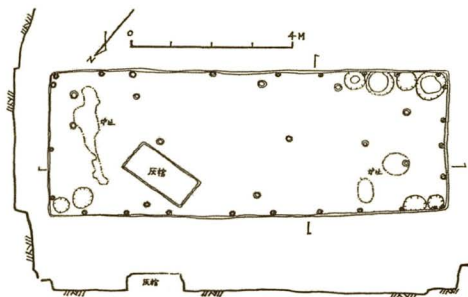
〈그림 4〉 제8호 주거지



4. 제12호 주거지

제12호 주거지는 다량의 탄화미와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이 출토되어 학계와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길이는 9.7m이고 너비는 3.5-3.7m, 깊이는 30-70cm로 장방형에 가까운 주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점토를 깔았다. 북동 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5열로 이루어진 39개의 수직공이 발견되었다. 노지는 동쪽에 1개, 서쪽에 2개가 있고 크기는 각각 $60 \times 45\text{cm}$, $70 \times 60\text{cm}$, $60 \times 40\text{cm}$ 의 타원형이다. 노지에서 주공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주거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주공이 있던 자리에 노지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노지 부근에서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저장공으로 짐작되는 곳도 7개가 발견되었다. 저장공은 주거지 바닥을 10-15cm 깊이로 오목하게 파서 만들었는데 큰 것은 직경이 75cm내외이고 중간 것은 50cm, 작은 것은 35cm내외의 크기다. 출토된 유물은 단화된 곡물 외에 무문토기, 반월형석도, 마제석검, 석부, 석추, 방추차, 솥들 등이다. 이 주거지에서는 석기류의 보수 및 제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이 동쪽에 있고 토기류가 저장된 공간이 서쪽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남녀별 활동공간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

〈그림 5〉 제12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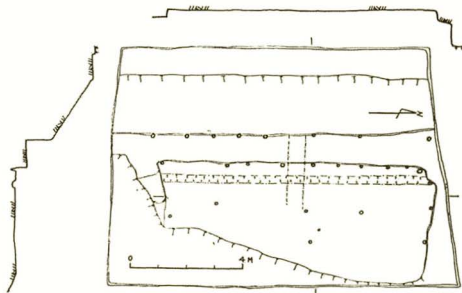
2) 박자연, 2002,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의 유물분포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제14호 주거지

제14호 주거지는 길이 10m, 너비 4.2m의 장방형으로 특이하게 바닥보다 20cm 높은 곳에 1m폭의 평평한 선반부가 조성되어있다. 지표면에서 바닥까지는 약 1.4m이고 바닥에는 10cm두께의 점토가 깔려있다. 노지는 없었고 27개의 주공이 발견되었다.

주거지 내부를 구분하는 칸막이벽이 있는데 길이 2m, 폭 60cm, 높이 90cm정도이며 모래가 많이 섞인 보통 흙을 단단히 다져 만들었다. 무문토기, 이망추, 석부, 석추, 석창, 대팻날, 석봉, 고석, 숯, 돌, 반월형석도, 스크레이퍼와 함께 약간의 탄화미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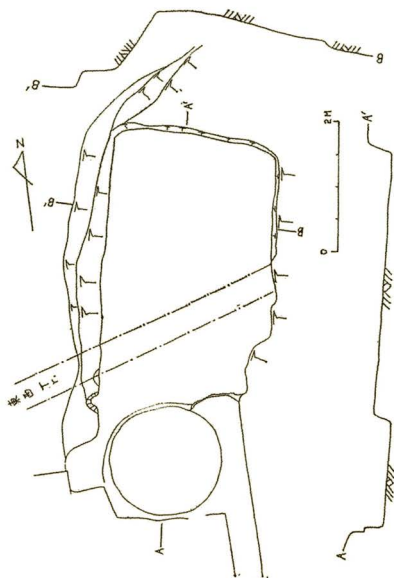
〈그림 6〉 제14호 주거지



6. 제15호 주거지

제15호 주거지는 남쪽 부분이 파괴되어 북벽과 동서벽의 일부만 남아있다. 벽면의 높이는 서벽이 50-60cm, 북벽이 35-40cm로 소위 반수혈 주거지로 추정된다. 바닥은 풍화된 암반층에 진흙을 얇게 깔았다. 다른 부대시설을 없었고 직경 1.6m, 깊이 30cm정도의 원형공이 있으며 바닥면과 다른 부식 사질토가 20cm정도 쌓여있다. 출토물은 공렬문토기편, 이망추, 반월형석도, 고석, 대석, 석부, 석추, 대팻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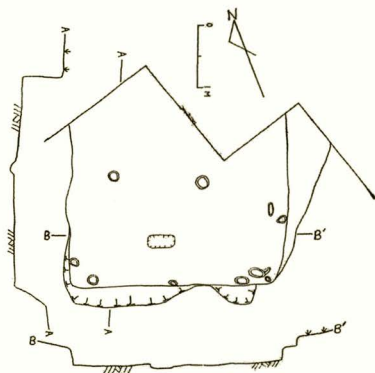
〈그림 7〉 제15호 주거지



7. 제16호 주거지

제16호 주거지의 바닥은 지표면에서 1m-1.5m정도이고 뒷벽의 높이가 60cm내외로 주거지가 폐기된 이후 벽이 주거지 내부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은 10cm정도의 진흙을 깔았는데 불로 인해 검고 딱딱한 층으로 변모되어있다. 10개의 주공이 발견되었으며 크기는 직각이 8-20cm, 깊이가 5-10cm정도이다. 노지는 없었고 모서리에서 숫돌과 석기편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석기제작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8〉 제16호 주거지



지금까지 살피본 혼암리 주거지의 구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혼암리 주거지의 구조

수혈형 EH								
	평면형	장 축	길이(cm)	너비(cm)	넓이(m)	너비/길이	깊이(cm)	바닥
欣岩里 1호	장방형	북서-남동	820	420	34.4	1.95	-80 -30	진흙
2호	(장방형)	(동-서)	690	동240 서320			-120	진흙
3호	(장방형)	(동-서)	570	동250 서390			-25~30	진흙
4호	장방형	동-서	(760)	450			-85	백회색점토
5호	장방형	남-북	(470)	393			-15	덧자리
6호	장방형	남-북	(780)	(200)			-35	진흙
7호	장방형	남-북	(960)	(280)				진흙

	수 혈 형 EH							
	평면형	장 축	길이(m)	너비(cm)	넓이(m ²)	너비/길이	깊이(m)	바닥
欣岩里 8호	장방형	동-서	745	300	22.4	2.48	-6 -15 -20	진흙
9호	장방형	남-북	705	355	25.0	1.99	-20	부분진흙
10호	장방형	남-북	445	260	11.6	1.71		
11호	(장방형)	남-북	(496)	(245)			-24	다짐
12호	장방형	북동-남서	970	350 370	34.9	2.70	-70	부분진흙
13호	장방형	남-북	700	(280)			-20 -60	부분진흙
14호	장방형	남-북	1000	(420)	(42)	(2.38)	-30	진흙
15호	(장방형)	남-북		260			-50~60 -35~40	진흙
16호	(장방형)	남-북		340			-60	진흙

8. 주거지의 입지 및 형태와 인구

혼암리 주거지는 남한강에 인접한 해발 123m의 산 능선을 따라 형성되어있다. 제1-3호 주거지는 남북으로 뻗은 산의 능선에 위치하고 제4호-16호 주거지는 동서방향의 능선에 열을 지어 자리하고 있다. 수혈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무문토기시대에 속하는 주거지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이 등고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L자형의 주거지 평면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높은 쪽에 생기는 벽면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사시대 주거지면적의 크기는 거기서 기거하는 사람의 숫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사시대 주거지의 인구는 주거지의 면적은 1인당 주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김정기는 그의 ‘한국수혈주거지고(2)’에서 즐문토기시대에 성인 1인이 필요로 하는 주거면적을 4.5m², 무문토기시대에는 5m²로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혼암리 주거지의 인구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한 사람당 주거면적을 3m²로 설정하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

〈표 3〉 혼암리 주거지의 인구

住 居 址	面 積(m)	人 口 數(名)	
		5㎡ 기 준	3㎡ 기 준
欣岩里 1호	34.4	7	11
2호	(22.1)	4	7
3호	(22.2)	4	7
4호	(34.2)	7	11
5호	(18.5)	4	6
6호	(15.6)	3	5
7호	(26.9)	5	9
8호	22.4	4	7
9호	25.0	5	8
10호	11.6	2	4
11호	(12.2)	2	4
12호	34.9	7	12
13호	(16.2)	3	5
14호	42.0	8	14

Ⅲ. 출토유물

1. 토기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에 위치한 토질 좋은 구릉에서 살았다. 이를 반증하듯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토기들은 강모래가 많이 섞인 점토질 무문토기(無文土器)가 대부분이다. 무문토기는 신석기시대 보다 둥근 측면 곡선이 유려하여 아름답다.

혼암리 유적에서는 총 364점의 구연부편(口緣部片)이 발견되었다. 주거지 별로 출토된 토기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혼암리 유적 출토 무문토기 구연부편 양식 일람표

주거지	A	A+B	C	B+C	D	B+D	C+D	B+C+D	기타	계
1호	12	2	10	2	8				2	36
2호	16	4	4	1	3			1		29
3호	1				1				1	3
4호	3		4							7
5호	2	1	2					1		6
6호	4		4	1						9
7호	1	1	1			1				4
8호	1									1
9호	26	2	25		15				1	69
10호										0
11호	10	1	3		2			1		17
12호	40	18	35	28	7			1		129
13호			2	1	1		1			5
14호	14	3	8		5	1				31
15호	7	1	8							16
16호	1		1							2
계	138	33	107	33	42	2	1	4	4	364

제4호, 제6호, 제7호 주거지에서 구연부편 외에도 다량의 토기조각들이 발견되었다.

1) 제4호 주거지 토기편

(1) 무문토기 구연부편

복원이 가능한 토기는 없었고 모두 파편으로 주거지내의 풍화된 암반층에서 8조각이 발견되었다. 구연의 양식은 거의 직립하고 1점만이 밖으로 벌어져 있다. 색조는 황갈색, 흑갈색, 명갈색을 띠고 있는데 황갈색이 5점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태토는 굵은 모래알이 섞인 점토질의 전형적인 무문토기 태토질로 그 소성도(燒成度)³⁾는 낮은 편이다. 또한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편 2점이 출토되었는데 입술부에 톱니형 모양을 새겼고 직경 0.6cm의 작은 구멍을 약 2cm간격으로 밖에서 안을 향해 뚫었다.

3) 소성도 : 토기를 굽는 온도.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소성온도는 800-850℃ 정도이다.

(2) 무문토기 저부편(底部片)

주거지 내 풍화된 암반층에서 7점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좁고 평평한 바닥에 몸체의 아가리 부분이 차츰 벌어지는 나팔형의 토기로 성형은 둥근 흙테를 파리 모양으로 쌓는 적륜법(積輪法)을 사용하였으며 소성도는 높지 않았다. 태토는 굵은 모래가 섞인 점토질로 황갈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몸통 파편이 59점 출토되었으나 복원이 가능한 토기는 없었고 주로 0.5-0.8cm 두께를 가지고 있다.

2) 제6호 주거지 토기편

(1) 무문토기 구연부편

19점의 토기조각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편이 8점이다. 구연은 1점 만이 밖으로 벌려져 있고 나머지는 곧게 올라와 있다. 태토는 모래입자가 섞인 전형적인 무문토기 태토로 소성도는 아주 낮았다. 황갈색의 색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토기의 두께는 0.5-0.7cm로 얇은 편이다. 4호 주거지에 비해 유공렬문토기의 구연부편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하단에 2.5-3cm 간격으로 직경 0.3-0.5cm의 구멍이 뚫려있다.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뚫은 2가지 흔적이 보인다.

(2) 무문토기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래알이 거의 없는 비교적 양질의 점토질로 그 소성도가 높아 토기벽이 매우 단단했다. 색조는 명갈색으로 아랫부분의 직경이 4.6cm인 소형 토기다.

(3) 무문토기 동부편(胴部片)

몸체의 두께가 0.5-1cm 정도인 다양한 토기조각이 출토되었으며 황갈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3) 제7호 주거지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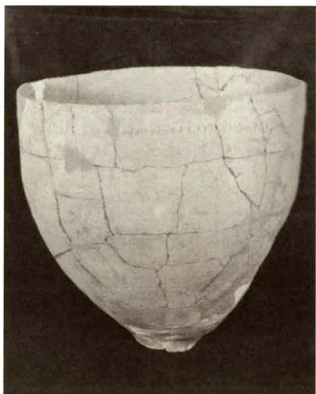
복원이 가능한 무문토기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기조각이 출토되었다.

(1) 무문토기광구호(廣口壺)⁴⁾

주거지의 서벽에서 23cm, 북벽에서 2.5m 떨어진 내부에 거꾸로 박힌 채 출토되었다.

4) 무문토기광구호 : 아가리가 큰 항아리형 토기.

〈사진 1〉 제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무문토기광구호 화분형의 대형토기로 구경이 44cm, 높이 48.5



cm, 바닥 직경이 11cm, 두께가 0.9cm이다. 태토는 모래알이 섞인 전형적인 무문토기 태토질로 황갈색이며 상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새긴 흔적이 남아있고 구연부 바깥에는 1-1.3cm간격으로 평행단사선문양이 새겨져 있다.

(2) 무문토기 구연부편

6점이 출토되었으며 굵은 모래가 섞인 황갈색과 흑갈색의 토기 조각들로, 두께는 0.6-0.8cm정도이다.

구연은 1점 만 밖으로 벌어져 있고 나머지는 곧게 올라왔다. 공렬문토기 구연부조각이 3점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하단에 1-1.8cm간격으로 토기의 안팎 양쪽에서 뚫은 직경 0.5-0.7cm의

작은 구멍들이 나있다. 구연부 상단에 0.6-0.8cm간격으로 톱니형 모양이 새겨진 토기조각도 1점이 발견되었다.

(3) 무문토기 저부편

토기의 굽과 몸체의 아랫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들어간 전형적인 무문토기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토기 아랫부분의 직경은 8.2cm와 9cm이다.

2. 석기류(石器類)

1) 석부(石斧)

우리나라 즐문토기(櫛文土器)와 무문토기시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석부는 그 제작기법에 따라 타제석부와 마제석부로 양분되고 마제의 경우 양면날을 가진 석부와 외날을 가진 석부로 구분된다.

혼암리에서 출토된 석부류는 99점이다. 종류별로 보면 양도마제가 24점, 단도마제가 49점, 타제석부류가 26점이다.

(1) 양도마제석부류(兩刀磨製石斧類)

양도마제석부를 길이로 분류해 보면 9cm 이상 - 12cm 미만, 12cm 이상 - 15cm 미만, 15cm 이상의 것으로 나뉘어진다. 가공상태는 전면을 완전히 갈을 것은 소수이고 몸체에 타격의 흔적이 남은 것이 다수이다. 칼날 부분만을 간 석부도 있다. 용도는 땅을 파거나 식물의 뿌리를 캐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통나무를 자를 때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단도마제석부류(單刀磨製石斧類)

단도마제석부는 횡단면의 형태에 따라 편평하고 납작한 것과 둥그스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길이는 긴 것은 11.8cm, 짧은 것은 3.8cm로 다양하며 폭은 2.9-6.6cm 정도이고 두께는 0.5-2.2cm 정도이다. 몸체를 완전히 간 것은 드물고 측면을 갈아내되 칼날과 측면의 각을 유지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인다. 자연석의 한쪽 면을 이용하거나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칼날을 만든 석부도 몇 점 있다. 용도는 농경과 관련된 이차적인 작업, 즉 도구의 제작이나 나무가공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3) 타제석부류(打製石斧類)

타제석부는 길이 6.3-19cm, 폭은 1.9-9.8cm, 두께는 1.1-6.4cm 정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용도는 화전농업과 관련하여 땅을 팔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탄화미의 발견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⁹⁾

2) 석검(石劍)

마제석검은 칼의 몸체인 검신(劍身)에 자루[柄] (사진 2) 혼암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마제석검류가 붙어있으면 유병식(有柄式), 습배[莖]가 붙어있으면 유경식(有莖式)으로 나뉜다. 유병식은 손잡이의 단(段)의 유무에 따라 단이 없으면 일단병식(一段柄式), 단이 있으면 이단병식(二段柄式)으로 분류한다. 또한 검신에 있는 혈구(血溝; 피홈)의 유무에 따라 유혈구식(有血溝式)과 무혈구식(無血溝式)으로 구분한다. 혼암리의 경우 제1호 주거지에서 단면 능형(菱形; 마름모)의 검신조각 2점,



9) 최몽룡·박순발, '여주혼암리 선사취락지 출토 석기류 II' 1984, 1-11쪽.

제8호 주거지에서 검신조각 1점, 제12호 주거지에서 이단병 무혈구식 3점, 유혈구 검신조각 3점 등 모두 7점이 나왔다. 지표면에서 렌즈형 검신조각 2점과 이단병식 병부조각 1점이 출토되었다.

3) 석촉(石鏃)⁶⁾

제4호 주거지 35cm지표 아래 풍화된 암반층에서 석촉 2점이 출토되었는데 스펀지가 약간 파손된 유경석촉으로 몸체 단면은 마름모꼴이고 석질은 청회색의 점판암이다. 각각의 길이는 7.6cm와 7cm이고 최대폭은 1.2cm와 1.6cm이다. 제6호 주거지에서도 석촉 1점이 출토되었다. 마름모꼴에 6각형의 봉상부(棒狀部)가 달린 형식상 매우 발달된 양식이다. 길이는 6.2cm, 폭은 1.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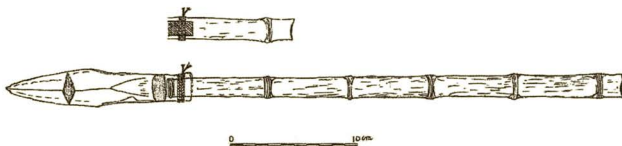
4) 환상석부(環狀石斧)

환상석부는 두꺼운 원판모양의 돌을 갈아서 날을 세우고 막대기를 끼우기 위해 중앙에 구멍을 뚫은 마제석기로 곤봉두(棍棒頭)의 일종이다. 혼암리에서 출토된 환상석부는 모두 6점으로 제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1점 만이 완전한 형태고 나머지는 부분 조각이다. 용도는 사냥용 무기거나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휘봉 등으로 여겨진다.

5) 석창(石槍)

석창은 구석기 시대 이후부터 사냥용 도구와 전쟁용 무기로서 활용되어 왔다. 혼암리 유적지 제14호 주거지에서 석창 1점이 출토되었다. 길이는 17cm, 폭은 5.5cm, 두께 0.7cm로 단면은 렌즈형이다. 양측면은 날을 세우지 않았으나 끝은 뾰족하다.

〈그림 9〉 석창의 복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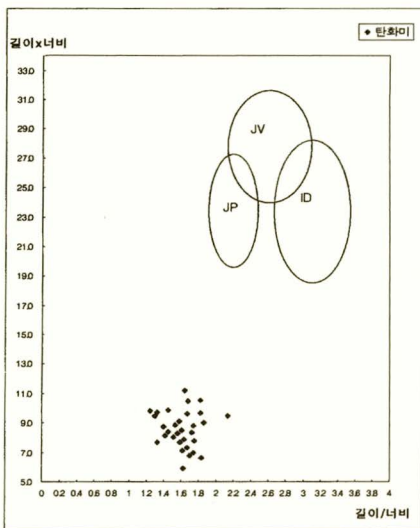


6) 석촉: 돌화살촉.

3. 탄화미(炭火米)

1977년에 있었던 혼암리 유적지 발굴 조사결과 제12호와 제14호 주거지에서 탄화된 상태로 쌀, 보리, 조, 수수 등이 발견되었다. 출토된 탄화미는 완전립이 31톨로 길이의 총평균이 $3.72 \pm 0.33\text{mm}$ 이고, 너비의 총평균이 $2.23 \pm 0.30\text{mm}$ 로 길이×너비 즉 넓이는 제12호 주거지 탄화미 평균이 $8.595 \pm 1.228\text{mm}^2$, 14호 주거지 탄화미 평균이 $8.19 \pm 1.350\text{mm}^2$ 로 아주 단립의 극소형이다. 이로 미루어 청동기시대의 쌀은 현대의 자포니카(Japonica)⁷⁾보다 형태는 더 둥근 편이며 크기는 아주 작은 단립 종임을 알 수 있다.⁸⁾

〈그림 10〉 여주 혼암리 탄화미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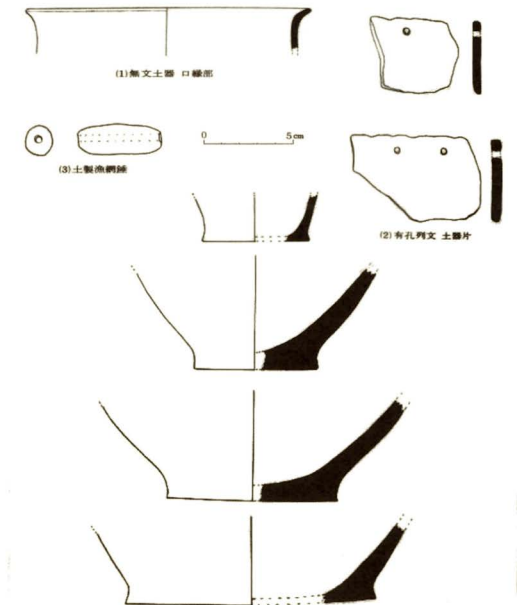
7) 자포니카 :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재배되는 모양새가 둥글고 굵은 단종립형 쌀.

8) 박정미, 한국선사시대 제배벼의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충북대학교원, 2001.

4. 어구(漁具)

혼암리 유적지 제4호, 제5호, 제14호, 제15호 주거지에서 그물을 가라앉힐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토제 어망추(漁網錘)가 출토되었다. 굵은 모래알이 섞인 태토질과 유사한 것으로 미리 본을 떠긴 축과 평행되게 구멍을 뚫은 다음 불에 구어 만든 유공토추(有孔土錘)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크기는 3.5-5.5cm이고 종단면 직경은 1.5-2.2cm이며 무게는 8-12g 정도이다.⁹⁾

〈사진 3〉 제4호 주거지 토제 어망추와 출토유물



9) 최몽룡, 한국선사·원사유적출토 어구류(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71, 31쪽.

IV. 유형(類型)의 분류

박순발은 청동기시대 연구단위로서 유형의 개념을 '동질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고학적 동시간대로 포괄될 수 있는 제작·사용 집단에 의해 제작·사용된 일련의 유구 및 유물군'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반도 중부지역의 전기 무문토기문화는 서북지방의 팽이형토기문화와 동북지방의 공렬토기문화가 남하하여 일정기간 공존하다가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이 형성되어 온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백규(1974)는 가락동유형을 북쪽 2지역의 무문토기 문화가 남하하여 서로 접촉이 없었던 시기로 파악하고 순수 팽이형토기가 발견되는 삼거리와 선유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역삼동유형은 가락동유형의 시기와 비슷하나 무문토기, 공렬토기, 즐문토기가 발견되는 교하리, 역삼동을 대표유적지로 보고 있다. 혼암리유형은 동북지역의 공렬토기와 서북지역의 팽이형토기가 결합 또는 공반(共存)되는 시기로 파악하고 혼암리, 미사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다.

이청규(1988)는 가락동유형을 서북부 지역의 신흥동식(팽이형토기)의 변형으로 보고 심발형에만 이중구연과 단사선이 시문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락동, 삼거리, 선유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역삼동유형은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적색연마토기가 공존하는 시기로서 역삼동, 교하리, 옥석리를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혼암리유형은 역삼동식 토기와 가락동식 토기가 공반하는 시기로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및 이중구연단사선토기가 결합된 특징을 보이며 혼암리, 미사리, 내곡동을 대표적 유적지로 보고 있다.

이형원(2002)은 가락동유형을 대동강유역 보다는 압록강과 청천강유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역삼동과 혼암리유형을 서로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별개의 집단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함께 묶어 분류하고 있다.

살펴보았듯이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이 일목요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지의 발굴범위도 협소하고 출토된 유물의 양상도 시기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특정한 시기·문화·계통 등을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거지·토기·석기 등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지를 비교하여 유형을 분류해 보는 것은 전기 청동기시대에 있어서 여주 혼암리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1〉 토기상으로 본 유형 정의

유형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	
			I	II
토기				
				

〈그림 12〉 석기상으로 본 유형 정의

석기		석 축	석 점	석 도	석 부
유형	가 락 동				
	역 삼 동	  	 		 
혼 암 리	I	 		 	   
	II	 	 		  

〈그림 13〉 주거지상으로 본 유형 정의

유형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	
			I	II
주거지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혼암리유형을 주거지와 출토물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유형별 주거지 형태와 출토물

가. 가락동유형

- 토 기 : 이중구연, 단사선문이 한 개체에 복잡 시문되거나 각각 시문됨.
- 석 기 : 삼각만입촉, 장주형석도, 사릉부
- 주거지 : 평면형태 장방형 · 방형주거지, 위석식노지, 주공, 초석, 저장공 설치

나. 역삼동유형

- 토 기 : 공렬문
- 석 기 : 삼각만입촉 · 이단경촉 · 일단경촉, 이단병식 · 일단병식석검, 단주형석도, 원통부
- 주거지 : 평면형태 세장방형 · 장방형주거지, 노지 설치

다. 혼암리유형

· I 유형

- 토 기: 공렬문과 이중구연 · 단사선문이 한 개체에 복합 시문됨
- 석 기: 삼각단입촉 · 이단경촉, 이단병식석검, 정주형 · 단주형석도, 원통부 · 사릉부
- 주거지: 평면형태 세장방형 · 장방형주거지, 노지, 주공, 저장공 설치

· II 유형

- 토 기: 공렬문과 이중구연 · 단사선문이 시문된 각각의 개체가 한 유구에 공반
- 석 기: 삼각단입촉 · 이단경촉, 이단병식 · 일단병식석검, 단주형석도, 원통부 · 사릉부
- 주거지: 평면형태 장방형주거지, 노지 설치

V. 결론

아득한 옛날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 이래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삶의 모습은 부단히 변모를 거듭해 왔다. 기원전 1,000년 경부터 시작된 청동기시대는 이전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영위되어 온 사냥, 채집, 물고기와 조개잡이 등이 생업활동의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혼암리 제12호 거주지에서 발견된 탄화미, 보리, 조, 수수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사용 도구로 보이는 유물들은 혼암리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 저 나무를 잘라내고 목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도끼류와 땅을 파는 도구인 보습,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반달갈, 곡식을 가공할 때 쓰이는 갈판과 공이,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그러한 유물들이다. 혼암리 유적발굴에서 당시의 농사법을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취락이 조성되면서 정주성(定住性)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 지금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쌀 생산지인 만큼 화전경작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 제12호 주거지 아래쪽으로 논밭의 유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남한강에서 퇴적된 사질의 충적층을 이용한 밭농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농사법이 존재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청동기시대 유형별 분류를 통해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과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은 한반도 북쪽에서 중부지방으로 확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혼암리유형은 독자적 특성을 담보할 만한 유물들의 부족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역삼동유형과 함께 취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혼암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물들이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음은 차후 발굴성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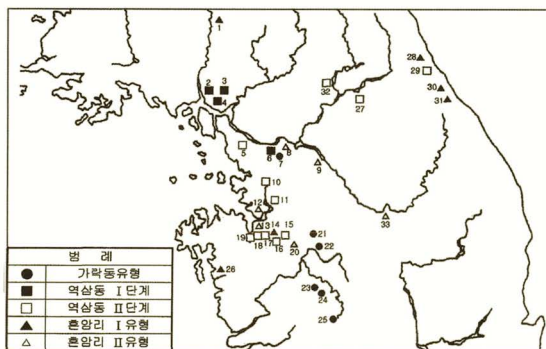
따라 혼암리유형의 독자성이 드러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연구자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청동기시대 혼암리유형이 한강 하류유역의 가락동유형이나 역삼동유형에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여 여주 혼암리유형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주 남한강 가에서 우리 여주인의 선조들이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4년 혼암리와 인접한 여주읍 연양리에서 1,784점의 구석기시대 석기가 출토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지층의 퇴적물을 대상으로 OSL(광자기 루미네센스) 연대측정을 한 결과 $63,000 \pm 4,000$ BC 와 $67,000 \pm 3,000$ BC의 연대값을 얻었다. 이는 연양리 남한강 가에서 발견된 석기류가 적어도 65,000년 전 구석기시대의 유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가에서는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시대 보다 더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아득한 과거가 우리의 우리와 무관하지 않듯이 우리의 오늘도 저 먼 미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계속 발견될 앞선 시대의 유물과 유적들 속에서 새로운 역사의 실마리들이 풀리기를 고대한다.

〈그림 14〉 유형별 유적분포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박물관, 1974, 혼암리 주거지
- 세종대학교박물관, 2004, 여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여주군사편찬위원회, 2005, 여주군사
- 한국구석기학회, 2005, 한국구석기학보 제11호
- 최몽룡, 1971, 한국 선사·원사 유적지출토 어구레(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몽룡외 1인, 1984, 여주 혼암리 선사취락지,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 최몽룡외 1인, 1985, 여주 혼암리 선사취락지 출토 석기류II,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박정미, 2001, 한국 선사시대 채배벼의 특징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김장석, 2001, 혼암리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
- 신숙정, 2001,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생업경제, 한국상고사학보 제35호
- 이형원,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박자연, 2002, 청동기시대 주거지 내의 유물분포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이상균, 2003, 한반도 신석기시대 주거의 변천과 구조적 양상
- 궁리수, 2005, 무문토기시대의 취락구성, 한국고고학보 제56집
- 황은순, 2006, 한반도 중부지역 전기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
- 장성희, 2006, 보존 및 복원된 선사시대 주거유적의 전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 대학원, 석사논문
- 백승화, 2007, 한국 청동기시대 중부지역의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문화유형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형원,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김선우, 2011, 한국 마제석검의 연구현황

하남의 도미나루가 시사(示唆)하는 백제도성(百濟都城)

이 강 범 (하남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목 차

- I. 서언
- II. 도미설화의 내용
 - 1. 원문
- III. 설화의 의문점
 - 1. 백제 개루왕 시대
 - 2. 도미의 신분과 주거지
 - 3. 도미를 눈멀게 하여 작은 배로 물위에 띄워 보내고,
도미부인이 도망하였던 강구는 어느 강인가?
 - 4. 천성도와 산산의 현재지명
- IV. 지역별 도미설화
 - 1. 하남의 도미나루
 - 2. 다른 지역의 도미설화
 - 3. 하남의 도성소재 당위성
- V. 결론

집필자

이 강 범

하남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 전 농협중앙회 수원·광주(廣州)지부장,
논문「하남의 독립운동사」 발표

I. 서언

도미나루는 삼국사기 권 제48열전 제8에 실려 있는 ‘도미전(都彌傳)’의 설화에서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나루터의 이름이다.

도미전설은 삼국사기 원전의 기록내용에서 조금씩 다르게 각색되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왔으며 소설 잡지 영화 등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도미전설을 테마로 한 연극과 뮤지컬의 분야에서도 공연되고 있다.

그런데 도미나루가 지금의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주장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별로 ‘하남 도미나루 전설’, ‘김해 웅천 도미전설’, ‘보령 도미전설’, ‘서울 송파나루 도미전설’ 등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나루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성백제 시대의 지배권역과 각종 문헌의 기록 및 학술대회 등의 토론내용으로 보아 하남 도미나루 전설 이외의 전설은 지역설정이 삼국사기의 설화내용과 배치되거나 문헌기록의 빈약성 및 지역 전설내용에만 의존한 장소설정에서 기인하는바가 크며 어떤 지역의 전설은 아예 근세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의 도미설화 내용을 살펴본 후 하남 도미나루가 도미설화에서 유래된 지명임을 밝혀주는 각종 문헌 및 지도의 기록표시와 하남 도미나루를 대상으로 기록한 개인문헌자료를 종합하여 현재의 도미나루 위치를 알아본 다음 다른 지역의 도미나루와 장소적 사실관계의 비교우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삼국사기 도미설화 원문내용에서 하남 도미나루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해석을 제시한다.

이제 도미나루에 대한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할 때 하남의 도미나루가 도미설화 내용상의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천성도로 향하였던 그 나루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자는 삼국사기의 도미전이 한성백제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전승 되어온 설화라고 한다면 하남에 도미나루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로 또 다른 역사의 숙제를 풀어주는 열쇠의 기능에 착안하였다.

그것은 한성백제의 도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하남의 춘궁동소제설(春宮洞所在說)과 서울의 풍납토성소제설(風納土城所在說)이 그것이다.

춘궁동소제설은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여 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사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춘궁동소재설을 믿어오고 있었지만 현재 사학계의 주류는 88서울 올림픽을 전후한 몽촌토성발굴로 몽촌토성소재설로 돌아서더니 이어서 행하여진 풍납토성발굴에서는 다시 풍납토성소재설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바뀌어진 이유는 백제 초기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인데 도성의 실재를 밝혀줄 결정적 유물도 아니고 그냥 유물이 좀 나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춘궁동소재설은 또 다른 사학자들로부터 여전히 그 주장의 일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눈점은 하남 도미나루의 존재가 한성백제의 춘궁동 소재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도미부인이 도성에서 왕에게 재치와 기지에 찬 핑계로 도성을 빠져나와 도피하려고 택 하였던 하남의 도미나루는 당시 도성으로 추정되는 춘궁동과 풍납토성을 비교할 때 거리가 가까운 춘궁동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풍납토성에서는 대부분 주변의 나루나 한강하류 쪽을 선택함이 상식인데 반하여 상류인 하남의 도미나루까지 걸어 나와 배를 타고 다시 하류인 풍납동 주변 강변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피자의 심리 속성은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안전하게 멀리 이탈하려는 것인데 도미나루 관점에서의 풍납토성은 이러한 심리속성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미부인은 당시도성인 하남의 춘궁동 도성에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성백제의 도성이 풍납토성이라는 주장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한성백제 도성의 위치 연구에서 도미나루가 전향적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II. 도미설화의 내용

삼국사기 권48 열전 제8의 도미설화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도미(都彌)는 백제 사람이다. 그는 비록 범속한 평민이었지만 자못 의리를 알았으며 그의 아내 도 이름답고 고왔을 뿐만 아니라 행실에 절조가 있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개루왕(蓋婁王)이 이를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다.

“무릇 부인네의 덕성으로는 비록 정조가 곧고 깨끗한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만약 아무도 없는 으스스하고 어두운 곳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여자는 드물 것이니라.”

도미가 대답하였다.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지만 제 아내 같은 이는 비록 죽더라도 변함없을 사람입니다.”

왕이 시험해보고자 하여 도미에게 일을 주어 머물게 하고 가까운 한 신하를 시켜서 거짓으로 왕의 옷과 말과 시종을 갖추어 밤에 도미의 집으로 가게 했으며 미리 사람을 보내 왕이 온다고 알렸다. 왕으로 가장한 이가 도미의 아내를 보고 말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너의 아리따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를 해 너를 차지하게 되었다. 내일 너를 들어 궁녀로 삼을 것인즉 지금부터 너의 몸은 나의 것이다.”

드디어 음행하려 덤벼들자 도미의 아내가 말하였다.

“국왕께서 명령된 말씀을 하실 리 없사오니 제가 감히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에 드소서. 저는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물러나와 여중 하나를 갖가지로 꾸며 들여보냈다. 왕이 뒤에 숨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에게 죄를 들춰워 두 눈을 멀게 하여서 사람을 시켜 끌어내 작은 배에 실어 강물에 띄워버린 다음 마침내 그의 아내를 끌어들여 강제로 음행하려 하였다. 그녀가 왕에게 말하였다.

“지금 저는 이미 남편을 잃고 홀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다가 하물며 왕의 사랑을 일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월경중이라 온몸이 더러워져 있사오니 다른 날에 깨끗이 목욕한 뒤에 다시 오겠사오니 기다려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왕이 그 말을 믿고 허락하였다. 그녀는 곧바로 달아나 강구에 이르렀으나 건널 수 없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자 홀연히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오는지라 그녀가 이를 잡아타고 천성도(泉城島)에 도착해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남편을 만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목숨을 보존하다가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蒜山)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은 종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를 떠돌다가 일생을 마쳤다.

1. 原文(원문)

都彌百濟人也(도미백제인야) 雖編戶小民(수편호소민) 而頗知義理(이파지의리) 其妻美麗(기차미려) 亦有節行(역유절행) 爲時人所稱(위시인소칭) 蓋婁王聞之(개루왕문지) 召都彌與語曰(소도미여어왈) 凡婦人之德(범부인지덕) 雖以貞潔爲先(수이정결위선) 若在幽昏無人之處(약재유혼무인지처) 誘之以巧言(유지이교언) 則能不動心者鮮矣乎(척능부동심자선의회호) 對曰(대왈) 人之情不可測也(인지정불가측야) 而若臣之妻者(이약신지처자) 雖死無貳者也(수사무이차야) 王欲試之(왕욕시지) 留都彌以事(유도미이사) 使一近臣(사일근신) 假王衣服馬從(가왕의복마중) 夜抵其家(야저기

가) 使人先報王來(사인선보왕래) 謂其婦曰(위기부왈) 我久聞爾好(아구문이호) 與都彌博得之(여도미박득지) 來日入爾爲宮人(내일입이위궁인) 自此後爾身吾所有也(자차후이신오소유야) 遂將亂之(수장란지) 婦曰(부왈) 國王無妄語(국왕무망어) 吾敢不順(오감불순) 請大王先入室(청대왕선입실) 吾更衣乃進(오경의내진) 退以雜飾一婢子薦之(퇴이잡식일비자천지) 王後知見欺(왕후지견기) 大怒(대노) 誣都彌以罪(무도미이죄) 躍其兩眸子(각기양모자) 使人牽出之(사인견출지) 置小船泛之河上(치소선범지하상) 遂引其婦(수인기부) 強欲淫之(강욕음지) 婦曰(부왈) 今良人已失(금양인이실) 單獨一身(단독일신) 不能自持(불능자지) 況爲王御(황위왕이) 豈敢相違(기감상위) 今以月經(금이월경) 渾身汗穢(혼신한예) 請俟他日薰浴以後來(청사타일훈욕이후래) 王信而許之(왕신이허지) 婦便逃至江口(부편도지강구) 不能渡(부능도) 呼天慟哭(호천통곡) 忽見孤舟隨波而至(홀견고주수파이지) 乘至泉城島(승지천성도) 遇其夫未死(우기부미사) 掘草根以喫(굴초근이끼) 遂與同舟(수여동주) 至高句麗蒜山之下(지고구려산산지하) 麗人哀之(여인애지) 丐以衣食(개이의식) 遂苟活(수구활) 終於羈旅(종어기러)

III. 설화의 의문점

1. 백제 개루왕 시대

설화 내용에서 시대의 배경을 제4대 개루왕(蓋婁王: 재위:128-166)으로 설정하였고 마지막에 도미부인이 백제를 탈출하여 고구려 천성도로 갔다고 하였는데 한강에서 작은 배로 고구려 땅으로 들어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개루왕 시대에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낙랑이나 대방이 있었기 때문이며¹⁾ 천성도(泉城島)나 산산(蒜山)이라는 지명도 당시에는 어을매곳(於乙買串: 泉井口) 매시달(買尸達: 蒜山) 등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한편 삼국사기 개루왕의 기록에서는 성품이 공순하고 바른 몸가짐의 왕이었다고 하고 있어 설화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21대 개로왕(蓋鹵王: 재위:455-475)의 시대였다고 본다.

개로왕은 근개루왕(近蓋婁王)으로도 불리었기 때문에 근개루왕을 개루왕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 이병도,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개로왕시대라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대치하였고 475년에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백제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개로왕이 바둑을 즐겼으며 고구려의 첩자 도림의 꼬임에 넘어가 성곽을 보수하고 호화로운 궁실을 다시 짓고 연하수언(緣河樹堰) 등 무리한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등 현저한 실정을 범하였으며 호방하고 과격한 성격과도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도미의 신분과 거주지

도미의 신분을 편호소민(編戶小民)으로 설정하여 호적에 등재된 범속한 평민이라고 하였으나 도미는 몇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사는 부유계층이었다.

도미부인의 집을 방문하였던 가짜 왕에게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여보낸 것으로 보아도 일반 평민은 아니고 왕실과의 연이 있는 실권한 권력가로 왕과도 알고 지별만한 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1729년(영조5) 중간(重刊)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서는 '도미라 하는 사람은 백제나라 벼슬하는 조사(朝士)라' 하여 도미의 신분을 격상시킨 경우도 있었다.

거주지는 도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는 가짜 왕이 하룻밤에 도착할 거리였기 때문이다.

3. 도미를 눈멀게 하여 작은 배로 물위에 띄워(置小船泛之河上) 보내고 도미부인이 도망 하였던 강구(婦便逃之江口)는 어느 강인가?

어느 강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한성백제 도성 인근의 강이 분명하므로 이는 한강임에는 틀림없다. 도미부인이 도망하여 도착한 강구(江口)를 강어귀로 보아 바닷가를 연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가에 이르는 곳을 말하며 하남의 덕풍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근처 나루터 부근을 강구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천성도(泉城島)와 산산(蒜山)의 현재 지명

1) 천성도(泉城島)

도미부인이 탈출하여 도미나루에서 배를 타고 고구려 천성도에 이르러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편 도미를 상봉하였는데 그러면 지금의 어느 지역이며 문헌의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천성도는 도미부부가 각자 시차를 두고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배가 멈추어 섬으로 상륙한 곳으

로 고구려 지역이었던 한강하류의 어느 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도수회 고수는 입진강과 한강의 합수지점인 교하와 파주지역에 천성도와 산산에 비유할 지역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²⁾

즉 삼국사기 권제37 잡지 제6 지리4 고구려 백제 조(條)에 지명이 열거되고 있는데 한산주(漢山州) 기록에서 천정구현(泉井口縣)을 어울매곳(於乙買串)이라고도 한다.(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라는 기록이 있으며 천성도는 천(泉)자를 접두하고 있는데 한강하류의 지명가운데 천(泉)자를 접두하고 있는 천정구(泉井口)라는 지역이 있다.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은 백제와 고구려의 고유지명이 어울매곳(於乙買串)인데 오늘날의 파주 교하(交河)지역이다.

삼국사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2 신라 조(條)에서 정천군(井泉郡)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泉井郡)인데 문무왕21년(681)에 빼앗고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으니 지금의 용주(湧州)이고 거느린 현은 셋이다.(井泉郡 本高句麗 泉井郡 文武王21年 取之 景德王 改名 築 炭項關門 今湧州 領縣三) 라고 하였으며, 거느린 세 개의 현은 산산현(蒜山縣) 송산현(松山縣) 유거현(幽居縣)으로 열거하면서 산산현(蒜山縣)은 본래 고구려 매시달현(買尸達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송산현(松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부사달현(夫斯達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하였고 유거현(幽居縣)은 본래 고구려의 동허현(東墟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은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교하군(交河郡)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泉井口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거느리는 현은 둘이다.(交河郡 本高句麗 泉井口縣 景德王 改名 今因之 領縣二) 하여 거느린 현이 이번에는 두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봉성현(峯城縣)과 고봉현(高峰縣)이다.

봉성현(峯城縣)은 본래 고구려의 술이홀현(述兪忽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고봉현(高峰縣)은 본래 고구려 달을성현(達乙省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부른다.

그런데 봉성현(峯城縣)은 지금의 파주시 주내면 일원의 옛 파주목(坡州牧)을 이르며³⁾ 고봉현(高峰縣)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봉산(高峰山) 일원으로 고봉산은 비교적 크진 않지만 신라 때부터 이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따라서 신라시대의 교하군(交河郡)은 인근에 있는 현재의 파주시지역과 고양시지역을 관할하는

2) 도수회,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 2009.

3) 신증 동국여지승람 제11권 파주목條 파주를 액봉(峽蓬), 파평(坡平), 봉성(峯城), 영평(鈴平), 술이홀(述爾忽), 서원(瑞原), 원평(原平), 곡성(曲城) 등으로 불림.

4) 『두산백과』, 경기고양시 일대의 통일신라 행정구역명.

군(郡)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어을매곶(於乙買串 : 고구려)=천정구현(泉井口縣 : 고구려)=천정군(泉井郡 : 고구려)=정천군(井泉郡 : 신라)=교하군(交河郡 : 신라)으로 바뀌어 갔으며 현재의 파주시 교하면 주변 지역이다.

신라 때의 정천군(井泉郡)은 영현(領縣) 즉 속현(屬縣)으로 산산현(蒜山縣=買尸達縣) 송산현(松山縣=夫斯達縣) 유거현(幽居縣=東墟縣)의 3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현의 현재 위치는 알 수 없고, 신라 때의 교하현(交河縣)은 영현(속현)으로 봉성현(峯城縣=述余忽縣)과 고봉현(高峰縣=達乙省縣)의 2개의 현을 관할하였는데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면 봉성현은 파주시 주내면의 옛 파주목(坡州牧) 부근지역이며 고봉현은 고양시 일산의 고봉산(高峰山) 주변지역이다.

도수회 교수는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에서 “어을매곶(於乙買串)의 어원을 풀이하면 어을(於乙 : 열)의 뜻은 천(泉)이고 매(買)의 뜻은 물(水, 河)이며 곶(串 : 고지)은 구(口)의 뜻이므로 고구려에서 천정구(泉井口)로 1차 한역(漢譯)하였고 신라경덕왕이 교하(交河)로 다시 2차 한역(漢譯)한 것인데 교(交)의 옛 새김이 ‘열’로 어우러짐의 뜻이고 하(河)는 물이니 결국 본래의 열매(於乙買)를 다른 한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곳의 지세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물이 ‘어르는 곳’(交流處)이라는 뜻의 교하(交河)가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천성도(泉城島)는 교하지역에 성(城)이 있는 섬(島)이라는 뜻인데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현재 천성도로 추정하는 두개의 지역이 있는데 오두산(鰲頭山)과 일미도(一眉島)가 있다.

먼저 교하지역에는 탄현면 성동리에 오두산(鰲頭山 : 해발110m)이 있는데 통일전망대가 들어선 그 산이다.

오두산(鰲頭山 : 자라머리 산)은 북, 서, 남 삼면이 해구로 둘러쳐진 성산(城山)으로 조선전기 지리지인 고려사지리지와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오도산(烏島山)으로 동국여지승람과 17세기 동국여지지에는 오도산성(烏島山城)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8세기 여지도서에는 오두산(鰲頭山)으로 개칭된 이후 19세기 대동지지에 오두산(烏頭山)으로 표시되기도 하면서 현재는 오두산(鰲頭山)으로 사용되고 있다.⁵⁾

이렇듯 예전에는 오도(烏島 : 까마귀 섬)라는 말처럼 사방이 해수로 둘러쳐진 섬이거나 홍수 때에만 물이 차올라 섬이 되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의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오두산성을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으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

그것은 도미설화에서 천성도(泉城島)를 섬으로 칭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지리지에서도 오도산

5)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으로 기록.

(鳥島山) 오도산성(鳥島山城) 등으로 섬으로 부르고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즉위 원년 신묘년(391년) 10월에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시켰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관미성을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고 바닷물이 둘러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누어 20일 동안 공격해서야 함락시켰다.' 하였으니 당시에도 섬으로 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676년(문무왕 15년)에 신라는 삼국통일을 완성하였는데 675년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로 전쟁을 종결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니 9월에 있었던 천성(泉城: 오두산성)과 매초성(買肖城: 연천 대전리 토성)의 2번의 전투와 이듬해 11월에 있었던 기벌포(伎伐浦: 서천장항을 장암포구)전투이다.

먼저 설인귀가 숙위학생(宿衛學生) 풍훈(風訓)의 아버지 김진주(金眞珠)가 신라에서 처형된 것을 기화로 풍훈을 길잡이 삼아 천성(泉城)에 쳐 들어 왔는데 신라 장군 문훈 등이 맞받아 싸워 승리하여 당군 1,400여명을 목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다.⁷⁾ 여기서 천성(泉城)이라고 기록하였다. 천성은 당시 교하군의 성(城)으로 한강과 임진강의 교차지점에 있는데 먼저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취한 관미성(關彌城)인데, 다시 신라가 빼앗아 천성(泉城)이라 하였으니 이곳 지형이 섬인관계로 천성도(泉城島)라고도 자연스레 불리었을 것이다.

그 섬에 도미부부가 우연히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기선(機先)을 잡아 임진강으로의 보급선을 완전 차단한 후 다시 9월 29일 당나라 이근행의 20만 대군이 진주하고 있는 매초성을 5만 정예병으로 공격 전투마(戰鬪馬) 3만 3백 80필을 노획하는 등 손쉽게 탈환하게 된다.

다음해(676) 11월에 설인귀는 전열을 가다듬고 기벌포에서 마지막 일전을 노려 일차 승리하였으나 사천⁸⁾ 시득(施得)이 다시 진군하여 22번의 작은 싸움에서 적 4천여 명을 목 베는 성과로 신라가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는 1992년 통일전망대가 들어서기 이전 8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산의 삼면은 해수로 둘러쳐 있었을 뿐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동쪽 부분도 잘록하니 지형이 낮게 겨우 연결되어 있을 정도였고 오두산과 남쪽 검단산 사이의 오두산 쪽에 작골(갯골)의 논들이 있었는데 해수가 논 동쪽지역까지 물이 들어와 있어 물이 불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오두산 동쪽지역 전체가 잠기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오도(鳥島)로 불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며 관미성(關彌城)의 지형설명과도 일치하

6)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본기 제6 광개토왕 즉위 원년 '백제 관미성 기성 사면초절 해수환요(百濟關彌城其城四面峭絶海水環繞)

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가을 9월條.

8) 沙湫: 신라의 17등 관계 중 8등 관계의 관동.

9) 김윤우, 『도미사화(都彌史話)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 2003.

고 천성(泉城)은 신라시대에 있었던 성(城)으로 지형이 섬(島)이니 천성도(泉城島)라고도 한 것이다.

실제 완전한 섬은 아니더라도 삼면이 물로 둘러 쳐져있고 일면이 연육되어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장마 홍수 때에는 섬으로 되는 지역도 여의도, 당정섬, 미사섬처럼 섬으로 부르는 경우는 많
이 있다.

한편 동국여지승람에서 교하현(交河縣) 옛 치소에서 서쪽 7리에 오도산성(烏島山城)이 있고 북
쪽 10리에 일미도(一眉島)가 있는데 도수회 교수는 일미도를 도미설화에 나오는 천성도(泉城島)
로 추정하였다.

그것은 교하현의 한강하류에 유일한 섬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 일미도는 천성도로 추정하는데
에는 결정적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일미도가 한강하류의 섬이 아니고 지금의 파주시 탄현
면 대동리 서쪽의 임진강 하류의 섬이기 때문이다.

그 섬은 성(城)이 없으며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서쪽의 합수지점(合水地點)에서 임진
강 상류방향으로 4km상류지점에 위치하는 관계로 자연적인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겼던 도미부부
의 상황에 비추어 한강에서 방향을 바꾸어 임진강 상류 쪽으로 거슬러 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
우며 한편 홍수 때에는 물에 잠기는 섬이므로 무인도일가능성이 높는데 그렇다면 도미부부가 초
근목피(草根木皮)로 한동안 연명하기도 적절치 않은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오두산(鰲頭山)을 도미부부가 상륙하였던 천성도(泉城島)로 지목한다.

한편 교하지역이 천성도와 연결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천정구 지역이 오늘날의 교하지
역으로서 천성도와와 언어적 연관성이 크며 한강하류의 오두산이라는 천성도로 추정되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연관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교하지역 인근에 도미부부가 망명하였던 산
산(蒜山)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하현의 전신인 정천군(井泉郡)에 두었던 영현(領縣 : 속현)에 산산(蒜山), 송산(松山), 유
거(幽居)의 세 개의 속현(屬縣)을 두었는데 산산현(蒜山縣)이 그것이다.

속현이라는 것은 타군(他郡)을 넘어서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군(自郡)과 연결(連接)한 지역
에 존재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도미부부가 망명한 지역이 교하의 인근에 있었던 속현(屬縣)인 산산
현(蒜山縣)으로 가서 산산(蒜山 : 마늘산)이라는 산 아래 마을에 망명하였다는 설화내용을 직접적
으로 밝혀주는 실재적 지명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산산(蒜山)

산산은(蒜山)은 도미부부가 천성도에서 다시 만나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다가 함께 배를 타고 산
산 아래 마을로 이주하였는데 그 이주한 마을에 있는 산 이름이다.

삼국사기 권제35 잡지 제4 지리2 신라조(新羅條)에서는 산산현(蒜山縣)이 교하군(交河郡)의 전신인 정천군(井泉郡)의 영현이며 고구려의 매시달현(買尸達縣)이었음을 밝히면서 현재는 당시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하군에 딸린 속현임이 밝혀진 이상 그 위치의 범위는 매우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하에서 멀어봤자 주변에 있는 군보다 멀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며 교하에서 반드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천군은 다음에 교하군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당시에는 두개의 현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으니 지금의 파주시 주내면 파주리에 소재하였던 봉성현(峯城縣)과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하였던 고봉현(高峰縣)을 속현으로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산산현(蒜山縣)역시 교하의 속현이었음으로 주변인 현재의 파주시와 고양시구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확실성을 부여하는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자 대부분이 고구려 매시달현이라는 지명에 매달려 전국의 같은 지명만을 열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영현의 필요성이 지역의 지배와 통솔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된 인근의 지역을 영현으로 하여야 명령하달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몇 백리 밖에 있는 지역을 영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지역 통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따라서 교하군의 속현을 함경도 덕원지방에 두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설령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등에서 산산(蒜山)이라는 땅이름이 함경도 덕원, 평안도 상원, 전라도 화순, 경상도 김해, 황해도 황주와 봉산 등 전국 여러 곳에 아무리 많이 분포한다 하여도 도미부부와 관련이 있는 산산은 아닌 것이다.

단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대부분 지역의 산산(蒜山)이 거의가 바다와 인접한 강의 하구에 있는 땅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매시달(買尸達 : 매리달)은 수산(水山) 즉 물과 산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물달”의 기본형 “뜨리달”의 원형표기가 아닐까 생각되며¹⁰⁾ 이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교하에서 멀지 않은 문산(汶山)지역이 있는데 ‘문산’은 글자그대로 ‘물산’이라는 의미이고 배로 이동이 가능하며 거리상으로도 교하군의 속현이 될 만한 지역이므로 검토의 대상으로 주목된다 하겠다.

그리고 도미부부는 배를 타고 산산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산산현(매시달)은 파주시와 고양시(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시계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지역의 한강과 임진강변에서 그리 멀지 않

10) 김윤우, 『도미사회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 2003.

은 곳에 반드시 있다고 할 것이니 파주시의 탄현면과 문산을 일원, 고양시 일산구 송산면 일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도수희 교수가 유력지로 지목한 대동지지 권3 파주 조에 산봉(蒜峯)도 파주 지역에 있는 산산(蒜山)이라는 의미 이므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¹¹⁾

한편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지명사전에서는 정천군(井泉郡 : 어을매곶)과 산산현(蒜山縣 : 매시달현), 송산현(松山縣 : 부사달현), 유거현(幽居縣 : 동허현)이 모두 북한의 원산부근 지역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옳은가 이다.

먼저 도미부부가 성치 않은 몸으로 육지를 횡단하여 원산부근까지 갔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어을매곶의 뜻이 교하와 연결되어있다는 것은 문헌으로 보나 어원으로 보아 확실하다.

다만 속현의 위치의 근거가 교하부근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교하지역에 속현의 이름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면 삼국사기 편집당시 정천군(井泉郡)이 동명이처(同名異處)로 교하와 원산부근에 있었던 것인데 속현을 기록할 때 착오로 교하의 정천군에 속현이 없었거나 다른 속현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원산부근에 있었던 정천군의 속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의 마음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그러나 먼저 교하부근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이 순서이므로 교하부근을 생각하여 본다.

교하부근에도 송산현(松山縣)으로 지목이 가능한 고양시 일산구에 송산(松山)이라는 오래된 지명이 있으며 전술한 파주시 문산(汶山)의 뜻이 산산(蒜山 : 買尸達)의 어원인 수산(水山)과 같고 정천군에 탄항관문(炭項關門)을 쌓았다 하였는데 교하북쪽에 연결(連接)한 지역이 탄현면(炭縣面)으로 탄현면은 원래 교하군(정천군)의 탄포면(炭浦面)과 현내면(縣內面)이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한자씩을 따서 탄현면이 되었으므로 탄항관문과 탄포면이 숯(炭)과 관계되는 포구입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사기(史記)를 잘못 기록하였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11) 도수희, 『도미전설의 발원지를 찾아서』, 2009.

IV. 지역별 도미설화

1. 하남의 도미나루

1) 하남 도미나루의 위치

하남 도미나루 전설은 그 배경지역을 한강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한성 백제 도성이 있었다고 거론되고 있는 하남시의 창우리 강가에 있다.

여기에는 백제 도미설화에서 근원된 도미(都彌)와 관련되는 이름이 많은데 도미진(渡迷津)을 비롯하여 도미원(渡迷院), 도미천(渡迷川), 도미강(渡迷江), 도미협(渡迷峽), 도미사(渡迷寺), 도미기우제단(渡迷祈雨祭壇) 등이 있었으며 파생어로서 도미(渡迷), 도미(度迷), 도미(都迷), 도미(道迷), 두미(斗迷), 두미(斗尾), 두미(豆尾), 두미(豆美), 두미(頭彌), 두미(豆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렇듯 도미나루는 한자는 다르지만 도미라는 이름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었고 각종 문헌기록이나 지도 그리고 개인적서문집에서 하남의 도미나루를 두고 기록한 문헌이 거의 전부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도미설화와 관련된 지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역 도미전설이 삼국사기의 도미설화 내용과 동일하며 1656년 유흥원(柳馨遠)이 편찬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광주목(廣州牧), 열여조(烈女條)에는 도미설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는 이미 도읍이 남한(南漢)일 때의 일이므로 도미설화의 이야기는 도미원과 도미천이 있는 도미나루 부근의 이야기 일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미 17세기 중반에도 도미나루 지역이 도미와 관련되어 생긴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같은 문헌의 우역조(郵驛條)에는 두미원(斗迷院)이 두미천(斗迷川)에 있다고 관량조(關梁條)에는 두미천(斗迷川)은 도미천(渡迷川)이라고도 하며 주 북쪽 23리에 있다. 동서 양쪽에 산이 강을 끼고 마주보며 서 있고 울퉁불퉁한 돌길이 산허리를 돌아 동쪽으로 봉안역(奉安驛)을 가리키며 험준하게 십여 리를 뻗었는데 옛날에는 도미원(渡迷院)이 있었다.

곧 서울의 목이 되는 중요한 지역으로 속칭 도미천(渡迷川)이라 하였으며 신라방언으로 강이나 바닷가 벼랑의 돌길을 천(遷)이라고 하였다.¹²⁾

이 기록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다가 1626년 남한산성으로 옮겨갔는데 남한산성에서 도미나루까지의 거리가 23리라는 뜻이며 강(江 : 漢江, 도미강, 두미강) 양쪽으로 좁은 협곡을

12) 신라방언 다이수에석로칭천(新羅方言 多以水崖石路稱遷).

이루고 있어 이 좁은 강 협곡을 두미협(斗迷峽)이라고도 하였으며 강의 하류인 창우리 나루터부터 상류 배알미리까지 남쪽 강안의 절벽을 따라 약 10여리를 율통불통하고 꼬불꼬불한 돌길이 벼랑을 끼고 이어졌었는데 이 돌길을 도미천(渡迷津)이라고 한 것이다. 그 돌길은 도미의 이야기와 함께 신라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이는데 천(遷)이라는 용어가 신라의 방언이었기 때문이다.¹³⁾

한편 도미천에 도미진과 도미원이 있었는데 현재 까지도 그 터와 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도미나루 터에는 근자에 설치된 도미나루라는 나무 표지판과 함께 네 개로 구성된 삽화를 곁들인 별도의 나무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이라 하여 도미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도미나루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의 약 20m상류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되는 유구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문헌의 기록에 도미원과 도미진이 검단산 아래 도미천(벼랑에 있는 돌길)의 하류지점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다.

그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검단산은 주 동쪽에 있으니 고을사람들이 진산이라 일컫는다. 도미진은 주 동북쪽에 있으니 나룻배가 있다. 그리고 그 서쪽을 진촌진(미음진, 독진)이라 하며 주 북쪽에 있으니 나룻머리에 수참을 두었고 참선이 15척이다. 또 그 서쪽에 광진도(광나루)가 있다.’ 고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검단산이 주 동쪽에 있고 도미진은 주 동북쪽이라 하였으니 검단산 중심에서 약간 북쪽(강의 하류 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주의 읍치가 있던 하남의 춘궁동에서 동북쪽이라는 말은 도미천이 하남의 창우리에서 배알미리까지 협곡을 이루면서 약 10여리를 이루고 있는데 창우리 쪽으로 치우쳐 도미진(渡迷津)과 도미원(渡迷院)이 위치한다는 내용의 기록이며 현재 도미나루 표식이 있는 위치와 같은 곳이다.

현재 도미나루 추정지에서 창우리 방향으로는 도미나루와 비슷한 지형이 약 200m에 걸쳐 두개가 더 있다.

나루터는 항구와 반대로 강변의 돌무지가 모래톱처럼 강 쪽으로 튀어나온 곳에 자리한다.

따라서 도미나루 표지가 있는 도미진과 도미원의 추정지에서 팔당대교 방면인 하류 쪽으로 보면 두 곳이 더 있는데 창우리 마을(팔당대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창모루 나루터가 하나이고, 창모루 나루터와 도미나루 중간에 또 하나의 모래톱 형 강변돌무지가 하나 더 있어 모두 세 곳으로

1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산천조(山川條) : 도미진(渡迷津)이 주 동쪽 10리, 양근군 대탄용진(楊根郡 大灘 龍津)하류에 있으니 그 북쪽 언덕을 도미천(渡迷遷)이라한다. 동쪽으로 봉안역을 향하여 돌길이 7-8리나 났는데 신라방언에 흔히 물언덕 돌길을 천(遷)이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제일 상류 쪽의 나루터가 도미나루인 것이다.

그 곳은 예전부터 도미나루로 전승되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도미나루 식당'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선착장 가까운 곳에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있어 창고나 건물을 지었던 유구를 확인 할 수 있고 다른 곳에 비교하여 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하역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일한 곳이며 또 도미진 위쪽에 있었던 돌길(도미천)도 도미진에서 가까워 도미원이 자리하기도 수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미부인이 배를 타고 떠난 곳은 이 세 곳 중의 한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미부인은 왕의 탐욕을 기지(機智)로 넘긴 후 바로 강구로 달려 왔다고 하였는데 배가 없어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였고 그때 홀연히 배가 나타나 승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강구 근처에 있는 나루터에서 승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창우리 쪽에서 가까운 창모루 나루터나 조금 상류인 나루터 예상지역에서 통곡하였다면 주변에 있던 나룻배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뱃사공이 이동하여 태워 주었거나 예상치 않은 빈 배가 떠 내려와 승선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미나루 부근에서 배를 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강구(江口)라고 되어 있어 바닷가 강어귀를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바닷가가 아니고 큰 냇물이 강과 만나는 지역도 강구로 보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큰 냇물이란 하남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덕풍천이 한강과 만나는 주변지역을 강구로 표현한 것이니 바깥 창우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그리고 동국여지지 열여조를 통하여 도미설화가 도미진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음은 전술하였고 1956년 하남(당시 광주군 서부면)에 거주하던 중암(重庵) 구민회(具敏會) 선생이 집필한 남한비사(南漢秘史)에서 '개로왕이 도미의 아내를 사귀고자하여 도미의 두 눈을 찢어 멀게 하고 강에 던지니 도미의 아내가 남편을 구하여 고구려 땅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보면 후에 도미를 던진 강을 도미나루라 부르니 지금의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앞에 두미나루라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도미나루가 도미와 연관된 전설임을 명확히 하였고 도미나루를 창모루나루터로 지칭한 것이다.¹⁴⁾

한편 '광주부지'와 '중정남한지'에서도 도미나루가 동부면에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도미나루가 하남시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도미나루의 위치에 대하여는 서울사에서 편찬한 '한강사'에서는 당점성 바로 위쪽을 도미진으로 표시하였고¹⁵⁾ 경기도 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강'에는 배알미나루를 도미나루라고 하였으며¹⁶⁾ '남양주시지'에는 도미진이 팔당근처라고 적고 있다.¹⁷⁾

14) 중암 구민회 남한비사 풍납리 토성 10, 1956, p38.

15) 서울시사 편찬위원회, 『한강사』 11권, 1985.

이들 자료 모두 도미나루가 하남시에 있다고는 하였지만 위치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도미진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주 동쪽 10리, '세종실록 지리지'의 주 동북쪽 등으로 표시한 것은 광주의 치소가 하남의 춘궁동에 있을 때를 기준 한 것이며 '동국여지지'와 '증정남한지'가 주 북쪽 23리, 그리고 '대동지지'에 두미천이 주 북쪽 20리, 두미진이 동쪽으로 20리라고 하고 그 북쪽 언덕이 두미천이라고 한 것은 1626년(인조4) 광주치소를 남한산성으로 옮긴 이후의 기록이므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대동지지에서 두미진을 동쪽으로 20리라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기록으로 본다.

당시 지도기록을 보아도 검단산이 너무 서쪽으로 그려있고 망월이 검단산 서쪽에 있어야 하나 검단산 동쪽으로 표시하여 잘못 그려진 지도가 여러 곳에서 산건됨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한강사에서 표시한 당정섬 위의 도미진은 당시 나루터가 강폭이 좁은 도미협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당정섬 부근에서는 이미 강폭이 많이 넓어진 지점이므로 나루터로서의 위치가 적절치 않다.

경기도 박물관에서 배알미 나루를 도미나루로 표시한 것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참고로 추정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며 또 이를 근거로 하여 배알미나루를 도미나루로 단정하여 쌀과 관련 있는 나루라고 한다든가 두물머리(양평 양수리)에 연관한 지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미나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기록하였듯이 창우리 쪽에 치우친 나루이다.

한편 배알미 나루에의 근원을 쌀에서 찾은 것도 잘못이다. 굳이 쌀을 많이 수송한 나루는 창우리 쪽의 나루로서 세미(稅米)는 창우리 도미진에서 다시 세미길을¹⁶⁾ 따라 환곡을 저장하는 사창(社倉)이 있었던 상사창동이나 하사창동으로 이송하였는데 배알미 나루에서 세미를 창우리 쪽으로 이동하였다면 번번한 마차 길도 없는 돌길을 따라 10여리를 역(逆) 방향으로 이동하였거나 다시 배에 태워 창우리로 이동하였다는 이야기 인데 공연히 시간과 물자와 노력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로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남한산성 치소로 직접 운송할 물자를 도마치 고개를 넘어 광지원을 통하여 수송하고자 하였다면 배알미리 나루터에서 더 상류쪽으로 진행하여 팔당발전소를 지나 이석리나 삼성리 부근의 선착장을 이용하여야 타당한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배알미리는 도미진과 도미원과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되며 쌀과 연관 지으려는 설명도 광주의 사창이 어디에 있었는지 세미길이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단견에 불과하다.

16) 경기도 박물관, 『한강』 2002, p438.

17) 남양주 시지편찬위원회, 『남양주시지』 2000, p275.

18) 세미길 : 하남 창우리에서 동경주 섬제 안섬제 끝마을 통하여 사창(社倉)으로 가는 길을 일컫음. 14

분명한 것은 도미진과 도미원은 거의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도미천 길에서 창우리에 치우친 광주부 동북쪽 10리 거리에 있었다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한 것이고 배알미동에 있었다면 주 동쪽 20리라고 하였어야 할 것이니 배알미나루와 쌀과는 애초부터 상관없는 지역임을 밝혀둔다.

배알미리(拜謁尾里) 마을의 배알(拜謁)은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가 뵙는다”는 뜻으로 고상한 이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배알과는 상관이 없는데서 출발한 이름이다.

일설에는 한양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이곳을 지나면 한양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을 향하여 절을 올리던 곳이라고 끝어다 붙이지만 배알미리에서는 서울은 커녕 하류쪽 약 10리 인 창우리도 직접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임금에게 절을 올리던 곳이면 망배리(望拜里)나 주배리(主拜里) 등으로 해야지 왜 만나지도 않으면서 배알이라고 하였겠는가?

배알미리에서 약 10여리 동쪽으로 더 올라가면 광주시 남쪽면 분원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망주(望主)고개 라는 지명이 있다.

조선 초에 조영무(趙英茂)가 낙향하여 임금이 생각나고 걱정될 때면 고개에 올라 한양 땅을 향하여 절하였다는 곳이다.

그러나 배알미리는 그런 전설 또한 없는 곳이다.

따라서 배알미리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

즉 우리 원래의 말 ‘비알미’에서 왔다고 보아야 한다.

‘비알미’라는 말의 ‘비알’은 원래 중부지방의 방언으로 ‘비탈’이라는 뜻이며, 미는 ‘밑, 아래’라는 우리말인데 즉 “산비탈 아래의 마을”이란 뜻으로 한자로 표시하자니 인심 써서 고상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전술한 도미천(渡彌遷)이 창우리에서 배알미리까지 이어지는데 강비탈 돌길의 끝자락이요 검단산의 북 동편 경사면 벼랑 아래의 지형이니 자연 산천의 모양에 따라 지명을 부르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도 맞는 해석이다.

그리고 남양주시지에서 도미나루를 팔당 근처라고 하였음은 남양주 지역에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원래의 의미는 팔당의 한강과 접한 맞은편 강안에 있는 나루로서 근처의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다른 지도에서는 팔도군현지도(1760), 팔도지도(1785-1789)에는 두미(豆迷)라고 기록하고 각기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망월(望月) 지역도 검단산 동쪽에 표시하고 있어 정확도에서는 떨어지며 해동지도(1750) 광주부에는 도미진(渡迷津)을 검단산 아래 기우제단 상류 쪽에 표시하고 동국여도(1800)에서는 도미천을 검단산 남쪽에 표시하여 잘못표기 하고 있으며 태호 상류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태호(太湖)는 지금의 미사동 조정경기장 부근이다.

대동여지도(1861)에는 두미(斗迷)라고 표시하였으나 표시위치는 검단산과 예봉산 사이에 바르게 하였으나 검단산을 사실보다 서쪽에 배치하여 정확히 알 수가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

광주부(1871)지도에는 당정도(堂亭島)위에 도미진(渡迷津)이 있고 그 상류 쪽으로 가면서 검단산 아래에 요해처(要害處)와 도미친(渡迷遷)을 차례로 표시하고 있는데 요해처란 군사적으로 자기편에는 꼭 필요한 반면 적에게는 해가되는 요충지를 이른다.

따라서 옛 지도상으로는 도미진의 정확한 위치의 판명이 곤란한 점이 있으나 모두 괄당 맞은편의 하남지역이라는 것은 판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려 때에는 광주(廣州)에 도미사(渡迷寺)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광주 도미사(渡迷寺)¹⁹⁾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민가가 잠기고 떠내려갔다.' 고 하여 도미진 근처의 검단산(黔丹山)에 도미사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고려시대에도 '도미'라는 도미나루 근처의 지명이 널리 알려져 사찰의 이름으로까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도미설화와 관련이 있다고 내세우는 지역의 나루 이름으로 '도미'라는 이름을 가진 나루는 하남 장우리의 도미나루 밖에 없다.

1447년 발간된 용비어천가 14장에 '渡迷 두미 津'이라는 표기가 나오는데 한자로 도미(渡迷)라 쓰고 한글로 '두미'라고 쓴 것인데 이는 현지에서 부르는 한글 이름을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면 광진(廣津)을 '광나루'로 삼전도(三田渡)를 '삼밭개' 등으로 표시한 것인데 도미진이 현지에서는 두미진으로 통용되었다는 기록으로 후에 도미(渡迷)라는 지명이 두미(斗迷, 斗尾, 豆尾, 豆美, 頭彌, 豆彌) 등으로 표기하게 된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미(都彌)라고 불리었던 장소이름이 도미(渡迷)로 표기되고 다음에 두미(斗迷)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도미설화의 발생 지역이므로 처음 도미나루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로 계속 우리말로 도미라고 불리어 오던 것을 처음 도미나루를 한자로 표시할 때 전설보다는 그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 우선 고려되는 지명의 표기전례에 따라 도미나루의 특성이 '건너는데 어지럽다' 물살도 세고 너울도 많아 건너기 혼미하다는 의미의 도미(渡迷)를 나루이름에 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두미(斗迷)는 지역에서 이미 두미라고 통용되므로 도미(渡迷)와 같은 의미의 건너는데 크게 어지러운 뱃멀미 많이 나는 나루라는 의미로 두미(斗迷)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한자를 도입하여 사용한 것인데 두미(斗尾) 등 꼬리미(尾)를 사용한 것은 도미나루 지점이 도미협(渡迷峽)의 끝 지점으로 강의 너울과 어지러움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미협의 맨 '아래' 위치에 있는 나루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두미에서 두루미(彌)자를 사용한 것은 도미(都彌)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였거나 멀다는 의미의 미(彌)의 뜻으로 '건너는

19) 고려사 권 제55 24장 우왕: 경진 광주 도미사 산정수용 표몰인가(庚辰 廣州 渡迷寺 山頂水湧 漂沒人家) 15

데 멀게 느껴지는 나루'라는 의미로 보여 진다.

한편 당초의 '도미(都彌)'라는 음이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두미(斗迷)로 바뀌었는데 민간에서 오랫동안 불리다 보면 도미-데미-되미-되미-두미로 변형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도미나루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평의 양수리 두 물머리와와의 관계는 배알미 나루터에서 10리가 넘고 도미나루에서는 20리가 넘는 거리 차가 있어 두 물이 합치고 서로 바라다 보이는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두물머리와의 관계는 연관성이 없음을 밝혀둔다.

굳이 배알미 나루터가 두물머리 라면 이는 가까운 경안천의 하류인 소내(牛川)와의 합수지점에서 가까워 두물머리 라고 하여야 하는데 기왕의 양수리 두물머리가 인근에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도 두물머리라는 지역명은 회피되었을 것으로 본다.

2) 하남 도미나루의 문헌 기록

도미나루와 관련된 문헌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餘地志), 대동지지(大東地志),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 기록되어 있고 개인문집으로는 택당집(澤堂集),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동문선(東文選) 등에서 도미나루를 배경으로 한 시나 위치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남한산성도(南漢山城圖),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해동지도(海東地圖), 광주부전도(廣州府全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다.

도미나루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도미나루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종 때에는 원위전(院位田)책정에 관한 기록에서 도로의 등급에 따른 위전(位田)의 배분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광주 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中路)로하고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小路)로 한다고 하여 도미원에는 중로의 기준인 2결 50복의 원위전을 가지도록 하였으니 이는 서울에서 도미진까지를 기준으로 도미원의 도로등급 기준을 정하였다는 것은 광주 도미원(渡迷津)이 도미나루와 인접한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⁰⁾

선조 때에는 6차례의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오지 않자 장소를 옮겨 검단산 아래 도미진(渡迷津)에서 기우제를 지냈으며²¹⁾ 숙종 때에도 4차례나 도미나루에서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²²⁾

숙종 때에는 도제조 이이명(李爾命)이 말하기를 '듣건대 광주 도미진(渡迷津) 위의 군기시(軍器寺) 시장(柴場)²³⁾에 유황이 산출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마땅히 본영(本營)에 주어 캐서 쓰게 하

20) 세종실록 세종27년 7월 13일.

21) 선조실록 선조32년 5월 3일.

22) 숙종실록 숙종21년 5월 11일, 23년 5월 16일, 27년 5월 18일, 30년 6월 26일.

23) 땔나무를 베는 일정한 장소.

소서’²⁴⁾ 하는 기록이 있으며 도미진 위의 시장은 검단산을 이르는 것인데 지금도 하남시 창우동의 ‘힐 타운’ 음식점 약수터에서는 유향냄새가 나는 샘물이 나온다고 한다.²⁵⁾

도미진 남쪽으로는 검단산(黔丹山)으로 가파른 벼랑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은데 도미진은 검단산 아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남은 옛 광주의 동부면과 서부면 그리고 중부면 일부지역으로 검단산은 예로부터 광주(廣州)의 진산(鎭山) 또는 주산(主山)이었다.

조선 초 태종은 내시별감을 보내어 광주의 성황과 검단산 신에게 제사지냈고,²⁶⁾ 상왕과 함께 검단산에서 사냥을 즐겼다.²⁷⁾ 한편 검단산 아래에는 강무장(講武場)²⁸⁾이 있어 왕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었으며 성종 때에는 광주검단산에서 짐승을 쫓으면 비가 온다하여 사복(司僕: 사복시 관원)을 보내어 타워(打圍: 사냥)하여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중국사신 연향에 쓰도록 성종이 지시하였으며²⁹⁾ 인조 병자호란 때에는 강원 춘천영장 권정길(權井吉)이 병사를 거느리고 검단산에 도착하여 여러 차례 싸워 많이 이겼는데 적으로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봉화를 올려 서로 응하니 성안사람들이 바라보고 원병이 있음을 알고 모두 용동(聳動: 두렵거나 놀라서 몸을 숙거나 뛰듯 움직임)하여 기뻐하였으나 얼마 안 되어 적의 습격을 받고 패하였다.³⁰⁾

검단산의 기록은 동국여지지와 광주부지 산천조에서 검단산은 두 동북 십리에 있는데 백제 승려의 이름이다. 즉 백제 승(僧) 검단선사(黔丹禪師)가 그 산에 있었다 하여 검단산 이라고 부른다는 것과 검단산 남쪽 봉우리를 자봉(紫峰)이라 하는데 조선조의 허목(許穆)이 그 봉우리 아래에서 독서를 즐기던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³¹⁾ 미수(眉叟) 허목(許穆)은 1626년(인조2) 광주의 우천(牛川)³²⁾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³³⁾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하여 그의 독특한 전서체(篆書體)를 완성하였다.

자봉산(紫峯山)은 검단산의 남봉(南峰)인데 후에 자봉산(紫峯山)으로 불리었으며 하남시 은고개에서 동쪽,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에서 서쪽에 위치하는 봉우리로 해당지지도에서는 광악산(廣

24) 속증실록 속종36년 11월 28일.

25) 하남시 외, 『하남 도미나루 유적』, 2003.

26) 태종14년 3월 18일.

27) 태종14년 3월 19일. 임금에 친히 사슴 8마리를 쏘았다.

28) 태종17년 1월 29일. 강무장(講武場) 임금의 수업, 군대의 무예연마장으로 쓰기위하여 일반 백성의 이용을 금지한 산령으로 세종2년(1420년) 광주(廣州), 양근(陽根), 철원(鐵原), 안협(安峽), 평강(平康), 이천(伊川), 황성(橫城), 진보(珍寶) 등지로 결정함.

29) 성종1년 4월 23일.

30) 인조14년 12월 26일, 정조4년 8월 9일.

31) 검단산 재주동북10리 백제승고명 기남봉자봉 본조허목 상독서기하黔丹山在州東北十里百濟僧故名其南峰紫峯本朝許穆讀書記其下

32) 우천(牛川)은 광주시 남종면 우천리로 종전에는 퇴촌면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남종면이 되었다. 경안천(京安川)과 한강이 만나는 경안천의 하류로 팔당댐이 생기기 전에는 소내섬이 넓게 자리하여 채소의 집산지로서 유명하였다. 당초에는 소천(沼川)으로 '소내'라고하였으나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우천(牛川)이 되었다.

33) 자봉산(紫峯山)은 검단산의 남봉(南峰)

岳山), 도마산(刀馬山) 등으로 표기되었다가 현재의 지리서에는 용마봉(龍馬峰 595.7m)으로 통일되고 있다.

그 밖의 지리지에는 전술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도미진과 도미천의 위치를 기록하였고 동국여지지에서 도미원과 도미천을 기록하였으며 여지도서 대동지지 광주부지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 산천조(山川條)에서 '도미진이 동부면에 있으니 속정 두미(斗迷)라고도 쓴다. 곧 양근현의 대탄(大灘) 용진(龍津)의 하류로 그 북안(北岸)을 도미천(渡迷遷)이라 부르며 동으로 봉안역(奉安驛)을 향해 돌길이 7.8리나 뻗어 있으니³⁴⁾ 신라방언에 흔히 물가의 석로(石路)를 천(遷)이라 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고, 관방조(關防條)에서는 두미천(斗迷遷)이 '부(府)의 북쪽으로 23리에 있으니 동서의 양쪽 산이 강을 끼고 벽처럼 마주 있는데 윗돌불통한 길이 동쪽으로 봉안역을 가리키며 험준하게 십여 리를 뻗었는데 옛날에는 두미원(斗迷院)이 있었다고 하고 서쪽의 목이 되는 요해지지(要害之地)이니 신라방언에 물가의 좁은 길을 천(遷)이라 일컫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물산조(物産條)에서는 금광초(金光草: 누런빛의 담배) 백당(白糖: 흰색 사탕) 이어(鯉魚: 잉어) 즉어(鰍魚, 일명 부어(鮒魚): 붕어) 놀어(訥魚: 누치) 곶어(鰍魚, 지금은 금린어(錦鱗魚): 쏘가리) 은구어(銀口魚: 은어)가 도미(渡迷)에서 난다고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산천조에서는 '서쪽을 경유하여 마점(麻帖: 마현 남양주시 능내리)을 경유 소천(昭川: 소내)을 지나고 두미천과(斗迷遷)과 미음도(漢陰渡)를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왕산천(王山川: 왕숙천)을 지나고 또 서쪽으로 흘러 광진(廣津: 광나루), 송파도(松坡渡), 삼전도(三田渡)가 되고 왼쪽으로 탄천(炭川), 양재천(良才川)을 지나 독도(禿島), 압구정(鴨鵝亭)을 경유하여 오른쪽으로 중랑천(中浪川)을 지나 한강이 된다.' 라고 하여 상류서부터 차례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위례고(慰禮考)에서는 백제의 하남위례성을 하남시 춘궁동에 비정하면서 '동쪽으로 높은 산에 의지했다(東據高岳: 동거고악)고 한 것은 광주 고읍 동쪽 김단산을 말한 것이요 서쪽으로 큰 바다에 막혔다(西阻大海: 서조대해)고 한 것은 열수(洑水)가 바다로 들어가는 곳인 행주(行州)어귀를 이른 것이며 남쪽으로 기름진 들을 바라본다(南望沃澤: 남망옥택)는 고이왕9년 나라 사람에게 명령하여 버 밭을 남쪽들에 개간했다는 둔골제(屯骨堤: 서광주 평야)를 이르며 북쪽으로 한수가 띠를 둘렀다(北帶漢水: 북대한수)함은 도미강(渡迷江)을 이른 것이다.³⁵⁾ 라고 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1 온조왕의 하남위례성 건국설화 중 북쪽의

34) 廣州府誌 山川.

35) 도미천이 도미진으로부터 10리 가까이 동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

36) 정약용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3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한수(漢水)를 도미진이 위치한 도미강(渡迷江)에 비정한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지도서(輿地圖書) 전고조(典故條)에서는 1592년 임진년(선조25) 7월 왜(倭)가 광주를 함락시키자 섭주사(攝州事)박의(朴宜)는 소천(昭川)에서 두미진(斗迷津)으로 도망하였다. 9월 섭주사 어득해(魚得海)가 왜와 용진(龍津)에서 싸워 두미진까지 쫓았으나 결국 패하여 죽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3) 시문에 나타나는 하남 도미나루

(1) 서애집(西厓集 : 류성룡) : 전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삼천리 인테/유악의 깊은 은혜는 사십년 동안이었네/도미(渡迷)에 발을 멈추고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종남산 빛은 아직도 그대로 있 구려.

(2) 택당집 속집(澤堂集 續集 : 이식) : 두미호(斗迷湖)에 배를 대고 두소릉(杜少陵)의 운을 써서 밤경치를 읊다.

(3) 중정 남한지(重訂 南漢誌 : 홍경모)

한수(韓脩 : 고려 말 문신)의 도미진(渡迷津)

햇별이 움직이니 바람이 연하고/하늘그림자 멀리 머금으니 가는 듯 한가해/머리를 돌키며 삼각산 이별하니/달은 반도 안 되니 나는 마땅히 돌아갈세.

(4) 권우(權遇 : 고려 말 조선초 문신)의 도미진(渡迷津)

산허리 서러서리 잔도(棧道)가 비졌는데/가고 또 가다보니 인가로 들어가네./하늘은 차고 해는 저물고 바람은 부는데/머리 돌키니 장강에는 물결이 꽃을 짓네.

(5) 박은(朴闇 : 조선중기 학자)의 두미(斗迷)나루를 건너며

배가 두미나루 건너고자 하나/한 치 나아갔다 두 치 물러가니/바람이 원망스럽구나./내 이제 어찌 돌아가리./어여차 밀어라 사공이 가없어라./흰 모래 감돈 곳에 높은 바윗돌/ 협 속에 닷을 때니 오도가도 못 하누나.

(6) 김시습(金時習 : 조선 초기 학자 문신)의 도미나루를 지나며

도미나루 물은 이기보다 파란데/관동 가는 길 멀기도 멀구나/등 뒤에 지팡이 비껴 메고 사람 돌아보지 않네./맑은 강 그림자 속에 부질없이 배회 하네/강물이며 강에 핀 꽃 눈에 아른거리고...

(7) 속 동문선(續東文選 : 신용개, 김전, 남곤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든 시문집)

- 작별하고 배에 올라 저녁나절에 도미진(渡迷津)에 이르러 뇌우를 만났더니 바로 개어서 달밤에 독포(秃浦)를 지나갔다.

- 조금 있다 서로 돌아 도미(渡迷)에 들어가니 북풍이 휘몰아치고 구름이 뭉게뭉게 뇌성이 와

르릉 땅땅 장하구나. 빗방울이 차촉만하네.

- 선창에 홀로 앉아 유하주(流霞酒)를 마시며 취중에 대탄(大灘)이 가까워짐도 몰랐더니 더욱
고 알리는 말이 물결하나 없었다. 두미(斗迷)와 월계(月溪)에 또 마침 순풍부니 광릉(光陵)
을 순식간에 지나왔구나.

(8) 다산 시문집(茶山詩文集 : 정약용)

- 소내에서 배를 타고 한양에 당도하다
두미포(斗迷浦)라 골짜기에는 큰 배 많이 매였거나/저물녘에 달리다가 뱃전 쉽게 부서지리.
- 두미협(斗迷峽)의 고기구경
수정물결만 구멍깊이 뚫린 곳 일천 길 쇠사슬이 가로 처저/날씨 추위 두건에 눈 쌓이고/햇
살 쏘아 고기를 금빛 비추네.
- 상협(上峽)
두미(斗迷) 산골짜기 동으로는 터져있고/서쪽 끝 장풍을 등에다 지고 있어/만경창과 유리
알이 갑자기 깨지면서/얼음이 불쭉불쭉 갈고 갈리고 그런다네.
- 4월 23일 두미(斗迷)에 배 띄우고 그물질 하였으나/중류에 둥둥 떠 그물을 건어두고 돌아올
제/모두 빛나는 눈으로 오는 배만 쏘아보았지/이내 그물에는 걸 다 거둬 높이 들어 올리니/
아가미를 쫄만한 고기는 한 마리도 없고요/불안하여 벌벌 떠는 모래무지만 있어라.

2. 다른 지역의 도미설화

1) 송파의 도미설화

송파의 도미설화는 하남의 도미설화와 다른 점으로 도미의 직업이 목수이며 도미부인의 이름이 아랑인데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는 송파강의 송파나루로 되어있다.

1939년 문장지에 박종화의 소설 '아랑의 정조'가 실린 이후 소설에서 전설의 내용이 보강되어 유포된 것으로 생각되며 하남의 도미나루가 많은 문헌과 지도 등에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송파나루의 도미전설은 구전에 의한 설화로서만 유지되고 있어 객관적 고증이 매우 빈약하며 아랑 또한 현대에 작명한 이름에 불과하여 박종화의 소설에 영향 받아 구성된 전설로 생각된다.

2)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도미설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의 도미설화는 오천면 소성리에 도미항(道美港)이 있고 도미부인이 남편을 그리던 상사봉(相思峰)이 있으며 미인도(美人島)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도미설화의

고장임을 부각하여 1991년 ‘보령의 도미설화’ 라는 소재자를 발간하였고 1992년에는 도미부인의 정절각(貞節閣)을 세웠으며 1994년에는 도미부인의 정절사(貞節祠)을 건립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도미부부 묘소까지 이장하고 조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근년에 와서 진행되었다.

보령의 도미부인 전설의 내용은 백제 개로왕 시대에 군용마를 기르는 전마뜰(戰馬坪: 청소면 진북리의 넓은 들)에 왕이 자주 출행하였는데 왕이 이곳에 와서 들으니 도미라 하는 목수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천하일색(天下一色)이란 말을 듣고 왕은 욕심이 나서 도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내용을 전개 시켜 도미가 살던 마을을 도미(都彌)마을 이라고 하다가 그 후에 도미(都美)라고 하였는데 그 마을이 도미항(都美港: 오천면 교성리)이고 도미의 아내가 성장한 현재 도미항 앞의 그림같이 예쁜 섬을 미인도(美人島)라 하며 뒷산은 도미의 아내가 올라가 남편을 생각하고 슬피 울었다 하여 현재의 오천면 선림사 앞에 위치한 산봉우리를 상사봉(相思峰)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1983년 이고장의 향토사에 관심이 많은 허준씨가 새로운 지방 전설을 창작하여 만들어 내 ‘내고장 보령’ 이라는 책자로 발간한 것이 보령 도미설화의 시작이었다.³⁷⁾

따라서 지역 역사의 사실성이나 근거에 상관없이 삼국사기 도미설화와 소설 아랑의 정조에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 설화를 집필한 허준 씨는 일제강점기 때 고향이 웅천인 역사학자 황의돈(黃義敦)씨와 서울에서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집에 자주 출입하였는데 한번은 도미설화를 알려주고 도미설화의 고장을 알 수가 없으니 자네가 한번 찾아보라고 하여 고향에 내려와 이곳저곳의 지명을 생각해보니 오천면 도미항 부근이 딱 맞아 떨어져 이야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고자하는 당시의 시 관계자 및 지역지도자의 호응을 얻어 시 예산으로 도미설화 지역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2003년에는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 전해오는 성주도씨(星州都氏) 정승묘가 도미(都彌)의 묘로 성주도씨 종중에서 받들어 오고 있었는데 그 묘가 임해공단 개발지역으로 편입되기에 이르자 이장(移葬)이 불가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주도씨 종중과 보령시가 주축이 되어 2003년 6월 보령시 오천면 정절사 옆에 이장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보령시에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묘 이장에 대한 검토결과 묘의 보령시 이장 안(移葬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미부인 선양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도미부부묘의 이장을 강행하여 도미부인 정절사 경내에 지름 5m, 높이 2m의 거대한 백제고분형의 묘를 조성하

37) 송하순, 『충남 보령지방 도미설화의 전개』, 2009.

기에 이르렀다.

성주도씨 족보에 의하면 도씨의 근원은 한(漢)나라 무제 때(BC110)의 계(稽)가 남월(南越)의 여가(呂嘉)가 일으킨 반란을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어 여가를 사로잡은 공으로 임채후(臨蔡侯)에 봉해지면서 도씨(都氏)의 성(姓)을 사성(賜姓)받음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후손 도조(都祖)가 고구려로 건너와 유리왕(瑠璃王)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착한 이후 백제 개루왕 때 재상이던 미(彌)신라 진흥왕 때 도도(都刀)...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고려개국에 공을 세운 도진(都陳)이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므로 성주도씨의 관향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⁸⁾

이렇듯 세계가 오래되고 불분명함으로 미루어 당초의 분묘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당시 보령으로 이장할 때 유물과 유구가 없어 관속에 도미부부의 이름을 돌로 새겨 넣었다는 보령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감안하더라도 진해시 청안동 소간산에 있었던 묘는 도미의 실제 묘자리보다는 도미의 신분이 백제의 '편호소민(編戶小民)'에서 '벼슬하는 조사(朝士)'로 변화한 조선 영조시대에 중간(重刊)된 삼강행실도 발간 이후에 성주도씨 문중에서 초혼장(招魂葬)으로 묘셨던 묘가 아닌가 생각된다.³⁹⁾

이렇듯 보령의 도미설화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거나 지역의 전통적 전래 설화이기보다는 지역 홍보를 위한 창작 설화로 밝혀졌다. 따라서 보령 도미설화의 지역적 사실성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3) 진해시 청안동의 도미설화

전술한 도미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진해시 청안동에 있었는데 묘비에는 '백제정승 도미지묘 배 정열부인(百濟政丞都彌之墓配貞烈夫人)'이라는 묘비가 함께 있었다. 지금은 충남 보령의 도미부인 정절사(貞節祠) 옆으로 천장(遷葬)되었다.

이곳의 설화는 도미와 도미부인이 우연히 상륙한 섬이 천성도(泉城島)인데 천성도와 같은 음을 가진 천성(天城)마을이 주변에 있는데 이 마을은 부산광역시 천가동(天加洞) 천성(天城)마을로 가덕도(加德島)내에 있는 섬마을 이름이다.

조선시대에는 경상도 웅천현(熊川縣)에 딸린 섬인데 천성(天城)은 이 섬 남서쪽에 있는 왜구(倭寇) 방어기지로써 천성진(天城鎭)이라고 부른 때가 있으며 단지 천성이라는 한글 음이 같을 따름이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망명한 고구려의 산산(蒜山)이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낙동강 변에 있는 '마산(馬山)'을 모습이 마를 닮았다 하여 '마늘 산'이라고 속칭하던 것을 한자로 훈차표기(訓借表

38) 일신각, 『한국인의 족보』, 1985.

39) 招魂葬: 시체 없이 의관이나 지방 위패 등을 넣고 장사지냄.

記)하여 산산(蒜山)이라고 부르고 마늘의 머리글자만 가지고 ‘마산’이라 한 것을 한자로 마산(馬山)으로 쓰게 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도미설화와의 유사점을 연결하고자 하였으나,⁴⁰⁾ 원전의 백제 도성부근의 지역과 상충(相衝)되고 무덤이 있었던 지역과 산산(蒜山)은 동북으로 약 30km, 천성도는 약 5km가 떨어지는 등 지나친 건강부회(牽強附會)⁴¹⁾의 설화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V. 도미부인이 기지(機智)로 탈출한 백제도성(百濟都城)은 어디인가

1. 도미설화의 사실성

도미설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열전의 제목은 김유신부터 을지문덕 궁에 건환에 이르기 까지 모두 50편인데 주인공의 이름은 열전 제5에 수록된 고구려의 ‘밀우(密友) 유유(紐由) 전이 두 사람을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총 51명이 된다. 그리고 열전의 주인공은 모두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따라서 열전의 수록 목적이 명장 충신 열녀 등의 감동적 사실을 수록함으로써 전체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자하여 기록한 것이다.

도미설화도 군주(君主)의 선정(善政)과 부녀의 정절(貞節)을 강조하는 열녀(烈女)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발간 당시 고려의 열녀표상으로 도미부인을 선택하였던 것인데 삼국사기 발간 때까지 구전으로만 전하여 전승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도미설화에서 고구려의 간첩 도림의 기록이나 중심인물인 개로왕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한성백제를 상실하게 한 직접적 이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 발간당시 사서(史書)의 기록을 원용하여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며⁴²⁾ 그 사서의 원전을 704년(성덕왕 3년) 한산주 도독(당시에는 총관)에 임명되었던 신라의 성골 출신이면서 화랑 가문으로 신라의 사학자인 김대문(金大問)이 집필한 한산기(漢山記)로 보는 주장이 있는데⁴³⁾ 삼국사기 발간당시까

40) 『도미정승 무덤에 대한 고찰』, 2009(도미설화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41) 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비유함.

42)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위계승과 왕권의 성격』, 2007.

이도학, 『한국사연구』, 1985.

이도학, 『선사와 고대』, 27집, 2007.

지도 전하고 있었음에 타당성이 인정되며 부언하여 김대문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한산주는 약 500여 년간 백제의 도성이 소재한 지역이므로 백제왕의 학정을 부각시킴으로서 백제왕실의 향수를 단절하고 신라에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를 염두에 두고 당시 한산주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도미의 설화이야기를 한산기(漢山記)에 수록하였을 것으로 믿어져 설화의 사실성을 객관화 시켜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리학적 강상윤리(綱常倫理)를 보급하는데 효열(孝烈)의 좋은 소재로 채택되었고 각종문헌에 여러 사례로 다투어 기재됨으로서 오늘날까지 전승되기에 이른 것이며 이에 편승하여 춘향전과 같은 문학적 소재로도 널리 활용되었음을 감안할 때 도미전(都彌傳)이 역사적 사실성에 바탕 한 전기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도미부인의 탈출 정황

설화의 내용으로 보아 21대 근개루왕인 개로왕시대의 사건을 4대 개루왕시대의 이야기로 잘못 기재하고 있음은 전설하였으며 도미나루가 하남시의 검단산 아래 창우동에 있는 나루라는 것은 각종 문헌과 지역 전설 및 경기대학교의 현지 실태조사결과와 구축물과 유구 등이 확인됨으로서 입증되었다.⁴³⁾ 그러면 당시 백제도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도미부인이 하남의 도미나루로 도망을 왔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풍납동도성과 하남 준궁동 두 곳을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

1) 상황의 황급성

도미부인은 개로왕의 강제집탈을 모면하고자 기지를 발휘하여 도성을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안전하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였을 것이다.

그 방법 중 가장먼저 떠 올린 것이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가고자한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단시간 내에 우선 찾아갈 곳은 제일 가까운 나루터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시간대로 보면 개로왕의 행동으로 보아 저녁녘일 경우가 가장 높는데 아마도 밤을 도와 뱃길로 탈출을 시도하려 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창우리 나루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뱃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루터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나룻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곳으로 간 것이다.

43) 이도화, 『한산기의 세계, 허구를 통하여 되살아난 개로왕』, 1996.

이도화, 『꿈에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상)』, 일지사.

44) 하남 도미나루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총서 4집, 2003.

만약 풍납토성에서 나왔다면 부근의 나루터 중 하루 쪽의 나루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향하였을 것이다.

어차피 배를 이용하여 고구려로 가고자 하였으면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하루 쪽으로 가야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2-30리 길을 걸어서 하남의 도미나루까지 오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다시 하루인 풍납동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하기 때문에 공연히 힘들이고 시간 허비하는 일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도성은 하남시 춘궁동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도성에서 나루터까지의 거리와 시간

하남의 도성에서 창우리 도미나루까지의 거리는 약 4km, 그러나 풍납토성에서의 거리는 12km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당시의 도로는 지금보다 더 멀었을 것이다.)

나루터까지는 어차피 걸어서 갔을 터이므로 하남도성에서 약 40분 풍납토성에서는 3시간 이상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밤길을 달려갈 이유가 없다.

특히 감시를 피하여 도망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만약 감옥에서 탈출한 상황이라면 시간보다는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의 명제가 된다.

따라서 그럴 때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을 우회하여 갈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인척이 있다면 그곳에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도 먼 길을 돌아서 갈수는 있다.

그러나 도미부인은 왕과의 약속에서 며칠 후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궁을 나섰기 때문에 누가 추격하거나 감시받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도미부인 마음속에만 탈출할 의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니 태연히 행동하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할 정황이 아니고 빨리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먼 곳으로 갈 이유는 없어 당시의 도성은 하남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하남의 도성소재 당위성

1) 하남에 백제도성이 있었던 이유

(1)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과 한성(漢城)은 한산(漢山)에 있었고 한산은 하남(河南市)에 있다.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시조 온조왕(BC18)조에 '마침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살판만 땅을 둘러보았다. 열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여 하남위례성에 도읍하였다고 하여 한산(漢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고 온조왕13년(BC6) '가을 7월에 한산아래(漢山下)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기고 온조 14년(BC5) 봄 정월에 수도를 옮겼다.' 고 하였으며 온조왕25년(7) '봄 2월에 한성(漢城)의 인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하였고 근초고왕26년(371) '도읍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라고 하여 백제의 도읍이 한산을 떠난 때가 없었다. 그러면 한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산이라는 것인가.

하남에는 많은 절터가 있는데 대략 열거하면 동사(同, 桐寺), 천왕사(天王寺), 약정사(藥井寺), 자화사(慈化寺), 신복선사(神福禪寺), 봉수사(奉水寺), 선법사(禪法寺), 법화사(法華寺), 도미사(渡迷寺), 서양사(상사창동 샘골), 계두사, 여가산절, 범굴절, 사막골절, 검단산절 등 상당히 많으며 이들 중 약정사(藥井寺), 신복선사(神福禪寺), 봉수사(奉水寺)는 1530년(중종25)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광주목(廣州牧), 불우조(佛宇條)에서 모두 한산(漢山)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약정사 제한산(藥井寺在漢山)' 이라 하여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 하였고, '신복선사 구제한산(神福禪寺俱在漢山)' 이라 하여 '신복선사는 한산에 함께 있다.' 하였으며 '봉수사 구제한산(奉水寺俱在漢山)' 이라 하여 '봉수사는 한산에 함께 있다.' 라고 사찰의 소재지를 명기하고 있는데 이 세 사찰 모두 근자에 명문기와 출토 등으로 모두 하남시(河南市)에 있음이 확인되었다.⁴⁵⁾

그러면 한산(漢山)은 하남시(河南市)에 있는 산이 명백하니 '한성백제(漢城百濟)의 도성(都城)이 한산(漢山)에 있었다.' 함은 '한성백제의 도성이 하남시(河南市)에 있다' 는 말이다.

필자는 한성백제 시대의 한산을 현재 남한산에서 하남시를 양쪽으로 병풍처럼 삼태기 또는 말굽형태로 두르고 있는 U자(宇)형의 커다란 산 전체를 한산으로 지칭한다.

이는 이러한 U자형의 산에 유적 유물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안에 광주의 치소(治所)인 광주관이(廣州官衙)가 있었으며 이는 백제 초기부터 1626년(인조4) 남한산성으로 완아가 이전하기까지 약 1644년(1626+18)동안 옛 광주(廣州)의 중심도시에서 벗어난 때가 없었다.

따라서 한산(漢山)이 소재한 고을이기 때문에 한산주(漢山州)가 되었고 한산주의 진산은 인근의 검단산이며 광주향교가 하남시에 있음도 그 까닭이다.

옛 광주의 관아는 남한산성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한산이 있는 현재 하남시 춘궁동에 존재 하였다.

그리고 이성산성(二聖山城) 3차 발굴시 산성내의 제1저수지에서 출토된 목간(木簡)에 '무진년 정월십육일 봉 남한성 도사(戊辰年正月十六日 朋南漢城道使)' ⁴⁶⁾ 라는 묵서명문(墨書明文)은 도사(道使)라는 관직명으로 보아⁴⁷⁾ 고구려나 통일신라시대의 목간임을 암시하고 있지만 목간이 출토된 위치가 저수지 바닥에서부터 1m위의 쌓인 토사 속임을 상기할 때 토사가 1m까지 쌓이는 기간과

45) 하남역사박물관, 『하남의 문화유산』, 2004.

46) 하남역사박물관, 『하남의 문화유산』, 2004, p98-117.

47) 道使 : 삼국시대에 확장된 지방의 영토를 통치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하던 지방관. (네이버 국어사전)

저수지를 사용할 때의 수시로 준설하는 관리 작업이 병행되었음을 감안 할 때 산성(山城)이나 저수지의 조성연대는 훨씬 그 이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며, 명문내용이 이성산성은 남한성(南漢城) 또는 한성(漢城)으로 불리었다는 방증(傍證)으로 이 산성이 한산(漢山)에 있는 성이라는 뜻이므로 이곳이 한산(漢山)이었음을 간접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제가 현재의 하남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 도시가 형성된 것이요 그 도시가 유지 되었기에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 까지 지역중심도시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풍납토성이 도읍이었으면 당연히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을 것인데 풍납토성은 옛 광주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가 한 번도 없고 변방 한촌으로 있었기에 도시 발전 과정을 상기해 보아도 한성백제가 하남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2) 하남 춘궁동에는 '궁안(宮內) 등 마을이름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다.

하남시에 백제궁터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춘궁동에는 지금도 궁안(宮內)이라는 지명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춘궁동(春宮洞)의 지명도 춘장리(春長里)와 궁내리(宮內里)가 합성되어 생긴 이름이며 백제시대에 처음축조⁴⁸⁾된 이성산성(二聖山城)은 춘궁동에 소재하며 춘궁동을 중심으로 한 부근지역을 '고골(古州)' 이라고 하여 '옛 고을' 이라는 지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 하사창동(下司倉洞)은 골말(州村)이라고 부르는데 '고을 마을' 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보고 있다.

(3) 백제 개로왕 시대의 기록인 연하수언(緣河樹堰)과 숭산(崇山)은 하남에서만 고증이 가능하다.

삼국사기 권제25 백제본기 제3 개로왕조(蓋婁王條)에 동왕(同王)21년 '연하수언 자사성지동 지 숭산지북(緣河樹堰自蛇城之東至崇山之北)' 이라고 하여 '강을 따라 독을 세워 사성 동쪽에서부터 숭산 북쪽까지 이르게 하였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 제방은 고구려의 철자 도림(道琳)이라는 승려가 장기와 바둑으로 개로왕에 접근하여 백제의 국고를 탐진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개로왕에게 제시한 네 가지 국책사업이 성곽정비사업, 왕궁신개축사업, 선왕의 능침조성사업, 제방축조사업인데 그 마지막 사업인 '강을 따라 제방을 쌓는(緣河樹堰)' 공사의 이유를 '백성지옥려루괴어하류(百姓之屋廬屢壞於河流)' 라 하여 '백성들의 가옥과 농막은 빈번히 강물에 허물어지니' 로 매년 홍수를 방지하는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성(蛇城)동쪽에서 숭산(崇山)북쪽 까지라면 지금의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그곳은 하남시 강변마을 망월동의 '장수동 마을' 에서 김단산 강가까지를 이르는 말이다.

사성이 있었던 마을은 미사리 조정경지장 근처 장수동 마을로 비정하는 까닭은 마을부근에 '맹

48) 최몽룡, 『고고학과 문헌으로 본 한성시대 백제』, 2011(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심정보, 『이성산성 축조기법에 대한 고찰』, 2011(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개'라는 포구가 있고 그 포구를 중심으로 그곳에 토성을 쌓았던 흔적이 완전한 구렁이 있으니⁴⁹⁾ 즉 한문으로 하면 사포(蛇浦)로 되며 또 장수동 마을 이름을 6-70년대 까지만 하여도 '장수구렁이'라 호칭하였는데 이는 '장사구렁이'에서 와전된 것으로 본다.

장사(長蛇)는 '긴 뱀' 또는 '큰뱀'이라는 뜻이니 즉 '구렁이'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때는 장사(長蛇)마을로 부르다가 구렁이라는 말이 더 따라붙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축구(蹴球)'를 '축구차다'고 한다거나 '역전(驛前)'을 '역전앞'으로 부르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한편 뱀개(蛇浦)를 두르고 있던 토성(土城)의 모양이 뱀개를 중심으로 큰 구렁이가 둥글게 꼬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연상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수동 마을에 살았던 지인에 의하면 5-60년 전만하여도 현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남쪽 길에 기다란 제방(둑)이었다 한다.⁵⁰⁾

특히 연하수언(緣河樹堰)의 축성목적이 홍수방지인 만큼 홍수가 걱정이 없는 지역은 둑을 쌓을 필요가 없으니 보통 성(城) 같으면 망월동 구산(龜山)으로부터 축성 하였을 것이나 구산으로부터 사성까지의 거리는 약 3-400m로 같은 한강변이라도 지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홍수의 위험이 없으므로 제방을 쌓지 않고 지대가 낮은 상습침수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사성 동쪽부터 둑을 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풍납토성근처에서 검단산까지 연하수언을 축성하였다고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구역 한강변에는 산도 있고 전혀 홍수와 상관없는 고지대인 구암서원 부근에도 연하수언을 축성하였다는 이야기로 이는 축성목적도 도외시킨 군사적 방어성으로 착각하여 제시된 주장에 불과하다.

한편 당시의 연하수언(緣河樹堰)이 조선후기의 지도에 연하언(漣河堰)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1725년 여지대전도의 광주부도(廣州府圖)를 비롯한 1735년 해동여지도의 광주부도, 1767년-1776년 사이에 발간된 광여도의 광주부도, 18세기 중엽 경기도지도의 광주부도, 18세기 중엽 여지도의 광주부도 등에서 백제시대 연하수언(緣河樹堰) 축조구간(築造區間)인 하남의 장수동마을(蛇城)에서 검단산(崇山) 구간에 연하언(漣河堰)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조선후기까지도 연하수언의 명맥이 이어져 왔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풍납토성에서 장수동마을 구간에는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그리고 검단산(黔丹山)을 숭산(崇山)으로 보는 이유는 검단산이라는 자체가 '신성한 제단이 있는 큰 산'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온조왕 원년(BC18) 5월에 동명왕의 사당인 동명묘(東明廟)가 세워졌던 산으로 지목함에 무리가 없으며 동명묘제단을 발견하였다는 학자가 있고 전술한 백제의

49) 중앙(重庵) 구민회(具敏會) 남한비사(南漢秘史), 1956, p25.

50) 장해자 씨의 증언.

고승 김단선사의 이름을 차용하여 김단산으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광주의 진산(鎭山 : 혹은 主山)으로 임금의 사냥터로 사용되고 그 사냥을 기우의 방편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아래는 나라의 기우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4) 하남시에는 도성근처에 대형 사찰이 있었다.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 가을 7월에 진(晉)나라를 거쳐 들어온 호승(胡僧 : 서역의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로부터 불교가 전승된 이후 침류왕 2년(385) 봄 2월에는 한산에 가람을 창건하고 승려 열 명에게 도첩(度牒 : 승려의 신분증명서)을 주었으며 그 후 나라에서 불교를 육성하여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 일본사찰건립의 주역을 담당하였는데 그러면 도성 근처에는 신라나 일본처럼 왕실에서 운영하는 대사찰이 있어야 하는데 하남에는 백제시대의 사찰로 추정되는 두개의 큰 절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춘궁동 동사지(桐寺址)로 2010년 8월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간한 '문화재 대관 사적' 제1권⁵¹⁾에서 발굴된 백제 토기 및 와편 등을 근거로 백제시대 사찰의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경주 황룡사에 필적할 규모를 가졌던 사찰로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이성산성(二聖山城) 정남향 약 1km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하사창동의 천왕사지(天王寺址)로 2천여 평을 상회하는 대사찰로 이곳에서는 중앙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철불(鐵佛)인 춘궁리 철조여래좌상(春宮里鐵造如來坐像)이 있었던 절터이며 석가모니 진신 사리를 소장하였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천왕사지는 교산동 건물지(校山洞建物址)의 정남향 약 1km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有數)한 고고학자에 의하면 천왕사의 발굴이 더 진행되면 3백7-80년대의 백제시대 사찰로 확인될 가능성이 짙은 사찰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교산동 건물지는 백제왕궁지(百濟王宮址)설과 객사(客舍)설이 상충되고 있다.

광주객사라는 주장의 근거는 명문기와가 출토되었다는 것인데 다른 인근지역에서도 같은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혼동을 주고 있다.

또한 건물지 발굴결과 은돌시설이 없으며 객사로서는 너무 크고 관아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멀며 아홉 번이나 중건한 흔적이 있는 등 왕궁지(王宮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풍납토성이 백제도성이 아닌 이유

(1) 종합적 방어를 염두에 두지 않은 도성이다.

51) p324-329 문화재 관리국.

나라의 도성(都城)을 정 할 때는 나라가 외침으로부터 위급할 때 어떻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몇 가지 방어와 퇴로설정은 기본사항이다.

그러나 풍납동 토성은 한강이 해자의 역할을 하여주는 이점도 있으나 일단 방어선이 뚫렸을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려운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도성은 대개 자연적 산의 배치를 울타리로 삼고 퇴로역시 산을 통하여 연결됨이 상식인데 풍납토성은 평지성(平地城)으로 포위와 공격당하기 쉬운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대가 낮아 상승적 홍수지역이며 풍납(風納)이라는 말처럼 북서풍이 세차게 들이치는 바람맛이 땅으로 도성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지역이다.

이는 백제의 유입경로를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백제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세력과 결별하고 남하한 부여 계통의 나라이다.

고구려의 졸본성(卒本城)인 오녀산성(五女山城) 그리고 환도산성(丸都山城), 국내성(國內城) 그리고 백제가 475년 한성시대를 고구려와의 패전으로 마감하고 그 후 웅진성(熊津城 : 공주), 사비성(泗沔城 : 부여) 등지로 천도하였는데 열거한 모든 도성은 산에 의지하여 있다.

이러한 북방민족의 방이넘이 충실한 도성선정 성향에 비추어 풍납토성은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평지에 고립된 작은 성으로 고대국가의 도성선택의 일반성에서 크게 벗어난 허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풍납토성은 주변에 산이 아예 없고 한산으로 지칭되는 남한산(南漢山)과 금암산(金岩山) 및 객산(客山) 등이 보이지 않고 숭산(崇山)으로 지칭되는 검단산도 볼 수 없어 이들 산과 연관된 백제사를 풀어나가기 난감한 성이다.

(3) 풍납토성 주변에는 하남과 달리 삼국시대는 물론 그 이후의 사찰도 발견하기 지난하며 특히 대형 사찰지가 없다는 것은 도성의 존재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4) 풍납토성 하나를 가지고 고구려 군사 3만 대군이 7일 동안 밤낮으로 공격하여 함락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475년 가을 9월에 고구려 장수왕은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사로잡아 아차성(阿且城)아래로 끌고 가 죽였다. 고 하였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14 유라쿠(雄略 : 재위:456-479)천황 20년 조(條)에는 백제기(百濟記)를 인용하여 '개로왕 을묘년 겨울에 박(狛 : 개라는 뜻으로 적국의 왕인 장수왕을 지칭)의 대군이 와서 대성(大城)을 7일 밤낮 동안 공격해 왕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성을 잃었으며 국왕 및 대후 왕자 등이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3만 대군이 평지의 작은 성에 불과한 풍납토성을 7일 밤낮으로 공격할 대상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아무래도 당시의 도성이 하남의 이성산성(二聖山城)처럼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5) 왕성이라면 왕궁지(王宮址)가 있어야 하는데 풍납토성에는 왕궁지와 초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왕이 수백 년 거처하였다면 성안은 반드시 왕궁지가 있어야 한다.

왕궁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춧돌인데 주춧돌 없는 왕궁을 그것도 건축술에 있어서는 삼국 중 가장 발달한 백제가 주춧돌 하나 없는 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해가 가겠는가?

(6)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니고 온조왕이 한강 서북쪽에 쌓은 다용도 성(城)으로 봄이 타당하다.

삼국사기 권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14년(BC5)조(條) 봄 정월에 수도를 옮기고(한산 아래) 가을 7월에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성 주민들을 그곳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고하였고 온조왕 43년(25) 가을 9월에 큰 기러기 1백여 마리가 왕궁에 모여들었는데 일자(日者)⁵²⁾가 말하기를 ‘기러기는 백성의 형상이니 장차 멀리서부터 와서 의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남옥저(南沃沮)의 구파해(仇頗解) 등 20여 가(家)가 부양(斧壤)으로 와서 정성을 바쳐 복종해 오니 왕이 받아들여 한산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으니 먼저 온조왕 14년에 한강 서북쪽에 쌓은 성은 한강 서북쪽이라 하였으니 한강의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그해 1월에 한산 아래(漢山下)로 수도를 옮겨 왔으므로 옮긴 수도(한산)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한강가의 서북쪽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면 정확히 하남에서 보아 풍납토성은 서북쪽이 된다. 현재 풍납토성에서 서북쪽의 한강가의 성으로 민가를 나누어 살만한 정도의 성이 존재 하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온조왕 43년 남옥저(南沃沮)에서 귀순한 20여 가구의 백성을 한산의 서쪽에 안치하였다. 고하여 그 기준점을 도성이 소재한 한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 한산의 서쪽이면 어디일까 그것은 풍납토성을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을 받아들임에 있어 확실한 성향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도성(都城)에 두는 것 보다 다른 도성과 그리 멀지 않은 풍납토성에 살게 하는 것이 왕실의 신변보호에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납토성은 온조왕 14년에 한강 서북쪽에 축조한 군사와 민생과 왕통보호를 위한 복합 용도의 성이라고 생각된다.

52) 日者: 삼국시대에 날의 길흉을 점치거나 천문관측을 맡아보던 관리. (네이버 국어사전)

VI. 결론

도미설화는 삼국사기 열전의 50편 설화 중 백제인은 단 세편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계백, 흑치상지, 도미가 그 전부이다.

도미는 백제 개루왕 시대의 인물을 소개하여 놓고 내용은 개로왕시대를 배경으로 전개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개로왕을 근개루왕 이라고도 하였는데 개로왕 21년 기록에서 승려 도림과의 내용에서 '백제왕 근개루는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다.'로 기재함으로써 개로왕과 근개루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미설화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천성도(泉城島)와 산산(蒜山)등의 지명을 제4대왕 개루왕시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제21대 개로왕의 성향 등을 반영한 설화라고 판단하여 개로왕 시대의 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미부부가 우연히 만난 천성도(泉城島)를 여러 사료를 찾아 지금의 오두산성(鰲頭山城)으로 비정하였으며 고구려로 망명한 산산(蒜山)은 교하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금의 파주시와 교양시 근처의 지역으로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교하군의 영현(속현)인 산산현 역시 지역통솔과 행정편의 명령하달의 목적을 감안하면 주변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산산현이 덕원 원산 부근지역이라는 것에 대해 기록상의 하자를 제기하였다.

한편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터는 여러 문헌과 지리도 현지실태조사서 등을 제시하며 하남의 창우동에 소재한 도미나루가 유일한 곳으로 다른 지역 설화의 비현실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미설화는 백제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임을 규정하였다. 도미설화가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 도미부인이 탈출한 백제도성은 당시의 사건상황으로 볼 때 하남시 준중동의 백제도성일 수밖에 없음을 사례를 들어 정리하였다.

또한 도미설화 이외에도 하남에 백제도성이 존재하는 당위성과 풍납토성의 도성존재의 허약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미나루의 주변 상황을 연구하면서 현재 사학계의 중심이론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하남의 한성백제 존재 설은 반드시 회귀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하남지역이 풍납토성보다 연구할 소재나 발굴자원이 무궁하며 일찍이 하남을 백제의 중심도성으로 설화한 다산 정약용이나 중정 홍경모 등 선학(先學)들의 안목이 더 믿음의 무게를 더하기 때문이며 이를 기대케 하는 것이 역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기애 반드시 후학(後學)들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보하기 때문이다.

이 작은 글이 진실을 밝히는 한 알의 작은 씨앗이 되고 하남을 사랑하는 희망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광주부지(廣州府誌)』
 『대동지지(大東地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이강래, 『삼국사기』, 한길사, 1998.
 하남시, 『하남 도미나루 유적』, 2003.
 하남문화원, 『도미설화 학술대회』, 2009.
 하남 역사박물관, 『중정 남한지』, 2005.
 광주문화원, 『남한비사 구민회』, 2003.
 박종화, 『아랑의 정조』, 하서출판사, 2006.
 하남 역사박물관, 『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2003.
 국학자료원, 『하남의 역사와 문화』, 2001.
 하남역사 박물관, 『하남의 문화유산』, 2004.
 하남문화원, 『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2011.
 『한국인의 족보』, 일신각, 1977.
 수원시, 『수원의 옛 지도』, 2000.

남양주 봉선사 대종명문(奉先寺 大鐘銘文)이해

- 남양주 유일한 보물종 (제397호) -

엄 중 오 (남양주역사박물관 해설사)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세조(世祖)의 승하
2. 예종(睿宗)의 광릉(光陵) 조영
3. 정희왕후(貞熹王后) 승하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조영
4. 세조의 원찰이었던 봉선사(奉先寺)는 어떤 절인가?
5. 봉선사 대종명문(大鐘銘文) 이해

III. 끝맺음

집필자

엄 중 오

남양주역사박물관 해설사, 전 남양주시 문화관광해설사회장

I. 서론

남양주 역사박물관 불교문화 코너에는 남양주시 여러 문화재 총 72점 중 유일한 보물, 봉선사 대종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물종 대형 사인물, 대종에 새겨진 명문(銘文)타본, 종명문 해석 글 등이다.

세조왕이 홍서(薨逝)한지 544년, 봉선사가 세조의 광릉(光陵)원찰로 창건되고, 대종을 함께 주성 예불을 올린지도 54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더욱이 2011년 10월 3일 봉선사에서 새로운 범종을 주성 일상 예불용으로 타종하게 되자 귀중한 보물종은 이제 묵은종, 어미종이 되어 뒷자리 종루로 옮겨져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나 영겁의 세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즈음하여 보물종 대종에 대한 주성(鑄成)역사와 종의 특징, 종에 새겨진 명문을 해석 이해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하겠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세조의 승하로 광릉이 조영되고 봉선사와 보물 대종은 1469년 세조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한 원찰로 지어지고 주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게 되었으므로 먼저 세조의 승하와 광릉 조영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다.

II. 본론

1. 세조(世祖)의 승하

제7대 세조는 1417년(태종17) 9월 세종과 소현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1453년(단종1) 계유정란으로 권력을 잡고 2년 뒤 1445년 어린왕 단종을 상왕으로 앉히고 왕위에 오른다.

1468년 9월 피부병 등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죽음을 예견한 왕은 왕세자(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이틀 날 수강궁에서 승하하니 재위 13년 3개월 보령 52세이었다.

세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도 세간에 팽팽하다. 과연 세조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죽인 병혹한 야심이 인가, 아니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여 조선의 국기를 튼튼하게 했던 부국강병의 군주인가를...

2. 예종(睿宗)의 광릉(光陵)조영

1468년 9월 8일 왕위에 오른 예종은 대행대왕의 국장을 하고하니 즉시 빈전(殯殿)도감 국장(國葬)도감 산릉(山陵)도감이 설치되고, 9월 25일 의정부에 명하여 세조의 생전 행적치적에 걸맞는 묘호, 시호, 능호, 혼전을 정하도록 하니 정승 육조의 참관이상 춘추관 예문관 등이 의론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묘호(廟號) : 세조(世祖)

시호(諡號) : 혜장승천체도 열문 영무지덕 융공성신명예 흠숙인효
(惠壯承天體道 烈文 英武至德 隆功聖神明譽 欽肅仁孝)

능호(陵虎) : 광릉(光陵)

혼전(魂殿) : 영창전(永昌殿)

10월 2일 남양주 풍양행궁(豐壤行宮)에 예종이 친히거동 행장을 갖추고 능자리 산세를 살피니 명당이므로 광릉릉지로 확정 짓고 국장을 마친다.

세조는 평소 역대 왕릉 조영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고, 특히 능침의 석실, 석곽, 병풍석을 만들어 설치하는데 인명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유훈을 남긴다.

사육속후 물설석실 석곽(死欲速朽 勿設石室 石槨) 즉 죽으면 속히 썩어야 하니 석실과 석곽을 마련하지 말라

『조선왕조실록』『예종실록』 1권, 즉위년(1468 戊子) 9월 17일(癸酉)

이에 따라 1468년 11월 28일 서거한지 80일 만에 조선 최초의 회격(灰隔) 다짐(석회3, 황토1, 세사1 을 느릅나무 껍질을 끓인 물로 버무림) 왕릉이 조영된다.

3. 정희왕후(貞熹王后)승하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조영

정희왕후는 1418년(태종18) 영의정 윤번의 딸로 태어났으며, 1428년(세종10) 세조와 가례를 올리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된다. 8대 예종이 1년 2개월 만에 승하하니 정희왕후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율산군(성종)을 후사(後嗣)지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고 13세인 어린성종(成宗)을 대리 7년간 수렴청정을 한다. 이는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의 기록이 되며, 정희왕후는 세조서거 후 15년 뒤인 66세 되던 해 1482년(성종14) 3월 20일 온양행궁에서 요양 중 승하하니 다시는 궁

월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대문 밖 영순군 집에 빈전이 마련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해 6월 12일 72일 만에 광릉동쪽언덕에 장사지내니 조선 최초의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이 조영된다.

4. 세조의 원찰이었던 봉선사(奉先寺)는 어떤 절인가?

봉선사는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운악산 기슭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이며, 969년(고려 광종21) 법인국사 탄문(法人國師坦文)에 의하여 창건 되었다하며, 절 이름은 운악사(雲岳寺)이었다.

1469년(예종1)에 예종이 절을 다시 세우고 절 이름을 봉선사로 바꾸고 현재 보물종인 대종도 함께 만들어 달고 선왕 세조의 능침을 수호하는 원찰(願刹)로 하였으나, 봉선사는 불행히도 나라의 큰 난리가 일어날 때 마다 사우(寺宇)가 전소되는 전화를 입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큰스님들의 불심 불력으로 대사찰이 복원되었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사찰을 주지 낭혜대사(朗慧大師)가 중수

1637년(인조15) 병자호란 때 소실된 사우를 주지 계민선사(戒敏禪師)가 중건

1951년 3월 6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절을 능허(凌虛), 운경(雲鏡), 운허(耘虛), 월운(月雲) 스님에 의해 지금의 봉선사로 복원하였다.

지정 문화재(5점) : 봉선사대종 (보물 397호)

봉선사 괘불 (유형문화재 165호)

목조불좌상 (문화재 자료 163호)

선사 칠성도 (문화재 자료 164호)

독성도 (문화재 자료 165호)

5. 봉선사 대종명문(大鐘銘文) 이해

보물종 봉선사대종은 봉선사 경내 새로 지은 웅장한 범종각 2층에 달려있으며, 1469년 7월(예종 1) 8대 예종과 모후 정희왕후에 의해 주조 되었으며, 높이는 238cm이며, 구경 168cm, 두께 23cm, 무게 15톤의 청동대종이다.

대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윗 정상에 음통이 없고 종을 걸게 만든 섬세한 쌍용무늬의 용무늬 만 있으며, 종견 복판에 연화를 들렸고 종신 중앙에 세 가닥의 옆머리를 둘러 상·하 구분이 뚜렷하고 띠 윗부분에 네 개의 유곽과 원형두광을 갖추고 양손을 살며시 마주잡은 네귀의 미려한 보살입상이

양각되어 있어 극치를 이룬다. 또한 종신 중앙 아래 부분엔 당시 명문장가 강희맹(姜希孟)이 글을 짓고 당시 서예의 대가 정난종(鄭蘭宗)이 글씨를 쓴 종명문과 종을 만든 장인들의 직책과 이름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

봉선사 대종 종명원문(鍾銘原文)

奉先寺鐘銘

奉先寺鐘銘并序

推忠定難翊戴功臣崇政

大夫行刑曹判書兼經

筵知事晉山君姜希孟

奉教撰

嘉靖大夫行虎賁衛大護

軍兼春秋館同知事臣鄭

蘭宗奉教書

恭惟

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之德

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殿下龍飛九五光御金輪神化

旁治民物熙積十有四年矣

臣民無緣奄闕

禮陟今我

主上殿下孝思罔極終天慕遠稽顙

典於禮經

玄宮於坎隅 於其傍營利資福曰

奉先寺銘銅洪鐘

命臣作銘臣竊惟鐘之爲器道具

之最厥聲 容響遠懼邇上徹

有頂下該六塗 王受輪夢求

長擊提婆再鳴大興眞教今以

是鐘警于六時豈特道侶發其

深省迷倫息其苦趣必將冥達

玄宮頓增佛知矣於戲我

世祖大王功德之盛興夫我

嗣王殿下誠孝之極所以輝映萬古

者不可不托諸鐘鐘以振耀於

無窮焉臣希孟謹拜手稽首而

銘曰園陵開寶刹金碧聳巒峨法樂

震人天妙音諧幽明上至阿加可

橫遍恒河沙度盡無邊生福

利成無遮

列聖登正覺盤石固邦家山平海可
竭功德終不磨
成化五年七月日

鑄成定略將軍行義興衛司猶 金德生
畫員 朝奉大夫 李百連
宣教郎 金仲敬
鑄成匠 鄭吉山 李波廻
李命仇知 吳春敬
彫刻匠 張今晉同 金勿金
注匠 李乙夫 張石京
朴守生 金上佐 金君乙未
金德連 車季山 安德銀
吳守山 李吾正 邊松阿之
刻字 金順生 鄭春發
姜介未致 金末叱同
木手 咸毛里 張觀晉老
爐冶匠 金蒙龍 朴吾乙未
玄得富
水鐵匠 姜元奇 李達磨
朴山守 沈文 金貴山 高他乃 金龍 金春敬
朴有生 高四萬 尹石乙伊
姜成敏 朴承通
金奇 金守 金思仲 崔彥 崔末生 金珍 朴石乙伊
李叱同 林石
使令 趙承守

종명글씨는 총 566자의 한자 해서체로 양각되어 있으며, 첫머리글로 주종의 사유 그리고 세조와
역대선왕의 극락왕생 발원문 글씨 숫자가 385자며, 이어서 종을 만드는데 참여한 장인들의 직종과
이름글자 181자로 구분되어 새겨져 있다.

종명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을 만든 사유와 발원문

추충정란 익대공신 숭정대부 행형조판서겸 경연지사 진산군 신 강희맹 왕명을 받들어 명문을
지었다.

가정대부 행호분위 대호군겸 춘추관 동지사 신정란종 왕명을 받들어 글씨를 쓴다.

삼가 생각건대 세조 혜장승천 체도 열문 영무지덕 융공성신 명에 흡숙인효 대왕 전하께서는 임

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찬란한 금륜을 타시고 신성한 교화가 두루 미쳐 백성과 만물이 기쁘고 편하게 살게 된지 14년이 되었다.

신하와 백성이 복이 없어 갑자기 승하시니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 효도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사 하늘에 멀리 닿도록 사모하시며, 예경에서 법도를 찾아보시고 북쪽 모퉁이에 현궁을 지으시어 그 곁에 명복을 비는 절을 세워 봉선사라하고 구리를 녹여 큰 종을 만들어 신에게 명하시어 명을 짓도록 하셨다.

신이 생각건대 범종이란 그릇은 불도 수행기구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으로서 그 소리가 웅장하여 멀리서는 두려워하고 가까이서는 경계하며, 위로는 하늘 꼭대기에 미치고 아래로는 육도에까지 미친다.

아가타왕(천왕)이 범륜을 받아 꿈속에서 길이 울리기를 바라며 제바(하늘)에 다시 올려 불법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이종으로 하루 여섯 번 경책하면 어찌 도반들이 윤리에 어긋나는지 깊이 반성하여 악도에 윤회하는 것을 그칠 뿐이겠는가? 반듯이 현궁에 올라 문득 부처의 지혜를 더하게 될 것이다.

아아 우리 세조대왕께서는 공덕이 크시기도하다. 왕위를 이으신 우리 전하(예종)께서는 정성과 효성이 지극하셔서 만고에 밝게 빛나실 분이니 저 큰 종에 의탁해서 영원히 멀쩡히 빛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신하들은 삼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 종명문을 짓는다.

능원가까이에 절을 세우니 하늘 높이 우뚝 솟았네 범구의 메아리는 인간과 하늘을 진동하고 묘한 염불소리는 이승과 저승을 건지네 위로는 아가니 타천 길으로는 항사세계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여 그 복으로 무차공덕 이루리

역대 임금들께서 모두 정각에 오르시고 나라가 반석같이 견고하여라

산이 평평해지고 바다가 마를지언정 이공덕은 영원히 마멸되지 않으리.

2) 종을 만든 해

봉선사 대중명문 다음에 종을 만든 해를 성화(成化)5년 7월이라 명기되어 있으니, 성화는 명나라 제9대 헌종(憲宗)의 년 호이니 성화 5년은 1469(예종2) 7월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주성 장인들의 직종과 이름들

모두 10개 분야에 걸쳐 종을 만든 장인 51명의 이름이 쓰여 있다.

주성(鑄成)1명 : 정략장군(定略將軍) 행의흥위사맹(行義興衛司猛) 김덕생(金德生)
 화원(畫員)2명 : 조봉대부(朝奉大夫), 이백련(李百連), 선교랑(宣敎郎), 김중경(金仲敬)
 주성장(鑄成匠)4명 : 장길산(鄭吉山) 이파희(李波熙), 이명구지(李命仇知), 오춘경(吳春敬)
 조각장(彫刻匠)2명 : 장금음동(張今音同), 김물금(金勿金)
 주장(注匠)11명 : 이을부(李乙夫), 장석경(張石京), 박수생(朴守生), 김상좌(金上佐), 김오을미(金吾乙未),
 김덕련(金德連), 차계산(車季山), 안덕은(安德銀), 오수산(吳守山), 이오망(李吾亡),
 변송아지(邊松阿之)
 각자(刻字)4명 : 김순생(金順生), 정춘발(鄭春發), 강개미지(姜介未止), 김달동(金達同)
 목수(木手)2명 : 함모리(咸毛里), 장관음노(張觀音老)
 노야장(爐冶匠)3명 : 김몽충(金蒙寵), 박오을미(朴五乙未), 현득부(玄得富)
 수철장(水鐵匠)21명 : 강원기(姜元奇), 이달미(李達磨), 박산수(朴山守), 심문(沈文), 김귀산(金貴山),
 고타내(高他乃), 김룡(金龍), 김춘경(金春敬), 박유생(朴有生), 고사만(高四萬),
 윤석을이(尹石乙伊), 강성민(姜成敏), 박승통(朴承通), 김기(金奇), 김수(金守),
 김사중(金思仲), 최언(崔彦), 최말생(崔末生), 김진(金珍), 박석을이(朴石乙伊),
 이질동(李叱同), 임석(林石)
 사령(使令)1명 : 조승수(趙承守)

4) 종명문을 지은사람과 글씨를 쓴 사람

종명문을 지은사람 : 강희맹(姜希孟)

- 생졸년 1424년(세종6) ~ 1483년(성종14) 59세 졸
-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1447년(세종29) 별사문과에 18세로 장원
- 1455년(세조1)에 원종공신 2등 책봉
- 예조판서, 형조판서, 병조판서, 좌찬성
- 1468년(예종즉위) :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이 됨
- 문장이 당대에 으뜸이고 글 그림에도 뛰어 났으며, 경국대전, 동국여지승람 등 수 많은 편찬사업에 참여함

글씨를 쓴사람 : 정란종(鄭蘭宗)

- 생졸년 : 1433년(세종15) ~ 1489년(성종20) 53세 졸
- 1467년(세조12) 황해도 관찰사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 공을 세움
- 평안도 병마절도사, 이조판서, 공조판서, 호조판서 역임
- 서예에 일가를 이루어 초서와 예서를 잘 썼음
- 석문(石文)으로 서울원각사비음, 양주의 신숙주 묘표
- 종명 글씨를 양양 낙산사종명 고성 유점사종명 덕수궁의 흥천사 종명 등이 전해짐

III. 끝맺음

이상 남양주 봉선사 대종 명문이해에 대하여 기술한바와 같이 세조의 현궁 곁에서 반천년 이상 넘게 세조의 극락왕생과 중생의 무한한 구도를 위해 자기 몸 올려온 대종은 일상의 사명을 다하고 지금은 목은종 어미종이 되어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 영겁의 세월 속에 묻히게 되었다.

이제 그 보물 대종의 묘한 종울림 소리를 예와 같이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지역 역사문화를 애호하는 한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더욱 크다.

한편 대종에 새겨진 주성 장인들의 이름에는 녀자 이름들이 많음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명구지(李命仇知), 김오을미(金吾乙未), 박오을미(朴五乙未), 윤석을이(尹石乙伊) 등

이는 고려국에 이은 조선초기 백성들의 작명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 가치가 될 수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세조실록』

『예종실록』

『성종실록』

남양주 역사박물관, 『옛 향을 품다』(2010)

윤종일, 임병규 공저, 『운악산 봉선사』(2008)

〈부록1〉 봉선사 새범종 주성연기문

철에 종이 있어온 유래는 깊다.

부처님 당시에도 설법을 알리는 신호로 종을 울렸고 설법도중에도 지금 저 종소리는 듣나하는 문답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종소리에 따라 비구들이 식당으로 간다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보아 종은 법을 거량하는 도구로 혹은 대중을 통솔하는 기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종에 대한 신앙이 더욱 두터워지면서 종은 운판, 목어, 범고 등과 함께 사물의 하나로서 지옥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신심이 두터운 선남선녀들이 선망 사존을 위해 범종을 불전에 바치게 되었다.

우리 봉선사 대중은 서기 1469년 조선 제7대 세조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그 부인 정희왕후께서 선왕의 왕생극락을 빌기위해 능침결에 이봉선사를 세우고 범종 3개를 동시 주성하여 봉선사와 양양 낙산사, 서울 남대문 보신각에 걸었는데 국가 보물 제397호인 우리 범종만이 남아있다.

이로서 봉선사 범종 보전 대책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는 이 자리에 정남으로 5m지점에 15평 2층의 새범종각을 세우고 2011년 3월 5일 보물범종을 이전해 주니 현 주지 이목사주는 선유물을 아끼는 성품이 자별한지라 귀중한 국보범종을 일용에 올리는 것은 보존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묵은 종 자리에 새범종을 주성해 모시고 일용에 올리라하고 모연을 시작하여 오늘 그 회양을 보니 종의 규모는 묵은종과 같고 설계와 시공은 鐘宗社에서 맡아주셨고 소요경비는 약 3억 8천만원인데 그 시주들의 방명은 종 내·외벽에 새겼다고 한다.

아! 장하여라 국가의 정책도 그렇거니와 소임자들의 생각에 고맙고 그러한 소임자들의 생각에 찬동하여 큰손 작은손이 하나가 되어 이처럼 찬란한 일을 이루어낸 여러 동참자들의 마음이 더욱 고맙다.

아! 아름다운 불사의 불보살님들 인들 어찌 복을 내리시지 않으시랴.

뒷방에서 수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2011년 10월 3일

다경설 월운 근기

〈부록2〉 봉선사 보물종 사진



[三幕寺]의 名稱 表記와 創寺 由來

김 정 석 (안양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목 차

I. 머리말

II. [三幕寺]의 네 가지 名稱

1. 韻文의 境遇

2. 散文의 境遇

III. [三幕寺]의 두 가지 創寺 由來

1. 佛家の 立場

2. 儒家의 立場

IV. 맺음말

집필자

김 정 석

안양향토문화 연구원, 안양문화원 40년사 편찬위원장,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I. 머리말

三聖山 三幕寺는 통일신라 文武王 때 京畿道 衿川 三聖山에 건립된 사찰로 677년(문무왕 7) 元曉·義湘·尹弼(혹은 潤筆) 등 세 명의 大師가 冠岳山에 들어와서 막(幕)을 치고 수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곧 元曉가 창건하고, 道詵이 증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의 사찰 중 詩文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찰이 三幕寺이다. 현재 존재하는 安養寺는 광복 이후에 새롭게 조성된 것이고, 고려 왕건이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현재 폐사된 安養寺는 이제 발굴 중이다. 왕건과 관련되어 창건된 安養寺는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고, 그것마저 현 안양시 安養寺인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향적산, 화개산, 강화도, 환산, 황해도 문화현,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도 안양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양을 대표하는 사찰은 三幕寺가 아닌가 한다. 三幕寺가 삼성산, 관악산에 있어 주로 유람한 후 시를 읊조리거나 여행기를 문헌에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고전번역원』의 문헌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보면 三幕寺의 한자의 다른 표기와 아울러 다른 음도 발견할 수 있다. 곧 安養의 三聖山 三幕寺에 대한 문헌 자료에서 三幕寺에 대한 표기가 달랐다. 〈三藐寺〉, 〈三幕寺〉, 〈三逸寺〉 게다가 〈三岳寺〉라고 표기된 자료도 있어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막사에 대한 명칭과 유래에 대한 여러 설을 논의함으로써 삼막사에 대한 선인들의 세계관과 인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한국고전번역원』에 나온 문헌 자료를 통해 2장에는 三幕寺에 대한 네 가지 명칭에 대한 근거를 검증하고, 3장에서는 두 가지 창사 유래를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시문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三幕寺일 가능성이 높지만 明示하지 않는 시문¹⁾은 제외한다. 또한 한편씩밖에 없는 관악산의 沙幕寺와 三逸寺²⁾도 삼막사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물증도 없어 제외한다. 제목이나 내용에서 혹은 보충 설명이 없다면 이 내용이 [三幕寺]와 관련성이 있는 지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온 모든 자료는 [三幕寺]로 되어 있는데,³⁾ 본고에서는 논의 대상 자료의 가치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는 배제한다. 한편 명칭 표기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므로 논의의 편의상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三幕寺는 [三幕寺]로 표기하여 구별한다.

1) 예컨대 洪世恭의 〈遊三聖山〉에서 “三聖山中古寺存 西臺景勝不敢言”에서 三聖山과 西臺가 나오면 필경 삼막사이지만 삼막사라는 註나 敷衍 說明이 없으면 논의할 수 없다는 말이다.

2) 李敏敘의 시 〈宿冠岳沙幕寺〉와 李應禧의 시 〈謝玄上人來贈笠鞋〉 잔주에 스님의 이름은 조현이다. 당시 관악산 삼일사에 머물고 있었다. (名祖玄時住冠岳山三逸寺)

II. [三幕寺]의 네 가지 名稱

다행히도 [三幕寺]가 특이한 명칭이기 때문인지 문헌에 다른 지역과 사찰에서 삼막사를 사용한 예가 없다.³⁾ 일단 문헌에 나온 [三幕寺]에 대한 자료는 크게 韻文과 散文으로 나눌 수 있다. 韻文은 주로 시를 말하고, 散文은 수필 형식의 기행문이나 서문, 사적비문, 殘註 형식이나 연보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1. 韻文의 경우

논의의 편의상 먼저 운문의 형식인 한시에 나오는 [三幕寺]를 살펴보면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三幕寺]를 제목으로 표제를 단 경우(三岳寺 포함)
2. [三幕寺]가 작품 내에 등장하는 경우
3. 시를 설명하기 위해 [三幕寺]에 대한 井序나 殘註 등 부연 설명하는 경우

먼저 [三幕寺]가 시 제목으로 표제를 단 경우는 작가 27명 작품 33편으로 많은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三藐寺>는 총 13명에 14편, <三幕寺>는 총 8명에 12편, <三岳寺>는 총 4명에 5편, <三遯寺>는 2명에 2편이다.

<三藐寺> (13명 14편)

- | 인명 | 생몰 연도 | 제목 |
|--------------|-------------|------------------------------|
| 1. 송기수 (宋麒秀) | (1506~1581) | 題三藐寺上人天壽詩軸 |
| 2. 이홍남 (李洪男) | (1515~ ?) | 三藐寺僧天壽 因其弟子道惠乞詩 次申斯文德弘 韻 |
| 3. 송 인 (宋寅) | (1516~1584) | 贈三藐寺希祚長老 |
| 4. 심수경 (沈守慶) | (1516~1599) | 遊三藐寺 記事示同遊 |
| 5. 고경명 (高敬命) | (1533~1592) | 衿州三藐寺僧智雄自言嘗遊金岡 妙香二山云 用卷中韻 書贈 |
| 6. 이민구 (李敏求) | (1589~1670) | 秋日韓郎讀書三藐寺 因便寄信 |
| | 6-1 | 三藐寺 四疊 |
| 7. 김득신 (金得臣) | (1604~1684) | 三藐寺 別崔碩輔 |
| 8. 이인엽 (李寅燁) | (1656~1710) | 三藐寺 次存窩韻 |

3)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三幕寺>나 安震湖 編한 『朝鮮寺刹一覽』(冠岳山 三幕寺) 그리고 朝鮮總督府官報.

4) 문헌에 불교 용어인 삼막으로 기록되거나 군대 천막으로 인용한 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한 지명적인 단서나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곳에서 삼막사 명칭을 찾기는 어렵다.

9. 이인상 (李麟祥) (1710~1760) 與李士晦 吳敬父 李胤之游三藐寺
 10. 오재순 (吳載純) (1727~1792) 諸弟游三藐 歸後次韻寄示
 11. 김조순 (金祖淳) (1765~1832) 路上聞三藐 寺冰溪難越
 12. 김정희 (金正喜) (1786~1856) 陪家君上三藐寺 仲弟及金季良 咸聖中
 偕之 時雪庵 懶雲二釋 亦不期而至 皆近
 日名宿也
 13. 이시원 (李是遠) (1790~1866) 三藐寺佛燈 誓心祝願

〈三幕寺〉(8명 12편)

1. 박세채 (朴世采) (1631~1695) 宿三幕寺別養而
 2. 이천보 (李天輔) (1698~1761) 三幕寺夜飲
 3. 남유용 (南有容) (1698~1773) 三幕寺高樓
 4. 오원 (吳瑗) (1700~1740) 上三幕寺
 4-1 月谷歸路 登三幕寺前樓
 4-2 三幕寺
 5. 서유본 (徐有本) (1762~1822) 三幕寺
 6. 박운묵 (朴允默) (1771~1849) 三幕
 6-1 自三幕抵佛聖
 7. 변중운 (卞鍾運) (1790~1866) 登三幕寺望海樓
 7-1 同李少石學士 游三幕寺
 8. 홍한주 (洪翰周) (1790~1868) 三幕寺

〈三岳寺〉(4명 5편)

1. 윤휴 (尹鑄) (1617~1680) 三岳寺 示朴昌夏 李達夫
 2. 조현기 (趙顯期) (1634~1685) 九月廿五日 與金郎同舟濟露梁 歷賞黔山念佛菴
 仍向三岳寺歸路將訪紫霞洞 口占一律 示金郎
 3. 신익상 (申翼相) (1634~1697) 到三岳寺
 3-1 丁酉仲秋 余讀書三岳寺 具兄德輝氏 與其弟仲輝
 並 嚮踵至 論詩說賦 數十日樂也 及歸懷 未嘗不在
 三岳 相約再遊 而未周歲 仲輝別世 德輝氏 今又歿
 矣 屈指往迹 未十年 獨余在 其於人世 何如哉
 今來廣陵 將葬德輝氏 念不禁 西州之慟 聊賦一律
 以寓感舊之懷 時癸卯七月 二十日也
 4. 최석정 (崔錫鼎) (1646~1715) 入紫霞洞 訪三岳寺 路中口占

〈三遼寺〉(2명 2편)

1. 오도일 (吳道一) (1645~1703) 三遼寺
 2. 홍양호 (洪良浩) (1724~1802) 三遼寺觀澤照 二首

두 번째 시 작품 내 [三幕寺]가 표기되어 있는 작가 4명, 작품도 총 4편이다. 〈三藐寺〉는 李好民의 〈次柳參判月波亭詩韻〉과 沈喜壽의 〈送別元進士讀書山房 黃秀才與俱〉 등 2명의 2편이고, 〈三幕寺〉는 趙秀三의 〈觀嶽晴靄〉, 趙斗淳의 〈之山精舍用壁上舊題韻〉 등 2명의 2편이 있다.

〈三藐寺〉 이호민(李好民) (1553~1634) 〈次柳參判月波亭詩韻〉: 鐘聲三藐果林半 山色清溪冠嶽同
심희수(沈喜壽) (1548~1622) 〈送別元進士讀書山房 黃秀才與俱〉:

憶昔莊修三藐寺 于今四十五春秋

〈三幕寺〉 조수삼(趙秀三) (1762~1849) 〈鵲嶽晴靄〉: 三幕寺前初瀉滴 連珠臺下更盈盈.

조두순(趙斗淳) (1796~1870) 〈之山精舍用壁上舊題韻〉:

詞地遙連三幕寺 遺墟近接二臺亭

세 번째 시를 설명하기 위해 [三幕寺]에 대한 并序나 殘註 등 부연 설명하는 경우는 〈三藐寺〉로 표기된 작가 2명 작품 2편이다. 곧 申緯의 〈聖住菴備者〉 并序에서 三藐寺 1편과 殘註에서 洪受囑의 〈芝洞錄〉 三藐寺 1편이 있기 때문이다.

〈三藐寺〉

홍수주(洪受囑) (1642~1704) 〈芝洞錄〉

余於乙丑上後待罪衿陽 明谷崔汝和 錫鼎 以辭職
亦來礪江 聞尋三藐寺 復次鷺亭韻 求見遊山詩

신위(申緯) (1769~1845) 〈聖住菴備者〉 并序

且曰有事至三藐 三藐寺在冠嶽之西

이렇게 보면 [三幕寺]에 대한 시는 총 33명에 34편인데, 〈三藐寺〉는 17명에 18편, 〈三幕寺〉는 10명에 14편, 〈三岳寺〉가 4명에 5편, 〈三遯寺〉는 2명에 2편임을 알 수 있다. 시에서는 〈三藐寺〉가 〈三幕寺〉보다 더 많이 사용·애용되었지만, 명칭에 대한 시대적 변천과 과정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역사적인 맥락이나 개인적 측면에서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2. 散文의 경우

산문에서 〈三幕寺〉는 총 8편으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경우 아래 2편이 있다.

1. 설암문인 雪巖門人, 〈三聖山三幕寺事蹟〉⁹⁾

2. 이유원 李裕元, 〈三幕〉⁹⁾

작품의 내용에서 〈三藐寺〉가 나타나는 경우는 5편으로 아래와 같다.

1. 삼막사는 삼성산에 있다.(三藐寺 在三聖山)『東國輿地誌』京畿 衿川縣
2. 삼막사는 삼성산에 있다.(三藐寺 在三聖山)『輿地圖書』
3. 삼막사는 삼성산에 있다.(三藐寺 三聖山)『始興郡邑誌』
4. 삼막사 승려 42명(三藐寺僧四十二名, 正祖, 『日省錄』정조10(1786)년 윤7월 12일)
5. 장차 자하동을 찾아 삼막사에서 잤다.(將訪紫霞洞 宿于三藐寺)
吳璣(1700~1740), 〈衿陽遊記〉

〈三藐寺〉는 총 6편으로 1편은 제목에 드러나고, 5편은 내용에 나타난다. 홍직필의 삼막산 유람 기 〈遊三藐記〉는 제목에서 〈三藐寺〉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내용에 나타나는 5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안흥사 · 삼막사 · 망일사 · 성주사 모두 삼성산에 있다. (安興寺 三藐寺 望日寺 聖住寺 俱在三聖山) 1530년(중종 25년)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京畿 衿川縣 佛宇條
2. 삼막사는 여말 승 지공과 나옹과 무학이 함께 이 산을 노닐며 이 절을 창건하였는데, 절에는 세 스님의 형상이 있다.
(三藐寺 麗末 有僧智空及懶翁無學 同遊是山 卽此寺 寺有三釋像) 1799년 (정조 23) 『梵宇攷』衿川 寺刹條
3. 금주산 이하 남북 자하동에 삼막사가 있는데 산 뒤쪽엔 사자봉이 있다.
(衿州山~南紫霞洞三藐寺山之背有獅子峯) 1864년 『大東地志』권4 始興 山水條
4. 세종 26 1444 甲子年(1444) 17세에 큰 형님과 나란히 과거에 낙방하고 衿州 三藐寺에 있었다. (甲子 興伯氏 俱下第 在衿州之三藐寺). 成俔의 『眞逸遺藁』行狀⁷⁾
5. 그 네 번째는 남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남으로 관악산 삼막제산을 바라본다. (其四曰南山採薇 南望冠岳 三藐諸山) (虛白堂集 卷4) 성현의 〈挹翠堂記〉

한편 三藐寺는 총 1편으로 金昌緝의 『圃陰集』 연보에 김창집이 21세인 1682년(임술 康熙 2, 숙종 8)에 衿川 三藐寺에서 독서하라는 내용이 있다.

三岳寺도 총 1편으로 연려 실기술 제23권⁸⁾에 “일설에는 승종이 금천(衿川) 삼막사(三岳寺)” 그

5) 현재 탁본으로 남아 있는 자료는 없고 다만 2차 자료가 세 편이 있다.

1. 雪巖門人 필사본(1711)

2.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향토사료 제1집)』, 안양문화원, 1998, 안양 삼성산 불교유적 지표조사 보고서(단국대 사학과, 1998)

3. 경기도 불적자료집, 경기도박물관(1999, 서일문화사) 이 세 편의 글이 서로 글자의出入이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어는 것이 정본이다 규명하기 힘들다.

6) 李裕元, 『林下筆記』 제31권 순일편(旬一編) 삼막(三藐).

7)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眞逸遺藁』 서문이라 되어 있으나, 계명대학교에서 나온 『진일유고』 빈역문에서는 행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내용을 보면 행장이 맞다. (한국학연구소 한문학분과, 국역 진일유고,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년 참조)

8) 仁祖朝 古事本末 “계해년의 罪籍”

잔주에 일사기문(逸史寄聞)에는 과천(果川)에 있는 절이라 하였다.⁹⁾

이렇게 보면 三幕寺에 대한 散文은 총 15편으로 三幕寺 7편, 三藐寺 6편, 三遊寺와 三岳寺는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¹⁰⁾

그렇다면 왜 이처럼 三幕寺에 대한 호칭이나 명칭이 달라졌을까? 三幕寺라 명명한 것은 三幕, 二幕에 이은 三幕의 성격이 강하다.¹¹⁾

남성을 상징하는 '1' 과 여성을 상징하는 '2' 가 합해지면 '3' 이 되는데, 이를 두고 '3' 이라는 숫자를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완전한 수로 여겼기 때문이다. 태양에만 존재한다는 삼토鳥, 벽사용개 그림으로 목에 검은 방울을 달고 있는 三目狗, 신령스러운 동물 三足狗 등이 신화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은 풍요와 생산성 그리고 영원성의 상징으로 '맑음' 을 뜻하고, 더 나아가 반복의미와 正反合의 의미도출로 '완성' 의 합리적인 과정의 증표이기도 하다.¹²⁾ 결국 원효, 의상, 윤희 등 세 명의 인물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는 장소가 확대·확장되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雪巖門人の 三聖山三幕寺事蹟과 『韓國寺刹全書』의 三幕寺에는 일막과 이막에 대한 설명보다는 중국 韶州의 三藐寺와 닮아서 이름을 三藐寺라 고쳤다고 말하고 있다.¹³⁾

중원 소주에는 삼막사가 있는데, 동쪽에는 우천이 있고, 서에는 인각이 있으며 노봉은 그 앞에 있고, 수암은 그 뒤에 있다. 이 땅에서 우뚝 솟은 것 중 빼어났고 처가우면서도 청량한 것이 중국과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고 드디어 이름을 하여 가토대 '삼막' 이라 하였다.¹⁴⁾

삼막은 삼막삼보리(三藐三菩提, Samyaksambodhi)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정편지(正遍知), 정편도(正遍道) 또는 정등정각(正等正覺)이라 번역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를 말한다.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나오는 무상정편지(無上正遍智), 절대지자(絕對智者)의 깨달음을 말하는 "아누다라삼막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삼막(三藐)이 본시 산스크리트어이므로 어려운 글자인 '藐' 을 '幕' 으로 바꾸어 借字한 것이 아닌가 한다. 雪巖門人の 三聖山三幕寺事蹟에서 제목은 三幕寺나 그 내용에는 '三藐' 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고, 『新增

9) 一說承宗至鈴川三岳寺 逸史寄聞日果川僧舍

10) 윤희의 연보에는 삼막사로 시에는 三岳寺示朴昌夏李達夫(백호전서 제2권)에는 三岳寺이라 되어 있어 차후에 논의 하겠다.

11) 이윤희의 글에 보면 원효의一幕은 지금 폐허가 되었고, 의상의 三幕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윤희의 二幕은 念佛庵이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三聖山이라고 한다. 이윤희(1814~1888)의 『林下筆記』 제31권 순일편(旬一編) 삼막(三幕), 박연옥이 구연한 '일막사, 이막사, 삼막사 절터' 설화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안양문화원, 안양의 구비문화, 1998) 참조.

12) 최은경, 『韓國民譯에 나타난 숫자개념 - '3' 을 중심으로』 - (한국어문학연구 16집,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1985), 具美來,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참조.

13) 擬中原韶州三藐寺 遂改爲三幕寺(三幕寺)(『韓國寺刹全書』)

14) 中原韶州地有三藐寺 其東有牛泉 西有麟角 墟峯立其前 壽巖在其後 此地之峯然而秀 冷然而清者 無乃與彼相類乎 遂號曰三藐(雪巖門人, 『三聖山三幕寺事蹟』)

『東國輿地勝覽』과 『東國輿地誌』 등의 歷史 地理誌마저 혼재되어 사용하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러나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서 〈三藐寺〉로 표기하다가 점차 『東國輿地誌』(1674년)부터 이후 『輿地圖書』(1765년), 『大東地誌』(1866년), 『始興郡邑誌』 등 모든 地理誌에서는 〈三幕寺〉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三藐’과 ‘三邁’은 어찌 된 것인가? 주지하다 시피 한자 풀이에서 한자의 음이 같으면 통용한다. ‘散華’와 ‘散花’에서 ‘華’와 ‘花’가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따라서 ‘藐’과 ‘邁’은 ‘아득하다’는 의미에서 통용하기 때문에 같이 借字하여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발음이 다른 〈三幕寺〉와 〈三岳寺〉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幕과 岳은 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통용할 수 있는 것일까?

趙顯期的 시 “9월 25일 김랑과 함께 배타고 노랑진을 건너 두루 검산의 염불암과 감상하고 이에 三岳寺로 향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하동을 찾아 한편의 읍시를 지어 김랑에게 보이며” 〈九月廿五日 與金郎同舟濟露梁 歷賞黔山念佛菴 仍向三岳寺 歸路將訪紫霞洞 口占一律 示金郎〉에서 주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

“염불암 뒤쪽 석벽은 우뚝 솟아 벌려 서 있어 몇 백 길인지 알 수 없다. 삼악사 망해루는 땡 둘러 남양과 인천 등지를 바라볼 수 있고 시야에 막힘이 없어 3-4연으로 표현하였다.”¹⁶⁾

검산, 염불암, 망해루 등의 표기가 〈三幕寺〉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남양과 인천을 바라본다는 내용도 그러하다.

게다가 최석정의 시 제목은 〈入紫霞洞 訪三岳寺路中口占〉으로 ‘三岳寺’이다. 이 시를 차운한 이인엽의 시 〈三藐寺 太存窩〉는 ‘三藐寺’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藐’과 ‘岳’의 음이 구전되면서 와전되거나, 관악산의 ‘악’을 차용하여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곧 三藐寺와 三岳寺는 통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 인물의 문집에서 〈三幕寺〉와 〈三岳寺〉가 혼재된 경우도 있다. 윤휴의 시 〈三岳寺示朴昌夏李達夫〉(백호전서 제2권)는 〈三岳寺〉인데, 백호전서 행장이나 연보에서는 〈三幕寺〉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⁷⁾ 결국 〈三幕寺〉는 〈三藐寺〉와 〈三幕寺〉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 당시 식자층에게는 〈三藐寺〉가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三幕寺〉는 〈三藐寺〉, 〈三幕寺〉, 〈三邁寺〉, 〈三岳寺〉로 불리어지면서 전승되어 왔다. 사찰 입장에서 1711년에 설암문인이 〈三幕寺〉가 가장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하

16)念佛菴後石壁斗起列立 不知其幾百丈而三岳望海樓 通望南陽仁川等地 眼界無礙故三四聯及之

17)三幕寺에 들어갔다가 望海樓에 올랐는데, 이날 거센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비가 퍼붓듯이 내렸다.(遂入三幕寺 登望海樓 是日狂風拔木 雨下如注)

지만 본문 내용에서도 〈三藐寺〉로 표기된 점이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여튼 사찰이 점점 대중화, 세속화 과정을 밟으면서 어려운 ‘三藐’·‘三邈’·‘三岳’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부르기 쉽고 전승에 이해하기 쉬운 ‘三幕’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는 역사 지리지의 변천 과정을 보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럼, 이제 이를 바탕으로 〈三幕寺〉 창사 유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三幕寺]의 두 가지 創寺 由來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찰과 관련된 설화를 ‘寺刹緣起說話’라고 한다. 사찰이나 암자 등의 창시 유래나 절터를 잡게 된 유래, 절 이름의 명명(命名) 유래에 관한 불교설화이다. 주로 불보살(佛菩薩)의 영험·이적이나 불상경문(佛像經文) 및 고승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체로 사찰 연기설화는 문헌설화로 전해지고 있으나 구전설화도 많다.¹⁹⁾ 문헌자료는 대개 사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寺志·事蹟記·重修文·碑銘·塔記 등에 기록되거나 조각되어 전해진다.²⁰⁾

설화 창작의 동기는 해당 사찰의 신성화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 불교 사상의 생활화로서 불타에 귀의하게 하려는 종교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영험성과 신령성을 추구하는 민간 신앙적 사고도 크게 작용하게 된다. 설화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것은 해당 사찰의 창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들이다.

이 때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향유층은 설화 내용을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결부시킴으로써 해당 내용을 사실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사찰 연기설화는 구체적 사물인 사찰과 연결되면서 구전설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결국 사찰 연기설화는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불사 창건과 관련된 사실을 첨부하는 형식의 틀을 만들어 어떤 민간설화라도 그 속에 대입시키면 額字化되면서 사찰 연기설화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래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조·조선조를 통하여 수많은 사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사찰 연기설화도 대단히 많이 창작되었다. 그 결과 이

18) 예컨대 ‘顯忠日’, ‘顯忠塔’을 말하면서도 요즘 정자 명칭을 ‘忠顯亭’이라 한다든지, 식당 이름 한국식 한자식인 ‘素鮮堂’ 명칭 또한 좋은 예이다.

19) 구전설화나 문헌설화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찰 연기설화는 사찰 주변의 인물들인 승려·신도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구전되고 있는 기존의 민간설화나 불경, 기타 불교 문헌에 실린 설화를 차용하여 해당되는 사찰의 연기설화를 창출해 낸다.

20) ‘三國遺事’는 64편이나 되는 사찰 연기설화를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집으로 평가된다.

설화는 한국 불교설화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구전 또는 문헌으로 전해져 오는 사찰 연기설화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우리나라가 아득한 옛날부터의 佛緣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인연에 의한 창사의 계기를 말하고 있는 경우
- 둘째, 성물(聖物) 즉 불탑이나 불구(佛具) 등이 출현하거나 그 밖의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남으로써 절의 터가 마련되고, 절의 이름도 지어지는 경우
- 셋째, 불타의 힘을 빌려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호국 불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 넷째, 초기 승려들의 순교사의 이적이나 고승들의 영험과 이적에 의하여 사찰이 건립되는 경우
- 다섯째, 국왕이나 일반 불교 신도들의 보시나 축원을 위한 재물 공여로 이루어지는 사찰에 관련된 설화의 경우이다.
- 여섯째, 일반인의 효성과 선행이 계기가 되어 절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럼 [三幕寺]와 관련된 창사 연기설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효나 의상 등 스님과 관련된 내용과 남을진, 조건 등의 고려말 충신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

1. 佛家の立場

먼저 이름난 고승과 연관시켜 보편화된 [三幕寺]의 유래를 살펴보자. 곧 원효, 의상, 윤필 등 인물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는 장소가 확대·확장되면서 創寺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큰 창사 연기설화 6가지 중 첫 번째인 우리나라가 아득한 옛날부터의 佛緣地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인연에 의한 창사의 계기를 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三幕寺]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설암문인의 〈三聖山三幕寺事蹟〉, 고종 17년(1880) 義甬 등이 명부전을 증정한 이후 삼막사의 重新을 다룬 『한국사찰전서』에 실린 [三幕寺]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소개한 글로는 李裕元의 『林下筆記』 제31권 旬一編 三幕과 서유본의 [三幕寺] 유래와 『東國輿地誌』 衿川縣과 『梵宇攷』에 나오는 [三幕寺] 관련 자료가 남아있다.

먼저 〈三聖山三幕寺事蹟〉에 원효와 그 아우 의상과 윤필과 더불어 이곳에 절을 세우고 깊은 뜻을 밝게 닦았다²¹⁾ 고 한다. 도선 국사가 영암에서 와서 불상을 설립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관음사

21) 〈冠岳三聖山念佛庵事蹟碑銘〉并序에도 〈삼성산삼막사사적〉의 내용과 동일하나 〈佛性寺略歷〉에는 “조사의 삼형제 가운데 위는 원효요, 가운데는 윤필이요, 막내는 의상이니 지금의 삼막도 이 삼형제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祖師之三兄弟 昆曰元曉 仲曰尹弼 季曰義湘 今之三幕 是三兄弟所創). 〈三聖山三幕寺事蹟〉와는 달리 한자 尹弼이 다르며 둘째 아우로 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 세 명의 영험과 이적에 의하여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2) 『輿地圖書』에서는 指空을 智空으로 표기하고 있다.

로 고쳤다는 변천과정도 적혀 있다. 그 이후 고려말 인도 승려 指空²³⁾ 과 懶翁 화상에 의해 진작되었으며, 무학 대사에 의해 한양의 풍수비보적인 내용²³⁾ 도 실려 있다.

『한국사찰전서』에 실린 [三幕寺]에서는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만 구체적인 명칭되어 있고 나머지 2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의상과 윤필의 이야기를 결부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 지도 모르겠다.

한편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제31권 旬一編 三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진다.

“관악산(冠岳山)은 시흥(始興)과 과천(果川)의 경계에 있다. 그곳에 삼막사(三幕寺)라는 절이 있는데, 삼한 시대에 지어진 고찰이다. 신라 승려 원효(元曉)는 성이 설(薛)이고, 의상(義相)은 성이 아(牙)이고, 윤필(尹弼)은 성이 윤(尹)이니,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다. 관악산에서 나누어 살았는데 원효의 일막(一幕)은 지금 폐허가 되었고, 의상의 삼막(三幕)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윤필의 이막(二幕)은 염불암(念佛庵)이다. 이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삼성산(三聖山)이라고 한다.”²⁴⁾

元曉와 義相 그리고 尹弼은 배다른 형제로서 원효가 창건했다는 一幕은 폐허가 되고 의상 이 창건한 三幕만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필의 二幕은 念佛庵이라고 하였다. 원효가 일막, 윤필이 이막, 의상이 삼막이라면 〈염불암약력〉에서 나온 형제간의 서열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구전되어 오던 것을 수록한 경향이 짙어 전적으로 믿을 것은 못된다.

다음으로 훨씬 더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유본(1762~1715) 시 〈三幕寺〉의 잔주가 있다.

“절에 망해루(望海樓)가 있는데, 승려가 말하기를,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다른 승려 두 사람과 절 뒤의 주봉(主峰)에 초막을 엮었기 때문에 절 이름을 삼막사라고 하였다.’”²⁵⁾

무학 대사와 두 명의 스님이 초막을 지어 수도하였기에 三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는 무학 대사의 명성에 기대어 명명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東國輿地誌』에서도 스님이 세 분이 등장하는데,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23) 무학대사 비보 풍수 차원에서 보면 한양이 외백호로써 산세는 급하고 형상은 위태로우니 날뛰고 뛰는 기운이 많았다. 이에 절을 세워 그 위를 ‘호암사’이라 하여 (호랑이를) 진압하고자 하였고, 암자를 창건하여 그 앞은 ‘사자암’이라 하여 위세를 보였으며, 개를 묶어 그 곁에는 ‘사견우’라 하여 각 모퉁이에 두게 하였다. 또 네 모퉁이에 사찰을 지어 수도를 막았으니 동에 있는 것은 청련, 서에 있는 것을 백련, 남에 있는 것을 삼막, 북에 있는 것을 승가라 하였다(以外白虎勢急形威多有奔動之氣乃立寺其上曰虎壓以鎮之創菴其前曰獅子以威之埋犬其傍曰四大隅以留之又創刹四隅以鎮京都 在東者曰青蓮 在西者曰白蓮 在南者曰三藐 在北者曰僧伽).
- 24) 冠岳 在始興果川之界有三幕寺 三韓古刹也 新羅僧元曉姓薛 義湘姓牙 尹弼姓尹 一母異父兄弟也 分居冠岳 元曉一幕 今只墟 義湘三幕尙存 尹弼二幕念佛庵是也 世謂之三聖山
- 25) 寺有望海樓 僧言 無學大師與異釋二人 結草幕于寺後主峯 故 寺名三幕

“심약사 고려말 서역승인 지공과 명승인 나옹과 무학이 함께 이산에 노닐다가 이 절을 지었으며, 절에는 세 중의 畫像이 있다.”²⁶⁾

한편 『梵字攷』에서도 비슷하게 指空과 懶翁과 無學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다가 三臺寺를 창건하였고 이절에 세 분 스님의 畫像이 있다²⁷⁾ 고 하였다. 결국 [三幕寺]의 重創과 관련시켜 指空과 懶翁과 無學의 당대 유명 인물을 내세워 설화화한 후대적 변모가 아닌가 한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신비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 원효, 의상, 윤희이든 지공, 나옹, 무학이든, 무학 외 2인이든 三者와 연관이 있고, 스님들과 연관된 창사라는 것이다. 이들의 기이한 행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름을 빌려 올 가능성이 높다. 원효와 의상 스님 창사한 내용이 후대에 구전·전승되어 오면서 변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지공과 나옹과 무학이 창사했다는 설도 후대의 변모 과정을 담은 것이다.

전국의 오래된 사찰치고 원효와 의상 이름 들어가지 않은 곳이 드물다. 원효와 의상이 창건했다는 절은 봉화 축서사와 각화사, 청량사, 남화사의 옛터, 지림사에도 이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걸출한 승려에 의한 민중의 파급효과와 심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르면 원효와 의상이 형제간이었다는 설과 사제지간이었다는 설이 생겨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강조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지만, 두 고승과 함께 신비체험을 하고 싶었던 후대인의 심리가 아닌가 한다.

元曉(617~686)와 義湘(625~702)은 道伴으로 원효가 의상보다 여덟 살이 더 많다. 의상은 진골귀족, 원효는 육두품 출신으로 이 둘은 신분이나 불교철학 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상은 끝내 당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종 체계를 배워왔지만, 원효는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실천했다. 의상은 강렬한 국가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적 인물이어서 당나라에서 귀국하게 된 동기가 당나라의 신라 침공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일 정도였다. 그러나 원효는 광대의 노래에 無辱歌를 붙여 부르고 다닐 정도로 대중성이 강했다. 즉 원효의 사상과 행적에는 국가적 내치 호국적인 면모가 없다. 원효가 개인적 깨달음을 주장했다면, 의상은 거대한 불교체제 속에 들어와야 깨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지배층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의상의 정신인데 대중들은 오히려 원효의 사상을 더욱 신봉하였다. 따라서 [三幕寺]는 화엄종이 유입되고 원효의 대중성이 협승되면서 윤희²⁸⁾이라는 인물까지 포함되

26) 三幕寺 在三聖山 高麗末 有西域僧 指空及名僧懶翁無學同遊是山 創此寺 寺有三釋畫像(『東國輿地誌』)

27) 三藐寺 麗末 有僧指空及名僧懶翁無學 同遊是山 訟此寺 寺有三釋畫像(『梵字攷』)

면서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전설화로 ‘원효굴’과 ‘원효와 은행나무’가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효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²⁹⁾

2. 儒家的 立場

한편 [三幕寺] 창사에 대한 또 다른 큰 줄기 하나는 洪直弼의 <遊三藐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전에 沙川 南乙珍과 松山 趙狷과 樊塘 徐甄의 세 명의 현자가 세상을 피해 숨어살고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이곳에서 삼막을 지었다. 멀리 개성 송악산을 바라보고 통곡하여 소리마저 잃어버렸으며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고 나라를 잃어버린恨을 펴서 그 누대를 이름하여 ‘懋主’라고 하였다. 후대 사람이 선가의 말을 인용하여 三幕을 고쳐 三藐이라 하였고, 懋主를 고쳐 影柱로 한 것은 忌諱에서 나온 것이다.”³⁰⁾

헌종·철종대 조선 낙학(洛學)의 宗匠인 洪直弼³¹⁾ (1776~1852)은 쫓겨난 58세에 文山 李公과 함께 삼막사를 여행하였다. 삼막사에 하룻밤 유숙한 내용을 담았는데, 창사 유래에 이 세 명의 충신이 등장한 것이다. 그의 글에 따르면 세 명의 고려 충신인 南乙珍과 趙狷 그리고 徐甄이 세 왕조 조선에 충성하지 않고자 피해 三聖山에서 삼막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정 이 3인의 흔적이 삼성산이나 관악산 아니면 인근 지방에 남아 있을까? 대우학자 홍직필은 무슨 근거로 이런 내용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이 셋은 고려 말의 충신이지만, 조선의 세 왕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셋을 묶을 수는 없다.

일단 서건은 시흥이나 의왕에 연고지가 있어 이해가 된다. 서건의 경우 조선 개국 후에 청백리에 뽑혔으나 衿川에 은거하며 벼슬을 하지 않았다. 1897년 세운 묘비에 기록된 金龜의 遷墓記에 의하면 그의 묘소는 구 금천 반대방 선산 건좌에 있었는데, 1938년 가을 金龜와 金希壽의 묘와 함께 즉 지금의 묘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광곡으로 옮겼다고 한다.³²⁾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

28) 윤필(尹弼): 자세하지는 않으나 경남 安靜寺 칠성각 내에 오조사도(五祖師圖)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효·의상 스님과 윤필 거사와 혜月, 宗悅 스님을 그린 그림이 있다. 이 안경사도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이다. 사찰문화연구원, 전 통사찰총서 20, 경남의 사찰, 2005 참조

29) “원효굴” (안양문화원, 안양의 구비문학, 1998), “영험함 발휘했던 은행나무와 구렁이”(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역사와 문화·설화와 민담, 2010년) 참조

30) 昔南沙川 乙珍 趙松山 狷 樊塘 徐甄 三賢者 避世自靖 披髮入山 結三幕于茲區 遙望嶺嶺 失聲痛哭 用舒樵洛之思 麥禾之恨 其名臺曰懋主 後人取禪家語 改三幕以三藐 改懋主以影柱 出於忌諱也 (『梅山先生文集』〈卷之二十九〉)

31) 1814년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장흥고봉사·지평·부사직·대사헌 등을 지냈으나 관직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학문 연구에 주력했다. 그의 학문은 공리(窮理)를 근본으로 했으며, 육경(六經)은 물론 제자백가에도 통달했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의 입장에 섰으며, 임성주(任聖周)의 주기설(主氣說)을 반대했다. 심선악설(心善惡說)과 심체(心體)에 기질이 내포되었다고 보는 한원진(韓元震)의 인물성상이설(人物性相異說)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보아 반대했다.

32) 義王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세종대학교 박물관·의왕시, 2001), 393쪽

하였으나, 서건은 반드시 송경(개성)을 향하였고, 평생 동안 한양 성곽을 마주하지 않았다. 시흥의 忠賢書院에 제향되기도 하여 연관성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을진과 조건은 양주와 동두천과 연관성³³⁾이 있지 삼성산이나 관악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 남을진의 경우 고려 말 정치가 문란해지자 楊州 봉황산에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하였다. 조선이 개국하자 태조가 그의 거소를 찾아서 沙川伯을 봉하고 회유하였으나, 積城의 紺岳山 석굴인 南仙窟에 들어가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영조 때 사천서원에 제향되었고, 묘소와 신도 비는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서원말에 있다.³⁴⁾

조건의 경우도 고려가 망하고 망국소식을 들은 즉시 관복을 벗고 마의로 갈아입고 두류산으로 들어갔다. 다시 양주의 청계산으로, 후에 양주 수락산 두메 송산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 태조가 직접 조건을 찾아가 벼슬 받을 것을 종용했으나 끝내 거절함으로써 남을진의 충절과 흡사해 두 분을 양주 旌節祠에서 배향한 것이다. 특히 현재 조건의 설화가 남아있는 곳은 양주 청계산 상봉의 망경대, 성남시 여수동의 墓所, 충남 공주시의 祠堂,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旌節祠와 의정부 시 민락동 송산마을에 있는 松山祠 등이므로 삼성산이나 관악산에서 자취를 찾는 개연성은 희박하다.³⁵⁾

그런데 청계산 망경봉 서남쪽에 있는 천연동굴 마왕굴은 한때 고려 말의 조건이 은거했던 굴로 알려져 있다. 이수봉에서 등성이를 타고 오다 망경대와 절 고개, 또는 청계사로 내려가는 삼거리 헬기장의 안내판에 고려 말의 충신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다.³⁶⁾ 이 내용 또한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튼 서건과 조건은 두문동 72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도 서로 세 갈래의 길을 갔는데, 서건과 조건도 약간의 다른 길을 갔다.³⁷⁾

따라서 이 세 명의 유거적 통일성을 엮어 내기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세 명에 강한 애착과 아울러 충신 은자라는 점만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3'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결들인 것

33) 현재 남을진과 조건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양주 현면 봉암리 소재 정절사(旌節祠)에서 제를 모신다.

34)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1 경기도사편찬위원회(2006, 373쪽)

35)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3 경기도사편찬위원회(2006, 285쪽)

36) 조선조 창건의 일등공신인 조준의 아우 조윤은 형의 변절과 망국과 동시에 죽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부끄러워하여 개와 같다는 뜻으로 견(狔)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字를 개를 따른다는 뜻으로 종견(從狔)이라 했다는 것이다.

37) 두문동 72현의 삶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정몽주, 김약항처럼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길재와 이양소, 원천석, 서건, 배상지, 민유, 김선지, 명회도, 문익점 등은 은둔·낙향파에 속한다. 또한 은거·낙향·유배 이후 다시 정계에 진출한 이들도 있었다. 특히 안성, 조건, 하자중, 이행, 김지수 등은 태종대 이후에까지 계속 활약했는데, 이들은 조선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었다.

조건은 유년에 출가하여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 환속하였다. 僧職 경역으로 인하여 左尹에 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按廉使를 지냈다. 1392년(태조 1) 상장군으로 이성계 추대에 참여하고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여기에 대해 형 淮으로 인하여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는 설과 형의 간곡한 출사 권유가 있었지만 고려에 절의를 지켜 은거했으며, 자손에게도 고려에의 절의를 당부하였다는 두 가지 다른 설이 전해진다.

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성리학자인 홍직필은 스님에 의한 創寺 由來를 말하지 않고 충절의 상징인 세 명의 선비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현재 단 1편의 글을 가지고 유교적 입장을 논의하기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瑞山의 〈浮石寺〉의 창사 유래를 이와 유사한 점을 엿볼 수 있는데 불교적 입장과 유교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석사의 창건연대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나는 신라 문무왕 17년(677)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말의 충신 유금현(柳琴軒)³⁸⁾이 나라를 잃은 한을 품고 내려와 島飛山 중턱에 별당을 짓고 독서하며 지냈다고 한다. 유금현이 죽자 적감(赤感) 스님이 그 별당을 고쳐 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³⁹⁾

IV. 맺음말

지금까지 안양의 [三幕寺]에 나타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그 명칭과 창사 유래를 살펴보았다.

[三幕寺]는 〈三藐寺〉, 〈三幕寺〉, 〈三遯寺〉, 〈三岳寺〉로 불려오면서 전승되어 왔다. [三幕寺]에 대한 시는 총 작가 33명에 작품 39편으로, 〈三藐寺〉는 17명에 18편, 〈三幕寺〉는 10명에 14편, 〈三岳寺〉가 4명에 5편, 〈三遯寺〉는 2명에 2편임을 알 수 있다. 시에는 〈三藐寺〉가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명칭에 대한 시대적 변천은 뚜렷하기 구분하기 어려웠다.

[三幕寺]에 대한 산문은 총 15편으로 〈三幕寺〉 7편, 〈三藐寺〉 6편, 〈三遯寺〉과 〈三岳寺〉은 각각 1편이다. 산문에서 〈三幕寺〉가 〈三藐寺〉보다 더 많은 이유는 특히 역사 지리지의 전승과정 때문이다.

하여튼 〈三幕寺〉와 〈三藐寺〉로 함께 언급되었지만, 사찰이 점점 대중화, 세속화과정을 밟으면서 어려운 ‘三藐’보다는 일반 대중에게 부르기 쉽고 전승에 이해하기 쉬운 ‘三幕’으로 정착되었

38) 유금현(柳琴軒) : 금현은 柳方澤의 자이다. 그는 1320년에 태어나 1402년에 죽었는데, 조선 초의 천문학자이다. 서산 출신인 유방택은 고려 말에 천문학을 관장하는 관청인 서운관(書雲觀)의 판사(判事)를 지낸 후, 태조 때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의 제작에서 천문계산을 책임진 인물로, 태조 석각본에 이름이 새겨진 11인 중의 한 사람이다. 서산의 인정서원(仁政書院, 현 송곡사)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는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 싶어 새 왕조가 들어서자 개성에서 고향인 서산으로 돌아왔으나, 거듭되는 새왕조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역법을 새로 만드는 일을 맡았으며 권근과 함께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제작하였다. 공주의 동학사에 삼은각을 지어 이름에 ‘은’ 자가 들어간 세 사람을 추모하였다고 한다. 태종 4년 정축공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며, 1621년 동학사의 삼은각에도 함께 배향되었다.

39) 전통사찰총서 13 충남의 전통사찰 II, (사찰문화연구원, 1999년) 56쪽. 게다가 관악산의 의상대가 연주대로 이름이 바뀐 유래에도 효령대군이 세종에 대한 그리움으로 ‘戀主’가 되었다는 설과 조선이 건국하자 고려말 문신 康得龍이 冠岳山으로 들어가 開京과 옛 임금을 그리워하며 하였는데, 강득룡이 머문 암자를 ‘戀主庵’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다고 할 수 있다.

[三幕寺]와 관련된 사찰 연기설화는 원효나 의상 등 스님과 관련된 내용과 남을진, 조건 등의 고려말 충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三幕寺]는 화엄종이 유입되고 원효의 대중성이 습합되면서 윤필이라는 인물까지 포함되어 전승한 것으로 보인다. 두 고승과 함께 신비체험을 하고 싶었던 후대인의 심리가 아닌가 한다. 또한 고려 말 세 명의 충신과 연관시키는 것은 세 명과 三幕의 相通性 그리고 정절과 충정을 기리는 유학자의 바람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고 여러 논의의 진척이 된다면 三幕寺에 대한 선인의 인식 체계도 탐구할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다. 시나 산문 같은 작품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 참고문헌

- 『東國輿地誌』
 『大東地志』 권4 始興 山水條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0권 京畿 衿川縣 佛宇條
 『梵宇攷』 衿川 寺刹條
 一然, 『三國遺事』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安震湖 編, 『朝鮮寺刹一覽』
 成侃, 『眞逸遺藁』
 雪巖門人, 〈三聖山三幕寺事蹟〉 필사본(1711)
 成侃, 『虛白堂集』 권4
 李裕元, 『林下筆記』
 洪直弼, 『梅山先生文集』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불적자료집』, 서일문화사, 1999.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역사와 문화-설화와 민담』, 2010.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고장 경기도의 인물 1, 2, 3』, 2006.
 具美來,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안양문화원, 『안양의 구비문학』, 1998.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 1998.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향토사료 제1집)』, 1998.
 안양문화원, 『안양 삼성산 불교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단국대 사학과, 1998.
 『儀旺市の 歴史와 文化遺蹟』, 세종대학교 박물관 · 의왕시, 2001.
 전통사찰 총서 13, 충남의 사찰 II, 사찰문화연구원, 1995.
 전통사찰 총서 20, 경남의 사찰, 사찰문화연구원, 2005.
 최은경, 『韓國民譚에 나타난 숫자개념 : '三' 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6집,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1985.
 한국학연구소 한문학분과, 『국역 진일유고』,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4.

경기 파주지역의 時祭 연구

권 효 숙 (파주문화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파주 세거문중의 時祭 실태
 - 1. 문중별 시제 현황
 - 2. 제수와 진설
 -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 III. 맺음말

집필자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고양시 시사편찬위 상임연구원,

권 효 숙

파주시 시사편찬위 상임연구원

I. 머리말

파주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도읍지와 가까운 곳으로 '서교'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족들이 세거하던 곳이다. 도성과 가까우니 도성의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기에 사족들은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묘를 이곳에 정해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살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왕실과 혼맥을 이룬 명문 가문들의 사패지 분급으로 인한 집성촌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러 문중에서는 사패지를 관리하면서 종인들의 거주가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뛰어난 성리학자 청송 성수침이 부인 파평 윤씨의 고향 파주에서 복거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았으며, 성리학의 대가인 휴암 백인걸 문하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 기호학의 맹주들이 파산학의 근거지를 조성하면서 '문향 파주'로 불리기도 하였다. 훌륭한 스승을 찾아 많은 제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학맥을 맺고 이는 혼맥으로 이어져서 함안 조씨의 조감 이 스승 백인걸의 사위가 되어 월통면 능산리에 뿌리를 내리고, 조감의 사위는 우계 성혼 선생의 아들인 창랑 성문중(成文淸)으로 문산을 내포리에서 세거하였고, 평산 신씨 화당 신민일(申敏一)은 창랑의 사위가 되어 법원을 금곡리에 터를 잡았다. 또한 사계 김장생이 율곡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고, 율곡선생의 딸은 사계 김장생의 아들 김집에게 출가한 사실에서 학맥이 혼맥으로 이어지는 예를 볼 수가 있다. 현석 박세채가 율곡의 학풍을 이어받으며 후일에는 자운서원에 이 세 분이 배향되었다.

필자는 2008년도에 『파주시지』 편찬작업에 동참하면서 파주지역에 오래전부터 세거해 오는 여러 성씨와 문중의 입향조와 입향 원인, 시기, 문중행사와 모임 등을 조사한 바 있었는데, 각 문중의 시제를 보면서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데 각 문중들은 다른 문중의 제사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는 '가가례'라는 말도 있듯이 각각의 제사엔 저마다의 특징이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관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파주지역의 문중별 시제의 특성을 조사해 비교해보고 이 지역의 유교적 제사형식은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으며, 각 문중별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이 글에서는 각 성씨별 문중의 시제의 제사형식과 절차, 진설법 등을 조사해 표로 비교해 보았으며, 특징을 찾아 기록하였다. 파주에는 많은 성씨와 문중이 있으나 시간의 제약으로 전부 조사하기가 어려워 한 지역에 20호 이상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는 문중의 시제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문중의 제사형식은 알기 어려운 것인데, 이 연구를 통해 같은 지역에 살아가는 각각의 문중 제사 형식을 알고 비교해보면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조사

와 연구 기록은 파주지역 민속 분야 연구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II. 파주 세거문중의 時祭 실태

파주지역에서는 시제(時祭)와 묘제(墓祭)를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묘제를 시제라 부르고 있다. 시제는 사시제(四時祭)의 준말로, 춘하추동 사계절의 가운데 달에 날을 골라 모든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묘제는 음력 3월과 10월 중에 날을 택해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묘소에서 만드는 제사이다. 세일사(勢一祀)라고도 한다. 요즘은 묘제를 관상상 시향(時享)·시사(時祀)·시제(時祭)라고 일컫고 있다. 묘제라고는 하나 묘사(墓祀)를 지내지 않고 사당이나 재실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지내는 제사까지도 같은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시제'라고 함은 이같이 묘제·시향·재실에서의 제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의 의식을 본떴다.

『주자가례』의 묘제에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祭)의 의식과 같이 하루 전에 재계(齋戒)한 뒤, 참신·강신·초헌·아헌·중헌·사신·철찬의 순으로 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같은 묘제를 매년 한식·단오·추석·중양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祀)를 행하고 다음날 성묘를 하였다.

묘제는 본래 시제로써 사시절에 지냈었다. 율곡은 『격몽요결』 「시제의(時祭儀)」에서 '시제(時祭)는 춘분·하지·추분·동지에 지낸다. 혹은 〈가례〉에 의하여 한달 전으로 날짜를 선택하여 중월(仲月)로 정한다.'¹⁾ 하였고, 「묘제의(墓祭儀)」에서는 '묘제(墓祭)는 속제(俗制)에 의해서 네 명일(즉 정월 초하루·한식·단오·추석)에 행한다. 이때는 산재를 2일 동안 하고 치재를 1일 동안 한다.'고 하였다.²⁾

후에 경기도 용인출신 기호학과 도암 이재(李緯)³⁾는 『주자가례』를 체계화하여 『사례편람(四禮

1) "時祭用春分夏至秋分冬至 前期三日告廟 若其日有故則退定 不出三日 以退定之故告廟 或依家禮 前期一朔 以仲月로 卜日"

2) "墓祭 依俗制 行于四名日 正朝 寒食 端午 秋夕 散齋二日 致齋一日"

3) 이이(李珣)·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김창협(金昌協)으로 이어지는 기호학과(畿湖學派)의 학맥을 이어오면서 또 그 나뉠의 학통을 수립한 대학자로서, 성리학과 예학에서 유명한 기호학파이자 노론의 대학자.

便覽』을 저술해서 예법을 정비하였는데 『사례편람』은 사계 김장생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주자의 『가례』, 율곡의 『격몽요결』등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이다.

이제는 『사례편람』에서 『주자가례』의 3월 한번 지내는 것을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묘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제창하였다. 이후 묘제는 한번 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⁴⁾

도암 이재는 또한 “친족으로서 손수가 끝난 할아버지(5대 이상)의 묘제는 위의 체친조(遞遷條)에서 살필 수 있는데 한위공(韓魏公)의 예에 따라 시월 초하루에 제사함이 옳을 듯하다.”⁵⁾ 고 하였다. 현재 일반적으로 묘제가 음력 시월에 행해지는 것은 아마 『사례편람』의 예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주지역에서는 대체로 기호학과와 제례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금승리 장수왕씨 문중의 시제에서는 율곡 이이의 『격몽요결』에 의한 예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공파 문중에서는 개랑홀기를 이용해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진행하기도 한다.

1. 문중별 시제 현황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체로 음력 10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지내고 있으며 시제를 지내기 전 한 달쯤 전부터 묘역 근처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묘소에 올라가서 벌초를 하고 주위를 청소한다.

1) 시제를 지내는 시기

파주지역에서는 시제를 대개 음력 10월 초순에 많이 지내지만, 양천허씨 교위공파는 양력으로 10월 셋째 일요일에 지내기도 하고, 교하 산남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양력 4월 둘째 일요일에 지내는 곳도 있다. 청송심씨 공숙공파 문중은 원래 음력 10월 보름을 전후하여 지냈는데 공숙공의 큰아들 7세조의 묘가 의정부 외곽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영대리 공숙공 묘 아래로 이장해 와서 올해부터 음력 10월 23일로 지내기로 종중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파평윤씨 정정공파 교하문중은 한식과 음력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이나 지낸다고 한다. 음력 10월 10일이 지난 후 일요일에 지내는 야동동 나주정씨 고암공파 문중과 적성면 답곡리의 청주한씨 참판공파 문중도 있는데 이는 많은 종인들의 왕래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제일자를 정한 것으로 앞으로 점차 이렇게 일요일을 이용해 지내는 문중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4)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009년.

5) 『親盡祖墓祭見上遞遷條 依韓魏公禮 十月一日祭之 恐得宜(『四禮便覽』卷8, 祭 40b-41a), 홍순석의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에서 재인용.

2) 시제를 지내는 장소

시제를 지내는 장소는 주로 재실이 많으며,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중은 묘소에서 지내다 비가 오면 재실에서 지내기도 한다.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불천위 5위만 사당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며, 창녕성씨 상곡공파 내포리 문중은 허백당 한분만 재실에서 지내고 그 외는 묘소에 올라가 지낸다고 한다.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6.25전쟁 전의 세거지였던 장단군 대강면 우건리 선영이 DMZ지역이라 갈 수 없어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산 세장원에서 19세초부터 25세초까지의 묘제를 지내며 그 아래 선조들은 교하 동패리의 사당에서 지낸다고 한다. 행주기씨 정지공파는 세 분의 단이 있는 곳에서만 묘제로 지내고 그 외에는 재실 덕장재에서 지낸다.

〈표 1〉 문중별 시제 현황

성씨	문중	묘역소재지	시제일	시간	장소	참석인원	비용마련	제보자
행주기씨	정지공파	교하읍 송촌리	음력 10월 13일	오전 10시	묘(단3위). 재실	30여명	위토: 약 2천평	기연도
강릉김씨	감무공파	문산읍 내포리	음력 10월 첫주 일요일	오전 11시	재실	60여명	위토:전답 약 3천여평	김문년
교하노씨	공숙공파	파주읍 백석4리 도창골	음력 10월 10일	오전 10시	재실	70여명	위토: 2,800여평. 문중부담금	노성래
진주류씨	시윤공파 호은공 종중	교하읍 동패4리	음력 10월 8일	오전 10시	재실	60여명	위토: 약 1만 5천평	류기형
밀양박씨	공여공파	오금2리	양력 10월 3일	오전 11시	묘. 우천시 재실	250여명	대중회 지원금	박선재
창녕성씨	상곡공파	문산읍 내포리 안골산	음력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오전 10시	재실 (허백당), 묘	50여명	위토: 약 1만 1,300평	성금현
거창신씨	참판공파	산남리	양력 4월 둘째 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100여명	종인 헌성금	신영재
평산신씨	화당공파	법원읍 금곡리	음력 10월 1일	오전 11시	재실	30여명	위토: 전답 약 3천평	신효선
청송심씨	공숙공파	월릉면 영태리	음력 9월 23일		묘	50여명	위토: 임야 8만 3천여평. 전답 대지 약 13만평	심광섭

성씨	문중	묘 역 소재지	시제일	시간	장소	참석 인원	비용마련	제보자
단양 우씨	정평공파	탄현면 만우리	음력 10월 3일 지나 첫 일요일		묘	100여 명	위토:임야 8만5 천평, 전답 약4천 평	우관제
파평 윤씨	정정공파	교하읍 당하리, 와동리	한식, 음력 10월 3일 부터 12일까지	오전 11시	향사 (불천위) 묘	80여 명 (윤관묘 시제 500 여 명)	위토:당하리 7천여 평, 윤관묘위토 4천 여 평, 와동리 7 천여 평 이상	윤장용
경주 이씨	국당공파	교하읍 산남리	음력 10월 첫 일요일	오전 9시	묘	80여 명	위토:약 3천평	이재식
연안 이씨	삼척공파	조리읍 뇌조리	음력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재실	50여 명	위토:임야 15만평 및 종중 건물 임대료	이인희
전주 이씨	담양군파	파평면 금파리	음력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재실	120여명	위토:약 3만평	이환용
나주 정씨	고암공파	아동동	음력10월 10일 지난 첫 일요일	오전 10시	묘	50여 명	종손 부담	정문영
함안 조씨	침판공파	월롱면 능산리	음력 10월 첫 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150여 명	위토: 전답 약 4천평, 임야 19정보	조석래
동주 최씨	정안공파	적성면 울포리	음력 10월 7일~13일	오전 11시	묘	50여 명 (최영장군 묘 시제 200 여 명)	위토	최주택
청주 한씨	침판공파	적성면 답곡리	음력 10월 10일 근처 일요일	오전 10시	재실	30여 명	위토	한기태
양천 허씨	교위공파	연천군 백학면 두현리 동패리	양력 10월 셋째 일요일	오전 11시	묘, 사당	100여 명	종재로 부담	허 엽
장수 황씨	묘하증중	탄현면 금승리	음력 10월 3일	오전 11시	묘	100여 명	위토: 약 5천여 평	황두하

3) 시제비용 마련

문중의 시제비용은 대개 제위토(祭位土)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주시지역의 대부분 문중도 시제비용을 이렇게 마련하지만 백석4리 도창골의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일부를 문중부담금으로 이용하고 오금2리 밀양박씨 공여공파는 대종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아동동의 나주정씨 고암공파는 종손이 부담하고 양친해서 교위공파 문중은 종제로 부담하며 산남리 거창신씨 참판공파 문중은 종인들의 헌성금으로 시제를 올리고 있다.

2. 문중별 시제 진설

1) 계수진설법

율곡 이이 선생은 『격몽요결』 ‘시제의’에서 음식 장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⁶⁾

“신위 한 분에 과실 다섯 가지와(가난해서 다섯 가지를 다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세 가지라도 좋다) 또 한 접시(이것은 흔히 자반이라고 한다), 익은 나물 한 접시, 식혜 한 그릇, 감치 한 그릇, 간장 한 종지, 초나물 한 접시, 생선과 고기 각각 한 접시(생선과 고기는 마땅히 신선한 것으로 한다), 떡 한 접시, 국수 한 대접, 국 한 그릇, 밥 한 주발, 탕 다섯 가지(이 다섯 가지는 생선과 고기, 혹은 나물과 그 밖의 것으로 때에 따라 마련한다. 이것도 가난해서 마련하기 어려우면 세 가지도 역시 좋다), 구운 고기 세 가지를 쓴다.(이것은 간이나 고기, 생선 또는 찜 같은 것으로 한다)”

도암 이재의 『사례편람』에서는 묘제에서의 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상 남쪽 끝에(넷째 줄)에 과일 접시를 진설하고, 그 다음 줄(셋째 줄)에는 채소와 포와 식혜를 차리고, 북쪽 끝에 잔대와 초접시를 놓되, 잔은 서쪽, 접시는 동쪽이다. 시저는 첫 줄의 중앙에 놓는다. 다른 상 위 에 현주(玄酒)와 술병을 두되, 현주는 서쪽이다.”⁷⁾

제상 남쪽 끝에 과일을 진설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각 문중별 과일 진설순서는 ‘홍동백서(紅東白西 : 과일은 붉은 것(사과 · 귤감 · 대추)은 동쪽, 흰 것(배 · 밤)은 서쪽에 놓기)’와 ‘조율이시(棗栗梨柿 : 대추, 밤, 배, 귤감 순서)’, 또는 ‘조율시이(棗栗柿梨)’로 다르다. 파주시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중이 ‘조율이시’를 택하고 있는데 교하 송촌리 행주기씨 정지공파와 백석리 교하노씨 공

6) “每位 果五品 貧不能辦則三品亦可 脯一桑 俗稱佐飯熟菜一桑 疫一桑 沈菜一桑 清醬一器 醃菜一桑 魚肉各一桑 魚肉 當用新鮮生物 餅一桑 糖一燭 羹一燭 飯一鉢 湯五色 或魚或肉或菜 隨所備 若貧不能辦 則只三色亦可 炙三色 肝肉及魚 堆”

7) “設果桑於筵位卓南端(即第四行) 蔬菜脯醢相間次之(即第三行) 設盞盤醋桑于北端 黍西桑東 匕非居中(即第一行) 設玄酒及酒瓶於架上 玄酒在西”(『四禮便覽』卷8, 祭 19b-20a), 홍순석의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에서 재인용.

숙공과 문중만 ‘홍동백서’ 진설을 하고 있다. ‘조율시이’를 사용하는 곳은 양천허씨 교위공파와 장수황씨 묘하종중이다. 강릉김씨 감무공파는 제사자 위주로 서쪽을 높여 조율이시, 서두동미, 좌포우해, 외탕내적으로 진설하되 과일은 짝수로, 동물은 홀수로 놓는다.

김시백에 의하면 “홍동백서나 조율이시 진설법은 경기지역 조사의 예에 따르면 노론은 홍동백서를 남입은 조율이시를 사용한다는 당파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⁸⁾

2) 제수

파주지역에서는 시제에서 메와 갯을 진설하지 않는 문중이 있는데, 묘사(墓祀)이기 때문에 메와 갯 대신 먼(국수)을 올린다고 한다.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양천허씨 교위공파가 그러하다.

(가) 적

적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육적(소고기), 소적(두부), 어적(복어·숭어·조기 중 하나)를 올리는 데 단양우씨 정평공파의 경우는 이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더 올린다. 닭은 머리 위 뱃과 다리가 지도 그대로 손상없이 올리는 데 이는 집안에 신체불구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라고 한다. 닭고기 계적을 올리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종중, 창녕성씨 상곡공파, 평산신씨 화당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함안조씨 참관공파, 양천허씨 교위공파, 장수황씨 묘하종중으로 조사되었으며, 소고기 하나만 단적으로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담양군파이고,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어적과 육적 두가지만 올리고 있다.

적을 올리는 방법은 문중마다 조금 다르다. 강릉김씨 감무공파와 거창신씨 참관공파, 평산신씨 화당공파, 함안조씨 참관공파 등은 처음부터 그대로 진설하고 헌작을 할 때는 술잔만 올린다. 헌작할 때마다 적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 올리는 곳은 밀양박씨 공여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등이다.

(나) 탕

탕은 대부분 삼탕을 쓰는데 육탕(소고기), 소탕(두부), 어탕(복어)이다. 육탕만 하나 올리는 곳은 창녕성씨 상곡공파인데 원래 오탕을 썼다가 번거러워 10년 전부터 단탕으로 바꿨다고 한다. 오탕을 올리는 곳도 있는데 전주이씨 담양군파는 육탕·소탕·어탕·봉탕(닭)·잡탕을 쓰고,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정정공파 불친위 등 7위만 오탕(육탕·소탕·어탕·장탕(내장)·잡탕)을 쓰고 그 외에는 삼탕을 쓰고 있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에서 내장탕을 올리는 것은 파주지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8) 김시백, 「용인지역의 제사」, 『인문사회논총』 5집(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46쪽, 제인용.

(다) 나물과 침채

나물과 침채(고춧가루와 짓갈을 쓰지 않고 무·배추로 담근 나박김치)는 대체로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를 쓰는데 창녕성씨 상곡공파에서는 숙주나물과 침채만 올리고 특별히 우계 성흔 제사에만 삼색나물을 쓰고 있다고 한다. 숙주나물과 침채만 올리는 곳은 전주이씨 담양 군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장수황씨 묘하종중이며, 숙주나물만 올리고 침채도 올리지 않는 곳은 청송심씨 공숙공파이다.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숙주나물과 무나물, 침채를 올리며, 청주한씨 참판 공파는 그때그때 자유롭게 올린다고 한다.

그밖에 편(떡)을 올릴 때 시루떡이나 인절미 등을 쌓아놓고 위에 화전과 주악으로 장식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많았으나, 단양우씨 정평공파는 사람들이 잘 먹지 않아서 골무떡과 찹쌀인절미를 올린다고 하였다.

또한 밤·대추 등을 꿰 때 투명원통을 사용하여 보기 좋으면서도 쌓기 수월하게 하고 있어 편리성을 가미했다. 양천허씨 교위공파는 편에 화전과 주악 장식을 하지 않는다.

〈표 2〉 문중별 진설과 제수

성씨	문중	진설법	적	탕	나물, 침채
행주 기씨	정지공파	홍동백서	3적:육적, 소적, 어적(송 어 또는 조기)	3탕:육탕, 어탕, 소탕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강릉 김씨	감무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교하 노씨	공숙공파	홍동백서	2적:어적(조기), 육적	3탕:어탕, 육탕, 백탕(두 부)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진주 류씨	시윤공파 호은공 중 중	조율이시	4적:소적, 육적, 계적, 어 적(송어나 도미)	3탕:육탕, 소탕, 어탕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밀양 박씨	공여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송 어)차례로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창녕 성씨	상곡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계적, 어적(송 어)	단탕:육탕	숙주나물(우계성흔 제사 만 삼색나물 씌), 침채
거창 신씨	참판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침채
평산 신씨	화당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계적, 어적(북 어)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도라지, 시금치,

성씨	문중	진설법	적	탕	나물, 침채
청송 심씨	공숙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	3탕:육탕, 소탕, 어탕	숙주나물
단양 우씨	정평공파	조율이시	5적:육적(소고기, 돼지고 기, 닭고기-닭은 벗, 다리 까지 통으로), 소적, 어적(송어)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파평 윤씨	정정공파	조율이시	4적:육적, 계적, 어적(송 어), 소적, 육, 계, 어적만 차례로 올린다 정 정공 등 7위만	5탕 :육탕, 어탕, 소탕, 장 탕(내장), 계탕 그 외는 3탕:육탕, 어탕, 소탕	숙주나물, 무나물, 침채
경주 이씨	국당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조 기)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연안 이씨	삼척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차례로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전주 이씨	담양군파	조율이시	단적:육적	5탕:육탕, 소탕, 어탕, 봉 탕(닭), 잡탕	숙주나물, 침채
나주 정씨	고암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	3탕:육탕, 소탕, 어탕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함안 조씨	참판공파	조율이시	4적:소적, 육적, 계적, 어 적(북어)-한꺼번에 올림	3탕:육탕, 소탕, 어탕	숙주나물, 침채
동주 최씨	정안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조 기)	3탕:육탕, 소탕, 어탕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침채
청주 한씨	참판공파	조율이시	3적:육적, 소적, 어적(북 어)	3탕:육탕, 소탕, 어탕	자유롭게 올림
양천 허씨	교위공파	조율이시	4적:소적, 육적, 계적, 어 적(북어 또는 조기)	3탕:육탕, 소탕, 어탕(북 어, 굴, 홍합 등 계절 따라 다르게 함)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장수 황씨	장수황씨 중중	조율이시	4적:육적, 계적, 어적(송 어), 소적	3탕:육탕, 어탕(두부위에 홍합올림), 소탕	숙주나물, 침채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과주지역에서 시제를 지내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각 집안의 기재사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시제는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는 만큼 가가례의 절차에서 문중의 합의에 의한 형식으로 종회에서 제정한 형식으로 지내고 있다. 시제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진설(陳設): 나물과 과일 등을 먼저 차린다.
- ② 출주(出主): 사당에서 신주를 정침으로 모신다.
- ③ 참신(參神):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 ④ 강신(降神): 주인이 분향하고 술을 따라 모시기에 따른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⑤ 진찬(進饌): 국과 밥 등을 올린다.
- ⑥ 초헌(初獻):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⑦ 아헌(亞獻): 주부가 두 번째 잔을 올리고, 네 번 절을 한다.
- ⑧ 종헌(終獻): 형제중의 맏이나 친척 중에 연장자가 세 번째 잔을 올리고, 두 번 절을 한다.
- ⑨ 유식(脩食): 잔에 술을 더 채우며, 숟가락을 밥에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은 후에 두 번 절을 한다.
- ⑩ 함문(闔門): 문을 닫고 나가 흠형(歆饗)하기를 기다린다.
- ⑪ 계문(啓門): 문을 열고 들어가 국을 내려 송농을 올린다.
- ⑫ 사신(辭神): 제사가 끝나 주인 이하 모두 두 번 절을 한다.
- ⑬ 납주(納主): 신주를 사당으로 다시 모신다.
- ⑭ 철찬(徹饌): 제사상의 음식을 모두 물리고, 그 음식으로 음복을 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묘사(墓祀)에서는 대체로 출주와 함문과 계문, 납주가 빠지게 된다.

1) 강신과 참신

시제를 지낼 때 채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와 묘제로 지낼 때 강신을 먼저 하느냐, 참신을 먼저 하느냐 하는 논란은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사당이나 채설에서는 신을 불러 모셔야 하기에 강신부터 하지만 묘제로 지낼 때는 이미 그곳에 신이 있기에 참신부터 한다는 것이다.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은 선강후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자와 도암 이재는 선참후강을 주장하고 있다.⁹⁾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 「묘제의」에서 “진찬·강신·초헌(초헌할 때 술가락을 메 가운데 꽂고 젓가락을 건다)·아헌·종헌(종헌이 끝난 뒤에 국을 거두고 숙수(熟水)를 올린다)·사신을 마치고 음식을 거둔다.”¹⁰⁾ 라고 기록하고 있다.

9)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회, <비교민속학>, 2009년.

10) 「陳饌 降神 參神 初獻 初獻時 卽扱匙飯中 正非如家祭之儀.....亞獻 終獻 終獻後徹羹 進熟水 辭神 乃徹」

파주지역에서는 거의 강신을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묘제에서 지낼 때는 신이 그 곳에 있다고 여기고 참신부터 하는 문중은 밀양박씨 공여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로 조사되었다. 교하노씨 공숙공파는 묘제시 복향을 하고 개성의 시조를 위해 목념을 먼저 하고나서 강신과 참신을 한다.

2) 삼시와 정저, 전저, 첨작

매 가운데에 숟가락을 꽂는 것을 '삼시(插匙)'라고 한다.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는 '초헌할 때 숟가락을 매 가운데 꽂고 젓가락을 건다'고 하였는데, 파주지역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초헌 후에 삼시하는 곳은 11곳, 초헌 전은 1곳, 종헌 후에 하는 곳은 6곳이며, 메와 갯을 진설하지 않고 면(국수)을 올리기에 삼시를 하지 않는 곳은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양천허씨 교위공파이다.

시집에 놓인 수저를 가지런히 하여 시집에 걸쳐 놓는 것을 정저(正著)라고 하며 전저(奠著)는 헌작을 할 때 집사자가 젓가락을 세 번 굴리는 절차이다. 흔히 "젓가락을 궁구른다"라고 한다. 김시덕에 의하면 기호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절차로서 노론의 특징이라고도 한다.¹¹⁾

파주지역에서는 대부분 초헌·아헌·종헌 세 번의 헌작 때마다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주류씨 호은공중증은 유식 때 한번, 거창신씨 참판공파, 청송심씨 공숙공파, 단양우씨 정평공파는 종헌 후 한번, 장수황씨는 초헌 후 한번, 파평윤씨 정정공파는 전저를 칠찬 직전에 한번 한다.

제사절차에서 아주 중요시 되는 헌작에 있어서 초헌, 아헌, 종헌이 헌작한 후에 이어서 첨작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파주지역에서는 첨작을 하지 않는 문중도 있다. 강릉김씨 감무공파, 교하노씨 공숙공파, 밀양박씨 공여공파, 파평윤씨 정정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청주한씨 참판공파, 양천허씨 교위공파 문중은 첨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산신제

〈표 3〉 시제 진행순서와 특징

성씨	문중	복식	축문	홀기	참신, 강신	삼시	정저, 전저	첨작	산신제	묘제전후
행주 기씨	정지공파	○	○	○ (개량 홀기)	강신 후 참신	종헌 후	삼헌작 때 세번	○	○	전

11) 김시덕, 「가가례로 보는 경기지역 제사의 특성」, 『민속문화의 지역적 특성을 묻는다』, 실천민속학회편, 집문당, 112-114쪽, 재인용.

12) “遂祭土神 陳饌, 降神, 參神, 初獻 如上儀 但祝詞曰 [某官姓名은 敢昭告于土地之神 某恭修歲事于某親某官府君之墓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酒饌 敬伸奠獻 尚饗] 亞獻, 終獻, 辭神 乃徹而退”

성씨	문종	복식	축문	흘기	참신, 강신	삽시	정저, 전저	철작	산신제	묘제전후
강릉 김씨	감무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중헌 후	삼헌작 때 세번	x	x	
교하 노씨	공숙공파	o	o	o	북향 묵념 (개성 시조)후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x	o	전
진주 류씨	시윤공파 호은공 종 중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유식 때	o	o	전
밀양 박씨	공여공파	o	o	o	참신 후 강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x	o	전
창녕 상씨	상곡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중헌 후	삼헌작 때 세번	o	o	전
거창 신씨	참판공파	o	o	x	강신 후 참신	중헌 후	중헌 후 한번	o	x	
평산 신씨	화당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초헌 때 한번	o	x	
청송 심씨	공숙공파	o	o	x	강신 후 참신	중헌 후	중헌 후 한번	o	o	전
단양 우씨	정평공파	o	o	o	참신 후 강신	x 매, 경 안함	중헌 후 한번	o	o	전
파평 윤씨	정정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철찬 때 한번	x	o	전
경주 이씨	국당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전	삼헌작 때 세번	o	x	
연안 이씨	삼척공파	o	o	x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x	o	전
전주 이씨	담양군파	o	o	o	강신 후 참신	중헌 후	삼헌작 때 세번	o	x	
나주 정씨	고암공파	x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o	o	전
함안 조씨	참판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중헌 후 한번	x	o	전
동주 최씨	정안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o	o	전
청주 한씨	참판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삼헌작 때 세번	x	o	전

성씨	문중	복식	축문	흘기	참신, 강신	삼시	정저, 전저	참작	산신제	묘제전후
양천 허씨	교위공파	o	o	o	강신 후 참신	^x 매, 갭 안함	삼헌작 때 세번	x	o	전
장수 황씨	장수황씨 중증	o	o	o	강신 후 참신	초헌 후	초헌 후 한번	o	o	전

파주지역에서는 산신제를 대부분 시제를 지내기 전에 지내는데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낼 때는 산신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묘제로 지낼 때는 거의 대부분 산신제를 지내는 걸로 나타났다.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경우에는 묘제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관도 공 부인 경안택주, 양평공, 충북 음성 양평공 부인 계림김씨 묘제 때만 지낸다고 한다. 재실이나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지만 산신제를 지내는 문중은 진주류씨 호은공파, 연안이씨 삼척공파, 함안조씨 참판공파, 청주한씨 참판공파이다.

산신제를 지내는 시기는 모두 시제를 지내기 전으로 조사되었는데,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는 묘제를 지내고 난 후 “음식을 거둔 다음 토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여기에서도 진찬, 강신, 참신, 초헌은 모두 위에 달한 절차와 같다.”¹²⁾ 고 하여 산신제를 묘제 후에 한다고 기록하였다.

III. 맺음말

시제는 문중의 행사 중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행사이다. 가가례의 기제사와 달리 문중의 시제는 씨족의 모든 조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종인들은 함께 모여 벌초도 하고 시장도 보고 진설음식을 준비하며 시제사를 준비한다. 시제를 진행하면서 종인들은 한 뿌리에서 나온 혈연이라는 결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들의 문중이 대대로 오래도록 이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시제를 지내면서 종인들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위토를 마련하여 비용을 충당한다. 가세가 큰 문중은 시제 때 모이는 종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특히 파평윤씨 정정공파의 경우 대원수 윤관 묘의 시제 때는 전국에서 종인들이 5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로 진행된다. 또한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이나 사당이나 묘역에서 시제를 지내고 충북 음성까지 찾아가 친정쪽에 묻힌 양평공의 부인 계림김씨에게 까지 시제를 지내고 오는 정성을 보인다.

파주지역의 시제는 유서 깊은 가문들이 많아 높은 종족의식으로 참사자도 많고, 위토도 많아 제향에 정성을 쏟고자 함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시제 비용 마련을 위한 위토와 종제는 문중별로 대체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연안이씨 삼척공파의 경우엔 산 15만여 평과 종중소유의 건물에서 임대료가 월 1,800만원이나 나와 시제를 비롯해 모든 종중행사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송심씨 공숙공파는 올해 협소한 별묘를 새롭게 크게 개축하면서 종인들의 회의를 거쳐 시제 일자도 바꾸고 진설음식과 헌작의 방법도 약간의 변경을 하기로 했다.

문중의 시제는 오래도록 지켜나갈 조상모시기 전통민속으로 가급적 옛법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지만, 현대인의 습속에 맞게 편리하게 바뀌어나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시제일자를 융통성 있게 일요일로 변경하여 되도록 많은 종인들이 참석하게 한다든지,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경우는 진설음식을 준비하는 수고를 조금 덜기 위해 오탕을 단탕으로 바꾸고, 행주기씨 정지공파는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고 편리하게 홀기를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파주지역의 시제 진설방법은 대체로 '조율이시'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나물을 삼색나물을 쓰지 않고 숙주나물만 올리는 문중이 여럿 있다는 것과 특별히 한분의 상에만 삼색나물을 쓰고 그 외엔 숙주나물만 올리는 창녕성씨 상곡공파의 사례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묘제에서 강신 후에 참신을 하는 문중이 파주 대다수 문중으로 조사되었고, 단양우씨 정평공파와 밀양박씨 공여공파 문중만 참신 후 강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조에게 묵념으로 시작하는 교하노씨 공숙공파 문중의 사례도 있었다.

또한 삼시와 정저·전저·침작의 진행방법은 문중별로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으나 삼시는 대체로 초헌 후가 가장 많았고, 종헌 후가 다음이었다. 정저와 전저는 세 번의 헌작 때 세 번 다하는 문중이 많았고 종헌 후에 한번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침작은 대부분 하고 있으며 안하는 문중은 여덟 곳이었다.

산신제의 순서는 모두 시제 전이었으며, 재실이나 사당에서 시제를 지내도 산신제를 지내는 곳도 네 곳이나 되었다. 율곡의 『격몽요결』 「묘제의」에서 기록된 순서와는 반대인 것이 의외였다.

이렇게 파주지역의 문중시제를 조사하여 표로 비교해 보니 문중별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의외로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어서 파주지역 제사민속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아무쪼록 이러한 연구가 지역의 민속을 알고 지켜나가며, 새로운 연구에 밑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홍순석, 「경기 용인지역의 묘제 연구」,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2009.

이상균, 「문중과 제사」, 『과주시지』, 과주시, 2009.

이이, 이민수 역, 『격몽요결』, 을유문화사, 2003.

〈사진 1〉 파평 윤씨 정정공파 한식 절사 2008. 4. 5.



〈사진 2〉 청송심씨 공숙공파 추석 절사묘제(좌)와 산신제(우)



〈사진 3〉 2008년 11월 2일 함안조씨 산신제



〈사진 4〉 교하노씨 공숙공파 노사신 시제 2008년 10월 26일



포천의 영평팔경가(永平八景歌)

이 석 구 (전국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 I. 영평8경가의 탄생
 - 1. 포천의 영평8경
 - 2. 영평8경
- II. 박순 선생의 영평8경
- III. 영평8경이 있는 곳
- IV. 박영실 명창의 등장
- V. 새 영평8경가 작시하고 감수 받다
- VI. 새 영평8경가의 작시
 - 1. 수월정신
 - 2. 백로주
 - 3. 선유담
 - 4. 와룡암
 - 5. 청학동
 - 6. 창옥병
 - 7. 금수정
 - 8. 낙귀정지
- VII. 9편의 영평8경가에 곡을 붙이다
- VIII. 2012년까지 8회의 공연을 마치다
- IX. 전망

집필자

이 석 구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I. 영평팔경가(永平八景歌)의 탄생(誕生)

1. 포천의 영평8경

포천(抱川)과 영평(永平)은 같은 급의 현으로 있다가 한때는 영평현의 인구가 포천보다 많았던 때가 있었으나 永平이 포천 현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영평의 지명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그때 지어진 영평8경은 8경과 더불어 영원히 남게 되었다. 우리 고장은 일찍이 「영평의 산수(山水)에 포천(抱川)의 인물(人物)이라고 회자(膾炙) 될 정도」로 수준 높은 예향이었다. 조선로가 창업되고 영평과 포천이 이웃 고을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 고장이나 다름없이 교류되고 있다. 옥병서원의 주인이자 당시 송(宋)의 인물에 당(唐)의 시인으로 추앙받던 박순(朴淳) 선생께서 영의정을 내놓고 영평으로 퇴은(退隱)을 하며 “五東山水는 此縣이 最名”-우리나라 자연경관은 영평현이 최고-라고 극찬하며 영평8경을 두루 찾으며 주옥같은 시문(時文)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조선 전기의 4대 서예가이며 문장가이신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先生도 自然을 너무 사랑하며 한때 금수정의 주인으로 주변에 많은 암각문(巖刻文)을 남기고 있는 포천 분이시다.

2. 영평8경

영평8경(永平8景)은 영평 땅에 존재하는 여덟 개의 아름다운 경치를 일컬음이다.

관동 8경이니 단양8경이니 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은 예부터 있어 왔다. 중국도 8경이나 9곡(九曲)이니 해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된다.

II. 박순 선생의 영평8경

영평8경의 경치가 언제부터 전해 내려오는지 이렇다 할 고증의 자료는 없으나 예부터 명소(名所)로 알고 찾이 때문에 유명해진 장소로 전래(傳來)되던 곳을 사암(思菴) 박순(朴淳) 선생께서 처음으로 여덟 경치의 이름을 기록 해 놓은 데서부터 영평팔경은 영평8경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다. 여덟 줄의 짧은 시(時)로서 묘사하였는데 8개의 경치 이름이 서로 어우러지도록 시의 표현 양

식으로 구성해놓았다.

禾積淵(화적연) 화적에서 벼를 털어
金水亭(금수정) 금수로 술을 빚어
蒼玉屏(창옥병) 창옥병에 넣어두고
臥龍庵(와룡암) 와룡을 빗겨 타고
樂歸亭(낙귀정) 낙귀정 돌아드니
白露州(백로주) 백로는 횡강하고
靑鶴洞(청학동) 청학이 날아드니
仙遊潭(선유담) 선유담이 예 아니더냐.

위 여덟 줄의 시가 박순 선생의 원작이다. 잠시 음미해보면 ‘화적에서 벼를 털어’는禾(화)자가 벼 화자로 쌓아놓은 연못의 뜻으로 벼를 털고 ‘금수로 술을 빚어’는 금수(金水)의 물수(水)자를 따서 좋은 물로 술을 빚고 ‘창옥병에 넣어두고’의 창옥병(蒼玉屏)은 병(屏)자가 둘러치는 병풍이지만 한글의 병(瓶)으로 음만 따다가 술병의 뜻으로 인용했다. ‘와룡(臥龍)을 빗겨 타고’는 돌의 생김이 누운 용 같아서 지은 이름(와룡)에서 형상을 인용하였고 ‘낙귀정(樂歸亭) 돌아드니’는 자리라는 뜻의 지(趾)를 빼고 즐겁게 돌아갈 정자(亭子)의 亭字로 취하였고 ‘백로(白鷺)는 횡강(橫江)하고’는 백로주에서 ‘백로가 노니는 모습을 횡강(橫江)으로 표현’하고, 끝으로 ‘백로와 청학이 노는 선유담(仙遊潭)이 예 아니더냐.’로 결구(結句)를 맺고 있다.

여덟 경치를 순서 없이 배열하면서 시적 구성을 이루었다 좋은 술을 빚어 백로와 청학이 노니는 선유에서 술자리를 갖고 싶은 옛 선비들의 멋을 이 8경의 이름에서 조화로운 작시를 이루고 있다. 한자를 전부 빼고 한글로 써서 읽어도 의미는 통하게 된다.

III. 영평8경(永平8景)이 있는 곳

영평8경이 소재하는 곳은 포천군 이동면의 계곡에서부터다. 광덕산(廣德山), 백운산(白雲山)에서부터 시원(始源)하는 물줄기는 이동계곡을 굽이굽이 휘돌면서 첫 번째 영평8경의 경치인 선유담(仙遊潭)을 만들고 흐르는데 이동의 끝자락인 평촌교(平村橋)에 이르러 일동(一東)에서 흘러오는 청계산(靑溪山) 물줄기와 합수(合水)되어 흐른다. 이 물 줄기는 여기서 방향을 틀어 서(西)쪽을 향하면서 물의 양(量)이 풍성해 지고 넓게 자리하면서 경사가 완만해진다. 이 물 줄기는 성동을 지

나 영중(營中)에서 송우리 포천을 북상(北上)하는 한내 물과 만나서 영평 펄을 만들어 흐르는데 이 물은 영천군 백의리에서 포천 경계를 흐르던 한탄강 물과 아우라지에서 만나 임진강(臨津江)으로 흐른다. 영평8경의 경치는 포천군이 영평군과 나뉘어져 있을 때 영평군(永平郡)에만 있었던 경치이다. 백운산(白雲山)에서 시원(始源)하여 백의리에서 한탄강 물과 만나기 전 까지 약 60리(里)의 강줄기에 산재(散在)된 경치들이다. 옛날에는 이 물 줄기(영평천, 한내천)에 물의 양이 많아 경치가 더 돋보였으나 지금은 지하수 개발 등으로 유수(流水)의 양(量)이 시원치 않아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이 지워지고 있다. 6·25전만 해도 평촌교 다리가 없었을 때는 남(南)과 북(北)이 배를 띄어 교역(交易)을 했었다고 한다.

IV. 박영실(朴英實) 명창(名唱)의 등장

2004년에 경기 민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인 박영실은 포천에 박영실 경기 소리 보존회 포천시 지부를 결성(2004년 3월 16일)하고 전수(傳授)학원을 열고 단원들을 모집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경기 소리의 보전 보급의 활동이 시작 되었다. 문하생들을 가르치면서 각종 대소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그 해 박영실은 원로 회의가 있는 모임에서 「포천에 영평8경이란 훌륭한 경치가 있다는데 누가 작사를 할 수 없겠는가? 작사가 된다면 곡을 의뢰하여 내 문하생과 같이 연습하여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V. 새 영평8경가 작시하고 감수 받다.

그 해 11월 필자는 8경의 노랫말을 초벌 완성하였다. 이렇다 할 자료가 없기에 포천의 여러 고시문(詩文), 문집(文集)등을 참고하고 「포천군지」에 전설로 담아놓은 내용들 읽어보고 필자가 직접 경치를 답사했던 감상을 토대로 현대에 맞는 내용으로 하느라고 노력하였다. 완성되자 몇 분을 의뢰하고 자문을 받았다.

(최종규 : 전전교, 김진동 : 전 예총 포천시지부장, 이종훈 : 경기소리보존회, 이석구 : 문화원 향

토사연구소장)

이 자리에서 박순 선생의 ‘水月精神’을 여덟 경치 앞에다 넣어 永平8景 소리의 ‘테마’ 곡으로 우뚝 서게 하였다.

그리고 작곡가에게 ‘늦은굿머리’ 니, ‘자진모리’ 니하며 가사에 박자를 맞추도록 의도적인 작곡을 의뢰하였다.

VI. 새 영평8경가(永平八景歌)의 작시(作詩)

1. 수월정신(水月精申)

수월정신 박순(朴淳)선생
영평8경 시 남기고
시조명인(詩調名人) 봉래 선생(蓬萊先生)
곳곳에 이름났네.
오성대감 이항복(李恒福)
한음대감 이덕형(李德馨)
양문대신 이서구(李書九)
서성(徐陵)선생 악봉대감
포천의 정승판서
풍류 판이 벌여졌네.
시 짓고 풍류 읊고
장구치고 피리불고
이 땅의 태평성대(泰平盛大)
이만하면 어떠리오.

2. 백로주(白露州)

바위산 북으로 꺾어 역수하는 물길이
영평천 섬터에서 발길 멈춘다.
백로는 때 지어 노닐고 꽃이 피어 아름다운 곳
저기터 잡고 선 조각은 백로의 고향인양 우뚝하구나.

같이 한번 놀아보세 백로 함께 놀아보세
 이 아니 좋을 손가 이 아니 좋을 손가
 건하게 취하거든 깨우지 말고 자게 하오
 선비의 하루가 이만하면 족한 것
 인생무상(人生無常) 남가일몽(南柯一夢)
 이 보다 큰 낙이 어디 있으리오.

3. 선유담(仙遊潭)

선녀가 놀았으니 선비도 놀았으니.
 선유담 골짜기는 한여름도 서늘코나
 바위 그릇에 물 담아 아래로만 흘린다.
 물담아 마음 씻고 한잔 술에 부일배 하면
 신선놀음 별것인가
 세월 따라 함께 늙는 소나무 울창하고
 보일 듯 말 듯 나뭇잎 사이로 황금 햇살이
 물결 위에 일렁인다.
 건너편 바위에는 '선유담(仙遊潭) 세 글자'가
 아련한 천년세월 이끼를 깔았구나.
 무심한 세월이 여기에도 비껴가지 않았으니

4. 와룡암(臥龍巖)

수억 년을 닳고 달아 기암이 되었구나.
 문지르고 부딪혀서 용바위 되었단고
 철쭉꽃 5월에는 빨간 물 되었다가
 장마철 7월에는 황토 빛으로 흐르네.
 이 무기 수천 년에 용으로 환생해서
 누워서도 용트림 하는구나
 괴괴한 두 눈 부릅떠 꼬리를 쳐라
 하늘과 땅이 울고 만상을 울게 하여라.

5. 청학동(靑鶴洞)

청학이 울었다는 청학동의 이야기는
하늘의 뜻 알아챈 효자 아들이 찢던 흙
되 덮고 돌아서려니
청학도 한 바퀴 돌고 돌아다네.
푸른 학의 날개 짓은 신선의 자태였고
끼득거리는 그 목소리는 파랑새의 슬픔이었네.
어쩌면 이곳은 요순시대 백성들만
드나들어야 될 곳 같은
속되지 않은 정경이
찾아든 이들의 고개를 숙이게 한다.
아무리 오랜 세월 흘러도 세월 흘러도
퇴색 할 것 같지 않은 청학동의 사연은
언제고 하늘 뜻 같이 의연하고 품위 있게
우리의 강산임을 우리의 강산임을 말하리라

6. 창옥병(蒼玉屏)

나무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바위도 아닌 것이 흙도 아닌 것이
병풍을 둘러친 듯 부채를 펼친 듯
들쭉날쭉 울퉁불퉁 나래 편 봉황이
박힌 바위 접점이 떠서 백로와 노닌다오.
산 그림자 절벽 아래로 낙락장송 고고한데
별빛을 인주하여 놓고 간들 어떨 고
그것이 싫증나면 신발 벗고 뛰어 들어
발 담구고 드러누워 산선흥내 내리라
발 담구고 드러누워 산선흥내 내리라

7. 금수정(金水亭)

금수정 발 아래로 물결 휘감아들고
쭉쭉 하늘에 석양이 지누나.
지친 나그네야 쉬어나 가자

백로 왜가리는 돌섬에서 고개 빼들고
 물속을 노리며 저녁거리 더듬는다.
 먹고 먹히는 천리가 여기에도 있는 것을
 세월 넘는 풍류소리 귓가에 스치는데
 멋없이 혼자이니 그 뉘가 들어주랴
 쉬임없고 태고를 잇는 냇물은 말이 없고
 붉은 노을은 사람의 한을 싣고 서산을 넘는다.

8. 낙귀정지(樂歸亭地)

내 돌아가 즐겁게 살으리라
 정자 짓고 살던 사람
 사약 받고 죽었다네.
 전설의 고향에선
 허를 물고 피를 토해
 불귀객이 되었다니
 천만년 살면서도 건너지 못하는
 바위섬에 낚시 드리우고
 고기 잡는 어부 되어 벗님 부르고
 지나는 길손도 잡아 앉히고
 풍류 즐기는 인생으로 살고파라
 낙귀는 불귀(不歸)되고 텅 빈 집터에는
 주춧돌만 뒹구는데 세상 향해
 무슨 욕심 배를 채우려오,
 배불리 먹었다고 존경할 이 없고
 배고고 굶는 것이 자랑도 아니랴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으면 하오

9. 화적연(禾積淵)

열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好)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더냐.
 세월에 한을 심어 흐르다 고였다냐.

벗짚단 싸놓고 머리를 틀었나.
비둘기 모양인가 용머리 형상인가
일어날듯 말듯이 주저앉았네.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더냐.

마당마위 화적에서 멈췄다 가는 물이
모퉁이 휘돌면서 백사장을 펼쳤구나.
하늘이며 비를 주소서 기우제 올리던
농부의 그 음성이 귓가에 아련한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더냐.

역수 같은 장대비 웅솟음 오르고
그 물살 화적연에 소용돌이 지나면
선비들 둘러앉아 문장을 읊었다네.
화적연 빼어남을 그 누가 시샘하랴
얼씨구 좋아 지화자 좋네, 호시절이로구나.
화적연 절경이 예 아니더냐.

VII. 9편의 영평8경가에 곡(曲)을 붙이다.

2004년 말쯤 작사가 끝나고 박영실은 이병욱(서원대학 공연 예술부 음악과 교수)에게 영평8경가가 음악 공연 예술작품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모든 주민들이 8경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 속의 삶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모든 분들이 즐겨 불러 포천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곡되기를 부탁하였다. 그 이듬 해 3월경에 아홉 마당의 영평8경가가 작곡의 옷을 입고 새 단장을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는 즉각 영평8경 소리 보존회를 결성하고 공연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완성된 영평8경의 소리는 박영실 문화생들의 연습으로 익혀지고 한동엽(대진대 무용 강사)이 안무를 맡고 ‘영평8경가’로 포천별곡의 부제를 달아 대망의 첫 공연을 이무성씨에게 총 감독을 맡겨 포천 제1의 반월대극장 1,000여석을 입추 여지가 없게 하였다. 대단한 기대감이었다.

VIII. 2012년까지 8회의 공연을 마친다.

2005년 12월 15일에 첫 무대에 올리고 영평8경가는 2회, 3회 매년 1회씩 2012년까지 8회의 공연을 꾸준히 이어갔다 2회(2006. 11. 3)때는 발표 형식을 바꾸어 장두이씨(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국극형식으로 노래와 춤과 연극으로 입체적 무대를 만들어 올리기도 하였고 2007년 3회 공연 때는 같은 소리의 내용을 4계절로 나누어 연출하고 초·중·고 학생들을 참여 시키면서 지면 확대를 피하기도 하였다. 6회(2010) 공연부터는 「마당놀이 영평팔경 풍류 감사」라는 타이틀로 포천 체육공원의 야외무대로 뛰쳐나가 춤추며 소리쳤다. 지루한 무대를 동적(動的)으로 꾸미고 마당놀이의 특징인 빠른 전개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며 호흡을 같이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펼쳤다.

IX. 전망

1. 영평8경의 경치는 8경이란 이름으로 경기도내에서 포천만이 갖고 있는 경치이다. 산자수명한 포천의 경치가 8경이란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자긍심을 일깨워준다. 옛 우리네 조상들이 이곳을 찾아 즐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곳이다. 그 시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많이 훼손되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안타까운 노릇이다. 몇 년 전 포천 시에는 현대에 맞게 고치고 수선하는 구조 변경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 안내문 설치, 전동 가설, 진입로 정비, 휴식의자, 주차장 마련등 보존자원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내용들이 있었다. 그때 논의된 것이 8경 중 이미 본래 모습을 많이 잃은 것은 차후로 미루고, 잘 보존된 것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하나 둘씩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가령 백로주, 선유담, 금수정, 화적연 등은 주변을 조금만 손질해도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기존에 존재했던 것에 관심을 두고 더 훼손되고 파괴되기 전에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 영평8경가가 영평8경을 위해 새로이 태어났다. 공연예술은 시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 그러려면 문화예술을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수요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 경기도나 중앙무대로의 진출을 꾀해 볼만하다.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다. 포천 시는 모든 예술 활동의 건인차 역할을 하면서 이 고장의 문화예술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부

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3. 2012년 4월에 영평8경소리보존회는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 사단법인 영평8경소리보존회로 법인 등록을 마쳤다. 준비를 갖춘 셈이 되었으나 매우 요원하다. 사단법인체를 도약으로 삼아 세계로 뻗어나려는 웅지를 갖고 회원 모두는 자기 기량을 닦고 있다.

〈부록 1〉 현존하는 영평8경 모습



〈백로주〉



〈선유담〉



〈금수정〉



〈낙귀정지〉



〈침학동〉



〈침옥병〉



〈와룡암〉



〈화적연〉

수월정신(水月精神)

작신모리

이석구 김진동 작사
이병욱 작곡

mf

수월정신 — — — 박순선생 — — — 영평팔경시 남기고

4

— — — 시조명인 — — — 불태선생 — — —

7

mp

곳곳에이름났네 — — — 오심대감이항복

10

mf

반을대감이더힘양문대선이서구시정선생아불대감

13

포전외경승관서쌍류관을벌려봅시다 — — —

16

시 — 짓고 — 풍류 읊고 — 잠구치고파리불고

19

— — — 이 땅의태평성대 — — —

22

이만하먼어때리 — — — 요 — — —

2. 화적연

화적연(禾積淵)

세마치 ♩ = 100

이석구 김진동 작시
김성운 작곡 이병욱 편곡
이무성 보컬

mf 이무성 보경

악씨구좋아 -- 지화자좋네 -- 호--시--원-- 이 -- 로구나

와 - 적 - 인 - 권 - 령 - 이 - 예 - 아 - 니 - 드 - 냐 - -

[illegible]

17

A musical score for a single staff melody in G major (one sharp).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and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The melody consists of 16 measures. The notes are as follows:
Measure 1: B4 (quarter), A4-G4 (beamed eighth pair), F#4-E4 (beamed eighth pair)
Measure 2: D5 (quarter), C5-B4 (beamed eighth pair), A4-G4 (beamed eighth pair)
Measure 3: F#4 (half)
Measure 4: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5: F#3 (half)
Measure 6: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7: F#3 (half)
Measure 8: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9: F#3 (half)
Measure 10: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11: F#3 (half)
Measure 12: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13: F#3 (half)
Measure 14: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Measure 15: F#3 (half)
Measure 16: E4-D4 (beamed eighth pair), C4-B3 (beamed eighth pair), A3-G3 (beamed eighth pair)

별오그
일곱살
다아삼
쌍둥이
아들네
둘이
고지애
미혜소
사모
리자용
블루어
둘이
일곱살
두구
니니

17

비와성 불빛 이이 기억들 무비로 알몸의 인종한 가사아 용기 우아 비제장 리용 이이 이리나 현년 상인 가

일과
 어
 날
 동
 말
 오
 두
 이
 주
 제
 아
 아
 구
 네
 이

25 
 언써구름아 — — 지와자랑네 — — 호—시—월— — 이 — 로구 나

화 — 렵 — 연 — 정 — 경 — 이 — 예 — 아 — 니 — 드 — 나 — — — D.S.

Fine

3. 금수정

금수정(金水亭)

늦은꽃거리

이석구 김진동 작사
이 병 옥 작편곡

mp

금수정 말아래로 물길 휘감고 쉼빛 하늘이 고

석양이 지누나 지친 나 그대야 쉬어나가자

백로 왜가리들은 들심에서 고개를 빼고 물속을 노려보는

저녁거리 떠돌는 다미고 버리는 철리가

이기에 도 있는 것을 희끗 희끗 물위에 띄고

세월 넘는 풍류 소리 귀가 애스직는데 빗없이 온 자이니

mp

그대가 들어주랴 십없이 태고물

잇는 냇물은 말이 없고 오늘도 서름겨운 운

한을 실고 물줄을 찾는 데 물은 노을 짙게 물든

사산 서산을 넘는다

4. 창옥병

창옥병(蒼玉屏)

옛모리

이석구 김진동 작시
이 병 옥 작편곡

mf

나 부도 아 닌 것이 들 도 아 닌 것이 — 바 위도 아 닌 것이

4
흙 도 아 닌 것이 — 병 봉을 들 러 천 듯 부 채를 편 천 듯 이

7
들 쪽 날 쪽 움 봉 불 장 나 래 편 봉 황 의 막 인 바 위 점 점 이 떠 서

10
백 로 와 — 노 닌 다 오 — — — 산 그 림 자 절 백 아 래 로

13
나 락 장 송 고 고 한 테 불 빛 을 안 주 라 여 거 울 고 간 들 어 땀 고

16
— — — 그 것이 싫 음 나 면 신 말 벗 고 뛰 어 들 어

19
말 답 그 고 드 러 누 워 신 선 흙 내 내 리 라 — — — — D.C

22
말 답 그 고 드 러 누 워 신 선 흙 내 내 리 라 — — — — — — — Fine

낙귀정지(樂歸亭址)

♩=60

이석구 김진동 작사
이병욱 작편곡

1. 내 - 눈 아 가 을 - 곁 세 살 - 으 러 - 라
 5. 경 자갓 고 살 턴 사 - 랑 사 약 만 고 죽 었 다 네
 9. 천 - 일 외 고 - 할 예 선 이 글 - 을 고 피 글 도 때
 13. 불 귀 래 이 되 었 다 니 우리 따 질 바 - 아 - 나 - 고
 17. 낙 - 귀 는 불 귀 되 고 텅 - 비 인 광 터 예 - - 는
 21. 천 - 만 년 살 - 면 - - 서 도 건 너 - 지 못 하 는
 25. 주 웃 들 만 될 - 구 - 는 태 세 상 - 을 향 하 여
 29. 바 위 설 애 님 - 지 을 드 리 우 고
 33. 부 손 육 심 혼 자 배 를 제 우 리 요
 37. 고 기 압 는 어 부 되 - 어 몇 님 불 리 보 으 고
 41. 배 - 못 리 님 었 다 - 고 곧 경 한 이 없 - 고
 45. 지 나 가 는 길 - 손 들 감 - 아 서 님 하 우 고
 49. 배 를 굶 고 굶 는 것 이 자 - 랑 도 아 니 라 오
 53. 풍 류 즐 기 는 - 인 생 으 토 살 - 고 - 싶 어 라
 57. 시 로 밟 고 의 지 하 는 세 상 이 었 으 면 하 - 오

6. 백로주

백로주(白鷺洲)

이석구 김진동 작사
이 병 욱 작곡가

Slowly $\text{♩} = 60$
mp

마 위 산 — 목으로 적어 — 먹수하느물결 이 영평 권 — 섬터해

5 서 발 — 길 멈춘 — 다 백 모가 매지 어 노 님 고

9 *mf* 꽃 이 되 어 아 — 름 다 운 곳 거 기 에 터 — 잡고 선 조 각은

13 $\text{♩} = 100$ 자전모리
— 백 모 의 고향 지 름 우 쪽 하 — — 다 갈 이 만 변 눈 아보세

17 내준 나뉘줄테니 슬 빳 이 켜 — 들 고 아이들도 기느리고 백로암 매늘아보세

21 *f* 이 — 아 니 좋 음 손 가 — — 거 나 히 위 하 거 든

24 *mf* $\text{♩} = 60$
새 우 지 — 말 고 — 그 — 날 — 두 — 오 — — 한 랑 의 하 — 루 —

28 가 이 만 하 면 죽 — 한 — 것 인 생 무 상

32 남 가 름 풍 — 이 보 다 큰 — 낙 이 있 — 으 리 — 오 **Fine**

선유담(仙遊潭)

웃거리 *mp* 이석구 김전동 작사
이 병 옥 작곡

선 너가 놀았—으니 선 비도 놀았—으니 나 — 선 유담

6 갈까—기는 한 이롭도시늘—로—나 — 바위그릇에 — 물—담아 *mp*

11 아 래 보 물—던 나 — 물—담아 마음껏 고 한잔술에 *mf*

16 부 일테하면 신 선 놀음별 개원—가 — 세 월따라 캄 께늘은 *mf* ♩ = 100 작진모리

20 나 부술 을 창라고 보 일듯 달 —듯 나 듯일 사 이로

23 땅 근 맺 삼이 — 물 겹 위 에 — 일 — 립 인 — *f*

26 *mf* 웃거리
다 — — 건 너 편 바 위 — 에 는 선 유 담 세 글 — 자

31 가 — 아 연 한 권 년 — 세 월 옛 이 끼 들 람 앓 — 구 — 나 —

36 무 상 — 한 세 월 이 여 기 에 도 비 께 가 지 앓 앓 으 — 니 — 세 — 월 의

41 무 — 상 람 하 늘 의 공 병 람 이 어 거 지 지 앓 앓 도 — 다 — *f*

외룡암(臥龍巖)

♩ = 100 작진보리 이석구 김진동 작시
이병욱 작편곡

수 억 년 닦고 닦아 기 암이 되 었 고 문 지 르 고 부 닦 으 려 서

용 바 위 가 되 었 던 고 일 쪽 꽃 오 월 에 는 뱀 간 흙 이 되 었 다 가

강 마 지 는 천 월 에 는 뱀 도 밋 으 로 흘 러 가 네

이 부 기 생 환 수 천 년 에 용 으 로 판 생 해 지

누 위 있 으 면 서 도 용 트 뒀 한 다

괴 괴 한 난 두 눈 무 림 띠 로 리 들 지

라 하 락 화 땅 이 울 고 만 살 울 을 게 하 여 라

그 래 서 너 의 위 용 이 세 상 에 뽀 뽀 게 아 지 은 누 위 잠 만

사 는 와 방 이 여 상 서 로 운 세 상 에

아 름 이 열 리 게 너 의 본 분 을

다 라 여 주 념

D.S
Fine

청학동(靑鶴洞)

이석구 김진동 작시
이 병 욱 작편곡

mf

정 파 이 울 었 다 는 청 학 동 의 이 야 기 는
되 색 알 것 같 지 않 은 청 학 동 의 사 연 은

3
하 늘 에 꽃 파 살 이 효 자 아 들 이 왔 던 흙 되 밧 고
언 제 고 하 늘 같 이 의 연 하 고 품 위 있 게 우 리 의

5
물 아 시 러 니 청 학 도 한 바 위
강 산 임 을 탈 하 디 라 우 리 들 의 강 산 임 을

7
물 고 들 았 다 네 Fine 주 른 하 의 날 게 깃 은
말 하 리 라

9
선 선 의 자 태 었 고 끼 록 거 리 는 그 목 소 리 는

11

파 람 세 의 숨 이 었 네

13 *♩=60*
이 세 면 이 웃 은 요 순 시 대 의 백 성 들 만 뜨 나 들 어 아 뢰 곳 같 은 속 되 지 않 은

17
정 경 이 잿 아 는 이 들 의 고 개 를 속 이 게 한

21
다 아 무 리 오 려 세 월 을 러 도 D.C.

부록3. 공연 팸플릿



永平八景歌 1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1회 정기공연

※ 2006. 12. 15, 포천한울아트홀 대극장



■ 1부

▶ 포천팔곡 영평팔경가

■ 2부

- ▶ 무용: 여인심, 비향
- ▶ 타악: 김드림이현, 양유기, 노영기희
황준기, 황부하일, 윤난가, 오윤옥
신소희, 안현정
- ▶ 노래: '옛노래, 지은옛노래'

포천팔곡 영평팔경가는 조선선조대 영평팔곡 1곡(조판)이나 지은 여인심씨가 시 음평팔경가를 가사로 하여 여러 불함의 음평을 장가(노래)로 재창조한 새로운 가사, 지은노래를 통해 영평팔곡을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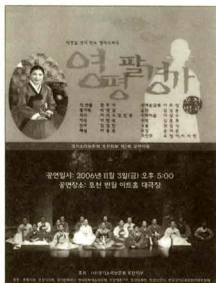
〈1회 공연〉



永平八景歌 2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2회 정기공연

※ 2006. 11. 3, 포천한울아트홀 대극장



■ 공연내용

▶ 연극과 무용과 소리의 만남으로
지은의 소리와 무용의 아름다움을 더해
경기(한)로 음악극에서 탈피한
수준 높은 공연

산내가 울었으니
산비도 울었어라
물담아 비를 맺고
한단 술에 적임이 되면
그것이 신선동굴이 아니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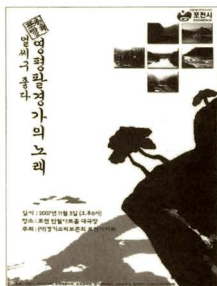
〈2회 공연〉



永平八景歌 3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3회 정기공연

※ 2007. 11. 3, 포천한빛아트홀 대극장



■ 프로그램

- ▶ 수월장신
- ▶ 화제의 비룡 탈어
- ▶ 1막 - 불멸의 주, 신유담
- ▶ 2막 - 여흥(여흥곡, 창곡)
- ▶ 3막 - 가을창작동아리(가, 금수정)
- ▶ 4막 - 겨울나귀잡지, 수월장신, 화제연

〈3회 공연〉



永平八景歌 4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4회 정기공연

※ 2008. 11. 15, 포천한빛아트홀 대극장



■ 프로그램

- ▶ 수월장신
- ▶ 화제의 비룡 탈어
- ▶ 1막 - 불멸의 주, 신유담
- ▶ 2막 - 여흥(여흥곡, 창곡)
- ▶ 3막 - 가을창작동아리(가, 금수정)
- ▶ 4막 - 겨울나귀잡지, 수월장신, 화제연

〈4회 공연〉



永平八景歌 5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5회 정기공연

● 2009. 11. 5, 포천문화아트홀 대극장



■ 프로그램

- ▶ 수월장선
- ▶ 화적의 벼를 팔아
- ▶ 1막 - 별마루각, 선무당
- ▶ 2막 - 여흥와룡암, 창죽암
- ▶ 3막 - 가을명작들이와가, 금수정
- ▶ 4막 - 가을아침장터, 수월장선, 화적의

〈5회 공연〉



永平八景歌 6回 定期公演

영평팔경가 6회 정기공연

● 2010. 10. 11, 포천체육공원 야외무대



■ 첫째대장

- ▶ 이은가사(이은수출장선, 화적의 벼를 팔아)
- ▶ 첫째가사(선무당, 이은암, 천문각)
- ▶ 둘째가사(이은가사, 금수정)
- ▶ 셋째가사(창죽암대림, 오룡각, 망향가, 창죽대림)
- ▶ 넷째가사(가을명작들이와가)

■ 둘째대장

- ▶ 첫째가사(한오백년)
- ▶ 둘째가사(강산이와가)
- ▶ 셋째가사(한노래)
- ▶ 넷째가사(창죽암, 별마루, 창죽암노래, 선고산비대림)

■ 셋째대장

- ▶ 첫째가사(금수정)
- ▶ 둘째가사(금수정)
- ▶ 셋째가사(가을명작들이와가)
- ▶ 넷째가사(가을명작들이와가)
- ▶ 다섯가사(화적의)

〈6회 공연〉



永平八景歌 7回 定期公演

명령팔경가 7회 정기공연

※ 2011. 11. 5. 토현문화재단을 소극장



※ 부록그림

- ▶ 수월장신, 곡동당
- ▶ 연무당, 공수장
- ▶ 내리장사
- ▶ 참학봉이여기, 참학봉, 화학연
- ▶ 배종주
- ▶ 금강산여기, 연평도산봉기
- ▶ 양산도, 옛노래, 뒷산영노래
- ▶ 노랑기러기, 참배여당, 참송기, 태평기
- ▶ 원근역전, 파랑도여기, 산고산여당, 문호대기
- ▶ 관복문여당

〈부록4〉 공연장면



〈1회 공연장면〉

〈7회 공연〉



〈2회 공연장면〉



〈3회 공연장면〉



〈4회 공연장면〉



〈5회 공연장면〉



〈6회 공연장면〉



〈7회 공연장면〉

조선후기 안성시지역 삼읍(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여지도서(輿地圖書)』와『부역실총(賦役實總)』을 중심으로 -

홍 완 표 (안성시 시사 편찬위원)

목 차

- I. 서론
- II. 안성시 지역 삼읍(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연혁과
조선전기 사회경제적 상황
- III. 『여지도서』에 나타난 안성시 지역의 지방재정
- IV. 『부역실총』에 나타난 안성시 지역의 지방재정
- V. 결론

집필자

홍 완 표

안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안성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안성문화원 이사

I. 서론

한국사에 있어 19세기 초는 민란의 시기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백성들의 봉기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그 배경은 조선후기의 농업기술상의 발전, 상업자본과 수공업자본의 형성, 실학의 등장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의식 성장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세(田稅)·군포(軍布)·환곡(還穀) 등 이른바 삼정(三政)에 의한 백성들의 가혹한 착취가 그들의 생활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조선후기에 현재의 안성시지역에 있었던 죽산도호부·안성군·양성현 등의 삼읍(三邑)¹⁾의 재정을 고찰하여 민란의 배경이 되는 일반 백성에 대한 수탈양식과 실제 수취액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 연구에 있어 중앙중심의 하향식 방법을 극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경우 중앙의 관선사서인 『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이루어져 실제 민중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연역적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그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18세기 후반 안성시지역의 재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취구조를 살피고 국가와 백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조선시대 지방재정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호조 등에서 작성한 자료 또는 『경국대전』·『속대전』 등에 의존한 논문이 많았다. 차후 각 지방군현의 재정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 전체적인 중앙재정의 운영을 고찰하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의 연구도 지방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가장 지방사의 연구가 취약한 곳이다. 예를 들어 각 도의 도청소재지 등에 있는 국립대학에서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그 지방의 문화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시립대학에 서울학연구소가 있어 서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체계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의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가 경기도의 문화와 연구에 있어 중심적인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세기 후반 안성시지역 지방재정의 연구는 한경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경기도 지방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提高)시키며 아울러 이 지역 지방사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경대학교가 위치한 안성시 지역에서 2세기 이전에 살았던 조상의 생활을 알게 해줄 뿐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수취구조 등

1) 이하 조선후기 죽산도호부·안성군·양성현을 통칭할 때는 안성시지역 또는 삼읍으로 줄여서 표현한다.

경제사회적 모습을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먼저 현재 안성시의 원형을 이루는 안성·죽산·양성 등 삼읍의 역사적 연혁을 정리하고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호구수(戶口數)·남구수(男口數)·간전수(墾田數) 등을 분석하여 경제·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본론에서는 1856년 경에 간행된 『여지도서』, 1794년의 『부역실총』의 조세(租稅), 군역(軍役)의 부과와 환곡(還穀) 등 지방재정을 알려주는 자료를 통해 시기별·지역별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19세기에 만들어진 『안성군읍지』·『죽산부읍지』·『양성현읍지』, 『안성군읍사례』·『죽산부읍사례』·『양성현읍사례』 등 지방사 자료와 함께 조선 후기 재정에 관한 총괄서인 『만기요람(萬機要覽)』과 백성들에 대한 수취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을 참고하였다.

II. 안성시 지역 삼읍(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연혁과 조선전기 사회경제적 상황

현재의 안성시는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군·죽산군·양성군을 통합하여 이루어졌는데 안성시 지역의 삼읍은 조선전기 이전부터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었다. 먼저 각 지역의 연혁을 검토²⁾ 하고 경제 사회적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본다.

1. 안성(安城)

본래 백제의 영역이었으나 뒤에 고구려가 정복하여 내해홀(奈兮忽)이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 36년 때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고 한주(漢州)에 예속하였고 고려초에 안성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수주(水州)·수원에 속하였고 뒤에 천안으로 이속하였으며 1172년(명종 2)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1361년(공민왕 10) 홍건적이 침입하여 왕이 남쪽으로 피신하였고 양광도(楊廣道)의 여러 주군(州郡)이 감히 적의 예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오직 안성 사람들이 거침으로 잔치를 베풀어 먹고 술 취한 틈을 타서 적의 우두머리 여섯을 죽이니 감히 남하지 못하였다. 이 공으로 군으로 승격되었고 수주(水州)의 양양(陽陽)·감미탄(甘彌呑)·마전(馬田)·신곡(新谷) 등 4부곡(部

2) 이하의 연혁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삼국사기』 37「지리지」, 『고려사』 56「지리지」, 1.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성군읍지』, 『죽산부읍지』, 『양성현읍지』, 『여지도서』, 『대동지지』, 『증보문헌비고』의 해당 안성·죽산·양성 조(條).

曲)을 떼어붙였다. 뒤에 권신(權愼) 김용(金鏞)이 뇌물을 받고 마전·신곡을 수주로 환속하였다. 조선에 들어서 1399년(정종 1) 또 양량부곡(陽良部曲)을 떼어 양지현(陽智縣)을 설치하였고 1413(태종 13)에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겼다. 이때 속현(屬縣)은 없었다. 당시 객사문(客舍門) 밖에 천계(天啓) 4년에 세운 백성부사(白城府使) 정호서(丁好恕)의 선정비가 있는데 인제 부로 승격되었다가 군으로 강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비문의 연도 역시 상세히 알 수 없다. 세조 12년에 군수(郡守)로 고쳤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호는 424호, 인구가 1,763명,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92명 선군(船軍)이 129명이었다. 간전(壘田)은 총 5,436결인데 논이 조금 적었고 땅은 메마른 편이다. 토질은 오품과 잡곡·뽕나무·삼·대추에 적합하고 토광(土貢)은 모과·감·느타리·지초(芝草)이며 약재는 낙석(落石)·연자(蓮子)·휴(休) 등이다.³⁾ 1호당 경작지는 12.82결로 전국평균 8.285결에 비해 조금 많고, 1남구(男口)당 경작지는 5.08결로 전국평균 2.303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⁴⁾

안성의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토성(土姓)은 李·金·趙·薛·張·敬 등 6개였는데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영(李永), 태종 때의 정사공신(定社功臣)·좌찬성(左贊成) 이숙번(李叔蕃), 공민왕 때의 김용(金鏞) 등 안성 이씨와 안성 김씨가 중앙의 정계로 진출하여 활약하였다.⁵⁾

2. 죽산(竹山)

본래 백제에 속하였으나 뒤에 고구려의 영토가 되어 개차산군(皆次山郡)이라 하였고 신라 때 개산군(介山郡)으로 고쳤다. 고려조에 죽주(竹州)로 고쳤고 성종이 단련사(團練使)를 두었으며 목종이 폐하였다. 1018년(현종 9)에 광주(廣州)에 속하였고 1172년(명종 2)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시대 1413년(태종 13) 고을 이름에 주(州)가 있는 경주·진주 등과 같이 대읍(大邑)이 아니면 산(山)·천(川) 등을 붙여 이름을 낮춘다는 방침에 따라 죽산(竹山)으로 고쳤다. 1434년(세종 16)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기고 관원을 현감으로 하였다. 1543년(중종 38)에 도호부로 높였다가 선조 17년에 현감으로 낮췄고 29년에 다시 부사(府使)로 올렸다. 1634년(인조 13) 여주도포사(驪州討捕使)를 본부로 이설하고 또 후영장(後營將)을 겸하게 하였다.

세종 때 호는 470호, 남구(男口)가 2,118명, 軍丁은 시위군이 28명, 선군이 135명이었다. 간전이

3) 『세종실록지리지』 148 안성군.

4) 이호철(李鎬澈), 『농업지역의 구분』,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575쪽.

5) 『신증동국여지승람』 10 안성군.

5789결인데 그 가운데 논이 4/9 정도이다. 1호당 경작지는 12.31결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1남구당 경작지는 2.73결로 전국평균 2.303결과 대체로 비슷하다. 땅은 기름진 것은 적고 메마른 것이 많으며 기후는 차다. 토질은 기장·벼·콩·조·팥·메밀·참깨·밀 등에 적합하였고, 토공(土貢)은 대추·칠·죽제비털·잡깃·종이·삼팽이가죽 등이며 약재는 인삼이었다.⁶⁾

고려시대 이래 토성(土姓)은 박(朴)·최(崔)·안(安)·양(梁)·이(李)·유(庾)·민(閔)·김(金)·음(陰) 등인데 인물로는 고려 때 참지정사(參知政事) 박인량(朴寅亮), 좌복사(左僕射) 박경인(朴景仁), 상서(尙書) 박경백(朴景伯), 귀주성(龜州城)에서 몽고군을 물리치고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를 지낸 박서(朴犀), 충선왕의 개혁정치에 참여하고 수상인 정승에 오른 박전지(朴全之), 정당문학(政堂文學) 박원(朴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박정유(朴挺莪),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안전(安驥),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안한평(安漢平), 공민왕비(恭愍王妃)인 정비(定妃)의 아버지이며 중대광(重大匡)·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등을 역임한 안극인(安克仁) 등과 조선 때 형조판서 안동(安騰), 세종의 딸 정의공주와 결혼하여 연창위(延昌尉)에 봉해진 안맹담(安孟聃), 형조판서 안초(安超), 세조와 예종 시대를 거치며 좌익공신(左翼功臣)·익대공신(翊戴功臣) 등에 봉해지고 영의정·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을 지낸 뒤 예종조정에 배향된 박원형(朴元亨), 영종추부사(領中樞府事) 박안성(朴安性) 등의 인제가 죽산 출신이었고 특히 죽산 박씨와 죽산 안씨는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많은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문이었다.⁷⁾

3. 양성(陽城)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영토였다가 고구려가 차지하여 사복홀현(沙伏忽縣)이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적성(赤城)으로 고쳐 백성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초에 양성현으로 고쳤다. 1018년(현종 9) 수주에 속하였고 명종 때 감무를 두었다. 1413년(태종 13) 현감(縣監)으로 고쳤고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겼다.

세종 때 호는 425호, 남구(男口)는 1,210구, 군정은 시위군 76명, 선군이 68명이었다. 간전이 4742결로 논이 조금 적으며 땅은 메마르다. 토질은 오곡·조·팥·참깨·삼·뽕나무 등에 적합하며 토공은 생선젓갈·민어·건승어·지초(芝草)이고 약재는 황금(黃耆)이다.⁸⁾ 호당 평균 간전결수는 11.16결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구당 간전경수 2.92결로 전국평균의 1.25배 가량 된다.

토성(土姓)은 이(李)·하(河)·유(柳)·갈(葛), 망성(亡姓)은 임(任)·강(康)·송(宋) 등인데 침

6) 『세종실록지리지』 149 죽산현.

7) 『신증동국여지승람』 8 죽산현.

8) 『세종실록지리지』 149 양성현.

의평리(兪議評理)·개성윤(開城尹) 이천,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옥(李沃),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순지(李純之),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문장으로서 명성을 떨친 이에(李芮), 좌리공신(佐理功臣)에 봉해지고 예조판서에 오른 이승소(李承召) 등을 배출한 양성 이씨가 특히 유명하였다.⁹⁾

〈표 1〉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안성시지역 삼읍의 호구 및 전결

구 분	호(戶)	남구(男口)	간전(墾田)	수전(水田)비율	호당 결수 (戶當結數)	구당 결수 (口當結數)
안 성	424	1,763	5,436결	수전차소(差少)	12,82	5,08
죽 산	470	2,118	5,789결	4/9	12,31	2,73
양 성	425	1,210	4,742결	수전차소(差少)	11,16	2,92

이상에서 삼읍의 연혁과 세종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삼읍은 모두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의 영토였으나 뒤에 고구려에 정복되고 이어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었다. 고려시대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고 조선초에 잠시 충청도에 편입되었다가 태종 때 경기도의 관할이 되었다.

둘째, 안성시지역의 총간전수는 15,967결, 총호수는 1,319호, 총남구수는 5,091구이다. 호당 결수는 12.1결로 안성 12.82결, 죽산 12.31결, 양성 11.16결 순이다. 모두 전국평균 8.825결과 경기도의 평균 10.1결보다 높다.

남구당 간전 결수는 안성이 5.08결, 양성이 2.92결, 죽산이 2.73결이며 안성의 경우 전국평균 2.3결의 2배를 상회하며 나머지 두 고을은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경기지역의 평균 4.1결에 대해서는 안성만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두 고을은 낮은 수준이다. 삼읍은 각 호당 비교적 많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안성시지역의 한전(閑田)이 수전(水田)에 비해 약간 많은 비율이므로 한·수전 농업지대에 해당한다. 이 지대는 경기도와 황해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오곡과 소두(小豆)·밤(栗)·메밀보리(蕎麥)·호마(胡麻)·당서(唐黍)·녹두(綠豆) 등이 다양하게 재배되었다. 특히 소두·호마 등이 특징적으로 재배되었고, 호구당수가 가장 적어 인구압박이 낮았으므로 농업노동의 성격이 보다 소가족 적이었으며 소농민경영이 영위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자비령 이북의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한전농업지대와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의 삼남지역의 수·한전농업지대의 접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⁰⁾

이후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에서 주(州)·부(府)·군(郡)·현(縣)의 복잡한 명칭을 일괄하여 군으로 바꾸고 지방관을 군수로 임명하면서 전국의 8도를 23부로 개편할 때 양성현과 죽산부가 각

9) 『신증동국여지승람』 10 양성현.

10) 이호철, 주)3의 논문, 598~599쪽.

각 양성군과 죽산군으로 개명되고 안성군·양성군은 공주부에, 죽산군은 충주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음해 모두 경기도로 환속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에서 군·면을 통합하면서 안성군·양성군·죽산군을 합쳐 안성군이 되었다.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¹¹⁾

III.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난 안성시지역의 지방재정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때 각도 읍지를 수취 개수(改修)하여 성책(成冊)한 것이다. 본고는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 『여지도서』의 편찬시기는 1759년(영조 35)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호구와 인구를 밝히면서 기묘년 장적(帳籍)에 의존했다고 하는 점에 있다. 영조가 각도 읍지의 상송(上送)을 명한 것이 영조 33년이므로 『여지도서』의 각읍 읍지는 영조 33년에서 41년간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추정하면 을묘장적이란 문구를 통해 영조 36년 이후의 수집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여지도서』의 특색은 공시(共時)적으로 10년 이내의 단기간의 조사기록이다. 한편 자료가 갖고 있는 특징은 호구(戶口)·전결(田結)·부세(賦稅)의 기준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¹²⁾

이 장에서는 안성시 지역의 삼읍 가운데 현존하지 않는 안성군을 제외하고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의 재정상황을 비교 분석한다.

『여지도서』의 죽산·양성 두 읍의 지방 재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주요한 분석 대상은 편호수(編戶數)·인구·수전(水田)·한전(旱田)·대동(大同)·균세(均稅)·봉(俸)·군병(軍兵) 등이며 각 항목에 대해 관련되는 부분을 통합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표 2> 죽산 및 양성의 재정수입 비교

구 분	죽산도호부	양성현
편호	4,332호	2,321호
수전	원정부(元帳付) 1,070결 26부 8속 실결(實結) 58결 1결 86부 5속	1,080결 31부 7속 485결 23부 8속

11) 한국정신문화원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 1991, 안성군.

12) 『여지도서』, 『해설』, 4~11쪽.

구 분	죽산도호부	양성현
한전	원장부 1,195결 48부 3속 실결 689결 89부 5속	1,976결 56부 6속 728결 93부 6속
토지계	원장부 2,265결 75부 1속 실록 1,271결 76부	3,056결 87부 9속 1,214결 17부 4속
조적(夕蛇)	각곡(各穀) 24,253석 13두	조(租) 13,595석 6합 모(牟) 2,353석 11두 4승 8합 4작 미(米) 400석 5두 7승 1합 1작 태(太) 577석 2두 4승 6분 4작 소맥(小麥) 412석 3두 4승 6분 4작 두(豆) 1석 5두 8합 8작
전 세	미(米) 155석 2두 4승 6합 태(太) 183석 14두 5승 7합 9작	129석 5두 9승 5합 2작 194석 7두 8승 5합 8작
대동미(米)	528석 7두 7승 8합 5작	상납미(上納米) 592석 5두 7합 7작 영수미(營需米) 18석 관수미(官需米) 100석 저치미(儲置米) 179석 총계 889석 5두 7합 7작
균 세	결미(結米) 3석 11두 6합 4작 결태(結太) 12두 8승 결전(結錢) 972냥 3전	대동미(大同米) 15석 13두 5승 세미(稅米) 1석 13두 4승 (결미) 세태(稅太) 5석 2두 6승 (결태) 결전(結錢) 661냥 2전 2분 어염선세전(魚鹽船稅錢) 88냥 선무포전(運武布錢) 60냥
봉름(俸廩)	아록미(衙祿米) 250석 6두 공수위(公須位) 27석 5두 청곡초자탄치계가조 429석	관수미(官需米) 100석 아록공수위미 36석 10두 자탄치계잡역전 1,214냥 1전 7분 4리(쌀환산가격 242.83석)
군 병	군관(軍官) 34인 보군(步軍) 822명 마군(馬軍) 126명 계 982명	군액 2,577명 양역(良役) 1,577명 사역(私役) 1,000명

1. 호구 · 인구 및 토지에 대한 비교

죽산은 호구가 4,332호이고 인구는 20,803인이다. 양성은 호구가 2,321호이며 인구는 6,169인이다.¹³⁾ 호구와 인구로 볼 때 죽산이 호는 약 2배이며 인구는 3배를 약간 상회하므로 죽산이 양성보다 큰 대읍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호당인구는 죽산이 4.80인인데 반하여 양성이 2.60인으로 큰 차이

13) 양성의 인구합계는 실제 원문의 기록을 더하여 보면 2,296호, 남 3,523구, 여 2,798구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 있다. 이것은 죽산도호부가 호당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으므로 호당 부과되는 각종 부역에 대해 훨씬 가벼운 부담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호당 남구는 죽산이 2.17인으로 1.52의 양성에 비해 다소 많지만 남년간의 성비에 있어 각각 0.82와 1.33으로 큰 차이가 있다. 양성은 여구에 비해 남구가 1.33배로 남초이며 죽산은 0.82배로 여초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봉건제 사회에서 군역(軍役)·역(役)을 부담대상자인 남구가 철저히 과약되므로 양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죽산은 다소 의문이다. 차후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표 3〉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의 호구 및 인구에 대한 분석

구 분	호	인구	호당인구	호당	남구
죽산도호부	4,332호	20,803인	4.80	2.17	0.82
양성현	2,321호	6,169인	2.66	1.52	1.33

2. 토지보유에 대한 분석

죽산은 총결수 2,265결 75부 1속 가운데 실결은 1,271결 76부이고 양성은 총결수 3,056결 87부 9속 가운데 실결은 1,214결 17부 4속이다. 죽산이 호구와 인구가 많았던 데 반하여 양성은 상대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많다. 토지와 호구수와의 관계를 계산하면¹⁴⁾ 죽산이 호당결수 0.523, 호당실결 0.296, 양성은 호당결수 0.752, 호당실결 0.529로 양성이 매우 좋은 조건이었다. 양성의 농민들이

〈표 4〉 죽산·양성의 토지에 대한 분석

구 분	호당결수	호당실결	구당실결	남구당실결	시기전(時起田)비율	전답(田畓)비율
죽산	0.523	0.294	0.0611	0.135	水田 54.3% 旱田 57.7% 계 56.1	원장부 52.8 : 47.2 실결 54.2 : 45.8
양성	0.752	0.529	0.496	0.868	수전 44.9% 한전 36.9% 계 39.7	원장부 64.7 : 35.3 실결 60 : 40

14) 호당결수 등의 통계가 농민의 토지 소유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 시기 토지소유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며 대부분은 농민이 전호(佃戶)로서 지주의 토지를 경작하여 지대를 바쳤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통계는 농민 일호당 경작면적 등의 당시 경제적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하여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기전(時起田) 비율에 있어 죽산이 수전이 54.3% 한전은 57.7%로 56.1%가 조금 넘는 데 반하여 양성은 수전 44.9% 한전 36.9% 평균 39.7%로 40%가 넘지 못한다.

양성현의 경우 실제 장부에 등재된 토지 가운데 반이 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자연재해나 농민의 유망 등에 의해 적지 않은 토지가 경작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답비율에 있어 죽산이 52.8 : 47.2이고 실결은 54.2 : 45.8로 밭이 조금 많다. 이에 비해 양성은 64.7 : 35.3 실결은 60 : 40으로 밭의 비율이 높다. 양성의 한전 비율이 높은 것은 평가가 적은 지형적 조건에 기인한다. 전답의 비율은 세종 때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전이 한전에 비해 생산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죽산의 경작 조건이 다소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호구·인구·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양성이 호당 결수·실결 등이 높고 반면에 죽산은 시기전비율과 수전비율이 높고, 토지보유에 있어서는 양성이 죽산보다는 좋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양성은 호당·결당 조세의 부담률이 높게 된다. 그러나 호당 경작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만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3. 조적(夕蛇)에 대한 분석

조적(夕蛇)은 환상(還上)이다. 18세기 전반 조선왕조에서는 환곡(還穀)의 본래 목적인 진휼사업의 시행을 위해 점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환총의 증가 속에서 진휼목적에 사용되는 환곡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실제로 진휼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¹⁵⁾ 조적은 지방 재정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그만큼 농민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환곡의 총량은 죽산이 각곡 24,253석 13두이며¹⁶⁾ 양성은 조(租)·모(牟)·미(米)·태(太)·소맥(小麥)·두(豆) 등의 곡종이 있는데 모두 합하면 17,339석 13두 2승 3합 7작이다. 환곡은 봄에 창고를 열어 절반을 백성에게 빌려주고 당해 년이 끝나기 전에 거두어 봉창(封倉)한다.

호당 환상(還上)의 부담을 계산하면 경기도는 반류반분이 원칙이므로¹⁷⁾ 반을 두고 나머지를 대어한다면 죽산은 호당 각곡 41두 9승 9합, 양성은 각곡 56두 3합이 배정된다. 흉년으로 고통 받을 때 양성의 백성이 더 많은 환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 문용식, 「18세기 후반 진휼사업과 진자(賑資) 확보책」, 『사총』 44, 1995, 139쪽.

16)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원회부호조각곡 508석 7두 전정각곡 20,435석 영진각곡 525석 3두 영환각곡 2,387석 고마창(厓馬廳) 각곡 325석 군각 미 73석 3두.

17) 定爲之法 奉貸于民折半當庫一 俗稱還上 『속대전』 창고조.

그러나 환곡의 모곡을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한양의 각 관청에 보내는 모곡(耗穀)은 죽산·양성이 모두 10,00석 이상의 고율이므로 1석당 1두 5승의 모곡 가운데 8승(升) 5합(合)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지방재정에 충당된다.¹⁸⁾ 따라서 규정대로 반을 모두 대여하고 회수하였을 때 모곡의 총량은 죽산이 각곡 2,425석 5두 8승이며 양성이 각곡 1,733석 14두 8승 2합이다. 회록액(會錄額)과 본관(本官)의 사용액은 죽산이 각곡 1,212석 10두 3승 9합이며 양성은 866석 14두 9승 1합이다. 호당 환상의 모곡부담은 죽산이 각곡 4두 1승 9합 9작, 양성이 5두 6승 3작으로 양성현의 부담이 더 크다. 이 수치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총액의 반을 호수로 나누고 다시 모곡율인 1/10로 다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환상(還上)을 받지 않는 호가 있고 실제 규정대로 전부 대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부담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환상의 운영으로 수령은 사리(私利)를 취하는 데 대하여 그로 인한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¹⁹⁾ 비록 양성의 백성이 죽산에 비해 환자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모곡 부담은 훨씬 컸다.

한편 18세기 이후 관청식리(官廳殖利)가 성행하였다. 그 방식은 봄에 유고(留庫)된 대폐(大幣)를 분급해주고 곡가(穀價)가 하락한 가을에 미곡으로 수봉(收擄)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향촌사회 내에서 만연된 전황(錢荒) 현상과 미가(米價)의 지역간·계절간 극심한 격차를 이용하였다. 18세기 이후 각급 지방관청의 식리는 각고전(各庫錢)의 자금(自金)을 입본전(立本錢)으로 하여 지방(支放)·구폐조명목(垢弊條名目)으로 전개되었는데²⁰⁾ 『여지전도』의 죽산·양성조에서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5〉 양성의 조적(夕蛇)

구분	곡종(穀種) 및 액수(額數)	
호조(戶曹)	조(租) 196석 12두 3승 4합	모(牟) 55석 3두 9승 1합 5작
상평창(常平廳)	조(租) 355석 5두 7승 6합 9작	모(牟) 1,029석 5두 3승 3합 3작
진창(賑倉)	미(米) 144석 6두 2승 1합 1작	태(太) 498석 1승 4합 4작
	조(租) 10,254석 10두 8승 2합 4작	두(豆) 1석 4두 6승 4합 7작
	소맥(小麥) 412석 3두 4승 6합 4작	모(牟) 949석 2두 2승 3합 6작
균역청(均役廳)	미(米) 130석 12두 2승 2합 9작	

18) 秋成而斂.

19) 심수년 전에 황주(黃州)에는 환곡이 많아 한 호가 30~40석까지 받았는데 이것은 대개 황주가 대로의 요충이요 병영의 소재지라서 조정에서 군항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들이 황폐하고 백성의 호수는 이미 줄어들어서 환곡의 배당은 더욱 많아졌는데 병사와 목사는 그 이득을 노려 이송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니 아 관방을 수비하는 방도가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인가 곡식을 쌓아두는데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빨리 이치를 따져 보고하여 그 환곡을 덜어서 다른 읍으로 이송할 것이다. - 창작과 지성사 편, 『역주 목민심서 III』 호전육조(戶典六條) 곡부(穀簿).

20)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제정과 식리(殖利) 활동」, 『학림』 8, 1986, 19~27쪽.

구분	곡종(穀種) 및 액수(額數)	
이전(移轉)	미(米) 43석 1두 7승 6합 조(租) 18석 13두 5승 1합 6작	태(太) 4석 5두 5승 2합 4작
영(營)	미(米) 54석 5두 7합 4작 조(租) 1,330석 10두 3승 7합 6작	태(太) 6석 4두 9작
영진(營賑)	미(米) 2석 3두 6승 4합 1작 두(豆) 2승 6합 6작	태(太) 68석 7두 6승 4합 5작 조(租) 670석 1두 8승 1합 4작
고마창(雇馬廳)	조(租) 708석 9두 3승 6합 7작	미(米) 25석 6두 1승 3작

4. 전세(田稅) 및 대동(大同)의 분석

전세와 대동은 모두 토지에 설정된 세목(稅目)이다. 전세는 수전이 미 4두, 한전이 태 4두를 부과한다.²¹⁾ 죽산의 1년 전세 수취량은 미(米) 155석 2두 4승 6합과 태(太) 183석 14두 5승 7합 9작이다. 수취한 전세는 매년 봄 여주여강(驪州呂江)에서 배에 적재한 즉시 양근수로(楊根水路)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 2일만에 용산강에 도착하여 경창 군자감에 납부한다.

양성현은 미(米) 129석 5두 9승 5합 2작, 태(太) 194석 7두 8승 5합 8작이다. 매년 2월 수봉하고 삼월에 적재한 뒤 본현의 해창(海倉)인 옹포(瓮浦)에서 출발하여 강화해로를 따라 용산강에 도착하는데 수로로 순풍이면 오일 가량 걸린다. 죽산이 남한강 수로를 이용하는데 비하여 양성은 서해안 해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3일의 차이가 있다.

대동법은 종전에 현물로 부담하던 공납의 폐단이 증가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 방식을 개혁하여 토지에 대동세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거두어진 미(米)·포(布)·전(錢) 등으로써 정부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구입하도록 한 제도로서 광해군 즉위년에 경기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²²⁾ 대동의 부과액은 수전·한전의 구분 없이 1결당 미(米) 12두를 부과한다.²³⁾ 죽산은 미(米) 528석 7두 7승 8합 5작이므로 부과대상 토지는 660결 65부 4속 가량이며 전세(田稅)와 같은 방법으로 한양에 도착하여 서빙고의 선혜청(宣惠廳)에 납부한다.

양성의 대동 수세는 죽산과 달리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을묘조(乙卯條) 양등상납미(兩等上納米) 592석 5두 7합 7작, 영수미(營需米) 18석, 관수미(官需米) 100석, 저치미(儲置米) 179석 등 모

21) 凡一結 水田稅 四斗 凡田·沓·水田 俗稱沓·下之中以上收稅 不在此限 『속대전』收稅條.

22) 田川孝三,〈貢納·法役制の崩壞と大同法〉『朝鮮貢納制の研究』,東洋文庫,1964,766-770쪽.

23) 京畿·江原道·湖西·湖南 行大同法 凡京司一應貢物之載於公安 而分定於五道者 五道各營·邑所需之出 自民役者皆作米·或不得不以本色來納者 以大同米留納 各邑油·淸·紙地 亦以米留用 惟雄鷄·紫草·氷丁 依前役民 不入於作米中 而非勤行時則毋得再徵… 通水田·旱田 每一結 收米十二斗·江原道則嶺西十二斗 嶺東加二斗 未量田十邑 加四斗 『속대전』요역조.

두 미(米) 889석 5두 7합 7작인데 상납 대상 토지는 740결 48부 가량 된다. 대동은 매년 시기전(時起田)의 결수에 따라 마련하므로 해마다 수취량이 다르며 전세와 같은 방식으로 한양에 납부한다. 대동미가 부과되는 실결은 죽산이 1,271결 76부이고 양성은 1,214결 17부 4속으로 양성이 적는데 비하여 대동미의 양은 오히려 양성이 많다. 그런데 죽산의 전세 총액이 339석 2두 3합 9작으로 323석 13두 8승 1합인 양성보다 많다. 양성의 대동미 부담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것 이외에 많은 세목이 있었고 조세의 토지 집중과 그 폐해 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었다.²⁴⁾ 이에 대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1결의 논에서 수확하는 곡식이 많으면 800두요, 적게는 600두요, 더 적게는 400두일 뿐이다. 농부들은 제 땅이 없고 모두 남의 땅을 경작하는데 일년내내 고생하여도 여덟 식구의 식량과 이웃에 주는 품삯을 치러야한데다가 추수 때가 되면 전주(田主)가 수확의 반을 나누어가니 600두를 추수한 농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00두 뿐이다. 종자를 제하고 빚을 갚고 세전(歲前) 양식을 제하면 남는 것은 100두가 되지 않는데 부세로 굶어가고 빼앗아 가는 것이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니 슬프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살겠는가. 백성의 수령된 자로서 교활한 아전들의 비방과 원망을 면하고자 하여 아전들이 하는 대로 말기고 억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을 후손에게 끼치게 될 것이다.²⁵⁾

5. 균세(均稅) 및 군역(軍役)에 대한 분석

균세(均稅)는 영조 26년 균역법의 실시로 양포(良布) 2필을 1필로 반감하고 그 재정상 부족액 50만필을 시가로 환산하고 전결수로 나누어 부과한 결작(結作) 또는 결전(結錢)과 어(漁)·염(鹽)·선세(船稅) 및 은여결(隱餘結)·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말하며 균역청(均役廳)에 납부한다.

²⁶⁾ 죽산은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 결전 972냥 3전, 미(米) 3석 11두 6합 4작, 태(太) 12두 8승이다. 양

24) 우리나라에서도 본래 전세가 가버렸는데 중세 이래 토지에서 부를 징수하여 디더이 관례가 되고 말았다. 대동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요, 균역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요, 삼수미(三手米)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며 모량미(毛梁米)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요 치계미·수령의 소용이 되는 잡역미(雜役米)이다.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니 이것들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다. 영저미(營低米)도 토지에 부과 삭선공가미(朔膳工價米)-공문을 전달하는데 드는 돈, 신관쇄마전(新官刷馬錢), 구관쇄마전(舊官刷馬錢), 서원고급조, 구출근수조(邱率勤受租) 등이 모두 토지에 부과되었다. 환자의 폐단이 막다른 데 다달아 백성들이 곡식은 구경도 못하고 해마다 여러 섬의 곡식을 갖다 바치는데 이 몇 섬의 곡식도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로 곤궁해서 쓰러지고 진구령을 매울 것이다. (창작과 비평사 편, 『역주 목민심서 III』 호전육조 평부(平賦) 상).

25) 창작과 비평사 편, 『역주 목민심서 III』 호전육조 세법(稅法).

26) 朝鮮總督府 編, 『李朝時代の財政』 1936, 200쪽.

성은 대동미 15석 13두 5승, 결전 661냥 2전 2분, 결미 1석 13두 4승, 결태 5석 2두 6승 등이다. 죽산이 양성에 비해 많다. 반면에 어염선세전(魚鹽船稅錢) 88냥과 선무포전 60냥이 있어 총액은 전 809냥 2전 2분, 미 17석 11두 9승, 태 5석 2두 6승이다. 당시에 쌀 1석의 값이 3냥이므로 42냥 가량을 보태면 총량에 있어 차이가 그리 크게 나지 않는다. 한편 어염선세는 양성현 승랑동면(升良洞面) 하리(下里)에 있는 어기(魚基)와 염분(鹽盆)에²⁷⁾ 대해 부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선무포전은 균역법 실시 이후 선무군관에게 새로이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죽산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균세 가운데 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시기전에 따라 마련하고 어염선세와 선무포는 당시의 수에 따라 수취한다. 따라서 재해 등의 이유로 경작되지 않는 토지가 생기면 세를 내지 않으므로 해마다 같은 액수가 아니다.

〈표 6〉 양성현의 군역 소속기관 및 군액(軍額)

구분	병종(兵種) 및 군액(軍額)
훈련도감(訓練都監)	포수보(砲手保) 100명, 군항보(軍餉保) 44명
어영청(御營廳)	정군(正軍) 40명, 자보(資保) 43명, 관납보(官納保) 84명
금위영청(禁衛營廳)	정군 127명, 자보 136명, 군납보 78명, 별파진보(別破陣保) 3명
수어청(守御廳)	별파진 23명, 속오군(束伍軍) 402명, 부아병(部牙兵) 250명, 둔아병(屯牙兵) 2명, 군수보(軍需保) 14명, 경표하보(京標下保) 1명
총융청(摠戎廳)	장초군(壯抄軍) 65명, 둔군수보(屯軍需保) 294명, 경표하보 3명
병조(兵曹)	기병(騎兵) 557명, 보병(步兵) 18명, 금군보(禁軍保) 10명, 복직보(頭直保) 1명, 호연대보(扈營隊保) 4명, 내취보(內吹保) 6명, 청파로원양역보(靑坡蘆原兩驛保) 90명
장악원(掌樂院)	악생보(樂生保) 8명, 악공보(樂工保) 3명
교서관(校書館)	창준보(唱準保) 25명
감영(監營)	영기수호보(營旗手戶保) 27명
기타(其他)	봉수별장(烽燧別將) 1인 감관(監官) 5인 봉수군 25명, 군보(軍保) 75명
군역(軍役)수입총액	미(米) 17석 11두 9승 태(太) 5석 2두 6승 전(錢) 809냥 2전 2분

군병(軍兵)은 죽산이 군관 34인, 보군 822명, 마군 126명 등 총 982명이다. 양성은 양역(良役) 1,577명, 사역(私役) 1,000명 등 총 2,564명이다. 양성이 총군액에 있어 2.6배나 많다. 균세나 군역에 있어서도 양성이 많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죽산의 군역자에 대한 기록은 시기적으로 후대의 자료인 『부역실총(賦役實摠)』·『죽산읍지』 등에 죽산의 군역이 자세히 나오는데 『여지도서』에서는 매우 소략하다.

27) 『양성읍지』 魚基條.

6. 봉름(俸廩)의 분석

봉름은 각 지방관청에서 지출되는 경비 즉 관수(官需)를 의미한다. 관수미는 대동미에서 획급하는데 첫째는 수령의 봉급, 둘째는 제반심물가(諸般什物價), 포진비(鋪陳費), 보수비(補修費), 신규 영송비(新舊迎送費), 염(鹽)·장(醬)·치(雉)·계(鷄)·자탄(紫炭)·빙가(氷價), 셋째는 유청(油淸)·지지(紙地), 감사지공(監司支供), 사객지공(使客支供) 등을 합한 것이다. 관수미는 대읍·중읍·소읍·잔읍(殘邑)의 구분에 따라 그 획급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 그 달의 것만 지출하고 다른 달의 것을 당겨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월봉(月俸)이라 하였다.²⁸⁾ 조선후기 지방제정의 수입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입으로 관둔전(官屯田)과 같은 직영지 수입-임관 후 관둔전의 경영방식이 소작제로 전환함에 따라 둔세라고 일컫는 소작료로 변함-과 아록(衙祿)·공수전(公須田)과 같은 공전-민전에 대한 결세-전세(田稅)·대동세 등이 있다. 둘째, 공물에 있어서 지방관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은 지방공물 또는 향공(鄉貢)이라고 부르는 영읍(營邑)의 수용을 위한 치(雉)·계(鷄)·탄(炭)·자(紫)·빙(氷) 등으로 구성되는 본색공물(本色貢物)이다. 이 지방공물은 본색공납제를 철폐한 후기의 재정개혁에서도 제외되어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셋째, 역(役)에는 역(役)과 신역(身役)이 있으며 지방관부에 제공하는 요역도 중앙관부에 대한 요역과 더불어 대동(大同)에 흡수되어 지세(地稅)화 되었고 지방관부에 배정된 군역과 직역(職域)의 신역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의무적 입역(立役) 대신 물납제(物納制) 즉 포납(布納)·곡납(穀納)으로 변천해 갔다. 이 결과 17세기 이후 신역이 지방제정의 세입구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넷째, 지방관부가 획득하는 잡세(雜稅)로는 장시세(場市稅)·무세(巫稅)·장세(匠稅)·점세(店稅)·해세십일세(海稅什一稅)·사세(寺稅) 등이다. 다섯째, 환곡 이자에는 지방관부에서 설치한 환곡의 이자 수입과 경사곡(京司穀)의 이자-모곡(耗穀)-의 일부를 이급(移給)-교부-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 등이다.

한편 지방 제정의 지출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 첫째, 인건비로 지방관의 녹봉(祿俸), 군병의 월료(月料), 기타 노무비 등이다. 둘째, 관이수축비(官衙修築費)가 있다. 셋째, 물건비로 지필묵(紙筆墨) 등의 사무용품과 관용의 미(米)·장(醬)·유(油)·청(淸)·밀(蜜)·치(雉)·계(鷄)·자(紫)·탄(炭)·고초(藁草)·빙정(氷丁)·약재(藥材)와 기타 잡물의 조달비이다. 넷째, 제사비로써 향교춘추제향(鄕校春秋祭享)·산천제(山川祭) 등의 지방관에서 거행하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다. 다섯째, 운수교통비로 쇄마비(刷馬費) 등이다. 여섯째, 관선건조 및 수리비이다. 일곱째, 군사비로 군기(軍器)·병선(兵船)·군량의 구입 및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다. 그밖에

28) 창작과 비평사 편, 『역주 목민심서 III』, 호전육조 전정(田政), 232~233쪽 각주.

의료비·교육비, 진상물의 조달상납비와 기타 잡비 등이 있었다.²⁹⁾

조선후기 지방관사에는 관사의 경비에 사용하는 관둔전과³⁰⁾ 수령의 녹봉 등 각종 인건비의 재원이 되는 아록전(衙祿田) 등이 있었고,³¹⁾ 아록전이 부족하면 관둔전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³²⁾ 그밖에 외방 각 진(鎭)에는 관수미를 획급하였는데 삼남(三南)은 군현의 대소에 따라 경기는 주부군현의 읍격(邑格)에 따라 차등이 있었으며³³⁾ 군현의 사정에 따라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가 설정되었고 경기는 저지미(儲置米)를 전용하였다.³⁴⁾

죽산은 아록미(衙祿米) 250석 6두, 공수위(公須位) 17석 5두, 청곡조자탄치계가조(靑穀草紫炭雉鷄價組) 429석 등이고 양성은 관수미 100석, 자탄치계잡역전 1,214냥 1전 7분이다. 죽산은 도호부로서 종삼품의 부사가 부임해 있고 중군 등의 별도의 관원이 있으므로 아록미가 양성에 비해 많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잡세 수입에 있어 죽산은 조 429석, 양성은 1,214냥 1전 7분 4리이다. 죽산은 조(租)로, 양성은 전(錢)으로 수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양성의 부담이 매우 크다. 다만 정약용이 “쌀로 징수하는 것이 돈으로 징수하는 것만 못하므로 본래 쌀로 징수하던 것도 마땅히 돈으로 징수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양성의 작전(作錢) 방식의 수취가 백성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었다고 생각된다.³⁵⁾

한편 결당 부담을 계산하면 죽산의 429석을 실결수로 나누면 결당 벼 5두이며 양성은 결당 1냥이었다. 당시 전 1냥은 미 5두에 해당하므로 죽산은 조 5두 양성은 미 5두인데 미 1석은 조 2석 7두 5승이다.³⁶⁾ 그러므로 양성의 결역(結役)은 죽산보다 2.5배를 더 부담한다.

당시 봉름(奉廬)의 지출방식은 양성의 경우 관수미는 매일 4두 1승 6합 6작씩 나누어 사용하였고 아록공수위미 36석 10두는 춘매일(春每日) 1두 3승 3합 3작씩, 추매일(秋每日) 1두 2승 2합 2작씩 지출하였다. 죽산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월별 또는 일별로 사용액을 정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서는 두 군현의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은

29) 김옥근,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조선왕조재정연구사 1』, 일조각, 1984, 54~55쪽.

30) 官屯田 數外屯田及屬公田 給貧民收稅 今廢 主鎭二十結 巨鎭 十結 諸鎭 五結 府·大都護府·牧 各二十結 都護府·郡 各十六結 縣·驛 各二十結 (『경국대전』諸田 官屯田條)

31) 府·大都護府·牧 各衙祿五十結 有判官 則加四十結 都護府同 未 家處則減半 都護府·郡·縣同 都護府衙祿 五十結 郡·縣 各衙祿 四十結 (『경국대전』諸田 田條)

32) 諸鎭將供給 用衙祿田 一不足則用官屯田 無衙祿田·官屯田處鎭將·諸鎭軍官·諸邑教官及主鎭將·處侯·軍官 用軍資 〇 府 奴三 婢五 大小馬 各二 大都護府以下 奴二 婢四 大小馬 各二 郡以下 奴二 婢三 大小馬 各一 未 家鎭將 堂上官 奴二 其餘 奴一 馬則大二小一 軍官 奴及大小馬 各一 教官奴及大小馬 各一 水軍將及軍官 無馬 (『경국대전』外官供給條)

33) 外方 各營鎭邑 副給需米 有差一官需 三南 以郡邑大小 差等 京畿 以州府郡縣 差等 (『속대전』外官供給)

34) 使客支供米 分大中小路 副給京畿畿路 則以儲置米支用 (『경국대전』外官供給)

35) 장작과 비평사 편, 『역주 목민심서 III』 호전옥초 平賦上.

36) 米一石 代黃豆二石 組二石七斗五升 小豆一石五斗 黃豆一石 大小豆一斗 栗組一石三斗 組一石 代黃豆二斗 稷米 相代 菜豆·小豆 相代 稷唐 則 荒組相代 黃麥·正租 相代 (『속대전』倉庫條)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봉(俵) 조(條)에는 없지만 가장 많은 수입원인 환곡의 모곡(耗穀)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죽산이 각곡 24,253석 13두이며 양성은 각곡 17,339석 13두 2승 3합 7작이었고 반류반분(半留半分)의 규정에 따라 모두 나누어 주고 모곡을 회수한다면 회록액(會錄額)과 본관의 유치(留置)는 죽산이 각곡 1,212석 10두 3승 9합이며 양성은 886석 14석 9승 1합이다. 환상(還上)의 운영에서 얻어지는 모곡의 본읍 유치분이 지방 제정의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여지도서』에서 나타난 죽산과 양성의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편호수·인구·수전·한전(旱田)·대동·군세·봉(俵)·군병(軍兵)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요한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죽산과 양성은 서로 이웃한 고을이었으나 호당 인구수, 호당결수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호당 노동력의 수라는 점에 있어서는 죽산이 보다 충실했던 데 비해 호당 경작지의 경우 양성이 더 높았다. 둘째, 대동(大同)·군역(軍役)·결역(結役) 등 각종 조세 부담에서 양성이 죽산에 비해 많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역에 있어 죽산은 조(租)로 양성은 전(錢)으로 거두는 등 수취방식이 지방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IV. 『부역실총(賦役實摠)』에 나타난 안성시지역 삼읍의 지방재정

『부역실총』은 전결(田結)을 중심으로 하는 부세(賦稅)와 양민이나 천민이 저야하는 신역(身役)과 가호(家戶)가 저야하는 호역 등을 망라하였고 전결·역인·가호의 모든 부(賦)와 역(役)의 상세한 내용과 그 세(稅) 및 역가(役價)를 기록한 책이다. 『부역실총』의 작성양식은 리전체제(吏典體制)에 따라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 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도와 달리 역(驛)·진(津)에 대한 것은 없다. 각 읍별 기재순은 대체로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감영상납질(監營上納秩)·본읍봉용질(本邑奉用秩) 등의 순이고 그밖에 결역(結役)·호역(戶役) 등으로 세분하여 부와 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호조전세미·선혜청대동미·군역청결전·양향청둔세전(糧餉廳屯稅錢) 등 전결과 관계가 있는 세미(稅米)·세전(稅錢)은 그 세의 총수만 기록하고 사용처 등도 적고 있으나 신역인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적고 매명이 내어야 미·전·세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³⁷⁾

37) 여강출판사 간(刊), 『부역실총』 「해제(解題)」.

1. 안성시지역 삼읍의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 분석

〈표 7〉 안성시 지역 삼읍의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호조(戶曹)	전세미(田稅米) 194석 6두 4승 9합 6작 전세태(田稅太) 190석 11두 5승 2합 4작 무녀포대전 3냥 5전 면세전 1,365냥 2전 6분	미 223석4두 4승 1합 6작 태 204석1승 5합 9작 무녀포대전 3냥 면세전 1,687냥 4전 8분 노비공전 12냥 4전	미 134석 1승 8합 8작 태 203석 3두 6승 8합 8작 면세전 1,675냥 2전 노비공전 20냥 9전
선해청	대동미 710석 6두 4승 1합 1작	미 1138석 14두 3합	미 718석 4두 4승 1합
군역청	면세미 4두 4승 1합 6작 면세태 12두 8승 대동미 3석 6두 6승 4합 8작 전결 891냥 1전 5분 선무군관전 182냥	면세태 1석 6두 9승 8합 대동미 4석 2두 5승 5합 전결 1,063냥 4전 5분 선무군관전 198냥	면세미 1석 13두 4승 면세태 5석 2두 6승 대동미 21석 3두 전결 810냥 9전 6분 선무군관번전 60냥 강세전(江稅錢) 92냥 2전
군역지수 및 수취액	병조 438명 876냥 훈련도감 157명 331.6냥 여영청 199명 477냥 4전 금위영 138명 330냥 4전 수어청 489명 2,229두 의승반전(儀僧番錢) 19냥 7전 총융청 5명 1석 장락원 6명 12냥 교서관 26명 52냥 성균관 1명 2냥 — 군역자 1,459명 전 2,101.3냥 미 2,244두	병조 598명 2,882냥 훈련도감 195명 400냥 여영청 133명 319.2냥 금위영 173명 415냥 2전 수어청 469명 2,589.5두 의승반전(儀僧番錢) 20냥 총융청 26명 5석 9두 장락원 14명 28냥 이조 79명 158냥 공조 29명 58냥 관상감 7명 14냥 삼사 21명 8석 6두 저리(郵吏) 20명 20냥 — 군역자 1,784명 전 4,314.4냥 미 2,799두 5승	병조 688명 1,376냥 훈련도감 146명 310냥 여영청 84명 201.6냥 금위영 81명 194.4냥 수어청 289명 994두 의승반전(儀僧番錢) 10냥 총융청 361명 1,203두 장락원 11명 22냥 교서관 25명 50냥 총훈부(忠勳府) 1명 2냥 6두 1승 — 군역자 1,686명 전 3,734냥 미 2,323두 1승

먼저 죽산의 경사상납질은 호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전세·무녀포대전·면세전(免稅錢) 등 3종이 있다. 전세(田稅)는 미 194석 6두 4승 9합 6작, 태(太) 190석 11두 5승 2합 4작이고 무녀포대전(巫女布代錢)이 3냥 5전, 면세전 田 178결에 매결 7냥 6전 7분씩 1365냥 2전 6분 등이다. 면세전이 설정된 구방으로는 수진궁(壽進宮)·용동궁(龍洞宮)·내수사(內需司)·광해군방(光海君房)·청연군주방(淸衍郡主房)·귀인방(貴人房) 등 6개이다.⁹⁰⁾

선해청에 납부하는 대동미는 710석 6두 4승 1합 1작이고, 균역청에 납부하는 군세로는 면세미 태·대동미·결전·선무군관전 등이 있다. 면세미는 4두 4승 1합 6작, 면세태는 12두 8승이고 대동미 3석 6두 6승 4합 8작이며 결전 891냥 1전 5분이었다. 선무군관전의 부과대상은 92인으로 모두 184냥이었고 강화부로 이납되었다.³⁹⁾ 한편 전세와 대동의 수취에서 각종 부과세가 있었던 데 비하여 결전 또는 결역가는 인력의 사용, 노역의 대가를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성질을 달리한다. 즉 결전은 군보(軍保)를, 결역(結役)은 역(役)을 대신하여 거두는 것이므로 부가세를 수취하지 않는다.⁴⁰⁾

〈표 8〉 안성시지역 삼읍의 면세전 면적과 수취액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수진궁 65결 498,55냥 용동궁 26결 153,4냥 내수사 10결 76,7냥 광해준방 10결 76,7냥 청연군주방 60결 460,2냥 귀인방 13결 99,71냥	수진궁 25결 191,75냥 용동궁 10결 76,7냥 내수사 30결 230,1냥 화길옹주방 45결 345,1냥 청연군주방 10결 76,78냥 경수궁 50결 383,5냥 의빈방(宜嬪房) 50결 383,5냥	수진궁 26,386결 202,4냥 용동궁 6결 46,2냥 내수사 92결 705,64냥 경평군방 10결 76,2냥 숙정궁주방 14,023결 107,54냥 정화옹주방 40결 306,8냥 경수궁 30결 230,1냥
면세결 계 184결 면세전 계 1,365,26냥	220결 1,677,32냥	218,409결 1,675,2냥

안성의 경사상납질은 호조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전세·노비공전·무녀포대전·면세전 등 4종이 있었다. 전세(田稅)는 미 223석 4두 4승 1합 6작, 태 204석 1승 5합 9작이다. 노비공전(奴婢貢錢)은 노(奴) 5구(口)에게 각 2냥씩, 비(婢) 8명에게 각 3전씩 부과하여 모두 12냥 4전이다. 무녀포대전(巫女布代錢)은 1명 3냥이었다. 면세전은 220결 7속으로 총 1,687냥 4전 8분을 수취하였는데⁴¹⁾ 소속관방은 수진궁·용동궁·내수사·화길옹주방·청연군주방·경수궁·의빈방 등 7개 기관이었다.⁴²⁾ 선해청에 납부되는 대동미 1,138석 14두 3합이고 균역청에 납부하는 군세는 면세태 1석 6두 9승 8합, 대동미 4석 2두 5승 5합, 결전 1,063냥 4전 5분이다. 선무군관전은 99인이 각 2냥씩 198냥을 거두어 강화부로 이납된다.

양성의 경사상납질은 호조에 납부하는 세목은 전세·노비공전·면세전 등 3종이다. 전세는 미 134석 1승 8합 8작, 태 203석 3두 6승 8합 8작이고 노비공전은 총 20냥 9전인데 노(奴) 10구(口) 각

38) 본문에는 용동궁은 26결 153냥 4전으로 되어 있으나 결당 부과액인 7냥 6분 7전으로 나누면 20결이 옳다.

39) 본문에는 92명 182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선무군관전은 1인당 2냥이므로 184냥이 옳다.

40) 조선총독부중추원 편, 『조선전제고(朝鮮前制考)』 1940, 515쪽.

41) 실제 각 궁방별 수세액을 더하면 1,677냥 3전 2분이므로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42) 청연군주방은 10결 76냥 7전 8분으로 기록되었으나 계산상 76냥 7전이 옳다.

2냥씩, 비(碑) 3구(口) 각 3전이었다. 면세전은 218결 40부 9속에 매결 7냥 6전 7부씩 부과하여 전 1675냥 2전을 수취하였는데 소속궁방은 수진궁·용동궁·내수사·경평군방·숙정공주방·정화옹주방·경수궁 등 8개이다.⁴³⁾ 선혜청의 대동은 미 718석 4두 4승 1합이다. 군역청의 군세는 면세 미 1석 13두 4승, 면세대 5석 2두 6승, 대동미 21석 3두, 결전 810냥 9분 6전, 강세전 9냥 5전과 염세전 92냥 2전 등이다. 죽산이나 안성과 달리 양성에만 있는 강세전과 염세전은 승랑동면(升浪洞面) 하리(下里)에 어기(魚基)와 염분(鹽盆)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무군관변전 30인에 2냥씩 60냥을 수취하여 강화부로 이납한다.

경사상납질의 총계는 죽산이 미 1,058석 9승 7합 2작, 태 191석 8두 9승 2합 4작, 전 3154냥 7전 5분이며 미로 환산하여 합하면 2,205석 6두 5승이다. 안성은 미 1,553석 7승 6합 4작, 태 241석 7두 1승 3합 9작, 전 5,702냥 7전 3분이며 미로 환산하여 합산하면 3,575석 3두이다. 양성은 미 1,026석 6두 9합 8작, 태 208석 6두 2승 8합 8작, 전 4,834냥 7전 6분 등이며 미로 환산하여 더하면 2,742석 3두 8승이다. 호당 경사상납액을 계산하면 죽산이 미 7두 7승 7합, 안성이 미 1석 1두 3승 7합, 양성이 1석 1두 3승 3합 6작 정도이다. 안성과 양성이 비슷한데 비해 죽산은 1/2도 되지 않는다. 특히 토지에 부과되는 대동미에 있어 안성이 다른 두 읍에 비해 매우 많은데 토지가 적은 안성에서 죽산보다 많은 대동미가 부과된 것은 읍격과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9〉 안성시지역 삼읍의 병종·군역자수 및 군역 수취액

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병 조	기병 339명 678냥 금군보(禁軍保) 6명 12냥 금군 직보(直保) 14명 28냥 호련대보(扈衛隊保) 1명 2냥 경역보(京驛保) 77명 154냥 내취보(內吹保) 1명 2냥	기병 467명 934냥 표하군보(標下軍保) 41명 82냥 경역보 90명 180냥	기병 580명 1,160냥 금군보 11명 22냥 금군 직보 1명 2냥 호련대보 3명 6냥 경역보 90명 180냥 내취보 2명 4냥 충순위번(忠順衛番) 1명 2냥
훈련도감	포보(砲保) 113명 226냥 군항보(軍餉保) 44명 105,6명	포보 170명 340냥 군항보 25명 60냥	포보 202냥 군항보 45명 108냥
어영청	군보 119명 477,6냥	군보 133명 319,2냥	군보 84명 201,6냥
금 위 영	군보 138명 330,4냥	군보 173명 415,2냥	군보 81명 194,4냥

43) 원문에 경평궁방은 10결 76냥 2분이라고 기록되었으나 76냥 7분이 옳다.

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수 어 청	군수보(軍需保) 14명 米42두 양아병(良牙兵) 154명 924두 노아병(奴牙兵) 221명 663두 별파진보(別破陣保) 100명 600두	군수보 14명 42두 양아병 288명 1,728두 노아병 32명 96두 별파진 52명 312두 세장아병(洗滌牙兵) 14명 144두 표하랑군(標下良軍) 62명 310두 노군(奴軍) 7명 17두 5승	군수보 16명 48두 양아병 16명 96두 노아병 234명 702두 별파진보 23명 137두
의승번전	19,7냥	20냥	10냥
총 용 청	군수보 5명 米 1석	군수보 24명 72두 수첩군관보(守塚軍官保) 2명 12두	군수보 100명 300두 둔(屯)군수보 194명 582두 둔장초양군(屯壯抄良軍) 40명 240두 둔장초노군(奴軍) 27명 81두
장 락 원	악생보(樂生保) 6명 12냥	악공보(樂工保) 14명 28냥	악공보 11명 22냥
교 서 관	창준보(唱準保) 26명 52냥		창준보 25명 50냥
성 군 관	노공(奴貢) 1명 2냥		
이 조		서리보(書吏保) 79명 158냥	
공 조		장인보(匠人保) 29명 58냥	
관 상 감		생도보(生徒保) 7명 14냥	
삼 사		진봉보(進奉保) 21명 米 126두	
저리(邸吏)		진봉보 20명 20냥	
총 훈 부			총익위전(忠翊衛錢) 1명 2냥
양 향 청 (糧餉廳)			둔세(屯稅) 米 126,1두

군역의 특징을 검토하면 금위영 등 대부분의 기관이 전(錢)으로 수취한데 비하여 수어청은 현물인 미(米)였다. 또한 1인당 수취량은 수어청 양아병이 미 6두, 노아병이 미 3두이며 금군보전 2냥, 훈련도감 군향보전이 2냥 4전 등으로 병종(兵種)에 따라 다양하였다. 한편 의승번전은 절반은 승도처(僧徒處)에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영진모(營賑耗)에서 충당한다.

군역의 부과자는 죽산이 1,459명, 안성이 1,784명, 양성이 1,686명 등이다. 군역부과자를 호역부담호로 나누어 보면 호당 군역부과자는 죽산이 0.342명, 안성이 0.544명, 양성이 0.669명으로 양성, 안성, 죽산 순으로 많은데 이것은 현령관(縣令官), 군수관(郡守官), 도호부관(都護府官) 순의

읍격과 일치하며 당시 죽산에 남자가 많았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죽산의 군역부담은 매우 적다고 하겠다. 또한 군역가(軍役價)는 죽산이 전(錢) 2,101냥 3전 미(米) 2,244두, 안성이 전 4,314냥 4전 미 22,799두 5승, 양성이 전 3,734냥 미 2,323두 1승이다. 전으로 환산하면 죽산이 2,550냥 1전으로 호당 6전, 안성이 4,874냥 3전으로 호당 1냥 4전 9분, 양성이 4,198냥 6전 2분으로 호당 1냥 6전 7분이다. 총량에 있어서는 안성, 양성, 죽산의 순이며 호당부담에 있어서는 양성, 안성, 죽산의 순이다. 역시 인구와 호구가 가장 적은 양성이 가장 군역에 있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군역이 잔읍(殘邑)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일례를 보여준다 하겠다.

경사상납질(京司上納秩)에서 특징은 종삼품 도호부사가 부담하는 죽산이 대동(大同) 등 토지에 부과되는 세목 뿐만 아니라 신역인 군역자의 호당 부과 수도 적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부담이 가장 가벼웠다. 이에 비해 양성은 호당 군역자가 가장 많아서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고 경사상납질에 대한 부담은 안성과 거의 같은 액수였다. 인접한 삼읍 간에 조세나 군역의 부과량이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감영상납질(監營上納秩)의 분석

감영상납질은 경기도 관찰사영에 납부하는 부분이다. 죽산은 영수미(營需米)가 30석으로 대동미 가운데 제출상납(除出上納)하며 순아병보전(巡牙兵保錢)은 18명에게 각 1냥씩 18냥이다. 미 34석과 조 15석은 영환모(營還耗)로써 상납하고 진임 2석은 영환모에서 빠진 것을 찾아내어 상납한다. 훈조(燾造) 4석은 영환모의 태(太)를 훈조로 바꾸어 납부한다.

안성은 영수미 30석은 대동미 가운데 제출상납하고 순아병보전은 57명이 각 1냥씩 57냥이다. 훈조 4석은 영환모를 훈조로 바꾸어 상납한다.

양성은 영수미가 18석으로 대동미 가운데 제출상납한다. 순아병보전은 29명이 각 1냥씩 29냥이다. 그밖에 점미(粘米) 3석 5두는 영환모로써 상납하고 진임(眞蒞) 1석 4두 3승은 영환모에서 바꾸어 납부한다.

〈표 10〉 안성시지역 삼읍의 감영상납질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영수미(營需米) 30석 순아병보전(巡牙兵保錢) 18냥 훈조(燾造) 4석 미(米) 34석 조(粗) 15석 진임(眞蒞) 2석	영수미 30석 순아병보전 57냥 훈조 4석	영수미 18석 순아병보전 29냥 점미(粘米) 3석 5두 진임(眞蒞) 1석 4두 3승

감영상납질의 특징은 감영에 납부하기 위해 따로 설정된 것은 순아병보전 뿐이며 영수미는 대동미에서 기타 혼조나 미(米)는 감영 환곡의 이식 가운데 모곡의 수익으로 보낸다는 점이다. 그런데 감영상납질로 부과된 순아병보전에서 안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성, 죽산 등의 순인데 역시 호구수가 많은 죽산이 안성이나 양성보다 적은 것은 앞서의 경사상납질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표 11〉 안성시지역 삼읍의 지방재정 및 수취상황

구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본읍봉용질	관수미 120석 아룩미 20석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 100석 중군요미(中軍料米) 10석 6두 장세전 294냥 7전	관수미 100석 아룩미 16석 관둔세각곡 11석 목맥(木麥) 8석 장인전 46냥 8전 제번(除番)군관미 44석 6두 군기가염전(軍器假鹽錢) 37냥 5전 무녀포대전 16냥 향청(鄉廳)가향소전 2냥 향청모입전(募入錢) 11냥 장세전 720냥	관수미 100석 아룩미 16석 관둔세각곡 48석 8두 2승 조(租) 36석 7두 목화(木花) 20근 생마(生麻) 20근 점미(粘米) 3석 5두 진임(眞任) 1석 4두 5승
결역(結役)	조 1,596석 13두 9승 8합 미 17석 5두 (아룩공수위 65결 소봉)	조 383석 4두 4승 4합 점미 11석 (55결 소봉(所捧)) 녹두(黑豆) 3석 10두	전 902냥 미 14석 10두 (55결 소봉(所捧))
호역(戶役)	조 283석 12두 빙정(氷丁) 957장(場) 시(柴) 8,224속(束)	조 218석 5두 빙정 1,500장(조 30석) 유가(柳架) 80병(柄) 편비내(編飛內) 120부(浮) 상장지(常壯紙) 60속(束) 상지(常紙) 120속 피지(皮紙) 120속 유기(柳器) 60부(部) 마철(馬鐵) 60부(部) 사병(沙瓶) 120개(個) 사항(沙缸) 120좌(坐)	전 201냥 4전 4분 빙정 1,290장 시(柴) 338自內 마철(馬鐵) 72부(部) 동해(東海) 48개(個) 화로(火摺) 48좌(坐) 소라(所羅) 48좌(坐) 병(瓶) 240개(個)

3. 본읍봉용질(本邑捧用秩)의 분석

본읍봉용질은 수령 등의 관인에 대한 녹봉과 관아의 유지 및 제반 비용에 사용되는 항목이다. 죽산의 본읍봉용질은 관수미 120석, 사객지공미 100석, 중군요미 10석 6두, 아록미 20석 등으로 모두 250석 6두이며 대동미 가운데 획급하여 앞서 『여지도서』에서 본 바와 같이 매달 또는 매일 필요한 만큼씩 지출한다. 한편 죽산은 주천장(注川場)과 배관장(排觀場) 등의 장시가 있고 주천장에서 142냥 5전 배관장에서 148냥 2전 등 총 290냥 7전의 장세전 수입이 있다.⁴⁴⁾

안성은 관수미 100석, 아록미 16석 등이며 대동미 가운데 획급하여 매월 사용하며 읍내장에서 매월 60냥씩 장세 720냥의 수입이 있다. 그밖에 장인전 46냥 8전, 제번군관미 44석 6두, 군기야염전 37냥 5전·25인, 무너포대전 16냥, 관둔세각곡 11석·太 3석 피곡(皮穀) 8석·, 목맥(木麥) 8석 등이 있고 향청가향소전 2냥과 향청모입전 11냥은 향소(鄉所)의 공행노자(公行路資)로 사용되었다.

양성은 관수미 100석, 아록미 16석을 대동미 가운데 획급하여 사용되었다. 또한 전 29냥, 찜미 3석 5두, 진임 1석 4두 3승이다. 관둔전에서 얻어지는 관둔세로 각곡 48석 8두 2승, 목화 20근, 생마 20근 등이 있고 장세전은 소사장(素沙場)에서 103냥 3전을 수취하였다.

본읍봉용질을 분석하면 죽산이 읍격이 높고 군사적인 요충지이므로 안성이나 양성에 비해 관수미, 중군요미, 아록미, 사객지공미 등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 또는 수입 이외에 각 관아의 자체 수입을 검토하면 안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표 12〉 안성시지역 삼읍의 장세

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장시수세액(場市收稅額)	주천장(注川場) 8~2월 15냥씩 배관장(排觀場) 3~7월 7.8냥씩	읍내장 매삭(每朔) 60냥	소사장(素沙場) 매삭 9냥 5전 양석(兩朔) 4냥 3전
계	294냥 7전	720냥	103냥 6전

안성은 세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인세 또는 장세전 등에서 당시 안성 지역의 상공업 발달을 보여준다. 장인전은 점포를 개설한 장인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특히 장세전의 경우 안성은 죽산보다 약 2.5배, 양성보다는 7배의 수입이며 안성의 읍내장의 매월 60냥 역시 죽산의 주천장·배관장이나 양성의 소사장보다도 월등히 많다.

44) 원문에는 장세전 294냥 7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산상으로는 290냥 7전이 정확한 것 같다.

〈표 13〉 안성군 잡세(雜稅) 수취(收取)

구 분	총 액	부역자수	부담액	기 타
장 세	720냥	불특정 상인	매월 60냥	
징인전	46냥 8전	각색 징인 36인	1냥 2전	고마침가(雇馬添價)
제번군관미	44석 6두	이행초관 (已行哨官) 이행병방장무 (已行兵房掌務) 凡軍官 총 132인	2두 3두 6두	本廳討捕入番軍官 八人 一年放科及雇 馬價 添補
군기가염전	37냥 5전	25인	1냥 5전	收擥軍物修補監官 一年放科
무녀포대전	16냥	무녀 8구(口)	2냥	
관둔세	태 3석 피곡 8석	관둔전 경작자		
목 맥	8석	화물전 12두락 (斗落)	매승락(每升落) 1두	
향청가항소전	2냥	20인	1전	향청공행노자
향청모입전	11냥	11인	1냥	향청공행노자
계	전 833냥 3전 미 44석 6두 태 3석 피곡 8석	196인 화물전(火粟田) 12두락		

당시 안성읍내장이 경기의 광주사평장(廣州沙平場)·송과장(松坡場)·교하공릉장(交河恭陵場), 충청도의 은진강경장(恩津江景場)·직산덕평장(稷山德坪場), 전라도의 전주읍내장·남원읍내장, 강원도의 평창대화장(大化場), 황해도의 토산비천장(土山飛川場)·황주읍내장·봉산은과장(銀坡場), 경상도의 창원마산포장, 평안도의 박천진두장(博川津頭場), 함경도의 덕원원산장 등과 함께 전국 최대 장시의 하나였는데⁴⁵⁾ 안성의 장세전은 그러한 상업의 발달을 잘 보여준다.

장세전의 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충실하였음을 의미한다. 각 군현에서는 장세전을 각종 사객지공 등 각종 자체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였는데 안성은 장세전의 수입이 많으므로 해서 백성의 부담은 줄게 된다. 그러므로 영조 2년 장세전의 혁파가 논의될 때 안성에서는 능침(陵寢)의 각종 역사, 사객지공 등이 모두 이 수입에서 지출되므로 장세전이 없어지면 백성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하였다.⁴⁶⁾

45) 京畿之廣州沙平場·松坡場·交河恭陵場 公忠道之恩津江景場·稷山德坪場 全羅道之全州邑內場·南原邑內場 江原道之平昌大化場 黃海道之土山飛川場·黃州邑內場·鳳山銀坡場 慶尙道之昌原馬山浦場 平安道之博川津頭場 咸鏡道之德原元山場 此其最大也(『萬機要覽』財用編 5 各廳 鄉市條).

4. 결역(結役)의 분석

결역은 각 지방관아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각종 잡세를 의미한다. 죽산의 결역 부과 대상토지는 실결(實結) 1,262결 69부 9 가운데 1,117결 69부 9속에 대해 매결 조 20두씩 모두 조 1,596석 13두 9승 8합을 거두어 공역의 비용에 충당한다. 또한 아록공수위 65결에서 미 4두씩 17석 5두를 전세 조(田稅條)로 소봉(小捧)하였다. 안성의 제잡(除雜) 실결은 773결 68부였고 매결 조 8두씩 총 383석 4두 4승 4합 수봉하여 각종 물건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한다. 그 외에 아록공수위 55결에서 점미 매 3두씩 11석, 녹두 매 1두씩 3석 10두 면세조소봉(免稅條小捧)하였다.

먼저 삼읍 가운데 죽산의 아록공수위전이 65결로 안성과 양성에 비해 10결이 많은데 이것은 죽산이 대읍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실결에 부과되는 결역은 죽산이 조 20두, 안성이 조 8두, 양성이 전 1냥이다. 양성은 『여지도서』와 같이 전으로 수취하고 있는데 전 1냥은 미 5두이며 조로 환산하면 12두 5승이다. 그러므로 안성이 가장 적은 액수를 부담하고 죽산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앞서 조세의 부담에 있어 읍격이 높은 죽산이 비교적 적었던데 비하면 특징적인 현상이다.

5. 호역(戶役)의 분석

호역은 편호에 부과되는 각종 잡세이다. 죽산은 4,257호에 매호 조 1두씩 조 283석 12두 수봉하여 3년에 한 번씩 있는 호적(戶籍) 작성의 각종 비용에 사용된다. 그리고 관청용 땀나무인 시(柴)는 1357호에게 매호 6속씩 8224속을 거두고⁴⁶⁾ 빙정(氷丁)은 957호에 매호 1장씩 957장이었다.

안성은 제잡(除雜) 실호(實戶) 5505호 가운데 3275호에 대해 매호 1두씩 조 218석 5두를 수봉하여 식년(式年)의 호적장책(戶籍帳冊)의 종이 구입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한다. 그리고 유거(樵炬)는 80호에 대해 매호 1병씩 80병이며, 편비내(編飛內)는 1,200호에 매 10호당 1부씩 120부를 거두어 환곡의 노적(露積)을 덮는데 사용한다. 빙정(氷丁)은 읍내 500호가 각 3장씩 1,500장을 부담하는데 매장당 조 3승을 결역조로 출감(出給)하였다. 또한 읍저(邑底) 450호가 매호 조 1두를 내어 대소공역과 사환군(使喚軍)의 고가(雇價)로 이용하였다. 그밖에 수공업 점포를 운영하는 장인으로부터 상장지(常壯紙) 60속, 상지(常紙) 120속, 피지(皮紙) 120속, 유기(柳器) 60부, 마철(馬鐵) 60부, 사

46) 英祖 二年 … 侍讀官權 曰 各邑場稅之弊 由此革罷之命 大抵場稅終爲聚斂之歸 上曰 此予所以欲罷者也 罷此之後 殘邑之難支果如安城之所報 則場市革罷之邑 此之一二而何無一處論報 獨安城如此也 陵寢者役支勤 凡需皆須於此 而不爲貴出於民間 則其間亦安知無憑公營私之弊 場市之民 亦民也 若或爲其所用之不足 徵斂不已 則不如革罷之爲便矣 安城之獨爲歸重於陵役勤需 必欲不能者 亦涉殊常矣(『增補文獻備考』 165 市 考 三 鄉市條).

47) 계산상으로는 8,142속이다.

병(沙餅) 120개, 사항(沙缸) 120좌를 수취하였다.

〈표 14〉 안성군 호역(戶役)

구 분	총 액	부담대상호	호당부담액	수취방식 미 사용처
조(租)	218석 5두	3,275호	매호 1두	式年戶籍帳冊紙地 及書債雜費
유거(紐矩)	80병(柄)	80호	매호 1병	
편비내(編飛內)	120부(浮)	1,200호	매10호 1부	還穀露積 皆覆
빙정(氷丁)	1,500장(張)	읍내 500호	호당 3장 매장 조 3승	以結役租出給
조(租)	30석	읍내 450호	매호 1두	大小公役 使喚軍雇價
상장지(常壯紙)	60속(束)	紙店人處	每朔 4속	輪回收捧
상지(常紙)	120속	紙店人處	매삭 10속	輪回收捧
피지(皮紙)	120속	지점인처	매삭 10속	輪回收捧
유기(柳器)	60부(部)	店人處	매삭 5개	輪回收捧
마철(馬鐵)	60부(部)	점인처	매삭 5부	輪回收捧
사병(沙瓶)	120개(個)	점인처	매삭 10개	輪回收捧
사항(沙缸)	120좌(坐)	점인처	매삭 10좌	輪回收捧

그리고 관아의 비용 수입 이외에 각종 교육기관의 제정을 위해 향교 모입전(募入錢) 10냥 8전, 각곡 3석 3두, 계(鷄) 16수 · 16명 매명 1수, 계란 48개를 거두어 고종의 춘추(春秋) 석채(釋采) 때 봉용(捧用)하였다. 사립교육기관인 서원 가운데 도기서원(道基書院)은 26명이 각 1냥 4전씩 36냥 4전, 남파서원(南坡書院)은 각곡 1석 12두, 계(鷄) 9수, 시(柴) 45속 등을 모입하여 각 서원의 춘추 제향 때 봉용하였다.

〈표 15〉 안성군 향교 및 서원

구 분	모입(募入) 및 수취방식(收取方式)
향교(鄉校)	모입전 10냥 8전 ~ 9명 매명 1냥 2전 각곡 3석 3두 ~ 16명 米 · 太 · 麥 각 1두 계(鷄) 16수 ~ 16명 매명 1수 계란 48개 ~ 16명 매명 3개 이상 시(柴) 45속 ~ 9명 매명 5속
도기서원(道基書院)	모입전 36냥 4전 ~ 26명 매명 1냥 4전
남파서원(南坡書院)	모입각곡 1석 12두 ~ 4명 米 · 太 · 麥 각 1두 계(鷄) 9수 ~ 9명 매명 1수

양성은 7,659구에 매구 6합(合)씩 미 30석 9두 5승 4합을 식년(式年)의 호적 작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시(柴)는 338호에 1자내(自乃)씩 338자내를 직접 현물로 수취하고 2,518호에 대해서는 1자내를 전 8분으로 매겨 전 201냥 4전 4분을 거두었다. 빙정은 430호에 매호 3장씩 1,290장을 수납하고 그밖에 점포를 개설한 관납장인들로부터 마철 72부, 동해(東海) 48개, 화(火) 48좌(坐), 소라(所羅) 48좌, 병(瓶) 240개 등을 거두었다. 양성은 안성과 같이 장인에 대해 여러 가지 잡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16〉 양성현의 호역(戶役)

구 분	총 액	부담대상호	호당부담액	수취방식 미 사용처
시(柴)	338自內	338호	1自乃	
전(錢)	201냥4전4분	2,518호	전 8분	一自乃當八分式以錢收捧
빙정(氷丁)	1,290장	430호	빙(氷) 1장	
미(米)	30석 9두 5승 4합	7,659구	미 9합	年戶籍帳冊支持及書債雜費
마철(馬鐵)	72부(部)	아장(冶匠) 6명	매삭(每朔) 6부	
동해(東海)	48개(個)	관기(官器) 양점(兩店)	매삭 4개	
화로(火爐)	48좌(坐)	관기 양점	매삭 4좌	
소라(所羅)	48좌(坐)	관기 양점	매삭 4좌	
병(瓶)	240개(個)	관기 양점	매삭 20개	

삼읍의 호역(戶役)을 비교하면 식년(式年)마다 시행되는 호적조사에 부담하는 비용은 죽산과 안성이 조 1두로 같은데 비해 양성은 미 6합(合) 즉 조 1승 5합으로 매우 적었다. 빙정(氷丁)은 죽산이 해당호에 각 1장씩 957장을 거둔다. 안성은 읍내 500호가 각 3장씩 1,500장을 부담하지만 매장당 조 3승씩 결역조로 출납하였다. 양성은 430호에 매호 3장씩 1,290장이었다. 총량에 있어 죽산, 안성, 양성의 순이지만 안성과 양성은 호당 3장씩인데 비해 죽산은 1장을 부담해서 호당 부담이 가장 적다. 한편 안성은 죽산이나 양성과 달리 빙정의 부담을 직접 현물이 아닌 조(租)로 대신 수취하는데 이는 얼음의 채집과 저장 과정에서 백성의 고통이 심했고 그 가운데 아전의 농간이 심하였기 때문에⁴⁸⁾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안성과 양성은 점인(店人)들로부터 특정 물품을 거두는데 비해 죽산은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48) 얼음을 저장하는 비용은 큰 고을의 경우 혹 300~400냥을 소비하니 해마다 백성들의 괴로움이 되고 있다. 재목을 베고 짚을 나르고 얼음을 뜨고 빙고로 운반함에 아전들이 이를 기회로 농간을 부린다.(창작과 비평사 편, 『역주목민심서 III』) 戶典六條 平賦.

〈표 17〉 안성시지역 결역과 호역의 비교분석

구 분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제집(除籍) 호수(戶數)	4,257호	3,275호	2,518호
호당 부담	조 1두	조 1두	전 8분
호역 총액	조 283석 12두	조 218석 5두	전 201냥 4전 4분
제집 결수	1,262결 69부 9속	773결 68부	902결
결당 부담	조 20두	조 8두	전 1냥
결역 총액	조 1,596석 13두 9승 8합	조 383석 4두 4승 4합	전 902냥

죽산·안성·양성 삼읍의 지방재정 특징은 죽산이 관수미와 아록미 등의 비중이 높는데 비해 안성과 양성은 각종 잡세가 많다. 특히 지방재정의 지출로 이용되는 장세전에 있어 가장 많이 수취하는 안성이 다른 죽산이나 양성에 비해 재정적으로 충실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 지방 재정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곡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재정의 수입상황 및 충실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아쉬운 점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 후기 안성시지역 삼읍의 지방재정에 대하여 『여지도서』와 『부역실총』의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죽산·안성·양성의 삼읍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인접 고을이었지만 호당 인구나 호당 결수 등 농민들의 객관적 조건에 큰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세목(稅目)이라고 해도 수취방식이나 부과액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경국대전』·『속대전』·『만기요람』 등의 규정을 단순화하여 호당 또는 결당 부담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읍격이 높은 죽산이 각종 조세의 부담에 있어 적는데 반하여 가장 낮은 양성은 호당·결당 부과액이나 군역 부과자의 비율에 있어 가장 많은 부담을 하였다. 그것은 읍격이 높을수록 각종 조세와 부역의 부과에 있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각종 잡징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지방재정에 있어 국가에서 설정한 관둔전(官屯田)·아록전(衙祿田) 등이 수취 이외에 호역·결역 등 각종 잡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백성들로부터 수봉하였다. 그런데 죽산의 재정은 관수미·아록미·장세전·호역·결역 등 이외에 다른 세목이 적은데 비해 안성과 양성은 장인(匠人)에 대한 잡물의 징수 등 많은 잡세가 있었다.

넷째, 안성은 장세전(場稅錢)의 수입이 타읍에 비해 매우 높았고 장인세(匠人稅)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안성시지역 삼읍 가운데 안성이 상공업이 가장 많이 발전되었음을 잘 알려 준다. 장세전과 장인전은 지방 관아의 자체 비용으로 사용하는 세목이며 재원이므로 안성의 재정충실도가 높았고 그 만큼 안성의 백성들은 지방재정의 비용을 위한 수탈을 적게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 삼읍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므로 보편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전의 조항과 달리 경사상납질·감영상납질·본읍봉용질·결역·호역 등 각종 항목에서 각 읍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차후의 지방재정이나 백성의 수취부담에 관한 고찰은 법전에 의존하기보다는 각 읍지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 하향식 한국사 연구를 극복하고 지방사 연구가 한국사의 편찬에 도움을 주는 상향식 방법이 활성화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안성군지 편찬위원회, 『안성군지』, 안성군, 1990.
-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시지』 Vol 1-8, 안성문화원, 2011.
-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 향토사료집』, 안성문화원, 2009.
-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의 4대 정신』, 안성문화원, 1998.
- 안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안성인물지』, 안성문화원, 2010.
- 안성문화원, 『선비마을 안성 덕봉리』, 안성문화원, 2008.
- 金台榮, 『安城記略』, 東亞印刷所, 大正 14年.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목 차

I. 서론(序論)

II. 본론(本論)

1. 박진의 가계(家系)와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기록
 - 1) 박진(朴震)의 선계(先系)
 - 2) 박진(朴震)의 하계(下系)
 - 3)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기록된 원래의 박진(朴震) 기록
 - 4) 박진(朴震)의 자녀(子女)
 - 5) 《죽산박씨족보》(1771년) 후대에 가필(加筆)한 박진(朴震) 기록
 - 6)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필사 추가한 시점과 인물
2. 박진(朴震)을 왜곡(歪曲)한 부천(富川)의 문헌(文獻) 기록(記錄)
3. 박진(朴震)으로 인하여 왜곡(歪曲)된 지명(地名)
4. 박진의 기록물 현황
 - 1) 의병장 박진 기념비
 - 2) 의병장 박진 승전비
 - 3) 의병장 朴震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비
 - 4) 의병장 朴震 기념비 및 묘 안내판
 - 5) 부천시(富川市)의 향토유적(鄉土遺蹟) 현황(現況)
 - 6) 《다지컬부천문화대전》(2008년)의 박진(朴震) 기록

III. 결론(結論)

집필자

양 경 직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부천시 향토유적심의위원회 위원,
전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사무국장

I. 서론(序論)

경기도 부천시(富川市)는 면적이 좁다보니 역사, 인물, 문화유적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타 지역에서는 향토유적으로 거론조차도 안 될 인물 및 유적들이 거론되곤 한다.

부천(富川)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부평군(富平郡)을 다 물려받았지만, 이후 서울과 인천(仁川)에 집중적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면적이 2/10로 줄었다. 아울러 과거 부평의 역사를 제대로 물려받지도 못했다.

1962년 당시의 면적만이라도 지켜냈다면 부평(富平)의 많은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을 텐데, 현재 부평의 역사는 인천광역시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이도저도 아니게 애매모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桂陽區)만이라도 부천(富川)과 합병하여 고려 충신왕(忠宣王) 2년(1310년)부터 1914년까지 604년 동안 사용했던 부평(富平)을 복원하여 부평시(富平市)로 한다면 많은 역사가 되살아날 것이다.

각설(却說)하고, 문제는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부천의 향토사(鄉土史)는 거의 방치된 상태였다. 지역 내에 향토사학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최은휴(崔恩休, 1931~2002), 강희대(姜熙大, ?~2002) 선생이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부천예총(富川藝總)》(1977년) 창간호에 〈부천에 얹힌 이야기〉란 제목 하에 지명유래와 설화 등을 조사하여 게재하였다.

이것이 민간인으로써 부천(富川) 향토사를 다룬 시초로, 이 분들의 담방울이야말로 금방울옥방울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겠다. 이후 《부천의 흐름》(부천시 문화공보실, 1982년) 〈산따라 고을따라〉에서 부천의 지명유래와 설화 등을 매우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부천의 향토사를 한층 발전시켰다.

문제는 《복사골문화》(1985년) 〈임진란(壬辰亂)에 얹힌 이야기〉(p50~51)에서,

“최근에 밝혀낸 사실이다 … 죽산박씨(竹山朴氏) 세계(世系)에 보면 호(號) 계암(桂菴)이 임란(壬亂)을 치른 기록이 있다 …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이 지역에서도 의병(義兵)이 결기하여 혈전을 벌인 게 틀림이 없어, 이 지역이 임란(壬亂) 때는 격전장(激戰場)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전편 3장 원미산편을 심증이 갈 만한 자료가 되겠다.”

라고 뜬금없이 왜곡 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글에서 인용했다는 죽산박씨 세계(世系)는 왜곡 필사 추가한 《죽산박씨족보》(1771년)를 말하는 것인데, 아마 지명 답사 조사를 다니던 중 우

연히 족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기록한 것 같은데, 이전의 문헌 어디에서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인물 역사였다.

《동국여지지》(1656년), 《여지도서》(1765년), 《여도비지》(1856년), 《대동지지》(1863년), 《부평부 읍지》(1842년) / (1871년) / (1899년), 《선조실록》 그리고 죽산박씨 족보를 비롯한 많은 문헌을 살피어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박진과 관련한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 추가한 《죽산박씨족보》(1771년)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1992년에 〈의병장 박진 기념비〉¹⁾와 〈의병장 박진 전승비〉²⁾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물론 남의 문중사(門中史)를 타성(他姓)이 족보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부천시 전체가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관련한 죽산박씨 문중(門中)과 협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부천사연구》제1집(1993년)〈발간사〉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부천이 그동안 당해왔던 ‘역사와 문화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이 이런 불명예를 쓰게 된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동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여 기인함이 물론이거니와, 이를 게을리 한 선배들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

라고 하면서 지역의 선배들을 질책할 정도로 당당했다. 아닌 게 아니라 《부천시사》(1988년)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고, 부천역사연구소 소장으로서 《부천사연구》제1집(1993년)을 발행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만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천 향토사에 확연하게 금을 그으면서 불세출의 금자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박진을 의병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과오로 말미암아 부천(富川)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불행한 책이 되고 말았다.

차후 《부천시사》(1988년)와 《부천사연구》제1집(1993년)을 발행하면서 부천 향토사에 끼친 뛰어난 업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기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과(過)만 이야기하고 공(功)을 감춘다면 그 역시도 후학의 자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지 역사란 연대(年代)와 지리(地理)가 맞아야 성립이 된다. 반드시 그 시대, 그 지역에, 어떤 인물이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야만 비로소 역사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역곡1동 박진의 경

1) 1992년 11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에 세움. 비문(碑文)은 최현수 선생이 지었다.

2) 1992년 11월 9일 춘덕산 약수터 앞에 세움. 비문(碑文)은 최현수 선생이 지었다.

3) 《부천사연구》(富川史研究) 부제(副題) - 〈자봉(芝峯) 박제환(朴濟煥) 고문(顧問) 미수(米壽) 기념논총(記念論叢)〉 - 제1집(최현수, 1993년)

우에는 생물학적 나이부터가 임진왜란 때 인물이 아니다.

박진(朴震)-1500년 전후 출생 추정

1女	2女	3男	4男	5男	6女	7女
林復	金博	文輔	文弼	文佐	朴世敏	權衍
1521年生	?	1529年生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산 119번지 박진 묘소 앞에 ‘의병장 박진 기념비’와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그리고 건너편 춘덕산 약수터 앞에 ‘의병장 박진 전승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한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향(麝香)을 주머니에 감춘다고 그 향기까지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름지기 학자란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릇된 것은 그르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지성인 측에 못 꺾까봐 안달 대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할 말을 못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부천문화원(富川文化院) 향토문화연구소(鄉土文化研究所)에서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의 하나로 할 말을 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간관(諫官)이란 직책은 ‘나라를 고치는 의사(醫國)’란 별칭이 붙어있을 정도로 직계나 품계가 낮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임금에게 아뢰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임금에게 고하면서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막중한 직책이다.

이에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임무 또한 부천(富川)의 잘못된 역사를 고치는 ‘의사(醫市)’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한다. 권력자의 칼보다 순교자의 핏방울 보다는 학자의 붓끝이 더 무섭고, 더 소중한다는 것은 역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밝히려는 것은 부천시청에서 인정하고 세워준 박진의 기념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산박씨대종회에서도 인정해 준 인물도 아니다.

그런데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당시의 부천시장·부천시의회 의장·국회의원·시의원 등 부천의 명망가(名望家)들 이름이 거의 다 올라 있다. 오히려 이름이 안 올라가면 수치(羞恥)라고 여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이름이 기념비석에 새겨있다.

이에 필자(筆者)는 강력히 형사처럼 남모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고찰(考察)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왜곡된 역사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모순(矛盾)이 모순(矛盾)을 낳고, 다시 또 모순을 낳았던 악순환의 고리를 뚫! 끊고,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모순에 연유하여 일말의 오점(汚點)을 남기게 된 불상사(不祥事)가, 우리 부천(富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래에서 하나하나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다.

II. 본론(本論)

1. 박진(朴震)의 가계(家系)와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족보

1) 박진(朴震)의 선계(先系)

【17세 도(禰)】 • 1380년경 출생 추정 • 교하공파조(交河公派祖)

• 교하현감(交河縣監)

【18세 충지(忠至)】 • 1405년경 출생 추정

• 세종 16년(1434년) 알성시(謁聖試) 을과 3위⁴⁾

• 세조 1년(1455년) 원종공신⁵⁾

【19세 금손(金孫)】 • 1430년경 출생 추정

•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 1390~1453) 셋째 사위⁶⁾

• 계공당종묘령(啓功郎宗廟令) - 문관 종7품⁷⁾

• 세조 4년(1458년 2월 2일) 의금부에 방면⁸⁾

【20세 정근(貞根)】-----【선근(善根)】

• 1453년경 출생 추정

• 1457년경 출생 추정

• 중종 14년(1516년) 진사시⁹⁾

• 중종 17년(1522년) 식년시 병과¹⁰⁾

【21세 답년(聃年)】

• 1475년경 출생 추정

【철정(鐵貞)】

• 1480년경 출생 추정

• 중종 17년(1522년) 식년시 병과¹¹⁾

【22세 홍의(弘毅)】

• 1534년卒

【진(震)】

• 1500년경 출생 추정

• 영릉참봉(英陵參奉)¹²⁾

• 논란의 대상 인물

• 효행정문(孝行旌門)¹³⁾

4) 《국조방목(國朝榜目)》

5) 《세조실록》

6) 《순천김대동보》1권(순천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84년 발행)

7)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8) 《세조실록》

9) 《세조실록》

10) 《국조방목(國朝榜目)》

2) 박진(朴震)의 하계(下系)

상기(上記) '1) 박진(朴震)의 선계(先系)¹⁵⁾와 '2) 박진(朴震)의 하계(下系)¹⁶⁾는 조선왕족실록과 죽산박씨족보에 의거하여 출생년(出生年)을 비교해 보았다.

보통 선조 분들의 출생년을 모를 때, 보학(譜學)에서는 간지가 확실한 후손부터 거꾸로 간지(干支)를 서기(西紀)로 환산하여 위로 나이를 계산해 나가다가, 위에서 문헌 고증에 의한 확실한 생졸년이나 활동 연대의 간지가 나올 경우에 다시 아래로 나이를 맞추어 나간다.

간지에 오기(誤記)가 있거나 혹은 간지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25년 또는 30년을 번갈아가

면서 계산하여 부자간(父子間)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대체로 큰 오류는 없다.

알기 쉽게 박진의 4세손 '박형하(朴亨夏, 1592生)¹⁷⁾'부터 위로 나이를 계산하면 박진의 출생 연도는 대략 1500년경 전후로 추정이 된다. 이것이 보편의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그렇다면 임진왜란(壬辰倭亂 : 1592~1598) 당시 박진(朴震)은 100살이 불원(不遠)한 노인으로 의병 활동을 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박진을 왜곡 했는지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1世	鐵貞 : 1480년경 전후 출생 추정		
22世	- 震 : 1500년경 전후 출생 추정		
23世	文輔	文弼	文佐
	1529生	?	?
24世	奇男	英男	大男
	1559生	?	?
25世	楫	含章	明章
	?	1597生	?
26世	亨夏	尙儉	尙初
	1592生	1618生	1632生
27世	師顏	世恒	世彬
	1612生	?	1653生
28世	赫	龍瑞	內泰
	1630生	1682生	1685生
29世	泰東	憲柱	東輅
	1666生	1705生	1709生

3)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기록된 원래의 박진(朴震) 기록

죽산박씨 신묘보(辛卯譜 : 1771)가 창시보(創始譜)인데, 총 9권의 대동보(大同譜)로 영조(英祖) 47년인 1771년에 간행되었다. 그러면 이 신묘보(辛卯譜)에 박철정(朴鐵貞)과 박진(朴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1) 《국조방목(國朝榜目)》

12) 《국조방목(國朝榜目)》

13)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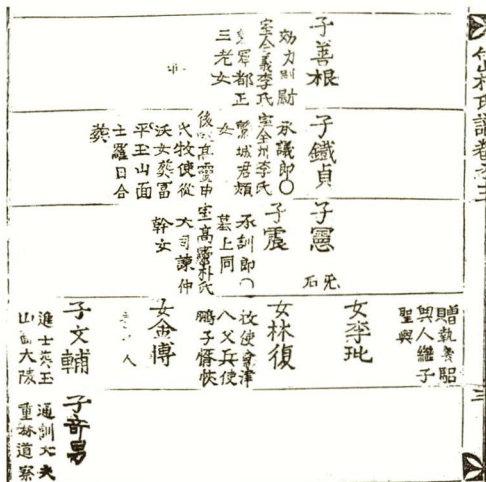
14)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15)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 《국조방목(國朝榜目)》,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친족보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16)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 《국조방목(國朝榜目)》,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친족보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17)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그림 1〉《죽산박씨족보》(1771년)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21世 - 鐵貞 : 承讓郎 ○室全州李氏 驚城君 女後室高靈申氏 牧使從沃女葬

富平郡 玉山面 土羅日合葬¹⁸

22世 1男 - 憲 2男 - 震 : 承訓郎 ○墓上同 室高靈朴氏 大司諫仲幹女¹⁹

위에 보았드시피 박진(朴震)은 박철정(朴鐵貞)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관직의 품계는 종6품의 승훈랑(承訓郎)이며, 묘는 아버지와 같은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사라일(士羅日)' 이라고 하였을 뿐 임진왜란과 관련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 족보는 죽산박씨대종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독산동 소재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을 방문하여 복사한 《죽산박씨족보》(1771년)로, 이후에 발간한 죽산박씨 족보 어디에도 임진왜란과 관련한 박진(朴震)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18)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19)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죽산박씨족보》(1771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竹山朴氏 延興君派宗會本

《죽산박씨족보》(1771년) 임란(壬亂) 기록 있음 - 필사 추가한 족보
- 부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족보》(1798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부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족보》(1798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

《죽산박씨족보》(1855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부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족보》(1855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

《죽산박씨족보》(1879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부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족보》(1879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

《죽산박씨족보》(1937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

《죽산박씨족보》(1937년) 임란(壬亂) 기록 없음 - 부천족보도서관

4) 박진(朴震)의 자녀(子女)

박진(朴震)은 고령박씨(高靈朴氏) 박중간(朴仲幹)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4녀를 두었다.

박진(朴震)-1500년 전후 출생 추정

1女	2女	3男	4男	5男	6女	7女
林復	金博	文輔	文弼	文佐	朴世敏	權衍
1521年生	?	1529年生	?	?	?	?

• 1女-첫째사위 임복(林復:1521~1576)

본관은 나주(羅州)로 아버지는 임봉(林鳳, 1486~1553)이다. 임복(林復)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명종 2년 정미(1547) 승문원 부정자·명종 3년 무신(1548) 사용(司勇)·선조 6년 계유(1573) 회령부사(會寧府使)를 지냈다. 강항(姜沆, 1567~1618)이 쓴 <풍암임공행장(楓岩林公行狀)>에 보면,

【원문】公初娶再娶俱無後 而早世三室而娶進士徐某之女生二男³⁰⁾

【번역】공은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은 함께 무후(無後)로 일찍 죽었고, 세 번째 부인은 진사(進士) 서(徐) 아무개 딸로서 두 아들을 낳았다.

라는 것으로 보면 박진의 딸은 시집가서 후사(後嗣)없이 일찍 죽은 것 같다.

20) <수은집(睡隱集)>(강항(姜沆, 1658年刊) 卷四 행장(行狀) - 출처 : 한국고전번역 원 DB

• 2女-둘째사위 김박(金博)

본관은 선산(善山)으로 기타 미상(未詳).

• 3男-박문보(朴文輔:1529~?)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원문】進士葬玉山面大陵洞室江陵金氏²¹⁾

【번역】진사(進士)이다. 옥산면(玉山面) 대능동(大陵洞)에 장사지냈다. 부인은 강릉김씨(江陵金氏)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 《사마방목》에 의하면, 명종(明宗) 13년(155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 17위로 등과하고 있다.

• 4男-박문필(朴文弼)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원문】通政大夫行麟蹄縣監葬士羅日屯垡洞坐淑夫人全州李氏都正仁武女後室淑夫人南 原梁氏主簿允謙 女合葬²²⁾

【번역】통정대부 행 인제현감(通政大夫 行 麟蹄縣監)을 지냈다. 사라일(士羅日) 둔대동(屯垡洞)에 장사지냈다. 첫번째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로 도정(都正)을 지낸 이인무(李仁武)의 따님이고, 두 번째 부인은 숙부인(淑夫人) 남원양씨(南原梁氏)로 주부(主簿)를 지낸 양윤심(梁允謙)의 따님이다. 합장(合葬)하였다.

• 5男-박문좌(朴文佐)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봉사(奉事)’ 두 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문】號草齋通訓大夫行司曩奉事墓先公左邊側雙墳有床石²³⁾

【번역】호(號)는 초재(草齋)이고 통훈대부 행 사옹원 봉사(通訓大夫 行 司曩 奉事)를 지냈다. 묘소는 선공(先公 : 아버지)의 묘소 왼쪽 가장자리 쌍분(雙墳)으로 상석(床石)이 있다.

이라고 필사(筆寫) 추가(追加)하였으며, 기타 문헌 기록에는 없다.

21)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22)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23)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추가(追加)한 족보 - 부원족보도서관.

• 6女-셋째사위 박세민(朴世敏)

본관(本貫)은 밀양(密陽)으로 족보에 주부(主簿)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박길응(朴吉應, 1598~?)의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시스템 DB《사마방목(司馬榜目)》에 의하면 인조(仁祖)12년(1634년), 별시(別試) 병과(丙科) 7등으로 등과(登科)하고 있다.

• 7女-넷째사위 권연(權衍)

미상(未詳)

앞에서도 말했지만 개인의 역사와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 첫 번째가 자손들과의 연대다.

셋째사위 임복(林復, 1521~1576)과 첫째 사돈 임봉(林鳳, 1486~1553), 그리고 1男인 박문보(朴文輔, 1529~?)와 손자인 박기남(朴奇男, 1559~?)의 출생년(出生年)이 정확하게 밝혀졌다. 사실상 여기서 고찰(考察)을 마쳐도 될 만큼 박진의 활동 연대가 왜곡되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박진의 장인 박중간(朴仲幹)은 성종(成宗) 11년(1480년) 식년시(式年試) 병과 16위로 등과하였으 며 생년(生年)은 미상이고 자(字)는 직경(直卿)이고 본관(本貫)은 고령(高靈)이다.

5)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 후대에 가필한 박진(朴震) 기록

상기(上記)의 박진(朴震) 기록에서 보았드시피 죽산박씨 어떠한 족보에서도 박진(朴震)과 관련한 족보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 부친족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단 한 권의 족보에만 박진(朴震)의 역사가 가필되었었다는 점이다.

다만 《부친사연구》1집(1993년)에서는 “그에 대한 고증은 벌용절리 《죽산박씨대동보》와 《진미록》에서 찾을 수 있다”²⁴⁾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죽산박씨대동보》는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단 한 권의 《죽산박씨족보》(1771년)를 말하는 것인데, 언제 어느 때 누가 가필 하였는지는 모르고 후기(追記)한 족보의 원본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인용하였다는 《진미록》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진미록》에 의하면 6월 17일 부평도호부(도호부청사는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산동에 있었습니다)에 침입한 왜군은 이를 뒤인 19일 현재 원미산 장대산일명 둔대산·소사·오정 등이 속한 부천벌에서 권율(權율, 1537~1599) 장군을 응원하기 위해 시흥에 주둔하고 있던 전라병사 겸 부원수인 선거이 장군 예하부대와 전투가 있었고, 6월 21일에는 인천도호부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²⁵⁾

24) 《부친사연구》1집(최현수, 1993년) 제2편 지명유래 ④ 원미산 일대, p163~165.

25) 《 재미있는 부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제4편 부친을 빛낸 사람들, p181.

라고 주장하였는데, 인용한 상기(上記) 내용은 1592년이 아니고 1593년 전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필한 박진의 1592년 9월 9일 전투하고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위에서 근거를 댔던 선거이(居居怡, 1550~1598)는 《선조실록》에 의하면, '전라병사(全羅兵使)'²⁶⁾와 '전라병마절도사'²⁷⁾를 지내던 중 '금천(衿川)의 광교산(光敎山)에 주둔'²⁸⁾ 하고 있던 인물로 1592년 당시에는 전라병사(全羅兵使)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면 박진(朴震)의 아버지 박철정(朴鐵貞)부터 어떻게 가필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원문】承議郎室全州李氏鷺城君穎女後室豐申氏牧使從沃女葬富平玉山面士羅日合葬²⁹⁾

【번역】승의랑(承議郎)이다.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로 휘성군(鷺城君) 이경(李穎)의 딸입니다. 두 번째 부인은 고령신씨(高靈申氏)로 목사(牧使)를 지낸 신종욱(申從沃)의 딸입니다. 부평(富平) 옥산면(玉山面) 사라일(士羅日)에 장사 지냈다. 합장(合葬)이다.

이라는 기록만 있었는데 '사라일합장(士羅日合葬)' 글자 위에서부터 필사(筆寫) 추기(追記)하기를,

【원문】伐應節里大陵內坐雙墳公篤於孝友不求功名自樊松落居富平號士來齊明經博識鄉人君子稱之有石物墓碣³⁰⁾

【번역】모는 벌응절리(伐應節里) 대능내(大陵內) 쌍분(雙墳)이다. 공은 효우에 돈독하고 공명(功名)을 구하지 않았다. 번송(樊松)에서 낙향하여 부평에 살았다. 호(號)는 이래재(士來齋)로 경서(經書)에 밝고 박식하여 향리 사람들이 군지라 칭했다. 석물(石物)과 묘갈(墓碣)이 있다.

라고 덧칠을 하듯 필사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이곳에서 삼 년 여를 지내던 박철정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승의랑(정6품 문관 품계)이란 직분으로 권을 장군 휘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들인 박헌과 박진은 의병을 모아 둔 대산(현재의 원미산)에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³¹⁾ 라고 하였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148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떻게 1592년에 아들과 같이 전투를 하고 있는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임진왜란 때 권을(權慄, 537~1599) 장군 휘하에서 전투를 했다는 내용이 가필된

26) 선조수정실록 25년(1592년 11월 1일).

27) 선조 26년(1593년 1월 3일).

28) 선조수정실록 26년(1593년 2월 1일).

29)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과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30)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추기(追記)한 족보 - 부친족보도서관.

31) 《재미있는 부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제4편 부친을 빛낸 사람들, p181~185.

내용에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의 공식 지명은 이두어(吏讀語)로 '사래울(士羅日)' 인데 '벌웅절리(伐應節里)'로 기록한 점이다. 아래 왜곡된 지명 유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타 성씨의 족보나 가첩(家牒)에서는 양자순(楊子淳, 1450生)의 묘소 위치를 이두어(吏讀語)로 '사내곡(仕內谷)'³²⁾ 또는 '사래일(仕乃日)'³³⁾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래골' 또는 '사래울'이 당시 공식 지명이었다는 얘기다.

죽산박씨 족보에는 '사라일(士羅日)'³⁴⁾ 또는 '사라일(仕羅日)'³⁵⁾로 표기하였다. 죽산박씨 족보에 '벌웅절리(伐應節里)'가 처음 나타나기는, "27세손 박세재(朴世粹, 1656~1682)의 부인 제주고씨(濟州高氏, ?~1684)"³⁶⁾ 때 등장을 하는데, 148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철정(朴鐵貞)과 '벌웅절리'는 연대에 맞지 않는다.

임진왜란(1592~1598)과 관련하여 생겨났다는 '벌웅절리'가 어떻게 하여 훨씬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벌웅절리'를 대입하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벌웅절리'는 정조(正祖) 때 간행한 《호구총수》(1789년)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호(號) '사래재(士來齋)'는 후대에 지어진 건강부회식 호(號)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흔히 살았던 지역의 지명을 따서 자호(自號)로 쓰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자호는 대개가 겸손하게 짓는 것이 관례다. 가필하기를 "공명(功名)을 구하지 않았다"³⁷⁾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비가 와서 사는 집'의 의미로 과연 '사래재(士來齋)'³⁸⁾로 썼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호(號)의 의미로 보면 후대에 지어준 것이 여실(如實)하다.

또한 박철정(朴鐵貞)이 생전에 자신이 살았던 동네 지명을 자호(自號)로 썼다면 《죽산박씨족보》(1771년)는 물론이고 이후에 발간한 모든 족보 기록에 '호사래재(號士來齋)'가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래리(士來里)'³⁹⁾는 26세손 박상초(朴尙初, 1632~1694) 때부터 비로소 쓰고 있다.

또한 박진(朴震)의 아버지 박철정(朴鐵貞)의 묘비에,

32)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1766년 간행).

33) 《청주양씨(淸州楊氏) 가첩(家牒)》(1780년경 필사 추정),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1690년 간행),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1766년 간행).

34)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35)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36)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원족보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37)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족보 - 부원족보도서관.

38)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족보 - 부원족보도서관.

39)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원족보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승의랑죽산박공철정지묘(承議郎竹山朴公鐵貞之墓)

배숙인완산이씨(配淑人完山李氏)

계숙인고령신씨함부(繼淑人高靈申氏含柩)”⁴⁰⁾

라고 새겨 있는데 승의랑(承議郎)은 문관의 정6품이다. 그렇다면 부인은 남편의 품계를 따라 정6품에 해당하는 ‘의인(宜人)’이라 해야 하는데, 3품의 당하관(堂下官) 부인에게 내려주던 ‘숙인(淑人)’이라고 하였다. 착오인 듯싶다.

이번에는 박진(朴震)을 어떻게 가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는,

【원문】承訓郎墓上同室高靈朴氏大司諫仲幹⁴¹⁾

【번역】승훈랑(承訓郎)이다. 묘는 위(아버지 묘)와 같다. 부인(室)은 고령박씨(高靈朴氏) 대사간(大司諫) 박중간(朴仲幹)의 따님이다.

라는 기록뿐이었는데 필사 추가하기를,

【원문】按公字而電號桂菴孝行卓異先公庵世居歲三年萬曆壬辰聞倭酋掠境內倡卒奴僕百餘人及隣里勇力人數百人九月九日屯於屯堽山見倭部往掠村廬擄馬突衝擊殺十餘級却倭三四里其兄聞寨中丸而死即赴橫尸如山之中窮竟屍身返葬先塋事母夫人竭誠盡孝事聞初監役又除參奉三除內贈寺主簿終不赴仕前後家謀失傳追跋故今始書之以備後放有石物立墓碑於順治八年云承訓郎⁴²⁾

【번역】삼가 살피건대 공(公)의 자(字)는 이전(而電)이고 호(號)는 계암(桂菴)이다. 효행(孝行)이 남달리 뛰어나 부친이 돌아가시자 시묘(侍墓)살이 3년을 살았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1592년)에 왜수(倭酋)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지역 내의 노복(奴僕) 백 여 명과 인근 마을의 힘 있는 자 수 백 명이 창(倡)하여 9월 9일 둔대산(屯堽山)에 진(陳)을 치고, 왜군의 부대가 마을을 갇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 말을 타고 돌격하여 맞싸워서 10여급(十餘級)을 격살(擊殺)하고 왜군을 3~4리 물리쳤다. 형 박헌(朴憲)이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 시신(屍身)이 산길에 쌓여 있는 중에, 온 힘을 기울여 겨우 시신을 찾아 되돌아와서 선영(先塋)에 장사(葬事) 지내 고 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 효도로 섬겼다. 이러한 일이 알려져 처음에 감역(監役)과 다시 참봉(參奉)에 제수(除授)되었고 세번째 내섬시 주부(內贈寺主簿)에 제수(除授) 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졸(卒)하였다. 앞뒤의 가첩(家牒)을 살전하였으므로 지금 비로소 써서 후에 참고가 되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추발(追跋)한다. 석물(石物)이 있다. 순치(順治) 8년(1651년)에 묘비(墓碑)를 세웠는데 승훈랑(承訓郎)이라 이른다.

40) 부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 죽산박씨 묘역.

41)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郡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42)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족보 - 부친초보도서판.

라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번역을 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위와 같은 기록은 죽산박씨 타 문중 족보에는 없는 듯하고 부친족보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추기(追記)한 《죽산박씨족보》(1771년) 단 한 권에만 기록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신(屍身)이 산 같이 쌓여 있다(積尸如山)”⁴³⁾ 라고 했다. 그렇다면 금산(錦山)의 칠백의총(七百義塚)에 버금가는 전투일진대, 당연히 《부평읍지》나 《선조실록》에 올라야 하는데, 일체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전투 사실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 “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 효도시켜 섬겼다(母夫人竭誠盡孝事)”⁴⁴⁾ 라고 했는데, 당시 박진의 나이는 지팡이나 들지 말지 한 100살이 불원(不遠)한 노인인, 어머니를 효(孝)로 섬겼다면 어머니는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1598년 전후 7년여의 왜란이 끝나자 사래리에서 힘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던 박진”⁴⁵⁾ 이라고 하였는데, 1500년경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이 1598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넷째, 주변의 장정 200여 명이 창(倡義)하여 수백 명이 죽었다는 전투라면 인근의 많은 집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로지 죽산박씨 한 집안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선조실록》(1592년 9월 9일)에는 부평(富平)과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없다.

다섯째, 박진(朴震)의 첫째 사위인 임복(林復, 1521~1576)의 생졸년(生卒年)이다. 이에 대해서 홍순민(洪順敏)은,

“박문보(朴文輔)는 두 누이를 둔 박진의 셋째 소생이다. 《사미방북》에 따르면 명종 13년(1558년)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에 생원 3등 17위로 급제하였고, 그 생년은 기축(己丑) 1529년(중종 24)이다. 박진의 첫째 사위 임복(林復)은 1521년생이므로, 박진의 첫째 딸도 1520년대 초생으로 추정된다. 박진은 1500년 전후 생으로 추정할 수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는 90대 나이가 된다. 임진왜란 당시 그 형 박환과 더불어 생존하였는지 생존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전투에 참여 하였는지는 다른 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 할 문제이나,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박진(朴震)의 첫째 사위 임복(林復)은 1521년(중종 16)~1576년(선조 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희인(希仁), 호는 풍암(楓巖), 임평(林淸)의 손자로 승지 임봉(林鵬)의 아들이며 모친은 이종(李宗義)의 딸이다.”⁴⁶⁾

43)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 필사(筆寫) 추기(追記)한 족보-부친족보도서관.

44)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 필사(筆寫) 추기(追記)한 족보-부친족보도서관.

45) 《재미있는 부친 이야기》(최현주, 1996년) 제4편 부친을 빛낸 사람들, p183.

라고 하였듯이 박진(朴震)의 연령으로 보아 임진왜란 당시에 활약할 수 없는 연대가 나온다. 또 한 박진(朴震)의 묘비(墓碑)도 착오인 듯싶다. 족보에는 문관 종6품의 승훈랑(承訓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새로 세운 묘비에는,

“통훈랑박공진지묘(通訓郎朴公震之墓)
의인고령박씨부좌(宜人高靈朴氏附 左)”⁴⁷⁾

라고 새겨져 있다. 족보 기록대로 부인의 품계는 종6품에 해당하는 ‘의인(宜人)’은 맞다. 그러나 박진을 정5품의 ‘통훈랑(通訓郎)’ 이라고 한 점이다. 그렇다면 부인의 품계를 한 단계 올려서 ‘공인(恭人)’으로 기록해야 맞다. 역시 착오인 듯싶다.

6.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필사 추가한 시점과 인물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인물은 ①~⑨번까지 총 9명이다.

21세	鐵貞 ① 1480년경 전후 출생 추정				
22세	震 ② 1500년경 전후 출생 추정				
23세	文輔	文弼	文佐 ③		
	1529生	?	?		
24세	奇男	英男	大男 ④		
	1559生	?	?		
25세	楫	含章	明章 ⑤		
	?	1597生	?		
26세	亨夏	尙儉	尙初 ⑥		
	1592生	1618生	1632生		
27세	師顏	世恒	世彬 ⑦	世桓 ⑧	世梓
	1612生	?	1653生	1655生	1656生
28세	赫	龍瑞	來泰 ⑨	龜瑞	麒瑞
	1630生	1682生	1685生	?	1695生
29세	泰東	憲柱	東輅	東軾	東載
	1666生	1705生	1709生	1732生	1738生

① 【21세 박철정(朴鐵貞)】 박진(朴震)의 아버지

② 【22세 박 진(朴 震)】 논란의 대상 인물

46)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 (홍순민, 2012년), p12~13.

47)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 죽산박씨 묘역.

- ③ 【23세 박문좌(朴文佐)】 박진(朴震)의 3男
- ④ 【24세 박대남(朴大男)】 박문좌(朴文佐)의 아들
- ⑤ 【25세 박명장(朴明章)】 박문좌(朴文佐)의 손자
- ⑥ 【26세 박상초(朴尙初)】 박문좌(朴文佐)의 증손(曾孫)
- ⑦ 【27세 박세빈(朴世彬)】 박문좌(朴文佐)의 고손(高孫)
- ⑧ 【27세 박세환(朴世桓)】 박문좌(朴文佐)의 고손(高孫)
- ⑨ 【28세 박내태(朴來泰)】 박문좌(朴文佐)의 5세손(世孫)

주로 자손록(子孫錄)을 쓸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썼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진(朴震)의 형 박헌(朴憲)의 경우에는 '무후(無后)' 두 글자 바로 옆으로 박진(朴震)의 자손록을 바짝 붙여서 기록하였기에 공간이 없는 관계로 임진왜란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21세 박철정(朴鐵貞)과 22세 박진(朴震)은 앞장을 참고하기 바라고 지면관계상 몇 명만 다루기로 한다.

③ 【23세 박문좌(朴文佐)】 박진(朴震)의 3男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봉사(奉事)' 두 글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문】 號草齋 通訓大夫 行 司饗奉事 墓先公左邊側雙墳 有床石⁴⁸⁾

【번역】 호(號)는 초재(草齋) 이고 통훈대부 행 사옹원 봉사(通訓大夫 行 司饗院 奉事)를 지냈다. 묘소는 선공(先公: 아버지의) 묘소 왼쪽 가장자리 쌍분(雙墳)으로 상석(床石)이 있다.

라고 필사(筆寫) 추가(追記)하였다. 몇 군데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호(號) 초재(草齋)' 를 기록한 점인데 전 족보에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호(號) 기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점에 대해서 후손들이 지어준 호(號)로 추정된다.

둘째, '통훈대부 행 사옹원 봉사(通訓大夫 行 司饗院 奉事)'의 품계 진위(眞僞) 여부다. 통훈대부(通訓大夫)는 조선시대 문관(文官)의 정3품(正三品) 당하관(堂下官)에 해당하는 높은 품계이다. 그런데 그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 종8품의 '사옹원 봉사(司饗院 奉事)'로 과연 내려갔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행수법(行守法)에 '수(守)'는 자기의 품계보다 높은 품계의 직책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행(行)'이란 높은 품계에서 낮은 품계의 직책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데, 정3품의 품계를 지녔던

48)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족보 - 부친족보도서관.

사람이 궁중의 음식을 맡은 사옹원(司饔院) 정8품의 하급(下級) 관료(官僚)인 '봉사(奉事)'로 과연 내려갔겠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필사 추가하는 과정에서 품계의 계통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덮어 놓고 윤색(潤色)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 족보에 부인의 기록이 없는데도 '쌍분(雙墳)'이라고 기록한 점이다. 후손들이 할머니를 일부러 빼놓을 리는 없다. 필자가 청주양씨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족보 수단(收單)을 받아보면 선조의 기록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이미 있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 흥순민은,

“박문자의 추가에 ‘雙墳’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부인도 별세하여 함께 묘를 쓴 상태 인데도, 부인에 대한 기사가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 추가가 부실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러나 다른 족보에는 없는 ‘號草齋’, ‘有床石’ 등의 기록으로 보자면 ‘공식적이지 않은 현장의 정보는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⁴⁹⁾

라고 하였다. 1879년 족보에는,

【원문】字榮和司饔院奉事墓先塋左雙墳配淑人昌寧成氏父載⁵⁰⁾

【번역】자(字)는 영화(榮和)이고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를 지냈다. 묘(墓)는 선영(先塋) 왼쪽이다. 부인은 숙인(淑人) 창녕성씨(昌寧成氏)이고 아버지는 성재(成載)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앞에서 지적했던 필사 추가한 기록들을 1879년 대동보에 넣지 못하고 있다.

첫째, ‘호(號) 초재(草齋)’를 빼고 ‘자(字) 영화(榮和)’를 기록하였다. 보통 족보에 기재할 때 ‘자(字) 보다는 ‘호(號)’가 더 품위가 있다. 아무나 호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초재(號草齋)’를 뺐다는 것은 후손들이 지어준 것이기에 뺐다고밖에 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선조님이 쓰시던 호(號)와 자(字)를 후손이 감히 넣었다 뺐다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서 ‘자(字) 영화(榮和)’도 후손들이 지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족보에 넣지 못한 점이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정3품을 지냈던 사람이 종8품으로 내려가 허드렛일을 했을 리는 만무(萬無)하고, 더군다나 종3품을 지냈다면 죽산박씨 문중에서 거의 다 알았을 것이다.

49)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홍순민, 2012년, p20

50)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친족보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그런 만큼 앞선 족보에 누구보다도 먼저 올라가야 할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인데, 창시보(創始譜)에 기록이 없었다는 것은 정3품의 벼슬을 하지 않았다는 얘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옹원(司饔院)만 추가하여 족보에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앞 족보에서 없었던 부인을 '숙인(淑人) 창녕성씨(昌寧成氏)'라고 기록한 점이다. 부인의 품계는 남편의 품계를 따르는데 '숙인(淑人)'이라면 정3품의 품계에 해당하는 부인의 관작(官爵)이다. 족보 기록대로 사옹원 봉사(司饔院 奉事)라면 부인의 품계는 당연히 종8품에 해당하는 '단인(端人)'으로 기록했어야 했다.

이로 보아 벼슬을 윤색(潤色)하는 과정에서 문중과 마찰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한 후손들이 할머니를 일부러 빼놓을 리는 없다. 선조의 기록을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지 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번 고찰의 또 다른 연구 과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④ 【24世 박대남(朴大男)】 박문좌(朴文佐)의 아들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에 '군수(郡守)' 두 글자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문】 字雄彦初諱誠男郡守贈戶曹參議己卯九月初十日卒贈淑人白川趙氏父啓功郎世禔雙墳於先公左靑龍中麓子坐繼淑人牙山李氏父監役還墓牙山云失傳⁵¹⁾

【번역】 자(字)는 웅언(雄彦)이고 초휘(初諱)는 성남(誠男)이다. 군수(郡守)를 지냈으며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증직되었다. 기묘년(己卯年) 1639년 9월 초 10일 졸(卒)하였다. 부인은 증숙인(贈淑人) 배전조씨(白川趙氏)이고 아버지는 계공랑(啓功郎)을 지낸 조세희(趙世禧)이다.

쌍분(雙墳)인데 선공(先公 : 아버지) 묘소 좌청룡(左靑龍) 중간 기슭 자좌(子坐)이다. 상석(床石)이 있다. 두 번째 부인은 숙인(淑人) 아산이씨(牙山李氏)이고 부친은 감역(監役)을 지낸 이섬(李暹)이다. 묘소는 아산(牙山)인데 실전(失傳)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홍순민은,

"신묘보에 박대남에 대한 기록은 단지 군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내용이 전혀 없다. 대남이 졸한 1639년 이후 신묘보가 편찬되는 1771년(연조 47)까지 132년이 지났음에도 대남에 대한 기록이 족보에 등재되어 정비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⁵²⁾

이라고 하였다. 1879년 족보에는 자손록이 줄어서,

51)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필사(筆寫) 후기(追記)한 족보 - 부천족보도서관.

【원문】字雄彥安城郡守己卯九月十日終配淑人白川趙氏父世籍墓先塋下子坐⁵²⁾

【번역】자(字)는 웅언(雄彥)이고 안성군수(安城郡守)를 지냈으며 기묘년(己卯年) 1639년 9월 10일 졸(卒)하였다. 부인은 숙인(淑人) 배천조씨(白川趙氏)이고 부친은 조세희(趙世禧)이다. 쌍분(雙墳)인데 묘소는 선영(先塋) 아래 자좌(子坐)이다.

라고 참으로 회한한 기록을 남겼다. 보통 족보의 자손록은 기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박대남(朴大男)의 경우에는 갈수록 기록이 줄어들었다. 아마도 문중 간에 문제가 있었던 주요 인물로 보인다.

첫째, “군수(郡守)”란 단순한 기록을 “안성군수(安城郡守)”로 기록한 점이다.

둘째, 없었던 부인을 필사 추가할 때 “증숙인배천조씨(贈淑人白川趙氏) 계숙인 아산이씨(繼淑人 牙山李氏)”로 기록하더니 다음 족보에서는 둘째 부인 “계숙인 아산이씨(繼淑人 牙山李氏)”를 뺀 점이다. 어떠한 이유로 부인을 족보에서 뺐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필사 추가했던 “조휘성남(初諱誠男)”과 “증호조참의(贈戶曹參議)”를 넣지 못한 점이다. 이는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 조상의 벼슬을 윤색하는 과정에서 검증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어디든 단 한 줄이라도 공식적인 기록이 있다면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필사 추가하기를 “先公左靑龍中麓子坐 : 아버지 묘소 좌청룡 중간 기슭 자좌(子坐)이다.”라고 했다가, 다음 족보에는 “墓先塋下子坐 : 묘소는 선영(先塋) 아래 자좌(子坐)이다”라고 한 점이다.

이로 보아 박대남(朴大男)의 직계 후손들 중에서 선조의 묘소(墓所) 자리를 쓰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여타의 문중 간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묘소 옆에서 선영(先塋) 아래로 옮겨진 듯하다.

이상의 기록과 필사 추가한 족보의 희미한 상태로 보아 적어도 200백 년은 넘은 것으로 여겨진

52) 《박진(朴震) 관원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홍순민, 2012년, p20.

53)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천족보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1771년 대동보 간행 이후에 누군가 필사 추가했을 것으로만 추정될 뿐이다.

필사(筆寫)한 글씨체도 한 사람이 세필(細筆)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홍순민(洪順敏)은,

“위 네 사람에 대한 추기는 같은 필체로서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⁴⁾

라고 하였다. 문제는 역곡동에 살고 있는 박진의 후손들은 필사 추가한 족보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친사연구》1집(1993년)에는,

“둔대란 글자 그대로 군사가 주둔했다는 뜻이다. ‘비릿내’란 명칭의 유래는 큰 망골과 작은 망골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술한 인명 피해로 많은 피가 흘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가 났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 그에 대한 고증은 벌음절리 (죽산박씨대동보)와 《진미록》에서 찾을 수 있다.”⁵⁵⁾

라는 것으로 보아 《부친사연구》1집(1993년)에 자료로 활용한 이후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족보를 복사하여 부친족보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추가한 원본이 문중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문중 분들은 필사 추가한 족보를 처음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곡1동에서 살다가 졸(卒) 박제관(朴濟寬, 1914~?)이 소장했던 《죽산박씨보첩(竹山朴氏譜牒)》(발행연도 미상)의 실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용을 보면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죽산박씨족보》(1771년)를 보고 박진(朴震)의 3男 박문좌(朴文佐)의 직계 후손들이 후대에 만든 보첩(譜牒)으로 보이는데 원본을 보지 못한 상태라 발행연도를 알 수 없다.

또한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기록한 《죽산박씨보첩(竹山朴氏譜牒)》(발행연도 미상)에는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이 많았다.

첫째, 모든 선조 분들의 이름 위에 ‘휘(諱)’자를 넣었다는 점

둘째, 박진(朴震)의 3男 박문좌(朴文佐)를 장남으로 기록하고 위의 두 형인 박문보(朴文輔), 박문필(朴文弼)을 밑에 기록하였다는 점.

셋째, 박진(朴震)의 2男 박문필(朴文弼)을 범박동파(範朴洞派)로 기록한 점

넷째, 필사 추가한 《죽산박씨족보》(1771년)의 박진의 기록 중에 “初監役”으로 되어 있는데 ‘수(授)’자를 추가하여 “初授監役”이라고 기록한 점.

54)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 (홍순민, 2012년), p19.

55) 《부친사연구》(최현수, 1992년 발행) 가-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p163-165.

다섯째, 《죽산박씨족보》(1771년)에 필사 추가한 박진의 기록 중에 “前後家牒失傳追跋故今始書之以盡後攷”라 기록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

여섯째, 박진(朴震)의 아버지 박철정(朴鐵貞)의 묘소 위치를 《죽산박씨족보》(1771년) 원본에는 “富平郡 玉山面 土羅日 合葬”이라 하였는데 필사 추가할 때 기록한 벌응절리(伐應節里)를 취하여 “富平郡 玉山面 伐應節里 大陵內”로 하였다는 점.

일곱째, 필사 추가한 박철정(朴鐵貞)의 기록 중에 번송(樊松)을 반송(盤松)으로 바로 잡았고, “공명을 구하지 않았다(不求功名)” 중 ‘공명(功名)’을 빼고 ‘문달(聞達)’로 바뀌서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을 구하지 않았다(不求聞達)”로 하였다는 점.

이상의 일곱 가지와 《죽산박씨보첩》(竹山朴氏譜牒)(발행연도 미상)의 표지(表紙) 상태로 보아 족히 200백 년은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직후의 1800년대 초, 중반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빙(信憑)할 수 없는 필사 추가한 내용과 가계(家系)로 보아,

朴文佐 - 朴大男 - 朴明章 - 朴尙初

계열의 후손 중 누군가가 《죽산박씨족보》(1771년) 이후에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 홍순민도,

“신묘보 발간 이후 어느 시점에서 문화·대남의 후손들이 가전되는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내용을 필사로 족보에 기재하여 두었다. 그러다가 ...”⁵⁶⁾

라고 하였다.

2. 박진(朴震)을 왜곡한 부천(富川)의 문헌 기록

1) 《부천예총(富川藝總)》(예총 부천지구회, 1977년)

(1) 〈부천에 얹힌 이야기〉 원미산(遠美山)과 표절리(表節里)

“원미산의 주봉을 장대봉(將臺峰)이라 한다(일명, 장자봉) 이곳의 북쪽은 여월리(如月里)요 동쪽은 역곡동(법응절리(伐應節里)이다. 이곳에 오르면 서울과 부천이 한 눈에 다 잡힌다. 임진왜란 다음해인 계사년(癸

56)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홍순민, 2012년), p20.

巳年)에 권을 장군이 행주대첩(行州大捷)에 이어 무명(無名)의 장군이 이곳에 진(陣)을 치고 왜적을 맞아 싸움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곳이다. 이 주변의 북쪽에 골짜기가 둘이 있다. 좌편의 골을 '작은 ㄷ골' 우편의 골을 '큰 ㄷ골'이라 부른다. 이 무명의 장군이 왜적을 크게 쳐서 무찌른 곳을 '큰 ㄷ골' 적게 무찌른 곳을 '작은 ㄷ골'이라 내려주고 있다며, 십 수 년 전만해도 피아(彼我)는 구별할 수 없으나 옛날에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수레의 잔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장수(將帥)가 진(陣)터로 삼았다 하여 칭해 온다. 사적(史的)으로 고증(考證) 못함."⁵⁷⁾

이라고 하였다. <부친의 얽힌 이야기>에서 각각의 동네별 지명 유래와 설화를 답사 및 조사하여 엮은 글로, 위 글은 '원미산(遠美山)과 표절리(表節里)'를 설명한 글인데 지명 유래가 묘하다. 맨 밑에 "사적(史的)으로 고증 못함"이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풍무니를 뻗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발간한 부평읍지(富平邑誌)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내용으로, 이 글이 박진(朴震)을 왜곡하는 축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복사골문화》(1985년)

《복사골문화》(1985년) 〈원미산(遠美山)〉(p48~49)에 보면,

"어느 해 날리를 치르기 위해 적과 대치하기 위해 진을 쳤다는 설이 있다. 이 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장 자봉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을 끼고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시내의 명칭을 추적해 보면 둔대(屯垔)라는 말이 수궁이 같만하다 ... 이 개울을 비린내 또는 비릿내라고도 칭한다. 산마루에 진을 치고 있는 군사들과 공격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피아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어느 쪽이 이 전투에서 패전을 했는지 모르나 동쪽 줄기는 크게 망해 큰 망공 서쪽 줄기는 작게 망해 작은 망골로 불리었다. 이 전투로 많은 인명의 살상을 내 개울 따라 피가 흥건하게 흘러 비린 내음이 골짜기를 매워 개울로 흘렀다는 것. 이때 부터 이 개울을 비린내 또는 비릿내라고 했다는 것"

이라 하였고, 같은 책 제4장 〈임진란(壬辰亂)에 얽힌 이야기〉(p50~51)에서는,

"최근에 밝혀낸 사실이다 ... 원미산이 그 당시는 둔대산(屯垔山)이라 불리웠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고증을 최근에 찾아내었다. 즉 죽산박씨(竹山朴氏) 세계(世系)에 보면 호(號) 계암(桂庵)이 임란(壬亂)을 치른 기록이 있다. 그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奴僕百名人及僞里勇力數十人九月望日屯於屯垔山見倭郡村擁撥馬突衝擊殺十餘級却倭三四里...】로 기록되어 있다. 즉 노비 1백 명과 이웃 마을에 용기 있고 힘 있는 정장수 10명과 9월 보름 둔대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군부대(倭軍部隊)가 마을에 와 약탈한다는 보고가 와 돌격으로 총 돌하여 격퇴시켜 삼사리(三四里)나 왜군이 물러가면서, 10여 개의 사상자를 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이 지역에서 의병(義兵)이 결기하여 혈전을 벌인 게 틀림이 없어, 이 지역이 임란(壬亂) 때는 격전장(激戰場)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 전면 3장 원미산편을 심증이 갈만한 자료가 되겠다."

57) 《부친예종(富川懿宗) - 부친의 발자취(예종 부친지구회, 1977년)》가 - <부친에 얽힌 이야기> 원미산(遠美山)과 표절리(表節里), p73~74.

라고 기록한 것 같은데 향토사 자료를 누가 수집했고 누가 집필자인지는 미상(未詳)이다. 이제로운 것은 기관지(機關誌)는 분명 기관지인데 마치 어느 한 사람의 향토사 연구서 같았다. 더욱이나 판권(板權) 일부분을 종이로 붙여 놓아서 누구인지 알바를 몰랐었다.

하여간에 이 기록이 박진(朴震)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왜곡시킨 시초가 되었고, 이후 이 기록에 의거하여 《부천시사》(1988년)와 《부천사연구》 제1집(1993년)에 재왜곡 되는 발단이 되었다.

3) 《부천사연구》 1집(1993년)

(1)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5. 사래리(일명 새를 : 士羅日, 士里月)

“역골 어귀 오른쪽에 있는 마을로 지금은 역곡2동 삼신아파트가 들어섰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 휘하에 있던 박철정이 광주군 번송에서 이곳에 와 ‘선비가 왔다’ 해서 사래리(士來里)라 불렀다고 한다. 1920년에 나온 지도에는 사리월(士里月)로 표기 되어 있는데 이는 새를을 한자로 표기 한 것이다. 사래리 뒷산에서는 사래리애향회 주관으로 매년 음력 시월 춘덕산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 산을 새를산(새월산)으로 부른다.”⁵⁸⁾

(2)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0. 벌웅절리

“역곡동 안동네로 일명 벌굴 또는 절굴이라고 부른다. 절굴이라 부르게 된 것은 옛날 이곳에 봉응사(蜂應寺)란 절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벌(蜂)은 우리말로 ‘벌’ 이고 쉼은 우리말로 절)과 왜군의 침략에 응전하여 왜군을 쳤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란 설이 있으나, 이곳 뒷산인 둔대산(현재는 춘덕산이라 부른다)에서 임진왜란 때 사래리에 사는 박진이 의병 200여 명을 거느리고 전투를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자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마을의 지형이 벌(蜂)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봉웅절리라고 하여 이것이 벌웅절리로 변했다고 한다.”⁵⁹⁾

(3)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5. 뱀골과 둔덕골

“둔대산 남쪽 기슭에는 여러 개의 굴이 있는데 서쪽 첫 번째 있는 골짜기에 뱀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뱀골이다. 뱀골 앞의 논이 있는 지역은 蛇谷(사곡)틀이라 한다. 악수터로 올라가는 두 번째 골짜기가 둔덕골로 임진왜란 때 사람들이 둔을 치고 터를 잡았기 때문이라 하며 이 아래 마을을 일명 城下村(성하촌)이라고 하였고 한다.”⁶⁰⁾

58)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나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5. 사래리(일명 새를 : 士羅日, 沙下里, 士里月), p166.

59)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다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0. 벌웅절리, p166.

60)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라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5. 뱀골과 둔덕골, p168.

(4)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25. 큰 망골과 작은 망골과 비린내

“정대봉 북쪽에 세 개의 큰 돌이 있다. 북녘 기슭 동쪽에 위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골짜기가 큰 망골과 작은 망골이다. 큰 망골은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곳이고, 작은 망골은 작게 저서 붙여진 명칭이다.”⁶¹⁾

4) 《재미있는 부천이야기》(1996년) 제4편 부천을 빛낸 사람들

(1) 외세에 항거한 의병 - 박진

“...그가 이곳에 정착하므로 인해 ‘선비가 온 동네다’ 하여 ‘사래리(士來里)’라 불렸으며...이곳에서 삼 년 여를 지내던 박철정(朴鐵貞)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승의랑(정6품 문관 품계)이란 직분으로 권율 장군 휘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아들인 박헌과 박진은 의병을 모아 둔대산(현재의 원미산)에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 사래리에 기거한 지 삼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복상하던 왜군이 총퇴각하여 다시 서울 부근으로 집결할 때 부천을 재침략하여 마을을 마구 노략질하였습니다. 이에 박진은 병사와 노복 100여 명과 인근 마을 장정 100명을 거느리고 1592년 9월 9일 부천의 진산인 둔대산에 주둔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를 두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답니다 ... 정대산을 중심으로 모인 박진 휘하의 의병들은 처음 왜군의 문서를 우송하던 군졸들과 충돌하였다가 결국 왜군의 주력 부대와 싸워 왜적 10여 명을 죽이고 30~40리까지 왜군을 퇴각시키는 전과를 올렸답니다 ... 박헌 자신도 조총에 맞아 전사하였습니다. 박진은 형의 전사 소식을 듣고 곧 달려가 의병과 왜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인 곳에서 형의 시체를 찾아 선영에 장사지냈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의병과 왜군의 흘린 피가 내를 이루었고 피비뿔내가 주위를 진동하게 되어 이 내를 ‘비릿내천’이라 부른 것 등이 있습니다 ... 1598년 전후 7년 여의 왜란이 끝나자 사래리에서 힘을 다해 어머니를 모시던 박진은 의병장으로서 활약이 인정 되어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감독하던 일을 하고 많은 선공감의 감역관에 특채되었고, 또 효를 지키는 참봉이 되었습니다. 참봉이 된 지 삼년 여 만에 내섬시의 종6품 벼슬 주부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⁶²⁾

라고 하였다. 148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박진의 아버지 박철정(朴鐵貞)이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 장군 휘하에서 활동하였다는 것과 임진왜란이 끝나고 1598년에 박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3. 박진(朴震)으로 인하여 왜곡(歪曲)된 지명(地名)

지명(地名)은 곧 역사(歷史)다. 지명이 올바르게 곧추 서 있어야 무슨 연구를 하든지 시작을 할 수 있다. 사실 지명 하나를 끄집어내면 역사·인물·지리·유적·어원·풍속·설화·족보 등이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나온다.

61)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마·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25. 큰 망골과 작은 망골과 비린내, p170.

62) 《재미있는 부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제4편 부천을 빛낸 사람들. 1. 외세에 항거한 의병 박진, p181~185.

그래서 지명학(地名學)을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선 지명학은 역사학(歷史學)·지리학(地理學)·어원학(語源學)을 동시에 15년 정도는 연구를 해야 겨우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문(漢文)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입문을 할 수 있다 보니, 지명학(地名學)이 인문학의 꽃 인줄은 알지만 연구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사실 전문 지명 학자들은 골동품 같은 존재로 '살짝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는 올바르게 해낼 수 없다. 마치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범인을 잡는 강력계 형사들과 같다고도 할 수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전국 각 지역마다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난무(亂舞)하는 향토지명이다. 아예 모르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미상(未詳) 처리를 하여 후학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꼭 아는 체를 하는 것이 문제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게 낙서를 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지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 되는 것인데 강의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우리 부천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 아래 거론되는 지명들은 부천의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지명들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둔대산(屯垓山)과 둔덕산(屯德山)과 춘덕산(春德山)

위 세 지명의 원형은 '둔대산(屯垓山)'⁶³⁾으로 의미가 다 같은 지명이다. '둔'은 그 어원이 "두던丘,阜,坡: 두던은 ㄴ이 첨가되어 현재는 둔덕으로 쓴다. 두던(阜)(訓蒙字會 上3)·두들ㄱ(訓蒙字會 上3)·두던·두들ㄱ의 어근은 '두ㄷ'"⁶⁴⁾이다. '대(垓)'는 '터'를 말한다.

곧 '둔대산(屯垓山)·둔덕산(屯德山)·춘덕산(春德山)'은 위에 말한 '둔덕'의 이두어(吏讀語)로 아주 단순한 의미의 지명이다. 이 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곡초등학교 바로 뒷산을 말하는데 산이 불룩하게 둥그러니 생겼다.

이런 지명은 전국에서 무수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길게 말할 것은 아니기에 몇몇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매둔지(뫼둔지)"⁶⁵⁾·덕둔지(德屯地)⁶⁶⁾·이둔지(泥屯地)⁶⁷⁾·배두둑⁶⁸⁾·둔지들⁶⁹⁾·"⁷⁰⁾

63)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64) 《고어사전(古語辭典)》(교학사, 1997년), p195-196.

65) 《영월군지(寧越郡誌)》(영월군지 편찬실, 2002년) 영월읍 영흥리. 들녘 뒤에 있는 둔덕지이다, p535.

66) 《한국지명총람》2 (강원권, 한글학회) 정선군 정선면 회동리, 둔덕이 짐, p393.

67) 《한국지명총람》2 (강원권, 한글학회) 철원군 근남면 마원리. 진흙이 많은 둔덕진 곳, p403.

68) 《한국지명총람》2 (강원권, 한글학회)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언덕이 있는 마을, p486.

69) 《한국지명총람》2 (강원권, 한글학회) 평창군 대화면 신리. 둔지로 되었음, p487.

70)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둔지로 되었음, p204.

등이 좋은 예라 하겠다.

따라서 부천시 역곡1동의 둔대산(屯堡山)·둔덕산(屯德山)·춘덕산(春德山)은 같은 의미의 지명이다. 어느 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자학(漢字學)에 대단히 박식(博識)한 사람이 춘덕산(春德山)으로 부른 듯하다.

하여간에 ‘봄 춘(春) 자를 ‘움직임/어려울 준(春)’⁷¹⁾으로도 읽는 것은 언어적 조상이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봄 춘(春) 자의 원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봄 춘(春) 자의 갑골문은 봄별(日)에 풀(艸)이 땅을 뚫고 어렵게 나오는(屯) 것을 상형한 한자이다.

그래서 ‘어려울 준(屯)’으로도 읽는 것이다. ‘봄 춘(春) 자를 알기 전에 ‘진칠/언덕 둔, 어려울 준(屯)’⁷²⁾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순서이겠기에 잠시 알아보고 하겠다. 중국의 갑골문 연구가 유홍룡(劉興隆)이 편찬한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1993년 발행)을 보면, 이에 대해서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그림 1〉 고대(古代) ‘둔(屯)’의 갑골문(甲骨文) 자형(字形)⁷³⁾



“둔(屯)은 어려움이다. 초목이 갓 돌아난 것을 상형한 것이다. 둔연(屯然)은 어렵다는 것이다. 썩이 -을 뚫은 것인데 -은 땅이다. 그러므로 끝이 구부러졌다(屯難也 象形草木之初生屯然而難從艸——地也尾曲)”⁷⁴⁾

라고 하였다. 썩이 단단한 나무를 뚫거나 껍질을 뚫고 어렵게 썩이 나오는 것을 상형한 한자가 ‘둔(屯)’자로, 위에서 보았드시피 ‘둔(屯)’자 위에 가로 빼침이 썩이 더디게 자란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봄 춘(春)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 허신(許愼)은,

〈그림 2〉 고대(古代) 갑골문(甲骨文)의 ‘춘(春)’의 자형(字形)⁷⁵⁾



71) 《한한대사전(漢韓大字典)》(민중서림, 1966년).

72) 《한한대사전(漢韓大字典)》(민중서림, 1966년).

73)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홍룡(劉興隆), 1993년).

74) 《설문해자(說文解字)》(허신(許愼), 후한(後漢) 때 발행).

75)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홍룡(劉興隆), 1993년).

“봄은 미(推)는 것이다. 풀의 의미를 따르고 해의 의미를 따른다. 봄에 나는 것이다. 둔(屯)은 소리이다(春推也從艸從日春時生也屯聲)”⁷⁶⁾

라고 하였다. 그러나 허신은 갑골문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19세기말에 발견된 갑골문(甲骨文)에는 ‘둔(屯)’ 자를 ‘봄 춘(春)’ 자로 실제로 쓴 경우도 있다. “둔용작춘(屯用作春 : 둔(屯)으로 춘(春)자의 의미로 쓴 것도 있다)”⁷⁷⁾ 라고 하면서 발견된 갑골문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모자 모(帽)’ 자를 양의 뿔로 해석하는 것이 좀 의아할 것이다. 갑골문에 보면 ‘양의 뿔(羊角)로 머리에 장식’⁷⁸⁾ 을 하였다. 그런 연유로 후에 모자의 의미가 된 것이다.

어쨌든 위와 같은 갑골문의 의미를 누군가 다 알고 ‘둔대산(屯垔山)/둔덕산(屯德山)’ 을 춘덕산(春德山)으로 불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부천사연구》1집(1993년)에서는,

〈그림 3〉 봄이 와서 양의 뿔을 베었다(來屯伐帽)⁷⁹⁾



“둔대란 글자 그대로 군사가 주둔했다는 뜻이다”⁸⁰⁾

라고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둔대산(屯隊山)’⁸¹⁾ 이라 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박진을 위해 태어난 날조된 지명이다.

본래 있었던 ‘둔대(屯垔)’⁸²⁾ 라는 지명을 무시하고 군대의 주둔을 뜻하는 ‘둔대(屯隊)’⁸³⁾ 로 바꾸고, 임진왜란 때 박진이 왜적을 물리쳤다는 허무맹랑한 역사를 만들어서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박진의 아들 박문필(朴文弼)의 묘소 기록을 보면 “박문필(朴文弼) 장사라일둔대동(葬士羅日屯垔洞)”⁸⁴⁾ 이라 하였고, 1985년 문헌에는 “둔대산(屯垔山) 【산】벌미산”⁸⁵⁾ 이라고 기록하였는데 불과

76) 《설문해자(說文解字)》(허신(許慎), 후한(後漢) 때 발행).

77)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홍광(劉興隆), 1993년).

78)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홍광(劉興隆), 1993년).

79)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홍광(劉興隆), 1993년).

80)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라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5. 뿔골과 둔덕골, p168.

81)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라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5. 뿔골과 둔덕골, p168.

82) 《죽산박씨족보》(1771년) 3권. 죽산박씨 연흥군과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83)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라 - 제2편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15. 뿔골과 둔덕골, p168.

몇 년 뒤에 왜곡을 하고 말았다.

2) 벌응절리(伐應節里)

죽산박씨 족보에 의하면 벌응절리(伐應節里)는 27세손 박세재(朴世梓, 1656生)의 묘소(墓所)를 “묘벌응절리(墓伐應節里)”⁸⁶⁾로 기록한 것이 처음이다. 그의 형 “박세환(朴世桓, 1655년생)과 아버지 26세손 박상초(朴尙初, 1632~1694)는 사래리(士來里)”⁸⁷⁾에 묻히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박진과 관련하여 생긴 지명이라고 왜곡을 하였다. 벌응절리는 조선시대 “부평군(富平郡) 옥산면(玉山面) 벌응절리(伐應節里)”⁸⁸⁾로 기록되어 있지만 언제부터 불렸는지는 미상(未詳)이다.

이후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에 ‘벌응절리’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소지명으로 ‘사래울’이 남아 있었기는 했지만 이미 ‘벌응절리’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서울 구로구의 오류동에도 ‘벌응산(伐應山)’⁸⁹⁾이 있지만 이 산 역시 유래는 미상이다. 차후 두 지명을 연구과제로 남긴다. 다만,

“역곡동(驛谷洞)(별은저리, 벌은저리, 벌응저리, 벌응절, 역골, 역마골, 역곡)[동]본래 부평군 옥모(山면 지역으로서 별은저리가 되므로 ‘별은저리, 벌은저리, 벌응저리, 벌응절, 역골, 역마골, 역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래리를 병합하여 벌응절리라 해서 부천군 계남면(소사읍)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부천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역곡동으로 고치고 괴안동과 옥길동 일부를 갈라서 역곡동회가 됨”⁹⁰⁾

이라고 하였다.

3) 사래울(士羅日/仕內谷/仕乃日)

역곡2동 ‘사래울’과 역곡1동 ‘벌응절리(伐應節里)’는 과거에는 한 마을로 본래는 ‘사래울’이었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그동안 ‘사래울’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참담하게 왜곡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발단은 《부천사연구》1집(1993년)에서 사래울에 대해서,

84)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85)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1.

86)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원족보도서관/《죽산박씨족보》(1879년) - 국립중앙도서관.

87)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원족보도서관/《죽산박씨족보》(1879년) - 국립중앙도서관.

88)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89)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1911년).

90)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5.

“이곳은 임진왜란 때 권을 장군 휘하에 있던 박철정이 광주군 번송에서 이곳에 와 ‘선비가 왔다’ 해서 사래리(士來里)라 불렀다 한다.”⁹¹⁾

고 왜곡을 하였다. ‘사래울’은 순수한 고유지명으로 마을의 지형이 길다고 해서 유래한 지명이다. 전국에 많이 나타나는 관련한 지명중에 골짜기가 길다고 해서 유래한 ‘사랫골’⁹²⁾ 처럼 역곡2동의 사래울 역시 속칭 ‘사래울산’이라 불리는 산줄기가 역곡역 앞 옛 꽃동네까지 말이랑처럼 길게 뻗어 내린 ‘사래’ 같다고 해서 유래한 단순한 지명이다.

또한 사래울산은 사래울 뒷산을 말하는 단순한 지명으로 역곡2동 동부아파트 단지 뒷산에 있는 배수지(配水池) 일대의 산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그동안 ‘세렬산’⁹³⁾ 이라고도 불렀는데 ‘사래울산’이 옳은 지명이다. 두 집안의 족보를 살펴보니,

1-(청주양씨족보)(1690년) 楊子淳(1450生) 墓富平仕內谷前

2-(죽산박씨세보)(1771년) 朴鐵貞: 墓葬富平玉山面土羅日

朴 震: 墓上同

朴文弼: 葬仕羅日

3-(청주양씨가첩)(1780년경) 楊子淳(1450生) 墓葬于富平仕乃日

4-(죽산박씨세보)(1889년) 26세 朴尙初(1632~1694) 墓土來里 - 처음 등장

5-(죽산박씨세보)(1889년) 27세 朴世梓(1656生) 墓伐應節里 - 처음 등장

이라 기록을 하였는데 이들의 묘소 위치는 현재 역곡1동 벌웅절리에 있다. 최근에 “사래동/사래리/사래골: 벌웅절리 남쪽에 있는 마을”⁹⁴⁾이라 하였고 지도에 ‘사래리’⁹⁵⁾를 표기하였다. 하여간 두 집안의 족보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 보면, 본래의 ‘사래울’이 두 마을로 나뉜 것임을 알 수 있다.

○ 사래울(仕乃日/土羅日) 1-벌웅절리(伐應節里) - 벌웅절 1리-역곡1동(驛谷1洞)
2-사래리 - 벌웅절 2리-역곡2동(驛谷2洞)

위 족보에 나타나는 ‘사내곡(仕內谷)’⁹⁶⁾·사내일(仕乃日)’⁹⁷⁾·사라일(士羅日)’⁹⁸⁾·사래리(士來里)’

91)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나·제2권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5. 사래리(일명 새를: 土羅日, 涉下里, 土里月), p166.

92) 《한국지명총람》2 (강원권, 한글학회 1985년), p26.

93) 부천시 지적 임야 약도(1997년).

94)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5.

95) 71년도 새서울 도로변지, 도시계획 약도(1972년).

96) 《청주양씨족보》(1690년), 《청주양씨족보》(1766년).

97) 《청주양씨가첩》(1780년).

98) 《죽산박씨족보》(1771년 간행) 3권, 죽산박씨 연흥군파종회(延興君派宗會) 사무실 복사본.

⁹⁹⁾ 는 한자의 뜻하고는 무관한 '사래울'의 이두식(吏讀式) 한자 지명이다.

4) 베리내/벼리내(別仁川)

'베리내'는 문헌에 '別仁川(별인내)'¹⁰⁰⁾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였다. 이후 부천 향토사의 효시(嚆矢)랄 수 있는 《부천예총(富川藝總)》(1977년)과 《부천의 흐름》(1982년)에는 '베리내'와 관련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부천사연구》1집(1993년)에서,

“벼릿내란 명칭의 유래는 큰 망골과 작은 망골에서 매우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술한 인명 피해로 많은 군사가 피가 흘러내려 오래도록 피비린내가 낫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¹⁰¹⁾

라고 왜곡을 하였다. 하여 의문을 품고 '別仁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벼랑과 관련한 지명이 있다. '別仁川'는 '벼랑내'의 이두식(吏讀式) 지명으로 문헌을 살펴보니,

- “1-【별】벼랑. 六月 八 보로매 아으 별해 브론 빗 다흐라(樂學軌範)
삭삭기 세월에 별해 나노 구은 밤 닛 되를 심고이다(鄭石歌)
2-【별해】벼랑에. ㅎ 첨용어 별 의 부사격
3-【별해】벼랑에. ㅎ 첨용어 별 의 부사격”¹⁰²⁾

이라는 것으로 보아 벼랑의 중세어는 '별해/별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지명 학자 천 소영은,

“벼로)별(ㅎ)벼랑(儻) - 심하게 비탈진 남떠러지. 곧 벼랑(儻)은 중세어에서 '별(ㅎ)'로 쓰였지만 지명에서 는 벼로/벼루/벼리/벼러/벼레/벼레/빙애 등 다양한 이 형태로 나타난다.”¹⁰³⁾

라고 하였다. 따라서 '베리내'는 '벼랑처럼 개울이 깊다'고 해서 붙여진 단순한 지명인 것이다. 곧 '벼랑내' 베리내/베르내'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베리내의 발원지는 원미산(遠美山)으로 이 산을 '둔대산(屯垆山)¹⁰⁴⁾·장자봉(長者峰)¹⁰⁵⁾·장대봉

99)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부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족보》(1879년 간행) - 국립중앙도서관.

100)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1년).

101) 《부천사연구》(최현수, 1993년) 마 - 제2권 지명유래 <4. 원미산 일대> 25. 큰 망골과 작은 망골과 비리내, p170.

102) 《고어사전(古語辭典)》(교학사, 1997년), p682.

103) 《한국 지명어 연구》(제2권 고유 지명어 고찰) (천소영, 2003년), p231.

104)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1.

105)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1.

(長臺峰)¹⁰⁶⁾이라 불렀고, 또한 '벼락산'¹⁰⁷⁾이라고도 불렀는데 필자는 '벼락산'에 주목하고 '별인내(別仁川)'의 유래는 '벼랑'에서 유래했다고 확신하고 연구를 해왔다.

여기서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벼름골'¹⁰⁸⁾·'벼리꾸미'¹⁰⁹⁾·'벼락바우'¹¹⁰⁾·'꽃벼루'¹¹¹⁾·'벼리실/벼실(別谷里)¹¹²⁾·'비랭이/베레이(別陽)¹¹³⁾·'베리골(別梨谷)¹¹⁴⁾ 등은 모두 벼랑의 의미를 지닌 향토지명들이다. 차후 더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만 그친다.

4. 박진(朴震)의 기념비(記念碑) 현황(現況)

1) 의병장(義兵將) 박진(朴震) 기념비(記念碑)¹¹⁵⁾

(사진 1) 의병장(義兵將) 박진(朴震) 기념비문(紀念碑文)



조선 중기는 국사상 수난기였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의 피나는 노력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직면해 우리 지방에서 몸소 항거한 이가 계암(桂菴) 박진(朴震)이다. 진(震)은 부천에 정착한 박철정(朴鐵貞)의 이자(二子)이자 김종서(金宗瑞)의 사위인 계공랑(啓功郎) 박금손

106) 《한국지명총람》17 (경기권 상, 한글학회 1985년), p362.

107) 《부천 땅이름 이야기》(부천문화원, 2001년).

108) 《한국지명총람》(강원권, 2권) 양양군 서면 명개리 - 벼랑이 진 골짜기, p215.

109) 《한국지명총람》(강원권, 2권) 양양군 서면 연창리 - 낭떠러지가 있는 마을, p228.

110) 《한국지명총람》(강원권, 2권) 정선군 동면 화암리 - 낭떠러지 바위, p378.

111) 《한국지명총람》(강원권, 2권) 정선군 북면 여량리 - 낭떠러지 고개, p382.

112) 《한국지명총람》(충북권, 3권) 단양군 매포면 별곡리 - 벼리(벼랑)가 있으므로 '벼리실/벼실'이라 함, p111.

113) 《한국지명총람》(경기권, 上 17권) 파천시 별양동 - 벼랑이 있는 마을, p179.

114) 《영월군지(寧越郡誌)》(영월군지 편찬실, 2002년 발행)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 골짜기가 매우 깊고 벼리(베리) 밑에 있으므로 '벼리골/베리골'이라고 불렀다, p535.

115) 1992년 11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에 세운 기념비이다.

(朴金孫)의 4세손이다.

철정(鐵貞)은 행동이 공정하고 경서에 밝아 군자라 칭해졌고 마을 이름을 사래리(士來里)라 불리게 되었다. 진(震)은 사래리(士來里)에 기거한지 삼 년 만에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었고, 복상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여 부친을 재침략하면서 마을을 마구 노략질 하자 노복과 인근 마을 장정 이백 여명을 거느리고 임진년 구월 구일 둔대산(屯垔山)에 주둔하였다.

이날 문서를 우송하던 왜군을 보고 추격하면서 주력 부대와 싸워 십여 명을 죽이고 삼십 리까지 퇴각시켰다. 왜란이 끝나고 사래리(士來里)에서 힘을 다해 모친을 봉양하던 진(震)은 의병장으로서의 활약이 인정되어 선공감 감역(繕工監 監役)의 감역관(監役官)으로 특채 되었다. 이후 효릉참봉(孝陵參奉)을 거쳐 내섬시 주부(內贍寺 主簿)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고령 박씨(高靈朴氏)와의 사이에서 삼남 이너를 둔 진(震)은 대를 이어 효행을 제일로 삼았고 이는 죽산 박씨(竹山朴氏)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¹¹⁶⁾

서기 1992년 11월 일단(一檀) 최현수(崔鉉洙) 짓고

정산(靜山) 김세규(金世奎) 쓰고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삼가 이 사업을 추진함

2) 의병장 박진 승전비(義兵將 朴震 戰勝碑)¹¹⁷⁾

이곳 둔대산(屯垔山) 정상은 임진왜란 때 우리 고장 의병들이 힘을 모아 왜군을 물리친 곳이다. 임진년 구월구일 문서를 우송하던 왜군을 발견하면서 전투는 시작되었다. 결국 왜군 십여 명을 죽이고 주력부대를 삼십 리까지 퇴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때 의병을 지휘한 장수는 임진왜란 발발 삼 년 전에 역곡이동 사래리(士來里)에 정착한 죽산박씨(竹山朴氏) 진(震)이다. 진(震)은 복상하던 왜군이 총 퇴각하여 재침략하자 노복과 인근 마을 장정 이백 여명을 거느리고 둔대산(屯垔山)에서 싸워 형인 헌(憲)은 비록 전사했으나 진(震)은 개가를 올린 것이다.

서기 1992년 11월 일단(一檀) 최현수(崔鉉洙) 짓고

정산(靜山) 김세규(金世奎) 쓰고

의병장 박진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삼가 이 사업을 추진함

116) 1992년 11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에 세운 기념비이다.

117) 1992년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마을 뒤 윤덕약수터 앞에 세운 기념비이다.

〈사진 2〉 1992년 세운 전승비(戰勝碑) - 춘덕산(春德山) 악수터 앞



의병장 박진 전승비문(義兵將 朴震 戰勝碑文) - 후면(後面)

3) 의병장 박震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¹¹⁸⁾

- 고문 : 박제환, 신능순, 안동선, 박규식, 원혜영, 최기선, 임무웅, 박광성, 이은기, 송승영, 정범영, 한기영, 최은휴, 박노승, 최간열, 심정기, 강희대, 한방교, 이상호
- 명예위원장 : 전창성 부천시장
- 위원장 : 송철흠 부천시시의회 의장
- 부위원장 : 박태선 부천시 남구청장
김홍식 부천시시의회 부의장
- 상임위원 : 최현수 부천역사연구소장
- 위원 : 이강구, 이문재, 변관수, 이 왕, 공영희, 원목희, 김기주, 조종호, 김덕조, 지경의, 김영일, 강태영, 임광인, 이말선, 김동선, 강문석, 강근옥, 임근규, 이문수, 최용섭, 양오석, 김혜은, 이병일, 전만기, 이후복, 이해형, 양재오, 최순영, 이강진, 박상규, 박제덕, 모인진, 강신권, 서병만, 윤호산, 이정석, 김태현, 이영자, 이갑만, 변용순, 오강열, 이종길, 김일섭, 김옥현, 정월남, 강영석, 장명진, 이사면, 한도한, 박노운, 윤강렬, 이범관, 한기원, 장경내, 전연옥, 민충환, 김광목, 구자룡, 이무근, 이강용, 김원준, 구본석, 이종인, 강광웅, 임영담, 이종욱, 강성모, 박외석, 홍건표, 박태웅, 박태규, 송재식, 황영철, 이연호, 정윤종, 공정기, 백수현, 이병성, 한기천, 한진기,

118) 1992년 11월 9일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에 세운 기념비이다.

김종진, 최낙구, 안봉식...(하략) 이하 죽산박씨 후손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4) 의병장 朴震 기념비 및 묘 안내판¹¹⁹⁾

2003년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부천 문화유적 지킴이) 사업

박진은 호를 계암, 자를 이전이라 하였으며 사래리에 기가한 지 삼 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00여 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1592년 9월 9일 둔대산(현, 원미산)에 주둔하였다. 왜군과 싸워 주력부대를 30~40리까지 퇴각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1598년 의병장으로서의 활동이 인정되어 선공감의 감역관에 특채되었고 또 효릉참봉이 되었다. 참봉이 된 지 삼 년여 만에 내설시의 주부가 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는 벌용절리 능골 기념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1992년 의병장 박진기념비추진위원회에 의해 기념비와 전승비가 묘 입구와 전승지 초입에 세워져 그의 뜻을 길이후대에 기리도록 하였다.

주최 : 사단법인 부천역사문화재단

후원 : 부천상공회의소, 경인문고, 경인여행사, 부천관광호텔, 세종병원, 장원학원, 중동신문, 탑웨딩홀부대

5) 부천시(富川市)의 향토유적(鄉土遺蹟) 현황(現況)

○ 비지정 향토 유적 관리 대상 번호¹²⁰⁾

부천시 - 5호 오정구 고강동 316-2번지 청수정

6호 오정구 작동 127번지 여흥민씨 고택

7호 오정구 고강동 산 63-7번지 변삼근 묘

8호 오정구 고강동 산 63-7 번영로 묘 및 기념비

9호 원미구 도당동 산 36번지 아기장수바위

10호 원미구 중동 756-7번지 장말 도당집

11호 원미구 춘의동 102-8번지 당아래고개 지명유래판

12호 원미구 역곡1동 산 119번지 박진의 묘

위에서 보았다시피 부천시청 문화예술과에 부천시 향토유적 비지정 관리 대상 12호로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 박진 묘>를 비지정 대상으로 하였다. 비지정 향토 유적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19) 2003년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단법인 부천역사문화재단에서 세운 안내판이다.

120) 부천시 관리번호-12호 - 원미구 역곡1동 119번지 박진 묘 - 출처 :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6) 《디지털부전문화대전》(2008년)의 박진(朴震) 기록

[정의]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부천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활동사항] 박진은 임진왜란 때 경기도 부천 망골(亡谷)어월동 범골에서 벌음절리쪽 골짜기에서 의병들을 거느리고 왜군과의 전투를 지휘하였다. 당시 많은 의병들이 죽어 망골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III. 결론(結論)

역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물(共有物)이다. 더욱이나 공적(公的)인 역사라면 더욱더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다. 이 땅 위에 남겨진 역사는 후손들도 보아야 하기에 마땅히 올바르게 남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만큼 역사를 다룰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반드시 역사적 근거에 의거하여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기록해야만 비로소 역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대체로 향토사(鄉土史)에 왜곡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각 집안마다 족보를 발행할 때, 후대에 와서 선조의 구전(口傳)된 역사를 덮어 놓고 윤색(潤色)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기록한 족보가 100년 혹은 200년 뒤에 향토사를 왜곡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 제10차 청주양씨 대동보편찬위원회에서 역사위원과 교정(校正)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가끔씩 지방에서 터무니없이 장황하게 쓴 묘비문(墓碑文)이나 자손록(子孫錄)을 가지고 올라와서 넣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필자는 “고증 없는 기록은 옳리지 못합니다.” 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을 되돌려 보낸다.

대동보(大同譜)는 각 집안마다 대략 30년을 기간(期間)으로 하여 편찬을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넣기가 쉽지가 않다. 후손들 입장에서는 선조님들의 자손록을 하나라도 더 넣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넣기가 무척 어렵다. 관직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관직에 맞는 품계를 넣어달라는 말조차도 어렵게 사정하다시피 할 정도다.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꼭이 어는 한 집안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왕이면 자기 조상님들의 역사를 하나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이야 인지상정(人之常情)이기는 하지만, 대동보편찬위원회 역사위원의 눈을 피해서 단 한 글자도 넣을 수 없다.

박진(朴震)의 역사 왜곡만 해도 그렇다. 죽산박씨 창시보(創始譜)인 《죽산박씨세보》(1771년) 간

행 이후에, 집안에서 구전(口傳)된 선조(先祖)의 역사를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조(先祖)의 자손록을 필사 추가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 첫째, 역사 고증(考證)없이 선조의 윤색(潤色)에만 신경 쓰다가 필사(筆寫) 추가(追記)한 내용이 중첩될 수 없이 부실(不實)해졌다는 점.
- 둘째, 보학(譜學)에서 요구하는 부자간(父子間) 또는 후손들과의 상식적인 생물학적(生物學的) 나이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
- 셋째, 지역의 눈과 귀가 되는 향토사 기록이 전무(全無)하다는 점.

이런 까닭으로 하여 필사 추가한 내용을 새로 발행하는 대동보(大同譜)에 계속하여 넣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연구 고찰을 하면서 꼭 박진(朴震)이 아니더라도 관련한 문중의 선조 중에서 미미(微微)하나마 임진왜란 당시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막연하게 필사 추가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홍순민(洪順敏)은,

“이렇게 박대남과 그 부친 박문좌에 대해 추가하면서 더 올라가 박진과 박철정 까지도 추가가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당시 죽산박씨 가문에서 있었던 ‘작은 소극적 저항’을 후대에 연도를 착각하여 박진으로 비견, 과장 미화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¹²¹⁾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간과하고 필사 추가한 족보 내용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부천사연구》제1집(1993년)에서 최종 정리를 하여 족보 밖으로 나온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 역사가 족보 안에만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족보를 벗어나 지역의 공적인 역사로 나올 경우에는 문제는 사뭇 달라진다. 족보는 지극히 씨족(氏族) 개개인의 기록이기에 왜곡을 한들 남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왜곡된 역사가 족보 밖으로 뒤흔쳐나올 때는 객관적인 고증 사료(史料)를 철저히 요구 받는다.

역사(歷史)와 철저(徹底)! 여기서 철저는 없고 구전(口傳)만 가지고 역사가 만들어졌다면 ‘그 역사가 과연 올바른 역사인가?’ 하고 인식하는 순간 학자들은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학자에게 물음표는 존재의 이유 그 자체다. 물음표를 알고도 모른 체해도 학자라고 할 수 없고, 물음표 자체를 던질 줄 모르면 그 역시도 학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번 〈박진(朴震)의 역사(歷史) 왜곡(歪曲)에 대한 고찰(考察)〉 역시 물음표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21)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홍순민, 2012년 10월), p20.

물론 잘못된 역사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심도(深度)있게 고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진(未盡)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추후 더 고찰을 하도록 하겠다.

사실, 박진(朴震)의 역사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부천(富川)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얘기를 잘못 꺼냈다가 팬스레 문중과 마찰을 빚을까 저어하여 쉬쉬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와 역곡동에 거주하는 죽산박씨 옥산문중(玉山門中) 대표로 박희상(朴熙相), 박태식(朴台植), 박병화(朴柄和) 씨와 여러 번 만났다. 논의할 때마다 문중을 욕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함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옥산문중(玉山門中)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번 필자의 줄고(拙稿) 〈왜곡된 박진(朴震)의 역사연구〉이 발행되면 부천시청 문화예술과, 홍보기획관실, 원미구청 등의 관계기관에 잘못된 역사를 알리어 기존의 안내관 등을 바로잡거나 차후 발행하는 책자에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문을 보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 고찰에 도움을 주신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구자룡(具子龍) 소장님을 위시한 연구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자료를 협조해주신 부천족보도서관 김원준(金元俊) 관장님, 명지대학교 홍순민(洪順敏) 교수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번 고찰에 많은 격려와 고견(高見)을 들려주신 부천문화원 박형재(朴亨在) 원장님, 부천문화원 부원장 겸 향토문화연구소 이강인(李康仁) 연구위원님, 부천문화원 최의열(崔義烈) 사무국장님, 심재석(沈在石) 영화감독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아울러 여러모로 도움을 준 부천문화원 김대민(金大敏) 팀장님, 김시자(金是子) 대리님, 이은경(李垠暻) 대리님, 이미혜(李美惠) 총무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고찰(考察)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갑골문자전(甲骨文字典)》(유흥룡(劉興隆), 1993년)
- 《경기도부천군세일반(京畿道富川郡勢一斑)》(1930년 6월)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 《경기도의 마을 신앙과 제당(祭堂)》(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년)
- 《고려조어연구논문집(高麗朝語研究論文集)》(한국국어교육학회, 2003년)
- 《고어사전(古語辭典)》(교학사, 1997년)
- 《국어어원사전(國語語源辭典)》(서정범, 2000년)
- 《대동지지(大東地志)》(1863년)
- 《대한민국 지방행정구역명감(大韓民國 地方行政區域明鑑)》(1963년)
-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년)
- 〈박진(朴震) 관련 역사(歷史) 왜곡(歪曲) 주장에 대한 대응〉(홍순민, 2012년 10월)
- 《문화유적분포도(文化遺蹟分佈地圖)》(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년)
- 《부천 고강동 선사유적 제4차 발굴조사서》(한양대학교 박물관, 2000년)
- 《부천 땅이름 이야기》(부천문화원, 2001년)
- 《부천사연구》제1집 (최현수, 1993년)
- 《부천시사》(부천시사편찬위원회, 1988년)
- 《부천시사》1권~5권 (부천시편찬위원회, 2002년)
- 《부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적》(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8년)
- 《부천예총(富川藝總)-부천의 발자취(예총 부천지구회, 1977년)
- 《부천의 흐름》(부천시 문화공보실, 1982년)
-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42년, 1871년, 1899년)
-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역주(譯註)》(인천광역시, 2005년)
- 《부평사(富平史)》1권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년)
- 《선조실록(宣祖實錄)》
-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1808년) 단옥재(段玉裁) 注
- 《순천김씨대동보》(1984년)
- 《신증동국여지승람》(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69년 국역)
- 《신증유합(新增類合)》(1576년) 유희춘(柳希春) 증보(增補), 편찬(編纂)
- 《신편갑골문자전(新編甲骨文字典)》(유흥룡(劉興隆), 1993년)
- 《여도비지(輿圖備志)》(1856년)

《여지도서(輿地圖書)》(1765년)

《재미있는 부친 이야기》(최현수, 1996년)

《조선부군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년)

《조선왕조사(朝鮮王朝史)》〈역대제왕 자녀 일람표(一覽表)〉(1989년)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년)

《조선지리지(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1911년)

《조선총독부군도면정리명칭일람(朝鮮總督府群島面町里名稱一覽)》(1943년)

《죽산박씨세보》(1771년) 필사(筆寫) 주기(追記)한 족보/부친족보도서관.

《죽산박씨세보》(1771년) 죽산박씨 연풍군파종회본.

《죽산박씨족보》(1879년) 부친족보도서관본/국립중앙도서관본.

《죽산박씨족보》(1939년) 부친족보도서관본/국립중앙도서관본.

《죽산박씨족보》(1959년) 부친족보도서관본/국립중앙도서관본.

《중국한자원류(中國漢字源流)》(동곤(董琨), 2005년)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년, 1914년, 1929년, 1932년)

《청주양씨(淸州楊氏) 가첩(家牒)》(1780년경)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1690년)

《청주양씨족보(淸州楊氏族譜)》(1766년)

《한국지명총람》(전국편, 18권, 1966년~1986년)

《한한대사전(漢韓大字典)》(민중서림, 1966년)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근대 문화재 제408호 연천유엔(UN)화장장

이 준 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1. 전쟁말기 정전협상 중에 임시 건립된 연천유엔군 화장장
2. 한반도 전세의 역전을 가져온 인천상륙작전
3. 전쟁 초기에는 평온하기만 했던 연천
4.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는 연천
5. 금굴산 전투로 세워지게 된 전시 임시 화장장
6. 금굴산을 점령하면서 휴전선은 훨씬 북쪽으로 이동
7.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시 유엔(UN) 임시 화장장
8. 국내에 산재된 수많은 6. 25전쟁 기념물들
9. 이곳을 안보관광 콘텐츠로 이용 최고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
10. 맺는 말

집필자

이 준 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1. 전쟁말기 정전협상 중에 임시 건립된 연천유엔군 화장장

2008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08호로 지정된 연천 유엔(UN)화장장은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 유엔화장장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전사한 UN군 전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952년 건립한 전시 임시 화장장이다. 이 화장장은 휴전 이후에도 짧게 사용되어 오다 전쟁이후 자연히 폐기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 남아 있는 구조로 보아 하나의 큰 건물과 화장시설 등이 확인되며 주위에는 40년생 내외의 활엽수가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다.

〈그림 1〉 2008년 근대문화재 제 408호로 지정된 유엔화장장 표지판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휴전이 진행되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전개될 당시인 1952년, 백기애군과 영국군이 이곳의 금굴산 전투에 투입되면서 많은 유엔군의 희생이 따랐는데 전선에서 희생된 유엔군의 유해를 화장해서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영국군이 마련

한 화장시설이었다. 이 화장터의 운영은 영국군이 휴전 이후에도 관리하였다고 한다. 전선에서 화장장이 필요할 정도였다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지금도 남북은 155마일 전선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서로를 노려보고 총부리를 겨누며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겨우 지탱하고 있을 뿐이다. 몇 년 전에는 천안함이 폭침되어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 연평도에 무단으로 북한의 해안포를 퍼붓는 바람에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하는 등 전쟁전이나 전쟁 후 아직도 긴장감은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 전쟁이 낳은 많은 상처들로 인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것은 이전의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이후의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집단은 소련의 사주를 받고 중국공산당의 모택동과 밀약 끝에 일제히 3.8선을 넘어 탱크와 우수한 화력을 앞세우고 이 땅에 물밀듯이 쳐들어 왔다. 단 3일만에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을 적에게 내어 주고 남쪽으로 쫓기듯 밀려 났다. 공산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아직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는 국군들도 강을 건너고 있는 피난민들도 모두 외면한

채 한강다리를 폭파시켜 버린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전쟁 그야말로 종전동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운명 앞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일본 동경에 있던 맥아더사령관에게 참전을 명령한다. 당시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갓 독립한 저개발국 코리아는 들어보지도 못한 지구 저편 동양의 어디인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을 뿐이었다.

2. 한반도 전세의 역전을 가져온 인천상륙작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국군과 유엔군을 몰아 붙이던 북한군은 드디어 낙동강에서 완강히 저항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계속 몰아 붙였다. 이른바 낙동강 전선이다. 낙동강 사수라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미국의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절대로 물러서지 말 것과 만일 물러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사수의 의지를 굳혔다.

이제 부산만 점령되면 모든 유엔군과 국군은 바다로 뛰어 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관에게 반격의 장소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인천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이자 만일 성공만 한다면 반격의 장소로는 최적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조수간만의 차이였다.

밀물 때에도 커다란 군함이 항구에 정박하기 어려우며 썰물 때에는 아예 접안 자체가 어려웠다. 한국전에 참여한 모든 장교들이 인천상륙작전을 무모한 도전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성공을 확신하며 상륙작전을 감행할 것을 지시했다. 드디어 9월 15일 밀물 때를 맞추어 인천까지 지에 폭격기들이 맹공격을 하는 가운데 상륙작전이 개시되었다.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다. 월미도를 점령하여 적 300여명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들을 잡았지만 아군의 피해는 고작 90여명의 부상에 그쳤다. 그리고 인천을 점령한 후 김포를 거쳐 거침없이 밀어 붙이며 결국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기에 이른다.

3. 전쟁 초기에는 평온하기만 했던 연천

해방이 되고 3.8선이 그어졌을 때만 해도 연천은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 있었다. 6.25가 발발해도 대부분의 연천 사람들은 전쟁이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파죽지세로 남쪽으로만 밀어 붙였으니 당시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은데다 대부분 산골에만 살던 마을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탈환, 그리고 3.8선 돌파를 해서 유엔군과 국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야 전쟁이 일어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한 유엔군과 국군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확신했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압록강을 건너 산속에 위장하고 숨어 있던 중공군 45만 병력이었다.

한반도의 전쟁에 항미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개입한 중공군은 인해전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또 다시 한반도를 두 동강내기 위해 거침없이 유엔군과 국군을 괴롭히며 남진해 내려왔으며 이미 서부전선은 이들에게 유리당하고 있었고 함경도의 장진호 등에서는 이들을 맞아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이미 중공군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상할만한 중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또 다시 남북이 두 동강이 났다. 중부전선을 동서로 막아 함경도 지방까지 공격했던 유엔군과 국군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홍남부두 철수작전이다. 이 철수작전에는 군인들만 배에 태운 것이 아니었다. 공산치하에서 치를 떨던 수많은 피난민들도 배에 타기 위해 홍남부두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멀리 부산에 정착하고 이른바 피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정착한다.

계속 밀리던 유엔군과 국군은 또 다시 서울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다. 이른바 1.4 후퇴였다. 유엔군은 서울에서 150킬로 떨어진 금강까지 후퇴했다. 서울은 다시 적에 수중에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군인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다 잡은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의 불법개입을 규탄하며 워싱턴 정부에 중국의 해상을 봉쇄하고 만주폭격을 할 수 있도록 트루만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제3차 대전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트루만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하여 1951년 4월 11일 전격적으로 맥아더 장군을 해임하기에 이른다. 해임되어 귀국한 맥아더는 미국의 의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로 모든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한국전쟁의 영웅인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해서 사라져 가고 그 뒤를 미8군 사령관이던 리지웨이 장군이 국동군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어 한국전을 종지위 하게 되었고 미8군사령관으로 밴플리트 장군이 부임을 하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밴플리트 장군은 아군의 피해를 막고 전상자를 줄이겠다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화력 증강을 요청한다. 이로 인해 생긴 것이 바로 유명한 밴플리트 폭격이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이 폭격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또다시 어떠한 도발도 일으키지 못한 채 전전공공한다.

4.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는 연천

〈그림 2〉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장군 동상



리치웨이 장군은 드디어 반격의 시기가 왔음을 깨닫고 수원을 거쳐 다시 서울을 재탈환한다. 그리고 즉시 중공군과 북한군을 몰아 3.8선 북쪽으로 밀어붙였고 또 다시 몇 개월 전의 상황이 되풀이 되었다. 이때부터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연천은 그야말로 격전지 중의 격전지가 되었다.

휴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양측은 한 치의 땅, 한 개의 고지라도 더 빼앗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처절한 마무리 전쟁이 펼쳐졌었다. 전쟁 전에는 북한 공산치하에 있던 연천이 격전지가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주변에 백마고지와 또 인접한 철의 삼각지대와 맞물려 있고 만일 이곳에서 밀리면 동두천까지 밀리는 상황에서의 연천이 격전지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곳 금굴산을 잃으면 연천은 또다시 전쟁전의 경우와 같이 북한 김일성 치하가 된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도 연천은 최대의 격전지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요한 문화유적지나 사찰 등은 하나도 남김 없이 피폭 소실되었다. 수복이 되어 연천으로 돌아오니 남아 있는 건물이라고는 연천역 앞의 급수탑만이 유일하였으며 하다못해 비석이나 석물들도 온통 총탄 자국으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금굴산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수한 덕분에 현재의 휴전선은 3.8선보다 20킬로미터 훨씬 북쪽 지역인 현재의 태풍전망대와 강서리, 고잔리를 중심으로 휴전선이 그어졌다. 아군과 유엔군 측의 작은 승리였던 것이다. 어쩌면 연천군민들은 6.25가 오히려 축복이 아닐까 하는 역발상도 해 본다.

만일 6.25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인 공산치하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유국가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자유의 십자군이 되어 불법으로 침략한 공산군을 격퇴하며 피를 흘리고 싸웠다. 어느 병사는 목숨으로, 어느 군인은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분을 이 땅에 기증했다. 그로부터 3년간의 가나나 정전협상 후 1953년 7월 27일 결국 조그마한 땅덩이리에서 벌어졌던 세계 최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은 총성을 멈춘다. 우리

연천은 이렇게 피를 흘린 유엔군 병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대한의 품에서 마음껏 좋은 공기를 마시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5. 금굴산 전투로 세워지게 된 전시 임시 화장장

유엔군의 기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패퇴하는 공산군을 쫓으며 한반도의 지형을 감안하여 서부전선은 필리핀이나 영국과 캐나다 등 유엔군이, 주로 산악지역인 동부전선으로는 한국군과 미군이 퇴각하는 공산군의 뒤를 쫓으며 전투를 벌였다. 압록강까지 진격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또 인해전술로 거머리 같이 달려드는 중공군에 밀고 밀리고 하다가 정전협상이 개시되었고 상대방 군들은 서로 정전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협상 중에도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뺏고 빼앗기는 일진일퇴 속에 많은 장병들이 전사를 했다.

금굴산은 당시 연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고 이곳 전투에 참가한 영국군과 벨기에군의 사상자가 잇따르자 영국군은 이곳 동이리에 임시화장장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동부전선은 국군과 미군이, 서부전선은 주로 유엔군 병사들이 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당시의 최고 접전지는 바로 연천이었다.

휴전협정이 진행되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 전개될 당시인 1952년, 벨기에군과 영국군이 이곳의 금굴산 전투에 투입되면서 많은 유엔군의 희생이 따랐다.

금굴산은 중요 전략적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새로 이곳을 적에게 내 줄 경우 연천은 전쟁전의 38선 즉 한반도 이남으로의 휴전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지리적 조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고지였다. 지금의 백학면과 미산면, 왕정면, 군남면은 물론 연천과 전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고지인 것이다.

영연방군 29여단은 글로스터(Gloster)대대 가 서측의 마지리 일대, 후시리어(Fusilier)대대가 동측의 어유지리 일대에 배치하고 여단에 배속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합동대대를 경계부대로서 임진강의 북쪽 금굴산에 배치하였으며 얼스터(Ulster)대대를 예비로 구용리에 집결시켜놓고 있었다.

당시 영연방 29여단은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9여단은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군의 혼합대대인 베룩스대대와 푸질리어연대의 1개대대, 울스터대대, 그로스터대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45야전포병연대, 25파운드 포대와 170밀리 박격포대대가 화력을 지원하며 센츨리언 전차 부대가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공세 때 베룩스 대대는 임진강 북쪽의 중요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인 금굴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좌측으로는 영국군 푸질리어 대대

와, 우측으로는 임진강의 가파른 단애를 사이에 두고 미 제3사단 제65보병연대와 접하고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여단정면에서 148고지(일명 캐슬고지)일대에 배치된 그로스터 대대는 임진강이라는 천연장에 물이 있기는 하지만 계절적으로 갈수기로서 곳곳이 도습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잇점은 크지 않았고 도리어 갈대밭으로 형성된 평지나 다름없어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떠한 상황이던 그로스터대대는 심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지형적인 불리점을 앓고 배치되었다.

〈그림 3〉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번지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유엔화장장



6. 금굴산을 점령하면서 휴전선은 훨씬 북쪽으로 이동

이런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모를 리 없는 중공군과 북한군은 금굴산을 차지하기 위해 완강히 저항을 하였고 파상적으로 달려드는 적군들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필연적이었다. 피아간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시 임시화장장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군 29여단은 금굴산 서쪽 동이리 현 화장장터에서 시신을 태워 그 유골을 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금굴산을 차지한 영국군과 캐나다군, 미 제3사단은 그 여세를 몰아 금굴산으로 부터 약 20키로 가량 북쪽인 고왕산(강서리)과 마량산(고잔리)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며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곳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들의 시신은 이곳 화장장을 거쳐 본국으로 그 유해가 송환되기에 이른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공군의 불법개입을 규탄하던 맥아더 장군은 만주 폭격을 미국 정부에 꾸준히 요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트루먼 정부와 마찰을 빚던 맥아더 장군이 해임되고 맥아더 장군의 후임으로 미8군 사령관이던 리지웨이 대장이 극동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전쟁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한 리지웨이 장군은 당시 한국전에서 작전지역별로 라인을 설정해 놓았다.

이 라인은 미국의 각 주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서울의 북쪽을 중심으로 의정부를 기점으로 하는 아이다호라인과 동두천과 덕정을 연결하는 델타라인, 금굴산과 전쟁전의 3.8선을 기점으로 하는 캔저스라인, 포천의 영평과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유타라인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의 삼각지대인 철원과 평강, 김화를 연결하는 와이오밍 라인이다.

이러한 라인은 전투작전에 중요하게 인용된다. 만일 한쪽 라인이 무너질 경우 다음 라인까지만 후퇴를 하고 다시 반격의 교두보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금굴산을 중심으로 하는 캔저스라인이 무너졌을 경우 그 다음 라인인 동두천과 덕정을 기점으로 하는 델타라인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금굴산을 다시 점령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당시의 휴전협상 분위기나 정세를 감안할 때 아무리 후하게 휴전선을 긋는다고 해도 결국 전쟁 전의 3.8선이던 한탄강을 휴전선으로 그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전쟁 전에 북한의 치하에 놓여 있던 연천과 포천의 북쪽 일부분이 다시 북한의 치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당시 언론의 발표를 부인하지 않으며 협상에 임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중공과 북한이 휴전협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다.

휴전협상이 막판에 다다르며 점령지를 두고 고지 쟁탈전에 더욱 열을 올리던 유엔군과 한국군, 그리고 중공군과 북한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전투지점을 휴전선으로 정한다는 암묵적 계획에 의해 휴전 직전의 전투는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일 영국군과 벨기에군, 룩셈부르크군, 그리고 캐나다군이 이곳 전선에서 패하여 금굴산을 적에게 내 주었다면 지금 우리 연천은 북한 공산당의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지배하는 북한 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곳 금굴산 전투에 보급과 지원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군 공병대의 파카소령은 마전리와 삼화리를 연결하는 목재 다리를 건설하게 되는데 파카교라고 명명되던 이 다리는 60년대 초반까지 실체가 있었으나 그 후 장마로 소실되었다.

〈그림 4〉 파카교의 한국전 당시 모습



또한 진상리와 무등리를 연결하던 목재다리인 화이트교 역시 미국 공병대의 화이트 소령이 건설하였는데 이는 고왕산과 마량산 전투에 원활한 보급수송과 전투지원을 위해, 또한 금굴산의 공격을 적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축조하였고 이 다리는 60년대 후반까지 사용되다가 야트막한 콘크리트 다리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임진교로 재건설 되었다.

당시의 경기도 연천지역은 인접한 백마고지 전투, 철의 삼각지 등 휴전회담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유엔군 희생자들이 많이 발

생하였으며 결국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엔군 시신을 처리해야 할 화장장을 별도로 이곳에 건립해야 할 정도로 서부전선의 전투는 치열하였다.

당시 이 화장장은 영국군이 시멘트와 주변의 막돌을 이용해 담장을 쌓듯 30~50cm 두께로 쌓아 7m 정도 높이의 허튼 쌓기로 굴뚝과 화덕을 임시로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영국군이 하면서 휴전 직후까지 사용하였다. 이 화장장 시설은 전쟁 당시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6.25전쟁사에 있어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이며 생생한 현장으로 마땅히 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일단 시신이 도착하면 최대의 예를 갖추고(초총 발사와 국가 연주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화장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태워진 유골을 정성껏 포장하여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한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의 시신을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있는 것이다. 필필 살아서 뛰어 다녔던 젊은이는 총이나 포탄에 맞아 시신이 되어 저 무심한 굴뚝으로 영혼을 날려 버리고 결국 한 줌 재가 되어 귀국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억조차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 영혼은 얼마나 서운할 것인가?

유엔(UN)임시 화장장은 반드시 재정립되어야 할 안보관광 콘텐츠이다. 연천은 현재 이렇다 할 만한 관광콘텐츠가 별로 없다. 다만 삼국시대부터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다투던 전쟁터이며 이후에도 연천은 크고 작은 전쟁터가 되어 전투를 치르던 곳이라는 것과 6.25이전에도 치열한 접전지역이었고 휴전이 끝난 지금도 이곳은 긴장이 감도는 최전선일 뿐이다.

특히 연천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전쟁전의 38선과 전쟁 후의 휴전선이 맞닿아 있는 유일한 곳

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안보관광산업이다. 이 안보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이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연천은 지난 60여년 간 접경지역으로 발이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또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친 격으로 수도권규제법에 묶여 더욱 개발이 못 되고 있다. 이같이 안팎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의 인프라 구축이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연천주민들의 몫으로 돌아 왔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연천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이나 사업체를 불러들이기에는 지난 60년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내해 온 청정 환경보호 효과에 대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청정연천과 연계하여 안보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땅한 이슈거리가 없다. 기껏해야 김신조 침투로를 정비한다. 제1땅굴의 모형틀을 만들어 상송 OP에서 견학시킨다. 그리고 태풍전망대를 관람시키는 이외에는 현재 마땅한 안보인프라를 찾을 수가 없다.

7.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시 유엔(UN) 임시 화장장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소재가 생긴 것이다. 바로 연천유엔화장장(UN crematorium site at yoncheon)이다. 전시 임시유엔화장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예를 찾기 힘든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좋은 소재이다. 지금은 각 나라의 외교관들이 자기 나라를 선전할 이벤트 켜리가 없어서 혈안인 실정이며 우리는 6.25의 혈맹이라는 좋은 소재가 있음에도 이런 좋은 소재를 두고도 이제껏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허송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유엔(UN)화장장의 복원과 함께 이곳에서 화장되어진 병사들의 국가와 출신지역과 병사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고 참배할 공간을 만들어 수시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참배 장소를 설치하며 6.25를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의 설치, 참전16개국의 국기와 각 나라를 상징하는 로고를 세우고 그들 나라의 대사, 또는 영사관이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여야 한다.

6.25전쟁 60주년을 지나면서 참전16개국(의료지원국까지 합하면 22개국)의 대사관 영사관을 참여시키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상사의 주재원, 교민과 유학생 관광객, 몇몇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당시의 참전 부대장들을 초빙하여 함께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싸워준 그 은혜에 엄숙히 감사를 표하고,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즐겁게 정담을 나누며 당신들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선물을 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친선교류와 국위선양은 없을 것이다.

8. 국내에 산재된 수많은 6.25전쟁 기념물들

우리나라에는 전국 곳곳에 수많은 6.25전쟁 기념물들이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다. 부산의 UN군 묘지로부터 각종 승전비, 전적 비, 순국 전물 비, 참전 기념비, 가깝게는 감악산 설마리의 영국군 참전비 등 그러나 과연 이 기념비들의 용도는 무엇일까? 바로 6.25의 참상을 잊지 말고 참전 16개국의 고마움을 잊지 말자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자고 세워놓고 강그리 다 잊고 말았다. 특히 요즘의 청소년들이나 초, 중, 고,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6.25는 잊혀진 전쟁, 남의 나라 전쟁사가 되어 버렸다. 6.25의 포성이 멎은 지 불과 60여년 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듯 6.25전쟁의 참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는 민족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그림 5〉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특히 연천은 전쟁 초기부터 또 끝나는 그날까지 6.25의 한 가운데에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던 전국의 얼마 안 되는 장소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전의 3.8선과 전쟁 후의 휴전선이 공존하는 전국의 유일한 곳이 바로 이곳 연천이다. 연천의 향토문화 유적지들이나 사찰 등은 6.25로 인해 모두 파괴 소실되어 폐허가 되었고 하다못해

비석이나 문인석들도 총탄자국이 안 난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연천은 6.25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휴전을 앞두고 땅 한 뼘이라도 적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 참전국의 젊은이들은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가며 끝없이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의 이 땅을 지켜내고 얻어준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빼앗은 그 땅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이제 갓 해방된 자그마한 나라를 위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은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의 고귀한 피를 흘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다. 지금 우리의 연천은 그렇게 해서 지켜진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졌으며 기록된 것이다.

유엔(UN)화장장은 안보관광으로 개발하여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요즘 흔히들 브랜드를 띄우려면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 한다. 6.25는 분명 국가와 민족이 겪은 참담하기 짝이 없는 비극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6.25와 관련된 기념물과 스토리는 세계적으로도 지방적으로도 우리 한국을 세계와 결속시키고 국민을 단합시킬 히스토리이고 너무도 훌륭한 콘텐츠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우리는 연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연천스러운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연천스러운 일일까? 그것은 바로 안보관광에서 찾아야 한다. 한반도 유일하게 3.8선과 휴전선이 공존하는 곳, 몇 분만 올라가도 바로 북한 땅이 되는 이곳이야말로 안보관광의 최적지가 아닐까? 그러나 안보관광의 콘텐츠가 제대로 없다. 김신조 침투로와 제1땅굴, 기껏해야 태풍전망대 관람 정도가 연천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안보관광의 전부이다.

9. 이곳을 안보관광 콘텐츠로 이용 최고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연천이라는 지방의 가장 '연천스러운' 것을 상품으로 내어 놓아야 한다. 이 유엔 화장장을 잘 활용하여 연천의 안보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각 나라의 정부와 외교관들이 자기 나라를 선전할 명분 있는 이벤트 감을 못 찾아 애태우는 것처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들은 자기 지역을 선전할 이벤트 끼리를 부지런히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휴전(정전협정) 60주년이 가까워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 화장장은 휴전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이제 2012년이면 이 화장장이 만들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013년이면 휴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때를 맞추어 이 유엔화장장은 거듭 태어나야 한다.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는 연천에는 이 화장장이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그리고 이 화장장 본래의 건립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념되어져야 할 것이다.

화장장을 원 형태로 복원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며 별도로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참전국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제일 먼저 이곳을 방문하여 추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의 대사 역시 한국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연천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국내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외교 이벤트가 될 것이며 참전했던 외국의 장병들이 그동안 소홀히 대했던 한국인의 태도에 대해서 섭섭함을 조금쯤 녹일 수도 있을 것이다. 때를 맞추어 참전국의 생존해 있는 장병들을 불러 그동안의 격조했던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며 보은에 답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참전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이는 국가발전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는 G20국가 중 무려 12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한 16개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0. 맺는 말

동이리에는 약 20만평에 달하는 미군 훈련장이 있다. 바로 이 화장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미군들이 훈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곳이 미군훈련장으로 사용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작금의 국내정세로 보서는 그리 오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질 것 같지는 않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철수와 더불어 이 훈련장도 반환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이 미군훈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곳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고 안보관광으로 연결한다. 이곳에 탱크와 전투기, 군함, 곡사포 등 이미 퇴역한 화기들을 전시하고 안보 강연장도 만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전시관을 만들어 용산전쟁기념관보다도 더 크고 웅장하게 건립하여 연천에 업그레이드된 안보관광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연천스러운' 것이다.

〈그림 6〉 용산 전쟁기념관 옥외 전시장



적지임을 각인시킨다. 연천은 지금까지도 삼국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전쟁터와 마찬가지로 안보의 최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연천지역은 과거 삼국시대부터 전략의 요충지로서 유연화장장 바로 앞에 위치한 당포성과 호로고루성, 은대리성 등에서 보여주듯이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각축을 벌이던 안보의 중요한 공간이며 한반도 중 유일하게 전쟁 전 38선과 전쟁 후 휴전선이 공존하는 유일한 장소로서 안보관광의 최

※ 참고문헌

『두산 대백과 사전』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上, 中, 下)』

국방부편찬, 『韓國戰爭史(UN參戰編)』

내가 겪은 6.25

천재원

내가 살던 동네는 1.4 후퇴 당시 피난 나간 후 불을 질러 집 한 채도 없는 폐허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양짓말 10여 가구 웅달말 여섯 가구 합쳐 20가구가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다. 양짓말 나지막한 뒷산에는 봄이면 진달래 개나리 피고, 웅달말 뒷산에는 여름에 비 온 뒤 새벽 일찍 올라가면 피코리버섯, 싸리버섯들을 따울 수 있었고, 밤나무가 많아 가을에 아름이 벌면 동네 아 이들이 새벽 일찍 밤 줍는 경쟁이 벌어졌다.

본래 우리 집은 미산면 소재지였던 마전리인데,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다. 일제시대인 1944년 여름 내가 2학년 때에 마전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진 꽤 높은 뒷산을 북으로 하고, 남쪽으로 터진 골자기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했는데, 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에 부모님이 오늘 우리 집이 이사를 가니까 학교 끝나는 대로 이리 저리 해서 이사 간 집으로 찾아오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부모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사 간 동네를 찾아 들어갔다.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려 옷은 다 젖고, 운동화는 진흙이 묻어 엉망이었다. 서너 집을 지나 한집 앞에 도달 했는데, 사랑채에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이사 온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므로 동네사람들에게 오늘 이사 온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어떤 한 분이 “오! 네가 오늘 이사 온 집의 아들이구나! 요 위 다음 다음집이다. 발이 엉망이구나, 여기 약수물이 있으니 씻고 가거라” 하셔서 말소 하신대로 받아놓은 약수물로 발을 씻고 우리 집을 찾아갔다.

이 동네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1구라는 갈매울 동네였다.

동네 앞에는 동서로 뻗은 약간 구릉지처럼 된 지점을 지나 남쪽으로 역시 동서가 약간 더 넓은 벌판이 있고, 이 벌판을 남쪽으로 가로 질러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에 다다르게 된다. 이 임진강가에 서너채의 집이 있는데, 동네 이름은 ‘썩은소’라 한다. 이 동네는 주로 임진강 썩

은소 나무를 건네주는 뱃사공들이 살았다. 이 썩은소 나무를 건너면 산등성이를 넘어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트랭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된다. 동네 아이들은 무서운 여름날이면 떼를 지어 이 썩은소 나무로 가 수영을 하며 놀았다.

다음 해 여름은 장맛비가 많이 와서 동네 아래쪽 개천이 범람하여 논과 밭에 피해를 많이 입혔다.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돼서 동네 아이들은 비 피해를 입어 논이 움푹 파여 생긴 꽤 큰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이 곳에서 미역을 잡고 물놀이를 하며 매일 놀았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약주 한잔을 하시고, 해 걸음에 마전리 면소재지에서 동네로 돌아오시면서 큰 소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소! 일본이 항복했소! 망했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바로 이날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일이었던 것이다. 광복은 되었으나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몇 달 간은 별별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도둑이 들끓었고,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 몽둥이로 때려 죽었느니 밤에 불을 질렀느니 하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동네마다 조를 짜서 몽둥이를 들고, 밤마다 야경을 돌았는데, 우리 동네도 우리 집 사랑채를 야경꾼 대기실로 정하여 조별로 밤새도록 야경을 돌았다. 윗가락만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딱딱 딱딱’ 소리를 내며 야경을 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임진강가에 소련군(소련군을 로스케라 불렀다)이 순찰을 돌고 임진강을 마음대로 건너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남, 북이 분단된다는 우리민족의 통한의 3.8선이 될지 어찌 알았겠는가. 이렇게 돼서 우리 동네는 김일성이 통치하는 공산 북한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토지개혁이다’, ‘현물세제다’, ‘노동당이다’, ‘농민동맹이다’, ‘여맹이다’, ‘민청이다’, ‘소년단이다’ 하는 각종 조직과 통제에 묶여 살게 되었다. 그 해 겨울 어느 날 소련군 병사 세 명이 동네에 들어와 막걸리를 달래서 데워서 주었더니 얼음이 동동 뜬 찬 막걸리를 마시고는 뗏산으로 사냥을 가자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이를 해 달라고 하여 아이들도 호기심에 어른들을 따라 물이꾼이 되어 뗏산으로 올라가 물이를 하였다. 그 당시 이 뗏산은 여우, 살쾡이, 너구리, 토끼, 꿩 등이 서식하고 있어 밤이면 여우, 살쾡이들이 동네에 내려와 닭을 물어가곤 하였다. 닭장 주위에 뒯을 놓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족제비와 살쾡이를 잡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따라 토끼 한 마리 구경을 못하여 사냥은 허탕을 치고, 산등성이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소련군 병사가 큼직한 돌 한 개를 가리키면서 약 200m 정도 되는 산 아래 얼음이 썩쯤 언 논 가운데에 갇다 놓으라고 했다. 아이들 두 명이 그 돌을 논 가운데 갇다 놓으니 좋아했다. 아이들이 올라온 다음 장총을 들어 쏘았는데, 거의 백발백중 잘 마쳤다. 동네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하며 잘 쏜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로스케는 사냥을 못해 시무룩하던 기분이 바뀌어 으쓱해졌다.

방학이 끝난 8월 말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9월 1일 개학을 하니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학교에 나갔더니 9월 1일부터 다시 3학년 1학기가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후 초등학교(북한에서는

인민학교라 하였다) 5학년이 되어 졸업을 했는데(북한에서는 1948년부터 초등학교를 5년제로 바꾸었다) 면소재지 마다 중학교나 중학교 분교를 세워 미산면 소재지인 마전에도 왕정중학교 마전 분교(1년 후 마전중학교로 승격)가 생겨 졸업하자마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의 1년 선배는 물론 3년 선배들까지도 입학을 하여 나와 중학교 동급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동급생들도 나까지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살부터 서너 살이 나보다 많았으니 선배들은 5, 6세 많은 사람은 수두룩했으며, 결혼한 사람도 3, 4명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적으로 소년단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학과 수업 외에 수시로 소년단 학습회 독보회며 하여 각종 선전과 사회주의 학습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자아비판도 열었다. 중학교 때는 소년단과 민청으로 갈렸는데 17세 이상은 민청에 가입하여야 했다.

다음해 9월 1일에 2학년이 되었고, 2학년 2학기말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기간이 돼서 시험공부에 학생들은 모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내일(1950년 6월 24일 토요일)은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해서 이날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이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 흐렸는데, 여느 때와 같이 저녁밥을 먹고, 식구들과 방안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 8시나 9시쯤 되었을까? 동네 일 보는 사람(노동당 세포조직원)들이 대문을 두드려 아버지께서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었더니 빨리 간단한 옷가지와 식량을 가지고 고개 넘어 이웃동네로 넘어가라는 지시였다. 가라는 동네를 기름말 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이 동네는 우리 동네와 반대로 북쪽을 향한 골짜기에 형성된 부락으로 우리 동네에서 약 1.5km정도 북쪽 산 너머에 있는 동네였다.

동네 일보는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찾아와 빨리 떠날 것을 독촉하여 우리가족은 대강 보따리를 꾸러 지게에 실어 짊어지고 대문밖에 나갔더니 동네사람들이 보따리를 지고 모여들었다. 우리 집은 동네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집 사랑방은 동네사람들이 모여 새끼고 꼬고, 짚신도 삶고, 바둑 장기도 두며, 노는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웃 동네로 가려면 우리집 맞은편 우물가를 거쳐 앞산 오솔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자연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맞은편 우물가 주변에 모이게 된 것이다.

동네 일 보는 사람들이 동네사람이 다 모였는지 확인한 다음, 앞뒤에 서서 인솔 해 길을 떠났다. 날씨가 흐려 퉁퉁한 밤길을 우리 일행은 말 없이 묵묵히 한 줄로 서서 앞 사람만 따라가고 있었다. 평소 익숙한 길이라 퉁퉁한 밤이었지만, 아무 일 없이 어린이들도 잘 따라갔다. 우리 동네 나지막한 앞산 고갯길을 넘어 골짜기 개활지를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가면, 고개 넘어 이웃동네에 다 다르게 되는데, 골짜기를 다 지나 고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작은 고개를 넘으면 목격지인 이웃 동네 기름말에 다다르게 되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길 앞 숲속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손들어 쏜다, 암호!” 갑작스런 소리에

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동네 사람들은 평상시의 농사일로 돌아갔으며, 그렇게 그 날은 지나갔다. 아마 이것이 6.25 동란으로 인한 최초의 피난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북쪽으로 말이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므로 동네 아이들과 학교에 갔다. 등교한 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국방군이 포 한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도망갔대”, “국방군이 박격포를 쏘는데 엉뚱하게 도랑에 떨어졌대”, “우리 용감한 인민군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려고 어제 일제히 남조선으로 전격했대”, “지금 의정부까지 쳐들어갔대”, “인민군 땅크(북한에서는 탱크를 땅크라 했다)가 임진강 여울을 건너가 진격했는데, 1대는 빠져서 못 건너갔대”, “야! 우리도 이제 서울 구경 할 수 있겠다.” 등등 별별 소리들을 다하며 웅성거렸다.

수업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모두 놀랐지요! 우리 용감한 인민군이 드디어 남조선 국방군을 쳐부수고 미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여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려고 용감무쌍하게 남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조선을 곧 해방시켜 통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와!” 하였다. 선생님이 “이제 곧 서울을 해방시키고 부산까지 쳐들어와 국방부가 괴뢰도당들을 현해탄에 쓸어 쳐 넣을 겁니다. 여러분 박수쳐 아지요!” 하여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 이튿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 와서는 “여러분 어제 내가 잘못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국방군이 먼저 북조선을 쳐 들어와서 우리 인민군이 반격을 하여 이를 응징하기 위하여 남조선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일제히 “선생님 거짓말입니다. 어제는 선생님께서 인민군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남조선으로 진격하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직접 똑바로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민군이 먼저 쳐 들어간 것을!” 학생들은 모두 선생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주장하였다.

선생님은 다시 “여러분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국방군이 먼저 쳐들어와 우리 인민군이 반격한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럼 다른 지역에서 먼저 국방군이 쳐들어 왔다면 어떻게 국방군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알고 인민군이 일제히 반격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선생님은 변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절대 탄소리들을 하지 마시오!” 하고 엄숙히 선언하시므로 학생들은 대강 사태를 짐작하고, 그 후로부터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언급했다가는 반동분자로 몰려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어찌될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머칠 지나 우리 동네에 군인 서너 명이 동네 뒷산에서 내려왔다. 이들은 평소 가끔 우리 동네에

내려오는 일이 있어 안면이 있는 군인들이었다. 동네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다음 “아니 당신들은 왜 아직 여기에 있는 거요! 남조선 해방시키러 가지 않고! 전투에 참가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빙긋이 웃으며 자기들의 어깨 견장을 가리키며 “이 견장은 푸르지요, 인민군 견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민군 견장은 붉은색입니다. 우리는 인민군이 아니라 내무성 국경경비대입니다. 우리 내무성 국경경비대는 평소에 국경에 배치되어 국경을 수비합니다. 그래서 해방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내무성 경비대인 우리가 저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과 이 곳 3.8선을 지켰고, 이제 남조선이 해방되면 우리는 다른 국경선으로 배치되어 우리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인민군은 평소 후방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전쟁이 나면 전투에 배치되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와 이곳 3.8선에는 주둔하지 않고 있었으며, 철원이나 그 이북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이번 남조선 해방전쟁에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전쟁 전에 연천이나 철원 이남지역에서 인민군이 주둔한 것 본적 있습니까? 없지요?” 하고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다.

정말 그랬다. 인민군을 본 것은 멋진 정장 군복을 입고, 공연과 선전영화를 보여 주러온 인민군만 보았었다. 특히 멋진 정장 군복을 입은 여군들이 노래와 춤을 추는 공연이 인기 있었는데, 1년에 몇 차례 학교에서 무대를 꾸며 놓고, 공연을 한 그 인민군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내무성 경비대는 마전에 약 1개 중대인지 1개 소대인지 하는 병력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들은 가끔 우리학교에 찾아와 우리 중학생들과 축구시합이나 배구시합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제1회 졸업생으로 반장이었던 나의 3년 선배가 인민군 창설 초기에 인민군에 입대했는데, 장교가 되어 인민군 장교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휴가를 몇 번 나와 동창생들이 있는 우리학교에 온 일이 있어 동창생들과 후배인 우리들이 부러워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중학교 동급생 중 대어섯 명이 인민군에 지원 입대하였으며, 그 중 몇 명은 몇 달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민군에서 나와 다시 학교에 다녔고, 수복 후 한청 단원이 되어 지역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면소재지 큰길가 건물에는 승전보가 매일 나붙기 시작했다. 이것을 ‘민족보위부 속보’ 라고 했는지, ‘인민군 총사령부 속보’ 라고 했는지 하여튼 한국의 호외 신문만한 승전보 벽보가 매일 나붙었다.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미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괴뢰도당들이 하느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신성시 여긴다는 일요일인 6월 25일에 화약 냄새를 풍기는 전쟁을 도발하여 용맹무쌍한 우리 인민군이 괴뢰도당들을 쳐부수기 위하여 반격에 나서 격퇴하고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었다. 우리들은 이런 벽보들을 보고 ‘아! 오늘은 서울이 해방됐구나, 인천이 해방됐구나, 수원이 해방됐구나, 인민군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하늘에는 속칭 '썩썩'이라는 유엔군 전투기와 'B 29'라는 폭격기가 온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오기 시작하더니 먼 곳 곳곳으로부터 폭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는 교실로부터 학교 뒷산으로 연결되는 교통호가 파여지고, 수업시간에도 비행기 소리가 가까워지면 이 교통호를 통하여 모두 뒷산 숲속으로 대피하였다. 비행기의 출격이 심해지자 우리 중학교는 학교가 폭격당할 것을 우려하여 할 수 없이 약 2km정도 떨어진 미산면 아미리 송의전으로 옮겼다. 송의전이 있는 아미리는 개성 왕씨 집성촌으로 왕씨들이 고려 시존인 왕건 태조와 여러 왕들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송의전은 임진강가 절벽위에 세워졌으며, 주위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무성하여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 송의전의 행랑채를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는데, 비행기가 떠도 교실에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건물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사적지이기 때문에 폭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연천군지에 의하면 이 송의전은 조선시대에 고려태조와 일곱 왕을 제사지내던 사당으로 조선태조 원년에 창건하였으며 세종 때부터 태조를 비롯, 4위를 봄, 가을 행사하였으나 문종 때 송의전이라 명명하였고,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 외 15인의 공신을 정배하였다 하며, 고려 왕족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곳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후에 고려조 왕씨의 후예에게 참봉의 제수하여 전각수호와 향사를 지내게 하였다 한다. 일제 때는 조선총독부에서 관리하였고, 왕손 후예로 참봉을 임명하여 경기도지사가 제관이 되어 3월과 9월 20일에 봉사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각이 완전 소실되어 1959년에 다시 세워 봉사하기 시작하여 1971년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223호)로 지정되었고, 그 후 국비와 종재로 준공하여 현재 개성 왕씨 중앙종친회와 송의전보존회가 매년 음력 3월 3일에 송의전 춘추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마전군지에 의하면 이곳을 마전 양업사였는데, 고려 왕건태조가 태봉국에 출사할 무렵 송악(개성)에서 철원까지의 중간지점으로 자주 들렀다 한다.

조선조 초기 고려 왕손들이 무자비하게 참화를 당할 무렵, 어느 날 이태조에게 고려 태고가 현명하여 나라를 찬탈한 것으로 죽할 것이 어찌하여 나의 후속까지 멸절하려느냐 하고 꾸짖으며 그에게도 큰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여 무학 대사에게 태묘에 모셨던 신주위패를 석선에 실어 강물에 가라앉히라 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석선은 가라앉지 않고, 임진강을 역류하여 한 곳에 이르러 무학이 살펴보니 명지인이라 이곳에 모시리라 마음을 정하고 쇠 닭足を 매두고 나루터에 유숙하던 중 한 밤중에 뇌성번개풍우가 크게 일어 다음날 아침 나루터에 나가보니 쇠 닭足を 밤사이 썩어 끊어지고 석선이 사라지니라 무한이 각지로 찾아보니 지금의 송의전 옆 잠두봉에 닿아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이곳이 명지임을 깨닫고 이곳에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진격!', '승전'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더니 그런 내용의 벽보는 뜸해

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곧 대구를 함락할 것이다, 부산을 함락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불기만 하였고 함락됐다는 벽보는 나불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밤이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1가구당 몇 m씩 할당을 하여 교통호를 파라고 이웃동네 뒷산으로 내몰았다. 우리 부모님들도 매일 밤 교통호 파는데 동원되었으나 비행기 소리만 나면 안보이도록 숨느라 교통호 파기는 별로 성과가 없어 급기야 아이들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나도 동원되어 교통호 파는데 따라갔다. 어른들은 담배도 못 피우게 하여 말없이 덜그럭 덜그럭 밤늦도록 모두 참호를 파고 있었다. 그런데 어렵듯이 동쪽으로부터 먼동이 터 오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비행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니 어른들이 갑자기 참호 파기를 그만 두고 연장을 들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래도 계속 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만 파고 빨리 달아나자고 하시기에 나는 아 비행기가 오니까 빨리 달아나자고 하시는가보다 여기고 나도 부모님을 따라 연장을 들고 달아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밤새도록 빨리 파라고 그렇게 독촉하던 감독관들이 달아나는 사람들은 하나도 제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6.25사변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이지만, 6.25 이전 몇 년 전부터 동네 어른들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역에 동원되었다. 왕징면 무등리와 군남면 진상리를 연결하는 임진강 교량인 지금의 속칭 '화이트교'와 전국면 전곡리와 청산면 장탄리를 연결하는 높은여울 교량(현재의 고탄교)의 교각건설을 위해 할당된 자갈채취 부역 등에 저희 부모님들도 동원되시어 여러 날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역을 하시고 돌아오셨다. 이 무등리는 우리 동네에서 약 4km, 전곡 높은여울은 약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그 대는 버스는 물론 차량이라고는 전혀 없는 시절로 운반 수단은 소달구지와 지게 등이고, 순전히 걸어 다니는 시대였다. 그런데 이 교량들은 북한이 서둘러 건설하려 하였지만, 6.25가 날 때까지 화이트교는 교각도 다 못 세웠으며 고탄교는 교각은 다 세웠으나 두 개 정도만 설치했을 뿐 완성하지 못하였다.

1950년 10월 초순부터 멀리 남쪽에서 포성이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하였다. 10월 중순쯤인가 부락 노동당원들이 빨리 북쪽으로 피난을 떠나라고 하여 우리가족은 어머니께서 이끄시는 대로 북쪽을 향하여 제2차 피난길에 올랐다. 우리가족이 다 떠나는 것처럼 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뒤쪽에 파놓은 방공호에 숨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동네사람들 대열에서 이탈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북쪽으로 가다가 과거부터 친히 지내던 유촌리 친지 댁으로 갔다. 마침 그 댁도 피난을 가지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 댁에 숨어 있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국군이 복진하여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 동네에는 아버지 한 분 밖에 남아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군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을 때에는 동네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다가 아버지께서 방공호에서 나오셔서 혼자서 국군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기쁘신 나머지 손수 닭을 잡아 국군을 대접하셨다고 하셨다. 국군

이 먹다 남은 닭고기가 있어 우리가족은 오랜 만에 닭고기 맛을 보게 되었다.

그 해 12월경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후퇴하여 우리가족은 처음으로 남쪽으로 세 번째 피난을 떠나야 했다. 우리가족은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어느 산골 마을에 피난해 있었는데, 그 해 12월 31일 저녁에 갑자기 중공군이 물밀듯 쳐 들어와 부녀자들은 피난을 못하고, 남자들만 국군을 쫓아 눈 덮인 감악산 골짜기와 능선을 폭폭 빠지면서 후퇴하였으나, 이미 중공군이 앞질러 진격했기 때문에 후퇴하는 국군은 포위되어 각자 흩어지고 국군을 따라 피난 나가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아버지와 나는 어느 동네에 숨어있게 되었다.

숨어있던 어느 날, 미산면 소재지에서 아버지의 소재를 알고, 총으로 무장한 사람 10여명이 밤중에 찾아와 아버지와 나를 잡아 P.W 전깃줄로 손을 묶어 끌고 갔다. 한참 끌려가다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가 있지, 저 어린것이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아이는 풀이 달라”라고 하셨다. 그 해 겨울은 눈이 많이 와서 눈길에 발이 폭폭 빠지고 춥고, 어두운 밤길이라 나는 손이 묶인 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울기 시작했고 걸음도 느려졌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 나를 보고 내일 아침에 혼자서 미산면 소재지인 마전에 있는 노동당 사무소로 찾아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낄새를 채고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돌아갔다고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찾아오라고 하여 나는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숨어 있던 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끌려 가셨으므로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께서 잡혀 가신 것은 수복 후 미산면 한청단장을 하셨기 때문이다. 한참을 울어도 가슴이 메어져 건딜 수 없어 설음이 자꾸만 복 받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설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울고 있으니까 집 주인이 달래면서 고만 울고 자라고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밤중에 계속 울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설음을 속으로 삭이며 만상에 사로잡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어찌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침이 되어 집 주인이 차려 주시는 아침밥을 한술 뜨고 길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찾아오라는 마전으로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어머니가 피난 와 계시는 부락을 찾아 가는 길을 집주인이 일러주어 혼자서 길을 떠났다. 어린 나이에 초행길이라 집주인이 일러준 것을 짐작으로 북쪽을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추운 겨울인 탓도 있지만 중공군이 점령해 있는 곳이므로 길에는 한 사람도 행인을 구경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갔는데, 한 무리의 중공군이 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 해서 가던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옆길로 새자니 의심할 것 같아 그대로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속 걸어갔다. 얼마를 또 갔는데, 이번에는 서너 명의 군인이 오는 것이었다. 이들은 날 보더니 시라고 했다. 그들 중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어찌에

멘 보파리를 풀라고 하여 나는 보파리를 풀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떨려 잘 풀리지가 않았다. 왜냐 하면 그 속에는 태극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쿵당쿵당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위기를 모면한 궁리를 생각했다. 보파리 속에서 태극기가 나오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군이 우리 동네에 와서 태극기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피난을 가라고 해서 보파리를 싸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태극기에 물건을 싸서 보파리에 넣어 썼습니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아무소리 하지 않고 풀어 놓은 보파리를 훑어보더니 됐다고 하면서 도로 싸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후 또 한 무리의 중공군을 마났는데, 이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 길을 떠날 때 집 주인이 고개를 넘어 한참을 가면 한나절 안에 내가 찾아가는 동네에 당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나절이 다되어 고개를 넘어 왔는데도 어머니가 피난해 계시는 동네 인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꾸만 산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 계곡은 꼬불꼬불 굽이굽이가 많은 골짜기였는데, 굽이굽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다. 어떤 곳에는 도리깨 자루에 뽕죽한 쇠창살을 박은 작대기들이 수북이 놓여 있었다. 아마 중공군이 들고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나절을 넘게 걸어 골짜기를 빠져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적성이라는 곳이었다. 이 골짜기는 1.4 후퇴 당시에는 1사단 15연대인지는 하는 부대가 많은 피해를 보았고, 그 다음해 봄에는 영국군이 큰 피해를 입어 영국군 묘지가 있는 골짜기이다. 그리고 적성은 우리가족이 피난해 있는 곳에서 한참 서쪽인데 길을 잘못 든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적성에서 적암리까지 걸어가려면 거의 지금까지 온 거리를 더 가야 되는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으나 울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을 깨닫고 지친대로 지친 몸이지만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날은 어둡기 시작했으며, 행인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여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작정 동쪽으로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둡고 찬 밤길을 점심도 굶은 채 기진맥진하여 터덜터덜 한참을 가니까 어렴풋이 낮익어 보이는 동네에 접어들었는데 어유지리 같았다. 피난 와 있으면서 어유지리는 몇 번 원래한 적이 있어 눈에 익은 동네다. 이제 살았다. 여기서 남쪽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어민한데 가는구나 생각하고, 어두운 밤길을 천근만근 무거운 걸음을 재촉하였다. 이력저력 드디어 어머니가 계신 동네로 접어들었고,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달하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 어머니가 계신 방문을 열고는 “엄마, 아버지가 잡혀 가셨어요”하고 꼭 쓰러지고 말았다. 기절을 한 것이다. 한참 만에 어떻게 깨어났는데, 그 때부터 나는 북 바치는 울음을 삼켜가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미움을 먹여라, 발이 얼었다.” 하며 내 몸을 살펴보고 어떤 분은 자기 집에서 콩 자루를 들고 와 내 발을 콩 자루 속에 넣어 얼음을 빼야 된다고 모두 친절하게 간호해 주셨다. 그렇게 하여

그 해 겨울은 그 동네에 들어온 중공군과 함께 지나게 되었는데, 중공군 중에는 나이 많은 군인이 꽤 많았다. 한 나이 많은 중공군이 나이 어린 나를 귀여워했는데, 그와 한문으로 간단한 필담을 할 수 있었다. 자기는 55세라고 했으며, 3부자가 중공군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슬픈 낯빛이 역력하여 몹시 측은하였다.

그들은 조, 옥수수 가루를 반죽하여 건빵처럼 볶아 비상식량을 계속 만들더니 긴 자루에 넣어 어깨에 메고 전선으로 떠난다며 그 동네를 떠나갔다.

그 해 겨울은 그렇게 하여 지나가고 이른 봄이 돌아와 유엔군이 동네 뒷산에 언제인지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영국군이었다. 동네 아이들은 날이 밝으면 뒷산에 올라가 영국군이 시키는 대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어 영국군들은 즐거워했다. 그리고는 영국군이 초콜릿이나 썸, 비스킷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그 봄에 유엔군이 후퇴하게 되었는데, 그 때 마침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을 낳으시어 피난길을 떠나실 수 없게 되어 어머니와 어린동생들을 남겨둔 채 할 수 없이 나는 혼자 남쪽으로 가는 피난민들을 따라 노랑진까지 갔다가 군 노무자를 모집하는 순경에게 이끌려가 미 육군 제 1169인지 하는 전투공병대의 노무자가 되었다. 우리 노무자부대는 경기도 광주로부터 서울 미아리를 거쳐 양주시 장흥면 송추와 양주시 회천면 덕계리까지는 천막막사를 치고 주둔하였고, 동두천 생연리인지 지행리인지 어느 개천이 있는 부락과 광암동 동점부락을 거쳐 청산면 궁평리 어느 부락에서는 피난 나가 주민이 없는 민가에 우리 노무자부대가 점유 주둔하였는데 송추에 주둔 할 때부터 K.S.C로 편성되어 101사단인지 하는 부대의 방위군 장병들이 배속되어 우리 노무자들을 관리하였다.

이 전투 공병단은 광범위한 지역의 도로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3번 국도를 중심으로 서쪽은 통일로 동쪽으로부터 포천지역까지 담당하였는데, 우리 노무자들은 미군 트럭에 실려 각 도로에 배치되어 주고 도로 측구를 정비하는 일을 하였다. 하루는 덕정리를 지나 적성면 임진강가에 이르렀는데, 아마 고랑포곡인 것 같았다. 미군들은 임진강에 부교를 놓고 있었는데, 강 건너 쪽에서 작업을 하던 미군들이 갑자기 뛰어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빨리 철수하라고 하여 하던 작업을 멈추고, 트럭을 타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 때 이야기로는 가까운 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였다.

덕계리에 주둔 할 때로 생각되는데, 미군 트럭 적재함에 태워져 전국 고탄교의 전곡쪽 둔치교각 보호를 위한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였다. 부근에는 속칭 곰보돌이라는 돌이 많이 있어서 우리 노무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목도로 돌을 운반하여 석축을 쌓았고, 미군들은 고랑 상판을 조립식 철제 구조물로 설치했다. 그래서 화이트교와 고탄교는 남북 합작 고랑이 된 셈이다. 참으로 알뜰게도 부모님들이 북한 치하에서 인민군을 위한 교각 설치용 자갈 채취 부역에 강제 동원되었던 곳에서

아들인 내가 남한으로 와 국군과 유엔군을 위한 교량 건설의 미군 노무자가 되어 석축을 쌓게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하루는 지금의 3번 국도인 한탄강 교량 남쪽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아치 못미처 도로 서쪽 측구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치고 실어다 준 점심을 먹고 도로 측구 한곳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신 노무자들이 모두 복통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였는데, 어른들은 곧 회복이 되어 작업에 나갔으나, 나는 계속 설사를 하여 식사도 못하고, 탈진 해 며칠을 누워있어 사경을 헤매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 때마침 부대가 이동하게 되어 청산면 궁평리에 가게 되었는데, 나는 트럭 짐 위에 실려져 갔다.

그렇게 여러 날을 앓다가 어찌어찌하여 살아날 수 있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볼 때 화이트교와 고탄교를 6.25 몇 년 전부터 북한이 건설하려던 것은 이곳이 전략적으로 동서로 연결되는 길목이고, 남북으로 원산-철원-연천-전곡을 연결하는 경원선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서로 전략물자와 군대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두 교량이 필요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고탄교는 한탄강이 남북으로 흐르는 곳으로 전곡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이곳에 교량이 꼭 필요했으며, 지금도 교통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화이트교는 임진강이 남북으로 흘러 연천이나 전곡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곳에 교량이 꼭 필요하다. 일정시대에는 전곡에서 미산면 마전리와 백학면 두일리리를 거쳐 장단군 장단면 고랑포로 연결되는 노선의 버스가 다녔다. 전곡에서 군남면 황지리와 우정리 사이의 임진강 나루를 말여울이라고 하여 버스를 싣는 커다란 배가 운항되었다. 이 말여울은 하폭도 넓지만, 우정리쪽 대안은 장마가 지면 항상 범람하는 곳이며, 황지리 쪽은 3.8선 이남 남한인 전곡면 고릉리 쪽에서 마주 보일 뿐 아니라 나루터 쪽은 급경사가 되어 있고, 연천에서 군남면 삼거리를 지나 진상리에서 나루까지 오자면, 큰 산이 가로 막혀 차량운행도로를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여울 나루 북쪽인 무등리와 진상리는 강 양안이 교량 가설하기에 용이하며 남한으로부터 노출되는 전곡에서 황지리를 거치지 않고, 연천에서 군남 삼거리를 거쳐 진상리에서 무등리로 우회하는 것이 거리상으로도 단축되고 노출되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본다.

그 뿐만 아니라 미산면 우정리에서 마전리를 거쳐 백학면 방향으로 가자면 마전리 당깨를 거쳐야 되는데, 이곳은 3.8선인 임진강 강가를 거치므로 완전히 남한으로부터 노출되는 곳이다. 그래서 6.25 몇 년 전부터 우정리에서 유촌리와 백석리, 광동리를 거쳐 백학으로 가는 남한에 노출되지 않은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하였는데, 소하천에는 교량도 설치하여 도로를 완공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다시 6.25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6.25 약 보름 전도 더 될 것이다. 어느 날 하교 길에 마전리 앞 신작로(차도)에서 군인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차가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인민군 장교와 소련군 장교가 같이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며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미군과 함께 몇 년 전 철수하여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 날만이 아니라 그 후 며칠간 계속 인민군 장교와 소련군 장교들이 지나갔을 뿐 아니라 하루는 상, 하의가 하나로 된 검은 군복을 입은 인민군과 소련군 장교가 차를 탄 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탱크병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른 동네 아이들은 군인들이 도로와 교량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6.25 며칠 전에는 학교에 등교해 보니 학교 오른쪽 운동장 한쪽에 나무박스로 포장된 것이 수십 개 놓여 있었다. 1교시를 끝내고 운동장에 나오니까 군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나무상자를 해체해서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박격포였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는 그 무기들은 사라졌다.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가려면 산골짜기 오솔길을 올라 작은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는데, 6.25 며칠 전에는 학교 길에 이 고개 마루턱에 다다르니 인민군들이 망원경과 측량기처럼 된 기계를 가지고 남쪽을 향해 숨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호기심에 쪽 둘러서서 구경을 하니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지 못해!”하고 야단을 쳐 우리들은 험금험금 뒤 돌아보며 뛰어갔다. 그리고 다른 동네 아이들은 탱크가 개울가 으슥한 곳에 수십 대 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인민군들이 숲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 이렇게 6.25 발발 전 수십일 간 이상한 징후가 있었으나, 이런 징후들이 무엇인지 어린 우리들은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경기중부전선과 동두천지구 6.25 남침 (南侵) 자료조사 연구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I. 머리말

II. 본론

1. 배달민족 수난과 항쟁
2. 한국전쟁의 징후(徵候)
3. 국군 무방비 상태와 6.25 당일의 허점
4. 개전 직전의 군사 현황
5. 북한인민군에 하달된 전투 명령1호
6.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보 본부사령관 전투 명령1호
7. 기본신호
8. 국군의 방어 계획
9. 전쟁의 경과
10. 6.26동두천 전투
11. 동두천 실함(失陷)과 그 영향
12. 저지작전 상황
13. 미국 보병사단의 전투 현황
14. 인천상륙작전과 동두천 전투 승전(勝戰)

III. 맺는말

집필자

이 명 수

국가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 사료조사위원,
동두천시 문화재 보호위원

I. 머리말

중국 고대(古代) 주(周)나라 때 위무후(魏武侯)가 물었다. 군대는 무엇으로 승리 하는가? 이에 오기(吳起)는 대답하기를 군대는 잘 다스림으로써 승리를 얻습니다. 하였다. 무후는 또 물었다. 병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가? 군법에 밝지 못하고 상벌에 민심이 없어 징을 쳐도 멈추지 않고 복을 쳐도 전진하지 않는다면 비록 백만 명이 있다 한들 어찌 쓰기에 유익하겠습니까 이른바 다스림이란 거처해 있을 때에는 예의가 있고 움직일 때에는 위엄이 있으며 전진하면 당할 적이 없고 후퇴하면 추격할 적이 없으며 전진과 후퇴에 절도가 있고 좌우로 이동함에 깃발의 신호를 따르며 굶절다 가도 진열을 이루고 흩어졌다가도 항오(行伍 : 병졸 대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를 투입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천하에 무적인 당할자가 없습니다. 병장설(兵將設)진법(陣法)중에서 어느 한 국가와 민족의 흥망(興亡)을 가름하는 전쟁은 그 민족의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만큼 세계 모든 나라는 외침(外侵)에 대비하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풍족한 경제력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전쟁에 대비할 연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사는 4,300여년을 거쳐 오면서 외세(外勢)에 대한 저항(抵抗)의 역사(歷史)요 고통의 역사였다. 단군(檀君)이래 가장 치절했던 6.2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역사였으니 비극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적화통일(赤化統一)의 야망(野望)을 가진 북한 김일성을 삼천리 금수강산을 핏빛으로 물들여 버렸다.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을 개시(開始)한 이후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은 세계에서 같은 백의민족의 참혹한 전란이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300여만 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국토의 8할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만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자도 패자도 없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중단되고 말았다. 전쟁의 끝인 종전(終戰)아닌 휴전(休戰)으로 이어져 전쟁의 재발의 위험이 북한의 도발(挑發)은 육지와 바다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1968. 01. 21) 및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10. 30),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연평 해전(1차 : 1999. 06. 15, 2차 : 2002. 06. 29)을 비롯하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공격(2010. 03. 26)으로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 46용사들이 산화(散華)하고 말았다. 이렇듯 6.25한국전쟁 재발 위험성의 불씨는 그대로 남긴 채 155마일 휴전선만이 남북을 가로 막고 있다. 이처럼 쓰라린 상처를 안고 무의로 막이 일시로 내려진 이 한 민족의 비극은 애당초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地政學的)요충지인 특수성과 이를 에워싼 강대국간의 이해 대립 그리고 이념분쟁(理念分爭)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

려면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警覺心)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토분단(國土分斷)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의 조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통일에의 길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다.

II. 본론

1. 배달민족의 수단과 항쟁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에서 남동으로 뻗어내려 북방으로는 중국 만주와 연해주(러시아 오흐츠크)와 인접하며 남(南)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인접하고 서(西)로는 황해를 건너 중국대륙과 마주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대륙과 연결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주변국가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수많은 침략도 받게 되었다. 단군(檀君)이 한반도에 나라를 세운 후 4,300여년을 이어온 한민족의 역사는 수없이 반복된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졌으나 국난(國難)을 당할 때마다 온 겨레가 한결같이 뭉쳐 항쟁함으로써 자주민족으로서 주권과 국토를 지키고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켜 온 긍지를 지니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겪게된 배달민족의 수난은 19세기중엽까지는 거란, 여진 몽고족 등 북방민족과 일본의 침공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부터는 러시아가 아시아의 부동항을 점유기 위해 만주와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한반도는 청, 일본,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즈음 러시아는 만주의 대련항과 여순항의 조차권을 획득한데 이어 한때는 한반도 남단의 진해만에 연한 가포항의 사용권을 얻기도 하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청과 일본도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는 마침내 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때 일어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은 청과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후 1910년 8월에 한국을 합병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영토와 독립을 보전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아래 한반도를 그들의 아시아 대륙으로 침략하기 위한 기지로 삼고 36년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국민은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잃게 된 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19년 3월에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국에 걸쳐 일제히 전개하였으나 일본은 평화적인 시위마저도 무력으로 무참히 제압하였다. 이를 효시로 한국의 지도급 인사들은 속속 해외로 망명하여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그해 4월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3일에는 이를 국내외에 선포하는 한편 조직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임시정부 산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중공과 소련과 제휴하여 이들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압제는 혹독하여 정치, 경제, 외교,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인의 참여를 거부하고 농경지의 대부분과 공업생산시설 및 금융기관 등을 독점하여 한국 국민을 착취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현대문명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험을 쌓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국민의 문맹률도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뒤에는 한국인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가중시켜 대부분의 한국인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젊은 청년들은 이 무렵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만주와 중국 대륙에서 항일투쟁을 계속하고 있던 많은 단체들을 유합하여 광복군을 창설하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 한 다음 날인 1941년 12월 9일 대일전(對日戰)에 참전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미력하나마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연합군과 더불어 일본제국 타도를 위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 한국전쟁의 징후(徵候)

가. 미국의 불투명한 태도

1949년 중공이 중국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소련과 중공의 양대 공산권과 접하게 되었다. 중공의 승리는 북한에 예민하게 영향을 주었다. 38선에선 더욱 분쟁을 도발하여 한국의 내전위기가 깊어졌다. 그러던 참에 1950년 1월 12일 에치슨 미국무장관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미국의 방위선은 알류션, 일본, 유구(琉球), 필리핀 등을 묶는 선이며 한국은 이 방위선에서 명백히 제외되어 있어 “한국적 공격이 생겨도 먼저 공격받은 국민이 저항하고 다음엔 UN헌장 밑에 전 문명세계가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해서 미국은 적절 방위의 책임은 안지며 남한에서 공격에 대한 저항이 없고 UN조치도 효과가 없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포기도 부득이 하다고 시사 하는 뜻을 풍쳤다. 또 1950년 4월 3일 공표된 오웬 라티보아 교수의 권고서에는 “한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이기 커녕 부담이다. 현재의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 견디어 갈는지 의문스러우며 미국은 한국에 깊이 개입 않는 게 좋다” 고 하였고 4월 6일엔 “미국은 대한 원조를 중지하고 가급적 빨리 한국에서 손을 떼야 한다” 고 증명했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북한의 남침을 고무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 초창기의 정세는 안팎으로 어렵기만 하였던 것이다.

나. 북한의 남침준비

북한은 소위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지 7개월 후인 1949년 3월 경제문화협정과 함께 비밀군사협정을 소련과 체결하였다. 다시 중공과도 비밀군사협정을 체결 군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내전에 참가했던 한국인 부대 총 5만명이 돌아오고 소련에 있던 한국인 부대 약 5천명이 돌아와 이들을 핵심으로 해서 2만5천명이 돌아와 이들을 핵심으로 해서 2개 장갑사단을 포함 24개 사단으로 인민군을 대폭 증강했다. 소련은 2개 장갑사단을 탱크 500대로 무장하고 4개 보병사단은 기계화 부대로 만들고 소련제 함정 30척과 전투용 항공기 150대를 제공 북한의 전력은 소련의 완전한 지도와 지배 밑에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한편 1950년 봄의 남한의 현실은 김일성의 눈에는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처럼 보였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1950년 1월 12일 연설은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음을 시사하여 남침하여도 미국의 개입은 있을 성싶지 않게 보였다. 전력을 강화한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고 스탈린에게 대거 남침하면 남한에서 반란이 일어나 무력 적화통일이 성공할 것 이라 했고 1950년 3월 스탈린은 한국의 무력침공에 찬동했다. 김일성은 남침준비를 은폐하기 위해 한편으로 위장된 평화공세를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38선 일대에 병력을 집결해 갔다. 1948년 4월 평양의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임정계의 김구, 김규식 등을 중심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파는 그 후 총선거(1948. 05. 10 제헌국회선거)에 참가하지 않고 정부에도 비협조적이었다. 그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과 UN이 한국인의 남북협상에 의한 자주적 통일 달성을 방해한다고 혈통으며 통일을 바라는 민족 감정을 역설했다. 1949년 6월 북한은 소위 “북조선노동당”의 여러 산하단체를 묶어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라는 것을 결성 소위 “평화적 통일방침”을 마련하여 미국과 UN한국위원단의 철수를 요구하고 1949년 9월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선전했다.

이후로 북한은 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이름으로 남한의 적화공작을 벌였으며 게릴라 활동도 그 주장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형태를 취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좌익의 단속을 계속하고 북한측의 공산선전을 목살해 왔다. 그런데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여당계의 당선은 불가 50여 석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공기가 느껴지고 또 남북협상의 입장을 취하는 정치가들도 몇 명 당선되어 있었다. 한국 내의 이런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에 눈독을 들인 북한은 한국의 총선거 후 다시 위장된 평화공세로 나왔다. 먼저 1950년 6월 4일 소위 “조국통일민주전선”은 ① 8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남북한통일선거를 실시하며 ② 거기에서 선출되는 통일최고입법기관을 1950년 8월 15일 서울에서 소집하자고 제창하고 ③ 그 준비를 위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의 해주나 남한의 개성에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소위 교섭대표 3명을 남한에 보냈다. 그러면서 이들

은 이 회합에는 이승만, 이범석, 신성모, 조병옥, 채병덕, 백성욱, 윤치영, 신흥우 등 한국의 중심인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며 그 참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 공산군 남침과 UN군 참전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군사행동을 일으켜 남침을 시작했다. 그 병력의 거의 전부인 13만여 명을 투입한 북한군은 웅진, 개성, 장단, 동두천, 춘천, 강릉 등 11개 곳에서 38선을 돌파하고 유력한 화포, 탱크, 공군기의 지원을 받는 압도적 병력으로서 개성, 춘천, 포천을 압박했다. 때마침 일요일이라 국군은 이 불의의 기습에 대해 미처 반격태세를 정비할 겨를도 없었으며 병력과 장비 모든 면에서 뒤지는 군사력으로 용전했지만 전세는 불리하여 26일 밤에는 의정부가 북한군에 점령당했다. 공산군의 남침이 있자 정부는 곧 미국에 무기 원조를 요청하였고 UN한국위원단도 이 사태가 종래와 같은 국지적 충돌이 아니고 북한의 전면적 침입임을 확인 25일 UN본부에 보고하였다. 미국은 25일 새벽 3시(미국시간)UN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요청했으며 그 날 오후에 열린 이사회는 적대행위의 즉시 정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고 UN가맹국에 대하여 이 결의의 실시를 위해 UN에 모든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동란이 발생하자 즉시 한국에 대한 무기원조를 결정했으며 맥아더 사령부는 25일부터 무기 수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공산군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정전요구 미국의 한국원조 개시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계속 28일 아침에는 서울이 공산군에 점령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긴박해지자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6월 27일 맥아더 장군에게 UN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을 한국에 보내도록 명령하고 대만의 중립화를 위해 제7함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하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의 책임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하게 되었고 맥아더 총사령부는 수원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앞서의 결의안이 북한에 의하여 무시되자 모든 UN회원국에 한국을 돕도록 권고하는 또다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을 포기한 국군은 수원 북방의 방위선에서 병력을 재편성하고 북한군을 한강선에서 저지하려고 했으나 6월 30일 북한군은 한강을 건넜고 한강방위선은 무너졌다. 국군이 전쟁에서 입은 손해는 당시의 병력 절반이나 되었다. 탱크와 대전차포를 못가진 국군은 북한군의 우세한 화력에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 간 정부는 대전으로 임시 옮겼고 6월 30일엔 참모총장 채병덕을 예비군 총사령관으로 바꾸고 정일권 준장이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며 후퇴한 국군병력은 재편성을 단행했다. 맥아더 원수는 6월 29일 수원으로 날아와 전황을 시찰하고 이승만 대통령 ANCY AL 대사와 회견했으며 트루만 대통령은 6월 30일 UN안보리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① 미공군의 북한 군사목표 폭격 ② 미 해군의 한국연안 봉쇄 ③ 맥아더 원수에게 미국 지상부대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처럼 미국의

한국원조는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전개를 보였다. 해방 후 어느 쪽인가 하면 얼마간 소극적이던 미국의 대한정책은 대폭 변경되고 강경한 태도로써 동란의 수습에 나섰던 것이다. 또 안보리이사회의 결의안에 의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각국이 해·공군의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미군을 주력으로 하는 UN군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었고 7월 7일에는 통일사령부의 설치와 UN기의 사용이 안보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의되었다. 트루만 대통령은 이 결의에 따라 맥아더 원수를 UN기를 사용토록 명령하고 7월 25일에는 UN군 사령부가 동경에 설치되었다. UN군 창설에는 UN가맹국 가운데 52개국 이 지지했다. 소련, 우크라이나, 비러시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가 반대하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볼리비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스웨덴, 터키는 각종 원조를 제공했다. 이 무렵 소련은 중공대표 아닌 정부대표가 안보리사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트집 잡아 안보리사회에서 그 대표를 철수시키고 있었던 탓으로 한국문제의 이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쓸 수가 없었다. 그 후의 몇 주일은 절망적인 세월이었다. 국군에 비해 장비와 훈련이 다 같이 훌륭했던 북한군은 미리 세워놓은 계획으로 국군을 쉽사리 압도하고 신속하게 남진을 계속했다. 서부, 중부의 전황은 계속 악화되어 갔으며 북한군은 7월 4일 수원을 점령했다.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통령의 미 육군부대의 사용허가(6, 30)에 따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8군을 한국에 공수 7월 2일부터 제24사단 선발대가 대전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공수된 소수의 미군부대는 경험의 부족으로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큰 힘은 되지 못했다. 미군 선발대는 오산 북쪽에서 북한군과 접촉했으나 북한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고 북한군은 계속 남진 금강의 방위선을 돌파 금강 도강에 성공하고 미 지상군사령관 딘 소장이 실종되는 격전 끝에 7월 20일에는 대전도 기어코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정부는 대전에서 대규로 이동되고 같은 날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재한 미 지상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한국에 제8군사령부를 설치 한미협동작전이 시작되었으나 한국군의 통수권을 맥아더 사령부에 이양하는 협정(7.14)이 체결되었다. 북한군은 중부전선에서 영주, 안동간의 철도 연변에 진출 풍기(豊基), 예천(醴泉), 함창(咸昌)에 대한 공방전이 격화되어 갔다. 그러나 UN군이 수원 남방에서 대전 남방에 이르기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 주력과 맞서 UN군의 병력과 물자 수송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미군부대는 속속 한국에 수송되어 포진함으로써 맥아더 원수는 7월 20일 미8군 주력이 전개를 끝냄으로써 이제 북한군이 승리할 기회는 사라졌다고 성명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밝혔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북한군은 계속 공격을 감행하여 거의 저항 없이 호남평야를 휩쓸어 7월 말의 전선은 서쪽은 진주, 함양, 거창, 금천을 잇고 북은 풍천과 동해안의 영덕(후에는 포항)연결하는 선이 되었다. 그 동안 UN 해·공군은 설 세 없이 북한의 군사목표와 적의 후방을 강타했다.

라. 부산 교두보 수립

UN군은 8월 3일까지엔 금천을 철수하고 거창, 협천, 왜관 등에서 낙동강으로 후퇴했고 남쪽에 서도 진주, 동쪽으로 후퇴 북한군은 마산을 거쳐 부산을 위협하는 긴박한 형편에 놓였다. 그러나 그 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미군부대가 계속 도착함으로써 미군은 8월 7일부터 킨 작전을 시작 북한군에 큰 타격을 주고 진주 동쪽의 고지를 점령했다(8. 11) 낙동강 도강의 기회를 노리며 UN군을 압박하던 북한군 역시 UN군의 강력한 반격(8. 17)으로 격퇴되었다. 서북부 전선의 왜관(倭館), 군위(軍威)방면에서 대구로 향하던 북한군은 5개 사단의 병력을 집결하여 낙동강을 건너 진출함으로써 한때 대구도 위태로웠지만 8월 16일 B29폭격기 99대의 대폭격으로 그 힘을 사전에 꺾어 버렸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대구에서 부산으로 옮겼으며 대구의 운명을 건 대격전 끝에 북한군의 공격을 무찌르는데 성공했다. 동해안 지역에선 8월 초부터 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영덕, 포항을 둘러싸고 공방전이 치열했으나 국군은 8월 말 현재 끝내 포항을 확보하여 이 최대의 위기도 극복되었다. 그 간 맥아더 원수는 UN에 대해 UN가맹국이 가급적 빨리 지상부대를 보내도록 요청 8월 29일에는 영국군 2개 대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김일성은 8월 15일 북한군에게 8월 안으로 남한을 완전 점령토록 독려했지만 8월의 전국은 북한군의 반복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UN군은 전선을 안정시키는데 성공 전국은 안정기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다시 총공격을 시작했지만 UN군의 반격으로 그 진출은 저지되고 동부전선에서도 포항, 영천을 수호하고 쌍방의 갱탈전이 벌어졌지만 국군은 영천의 확보에 성공 북한군의 공격은 모조리 좌절되어 위커 8군사령관은 9월 13일 우리는 곧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드디어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10군단은 북한군 후방 인천에 대상륙 작전을 감행했으며 전세는 역전되었다. 북한군은 혼란 속에 패주 막대한 손실을 입고 38선 후방으로 쫓겨났다.

3. 국군의 무방비 상태와 6.25 당일의 허점

1950년 5월 10일 내외신기자들과의 회견석상에서 국방부장관 신성모는 “북한군이 대거 38선에 이동하고 있어 침공의 위협이 긴박하다.”고 말하면서도 “북한군이 우리에게 대하여 공격해 올 때는 이북에 대한 행동을 언제든지 개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6월에 들어 전방사단들은 인민군의 동태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육군본부에 보내 왔다. 그러나 육군 총참모장인 채병덕 소장이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이런 보고에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은 북한군의 활동을 그들의 평화공세와 함께 심리적 위협을 주기 위한 작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 남침 15일 전의 군 인사이동

1949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취임한 채병덕 소장은 6월 10일자로 다음과 같이 군수뇌부의 대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형근 소장 제8사단장에서 제2사단장으로 유재홍 준장 제2사단장에서 제7사단장으로 김종오 대령 제1연대장에서 제6사단장으로 신상철 대령 제5사단장에서 인사국장으로 이성이 대령 제16연대장에서 제8사단장으로 이종찬 대령 국방부 제1국장에서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장창국 대령 참모학교 부교장에서 작전국장으로 강문봉 대령 작전국장에서 도미 유학 대기 이 인사이동으로 부임 15일 만에 북한군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제대로 부대 실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적과 싸우게 된 결과를 가져 왔다.

나. 비상경계의 해제

육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1950년 5월에 들어 2회의 경계태세를 명령한 바 있었다. 하나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메이데이”를 위한 경계였으며 또 하나는 5. 30 총선거에 따르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경계였다. 이 두 경계태세는 남한에 침투한 잔존 공비가 폭동을 기도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치안 유지의 강화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이 특별경계기간 중 38선에서는 특기할 만한 변동이 없었고 다만 5월 14일 소련의 대형선 일척이 동해안의 영해를 침범한 일이 있어 해군이 추적했던 일이 있었다. 그 다음해에는 6월 11일 16시를 기하여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비하여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상경계란 상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기간 중 특별한 징후가 없어 6월 23일 24시를 기하여 22일자 작전명령으로 비상경계를 해제하였다. 이 비상경계 해제로 그간 실시하지 못한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이 일제히 실시되었다. 당시 육군은 후방부대에서 농번기 휴가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비상경계로 발이 묶여 있던 전방사단에서도 24일을 기해 농촌 출신 병사들에게 15일간의 휴가를 부대장 재량으로 허가하여 병영에는 3분의 1 병력만이 잔류하고 있었다. 또한 6월 24일에는 육군본부 장교구락부의 개관 연회가 개최되어 재경 및 서울 인근 일선지구 지휘관과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수뇌가 대부분 그에 참석하여 밤늦도록 긴장을 풀고 있었다.

다. 장비 후송과 탄약의 부족

6.25직전 전군의 차량 보유대수는 1,566대였으나 이들 차량은 제2차대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이었다. 미군 철수시에 차량을 인수하게 된 미군은 이들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500대(35%)를 후송하였으며 또다시 1,000대를 후송하여 일제검사를 하려던 차에 북한군 침공을 맞이하게 되

었다. 그리고 병기도 M1소총을 제외한 중화기(기관총, 자동소총, 박격포)일체도 정비계획에 의하여 15%가 회수되었다. 제1사단의 경우 제11연대(예비대)의 차량과 중화기는 부평으로 전부 후송하고 있었다. 한편 탄약에 있어서도 미 군사원조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1949년 각종 탄약의 총재고량은 1,900만발이었던 것이 6.25까지에는 더욱 감소되어 보병 전투원의 탄약은 전투 6일간의 소모량에 지나지 않았다.

4. 개전 직전의 군사현황

가. 인민군의 기동계획과 반격

인민군의 기존 전략목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습전을 감행하여 전격적으로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복한의 공간물인 “조국해방전쟁사” 및 전쟁 전에 “인민군 총사령부에서 하달한 정찰명령제1호”와 “전투명령제1호” 등의 북한측 자료와 전쟁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당시 그들의 세부 기동계획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주공(主攻)을 의정부-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에 이르는 경부 간선 국도로 지향케 하고 그 양측방을 조공(助攻)선으로 하여 주공을 엄획(掩護)하면서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 집중토록 한 것이다.

〈표 1〉 병력

구분 군별	인민군	국 군	비 율
육 군	10개 사단(30개 연대) 120,880명 기타 특수부대 61,820명 계 182,680명	8개 사단(22개 연대) 67,416명 기타지원부대 27,558명 계 : 94,974명	2 : 1
해 군	4,700명	7,715명	1 : 1.7
공 군	2,000명	1,897명	1 : 1.1
해병대	(육전대)9,000명	1,166명	7.8 : 1
총 계	198,380명	105,752명	2 : 1

이에 따라 그들은 제1차로 제1군단의 최정예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주공부대로 내세워 제203전차연대의 지원 아래 의정부-서울 선으로 남진케 하는 한편 제1사단과 제6사단을 서부 조공부대로 하여 개성-문산-서울선으로 그리고 제2군단 주공인 제2사단과 제7사단을 동부 조공부대로 화천-춘천-홍천의 축선(軸線)으로 각각 남진케 하였으며 제5사단과 유격부대인 제766부대와 육전대인 제549군부대로 하여금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와 후방 상륙으로 해안선을 장악토록 하였다.

제2군단 주공(제2, 제7사단)이 서부전선의 제1군단을 도와 춘천 정면을 돌파한 다음 서울 동남방으로 우회하여 수원 이천 선(線)에서 서울 부근의 국군주력의 퇴로를 차단함과 동시에 국군의 전후방을 분리하고 제1군단으로 하여금 서울지구에서 국군주력을 섬멸토록 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되고 비밀리에 성안(成案)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개전 당시 제2군단 참모장이었던 최 린(소장)은 주(駐)북한 폴란드 무관 파우엘 모나트 대령에게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우리는 공격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수차에 걸쳐 작전을 세부적으로 연습하였다. 우리는 10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사단을 가지고 있었다. 공격 개시 수주일 전부터 38선 일대의 주민들을 전부 이동시켰는데 이때 우리는 남한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구실을 붙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6개의 도로를 이용하여 병력을 38선에 배치하고 진격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하루에 몇km씩 진격할 것인가 하는 진격 계획까지 다 짜 놓고 있었다.

나. 중요 장비

〈표 2〉 중요 장비

구 분 장비별	인민군		국 군		비 율
	구경(口徑)	수 량	구경(口徑)	수 량	
박 격 포	120m/m	225문	81m/m	384문	
	82m/m	1,142문	60m/m	576문	
	61m/m	360문			1,8 : 1
곡 사 포	122m/m	172문	105m/m	91문	6 : 1
	76m/m	380문			
고 사 포	85m/m	12문			국군 없음
	37m/m	24문			
대전차포	45m/m	550문	57m/m	140문	3,9 : 1
전 차	T-34	242대			국군 없음
장 갑 차		54대		27대	2 : 1
자 주 포	SU-76	176문			국군 없음
항 공 기	YAK-9	미 상	L-47기	8대	
	IL-10	미 상	L-57기	4대	
	IL-2	미 상	T-67기	10대	9,6 : 1
	훈련기	미 상			
	정찰기	미 상			
경 비 정	계	211대	계	22대	
		30척		28척	1,1 : 1

5. 북한인민군에 하달된 전투명령 제1호

6월 18일에 “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이 전방 각 사단장에게 공격 전후에 걸쳐 국군에 대한 첩보 모집을 명령한 정찰명령 제1호와 6월 22일에 다시 공격사단의 구체적인 진격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격계획과 6월 23일 12시까지 공격준비를 완료토록 한 “전투명령 제1호”가운데 그들의 주공부대인 제4사단에게 하달된 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야포대를 포함한 제7사단 제1연대는 임진강으로부터 538.5m에 이르는 지역에 방어진을 치고 있음. 38선 방어전초는 동선상의 고지 북방 사면일대에 포진하고 있음. 적 저항의 주공선은 217고지와 411고지의 북방 측면인 색고리 및 630m고지 서북방과 북방측면에 걸쳐 포진하고 있음. 좌측의 적 방어진은 제1사단 제13DS대에 의하여 보루(堡壘)되고 있음. 그 좌측면에는 제7사단 제9연대가 포진하고 있음. 공격태세가 완벽하게 되면 공격에 앞서 다음의 항목을 필요로 함.

(1) 적 저항의 주공선을 파악하고 동시에 지전(地電)시설과 철조망 그밖에 바리케이트 및 참호(塹壕)간의 통로 그리고 무(無)보루지대를 정확히 파악 할것.

(2) 참호의 시설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다른 참호와와의 연결을 긴밀히 하고 DOT(콩크리트 토치카), DZOT(흙과 나무로 쌓은 보루), NP(관측소)방어하기 보급 및 집중사격조직을 정확하게 결정지를 것.

(3) 적 주공의 위치와 매일의 작전계획을 결정지를 것.

(4) 야포 공격의 위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소총사격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지를 것.

(5) 공격개시 후 2일이면 정확한 지도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 공병대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파악 할 것, 공격이 시작됨에 따라서 적 부대를 뒤덮는 새로운 공격목표를 예의 탐색하여 적 저항의 중심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분열된 적군이 어디로 후퇴하는 가를 정확히 관측할 것, 일선부대가 적성지역에 도달하게 될 때면 등진선으로 가납리와 적성방면의 신 공격부대를 조직하고 의정부 도로연선에 따라서 적 방어진을 쫓아 후방으로부터의 원병 도착을 피할 것, 양주와 하가리에 도달된 후에는 하양 로혹리 간과 가납리 부곡리 간 소도리 간에 걸친 신 공격을 위하여 부대를 구성할 것, 그리하여 수도 서울에 접근하고 있는 적의 가능한 모든 저항선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도록 할 것, 정보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를 확보하도록 할 것, 24시간 동안에 정보개요를 기필코 매일 19시까지 전화 혹은 무전으로 정보본부에 발신할 것, 일반정보서 및 적군의 서류 기르고 심문서(審問書)등을 입수할 경우에는 매일 8시와 20시까지 정보본부로 제출할 것, 3분지1의 공격부대를 관측소 부근에 배치하고 나머지 3분지2는 적의 주공공격을 완수하는 병력으로서 배치할 것, 각 연

대는 2내지5인으로 구성된 분대를 편성하여 전선에서 노획한 적의 문서를 모집케 할 것.

6. 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보 본부사령 전투명령 제1호

가. 공격준비와 전면전

(1) 아군의 공격전면에는 적의 7보병사단 1보병연대가 방어한다.

(2) 본 사단은 공격전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광동(05.18) 아장동(23.38)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종임무로서 마지리(536.2고지) 계선을 점령하고 차후로는 의정부 경성방향에 진출한다. 공격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까지이다.

(3) 우익에는 제1보병사단이 공격하며 그와의 분계선은 막대동, 노공리, 방정리 피봉이며 막대동을 제외한 기타 지점들은 4보병사단에서 제외한다. 우익에는 제3보병사단이 공격하며 그 외의 분계선은 부항동 583.5고지, 534.6고지, 519고지, 337.1고지들이며 이 모든 지점들은 4보병사단에서 제외한다.

(4) 주공은 좌측 대대로 방향에 지향하며 전투대형은 2개 제대로 한다.

(5) 제18보병연대는 야포 1개대대, 45m/m포 1개중대, 로켓 1개대대, 공병 1개대대, 전차 1개대대, 반전차포 2개소대 파견 광동 사항리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초 임무로서 동명천 계선을 점령하고 최후 임무로서 마지리 263고지 계선을 점령한 다음 차후 또는 항동방향에 공격을 지향할 것. 전술한 각항의 작전은 제13보병사단, 제13야포연대, 대전차포대대에서 파견되는 대전차포중대의 엄호 아래 수행될 것이며 동시에 76m/m포 1개중대, 45m/m 1개중대, 또 제5보병연대에서 파견된 제2대대, 45m/m포 1개중대와 동 대대 82야포중대 엄호 아래 수행 될 것이다. 우익에 있는 제16보병연대는 읍내리, 새집, 사랑리, 289고지, 당내, 청패, 송감리에 연하는 전투선에 있을 것이며 이들 좌익선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확보책임은 동(同)18보병연대장에게 부과 된다.

(6) 제16보병연대는 사단포병연대의 2,3대대 사단야포 대대의 1개 중대 사단차주포대대의 2개 중대, 전차대대의 2개중대, 45m/m포대대, 반전차포중대의 2개소대, 공병대대의 공병 1개중대와 함께 사당리, 패기리 계선에서 적의 방어를 돌파하고 최초임무로서 양원리, 패하리 계선을 점령하고 최후 임무로는 362고지, 535.6고지, 계선을 점령한 다음 차후로는 의정부 방향을 공격할 것. 연대의 전투를 13보병사단의 포연대대 반전차포대대의 2개 중대, 76m/m 연대표의 2개중대, 연대 45m/m 포 2개중대, 5연대의 76m/m중대, 5연대의 120m/m중대, 5연대의 72m/m 2개중대가 지원한다. 좌익 분계선은 사단 분계선이며 보장책임 16분연장이 진다.

(7) 제5보병연대는(1개 대대 제외)사단의 제2제대로서 제16보병연대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362고지, 535.6고지 계선에서 전투 진입을 준비할 것, 제5보병연대 1대대장은 반전차포 2개분대 포기관총 2개분대 공병 1개소대를 보병 1개소대와 함께 습격조를 조직할 것, 습격조 지휘관은 보병 소대장이다.

(8) 제5보병연대의 제2보대는 반전차포 중대를 받아 18보병연대의 뒤를 따라 공격할 것이며 마지리와 동경천 계선에서 전진진입을 준비할 것.

(9) 야포부대는 나의 수하부대로 한다.

공격준비 사격은 30분간이며 그 중 15분은 포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 돌격준비 시간

- (1) 적의 방어 전면에 총력량을 집합 할 것.
- (2) 적의 포병진지를 압도하며 토목화점 영구화점을 파괴할 것.
- (3) 적의 방어 정면 장애물에 도로를 개설할 것.
- (4) 점방 우접동 및 조촌리에로의 적의 집결을 불허 할 것.

■ 돌격 지원 시기

- (1) 보병과 전차 자주포의 공격을 마지리,마차산 535.6고지 후방까지로 할 것.
- (2) 경성(서울)으로 통하는대로 양측에 있는 적 토목화점과 영구화점을 파괴할 것.
- (3) 적의 포병진지에 반포사격을 실시 할 것.
- (4) 고사용으로 통하는 도로와 호사리,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 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적의 반돌격을 불허 할 것.
- (5) 동두천의 한사리 구역에 적의 집결을 불허 할 것.
- (6) 적의 지휘소를 파괴할 것.

■ 중심전투 시기

- (1) 퇴각하는 적의 퇴각로를 차단 할 것.
- (2) 반포사격을 계속할 것.
- (3) 적의 후송로의 수도로를 차단할 것이며 동두천 옆을 파괴할 것.
- (4) 사단 최초 임무 수행시는 대천, 요공리, 한사리, 기촌 구역에 적의 집결을 불허 할 것.
- (5) 의정부 방향으로 부터의 적의 반돌격부대 집결을 불허 할 것. 포사격 준비 완료는 1950년 6월 23일 24시 00분까지이다.

■ 항공대의 임무

- (1) 사단의 작전 지구를 가능한 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엄호한다.
- (2) 적의 군사시설 역전(驛前)을 파괴한다.
- (3) 적의 집결과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한다.
- (4) 적의 수로를 파괴하며 집결을 불허한다.

■ 반(反)항공대책은 각 전력 자체의 고사기대(高射機隊)로써 할 것이며 적기 내습시에는 보병 무기의 30%를 동원케 할 것.

- 사단 항공 감시 연락초소는

- (1) 제18보병연대 (2) 제16보병연대 (3) 제5보병연대
- 고사기관포 중대는 사단 지휘소와 야포진지를 엄호할 것.

■ 반(反)전차 예비대는 45m/m대대의 1개중대와 공병중대로써 하며 제2대대의 뒤를 따라 공격 하면서 중심으로 침입하는 적 기계화부대의 침입을 불허 할 것, 각 부대에서 자체의 반전차 화력기재로써 반전차 대책을 수립 할 것.

■ 사단 군의소는 1950년 6월 20일부터 지도상에 기입한 23.30지점에 위치하며 21일 이후에는 23.31 지점에 위치한다.

■ 사단 지휘소는 협곡이며 감시소는 03.11지점인 바 1950년 6월 23일부터 전개하며 이동축은 의정부로 통하는 도로방향이다.

■ 보고

(1) 공격준비 완료 후, (2) 공격 개시 후, (3) 최초 차후 및 1일 임무완료 후 각각 무전 및 서류에 의해 제출할 것, (4) 기타 보고는 2시간에 1차씩 할 것, (5) 서면 보고는 매일 2차씩 하되 7시와 19시 정각에 도착 될 것.

7. 기본신호

〈표 3〉 기본신호

번호	기호	조명	전자	무전
1	공격 개시		폭 품	224
2	제 개 시		종 다	224
3	발포 개시	적색	폭 품	333
4	보충 제약	백색	발화정지	222
5	화력 요구	적색 및 녹색	천 등	444

8. 국군의 방어계획

북한의 대군이 38선에 전개되어 그 공격시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의 군비상태는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육군본부는 1949년 말 북한정보 분석에서 건의된 경고를 바탕으로 북한군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련의 방어계획을 작성하고 있었으나 이 계획은 문자 그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즉, 육군본부는 병력과 장비의 열세 때문에 오직 궁여지책의 방어계획밖에는 세울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육군본부는 “인민군”의 주공방향의 판단에 있어서 제1안 : 철원 - 연천에서 동두천 - 의정부 - 서울, 제2안 : 개성 - 문산 - 서울선(線), 제3안 : 장단 - 문산 - 서울선(線), 제4안 : 이상의 1개조와 이에 병행하여 강력한 전투력 집중으로 중부선 돌파 이러한 4개안을 검토하였는데 가운데 제1안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 따라서 육군본부가 이와 같은 판단 아래 마련한 방어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으며 유사시에는 막연하나마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웅진지구 부대는 인천으로 철수한다. 둘째, 개성지구 부대는 지연전을 벌이면서 임진강 남안의 수차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부대는 지연전을 전개한다. 셋째, 후방의 예비사단을 반격부대로 운용한다. 그러나 적의 침공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 한강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를 하고 한강선, 대전선, 낙동강선에서 지연전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육군참모학교에서 연구된 바가 있을 뿐 성문화되어 전후방의 각 사단에 하달된 것은 없었으며 더욱이 이 계획에 의한 기동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은 해 보지도 않았다.

9. 전쟁의 경과

[개요]

남침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를 기해 일제히 38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전개 남침을 감행 하였다. 허술한 방어진지와 적은 병력으로 38선을 수비하고 있던 국군은 이들 인민군의 공격을 받아 이를 저지하기엔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그 적수가 되지 못하였다. 불의에 허를 찔린 국군은 혈전을 거듭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도처에서 인민군에게 격과 되었다. 이날의 전황은 다음과 같았다. 54km의 전선을 앞에 두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던 용진반도의 국군 제17연대는 5시에 죽천쪽과 해주 양방향에서 인민군 제3경비여단과 제6사단 제14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리하여 제17연대 병력의 2.5배에 달하는 인민군을 맞아 혈전을 거듭하였으나 1개 대대의 병력을 손실하고 2개 대대 병력은 그 이튿날(26일)아침 선박편으로 인천에 철수하였다. 한편 개성-문산지구에서 90km넓은 정면을 담당하고 있던 제1사단은 이날 예하 제12연대로 개성 전면을 제13연대로 개성 동쪽24km고랑포 전면을 각각 경비토록 하고 제11연대는 수색(사단본부)에서 부대를 정비케 하였다. 이 지구에서 공격을 감행한 인민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은 1개 연대로 하여금 개성 정면에서 제12연대를 강압하고 여지의 병력으로 경의 본선을 따라 개성시 내에 우회 돌입하여 제12연대의 배후를 협공함으로써 동(同)연대를 포위한 다음 9시 30분에 개성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제1사단의 우측 일선의 고랑포에서는 6시 30분에 인민군 제1사단이 탱크 40대를 앞 세워 제13연대의 경계 진지를 공격함으로써 점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국군이 2.36인치 로케트포로 대전차전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자 육탄 특공대를 조직하여 로켓포탄과 수류탄으로 탱크 4대를 격파하는 등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 역시 중과부적으로 임진강 남안으로 철수케 되었는데 전선의 와해에 따라 급거 내원한 제11연대와 연계하여 이날밤에 임진강 남안에 제2선 진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의정부의 국군 제7사단은 당시 공교롭게도 부대 교대관계로 예비연대를 보유하지 못하여 2개 연대로써 38선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방어 정면은 40km에 이르고 있었다. 사단은 1개 대대 병력을 38선 경비진지에 배치하고 제1연대를 동두천에 제9연대를 포천에 배치함으로써 진지를 갖추어 인민군의 주진로를 방어코자 하였다. 그런데 이날 5시 30분에 인민군 제3, 제4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제3사단은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4사단은 연천에서 동두천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국군 제7사단의 38선 경계부대는 개전과 동시에 2개사단의 탱크에 의하여 진지를 빼앗기고 동두천-포천선으로 철수케 되어 인민군은 이날 8시 30분에 38선 요충을 점령하고 이어 포천과 동두천으로 공세를 강화 국군 제1, 제9연대를 강압하기 시작했다. 제9연대는 이날 저녁까지 포천 북쪽의 고지를 고수하였으나 제1연대는 수10문의 야포와 자주포 및 전차의 집중

공격을 받아 저지선을 돌과 당함으로써 저녁 무렵에는 동두천이 인민군 제4사단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10. 6.26 동두천 전투

동두천 전투는 1950년 6월 26일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서울 북쪽 1.7km 동두천 정면에서 유재홍 준장이 지휘하는 제7사단과 이형근 준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김웅이 이끄는 북한군 제1군단 이하의 2개 사단과 1개 기갑여단으로 구성된 공격집단의 침공을 맞아 이를 격멸하고자 한 방어전이다.

가. 배경

북두에 제7사단이 포천과 동두천 부근에서 서전을 치룬데 이어 대전에서 증원한 제2사단이 의정부 부근에서 격돌하게 되어 이 지역은 수도 서울의 관문과도 같아 피아간에 주력이 되었다. 그런데 북한군은 처음부터 여기에 공격의 중점을 두고 병력과 화력을 집중 투입한데 반하여 국군 측에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이와 맞섬으로서 전투 초기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갔다. 특히 이 지역은 경원 본도인 3번 도로를 비롯하여 동쪽의 43번과 서쪽의 316번이 모두 양호한 노면에 열을 지은 듯 남쪽으로 뻗힌 데다 광천산맥과 천보산맥이 종벽을 이루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횡적연계와 중심배치에 불리한데 비하여 공격하는 입장은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공격돌입이 용이하였다.

나. 전투 과정

이권무가 이끄는 북한군 제4사단은 초성리 양원리 적암일대에 맹렬한 공격준비 사격을 집중한 전군 동두천 간 3번 도로에 보 · 전 합동부대로 편성된 부공을 투입하고 그 서쪽에 적암-봉암리 접근로에 조공을 투입하여 병진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은 38도 분계선일대에 국군진지가 거의 무개호이며 배치된 병력도 1개 초소 당 분대나 소대규모인 것을 지상관측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내의 가용한 모든 화력을 총동원하여 30여 분간이나 3번 도로와 그 주변을 맹타하였는데 포격으로 인한 도로 파괴가 그들 공격부대의 기동에 제한이 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는 당시 북한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전투 행동이었으며 표적의 성질과 기동로의 상태 및 적정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된 공격준비사격을 기계적으로 실시한 사실은 군사고문단에 의해 공격명령이 작성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이때 의정부에 전투력의 대부분을 주둔시키고 있던 제7사단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외출과 외박자의 비상소집 출동준비 수송장비의 징발 철도수송을 위한 협조 등 혼란의 와중에서 아군은 점

차 침착하게 긴박한 사태를 수습해 갔다. 이러한 가운데 함준호가 이끄는 제1연대는 비상출동개기 부대인 제3중대를 비상발령과 동시에 초성리 남쪽 176고지에 진출시켰다. 이곳에서 제2중대는 전차2대를 앞세우고 전술행군 중대로 남하중인 1개 대대규모의 적을 기습하여 격퇴시키고 소요산에 위치하고 있던 이끄는 2대대장 소령 이의영이 지휘하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소요산에서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육박전이 펼쳐졌으며 제2대대는 11시가 넘도록 소요산 진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이처럼 소요산에서 아군이 넓은 방어지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대장 이하 전 장병들이 불타는 투지와 북한군의 강력한 포화에 유선 통신망이 절단되지 않아 지휘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제2대대가 소요산에 고군분투하는 동안 제1연대는 제1대대를 마차산에 투입하고 뒤를 이어 김항목이 이끄는 제3대대를 봉암리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제1대대가 마차산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을 무렵에는 북한군이 이미 이 고지를 우회하여 간파리 방향으로 남하 중에 있었다. 따라서 제1대대는 마차산 정상에서 교전상황을 구경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대대를 지휘하던 김봉룡 대위는 상황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만 연대에서 어떠한 명령이 하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제3대대 지역에도 적이 출현하지 않았으므로 제1연대는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2개대대의 유효병력으로 대기시킨 채 시간만 허송한 결과가 되었다. 한편 제1연대를 직접 지원하던 제5야전포병대대 제2중대는 주 저항선 남쪽 보산리 부근에 준비된 진지를 점령한지 얼마 후에 밀집대형으로 남하하는 북한군의 1개 대대를 집중 포격하여 대부분을 격멸하는 수훈을 세웠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패주했던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하였다. 이때 제1연대 57밀리 전차포 중대장은 창말고개에서 선두 전차 2대의 측면을 사격하여 모두 파괴하였고 이에 당황한 북한군은 다시 초성리 쪽으로 철수해 버렸다. 이러한 승리의 쾌보가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방송되는 과정에서 국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고 비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제1연대는 탄약이 떨어져 재보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보급사정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군 제4사단은 이날 15:00시를 전후하여 제107전차연대를 신봉에 내세우고 동두천을 맹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맞선 제2대대는 10시간 동안이나 험거운 싸움을 계속하였으나 마침내 동두천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군은 아군의 주저항선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일몰과 더불어 동두천 시내로 진입하였고 국군은 어둠속에서 시가전을 펼쳤으나 역부족하여 덕정으로 철수하여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마차산의 제21대대는 유·무선 통신의 두절로 철수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

다. 결과 및 영향

포천과 의정부 전선이 무너진 뒤로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에 미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도 특히 좌 인접인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은 아직 임진강 방어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동측방이 무너져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철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고 태릉 정면에서도 생대대대가 적선 후방에 위치케 되는가 하면 춘천의 제6사단과 강릉의 제8사단까지도 수도 서울의 위기를 따른 전술적 및 심리적인 충격으로 작전에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북한군은 서울 공격을 제1목표로 삼아 의정부 지역의 전과 확대를 획책하는 한편 일부의 병력을 6월 27일에 벌써 김포반도로 상륙시켜 서측방에서 위엄을 가하였다.

11. 동두천 실패(失陷)과 그 영향

동두천 지역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의정부 전선이 붕괴 된 뒤로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 전선(全戰線)에 미치게 되었다. 7사단 사령부 당직은 작전참모 이영규(李映圭)중령이 맡고 있었다. 당시 의정부 지역은 제7사단 유재홍 준장 지휘 아래 제1연대가 사적리(社稷里) - 초성리(哨城里) - 적성(積城)간의 47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경비하고 있었다. 한편 인민군의 공격준비 상황과 침공계획(侵攻計劃)은 다음과 같다.

- ① 초일격에 전자 및 포병화력으로써 경계진지를 일축(一蹴)한 다음 각기 사단 보병 병력으로 동두천과 포천 양주를 공격한다. 제3사단은 제109전차연대와 합동으로 포천을 탈취한 제4사단은 제107전차연대 소속의 1개 대대를 통합 지휘하여 동두천을 탈취한다.
- ② 중간목표를 탈취하면 차후 명령에 따라 양측(兩側)사단의 분진(分戰)합격(合擊)총공격으로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공격한다. 의정부를 공격 시에는 각 사단 모두 예비대를 투입한다.
- ③ 서울의 관문(關門)인 한성(서울)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들어 간다.

이렇듯 적인 인민군의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아군의 대비 태세는 방심(放心)에 적과 대치 상황에서 너무도 미흡했다. 각 연대의 지휘소는 주력과 함께 의정부 부근에 위치하고 일선 대대는 각각 20km의 넓은 면적을 경비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통신의 두절로 각 연대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26일 밤에 실제로 수습된 전투병력은 1개연대도 채 안되어 창동 전선에서의 전투 전개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서울을 고수(固守)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병력을 수습하여 의정부 탈환을 피하고자 노력했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의정부 지구 전투사령관인 사단장 유재홍 준장도 창동 전선의 고수책을 마련코자 하였지만 지휘체계의 혼란과 병력의 절대부족으로 말미암아 26일 밤에도 체계적인 전투 편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재홍 준장이 전황(戰況)을 보고받은 것은 05시 15분이었다. 그는 전날 밤 육군회관의 개관

파티에 참석한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 돌아와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고 육본에 전신상황 보고를 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주진지 배치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즉시 의정부로 직행하였다. 사단참모장 김중갑 대령은 제25연대의 부대 이동 문제와 창설 기념일 행사 관계로 온양에 내려갔고 군수 참모 이영모 소령은 서울 이태원 숙소에 있었는데 통신 연락이 두절되어 이태원 소방본소의 협조로 14시에 겨우 연락이 닿았다. 사실상 사단의 참모기능은 일선의 위기를 적시에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가. 양주 · 포천지구의 고전(苦戰)

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1개중대 병력을 급편(急編)하여 동두천으로 출발하고 제3대대는 외출중에 귀대한 부대대장 강완재 대위가 혼성중대 병력을 이끌고 덕정을 거쳐 서북쪽의 316번 도로로 나아가 봉암리로 통과하는 노선을 막았다. 부연대장 이회권 중령은 연대본부에서 귀대 병력을 수습하는 한편 참모 요원들에게 일선지원 임무를 맡겼다. 보급관 고남준 중위는 병력 수송에 여념이 없었으며 의무중대장 신재근 대위는 덕정 구호소에서 전상자 치료와 수송에 맘을 홀리고 있었다.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동두천의 제2대대 본부에서 포천지역 제9연대가 북한군 제3사단과 전투 끝에 이날 11시 포천을 북한군에 빼앗기고 송우리 부근에서 고전을 치룬다는 소식을 듣고 동측방의 적침상황을 유념하면서 동두천 방어에 전념하고 있었다. 마침 사단 하사관 교육대에서 급편한 1개중대 병력 4개소대 120명이 12시에 도착하여 이 병력을 동두천 남쪽지행동 부근에 배치하고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이 인솔한 병력은 14시 소요산으로 내려보냈다. 한태원 중령은 연대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관계로 본부에서 연대장을 보좌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① 일선대대 보급관이 동두천역으로 달려와 탄약보충을 애원하고 있었으나 수송차량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특히 제3포대는 1발의 포탄도 없는 실정이었다.
- ② 시차별로 복귀한 병력을 혼성 급편(混成 急編)한 까닭에 지휘계통에 난맥을 이루고 조직력이 미약하였다.
- ③ 21km의 넓은 면적의 2개 대대병력으로 거점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 도처에 허점이 들어나 전투재개가 미비한데다 기동력마저 없었다. 더욱이 제1대대는 마차산 주봉에 배치되어서 위치상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대전차 장비책이 미약하고 기동 예비대가 없어 돌발사태에 대한 방책이 없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의 사기는 드높아 모두 이 고비만 넘기면 오히려 공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들떠 있던 중 북한군 제4사단이 15시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은 제1차 공격 때와는 달리 107전차연대를 선봉에 내세워 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으로 직행하는 한편 제5연대와 제16연

대로서 좌우측방에서 양쪽날개의 포위 공격을 기도 했다. 집전지인 소요산, 마차산간의 주진지 지대에 공방의 혈투가 다시 벌어졌다. 북한군은 보전협동(步戰協同)으로 중앙 돌파를 기도 동막동 소요동간의 제2대대의 진지를 집중공격하자 10여 시간의 격전을 치른 우리 국군은 병력과 탄약의 부족으로 싸우며 물러나는 지연전을 하면서 동두천 지행리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차산의 제1대대가 북한군의 전차로 적중(敵中)에 떨어지고 마침내 17시 적의 선두가 창말고개를 넘어서기 이르렀다. 이무렵 포탄 300여발이 도착해 제2포대의 포격이 재개되었으며 전황은 이미 기울어 북한군의 전차가 어둠이 짙어지면서 읍내 일각에 돌입하였다. 동쪽 보산리 부근에서 소요산을 우회한 북한군이 보산교를 침습하고 서쪽의 안흥리 부근에도 북한군이 내습하여 사격하며 주요 건물을 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호부대(제1연대의 별칭)장병들은 물러서지 않고 어둠속에서 시가전을 벌이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으나 22시를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은 제1대대장 한태운 중령이 연대장 지시에 따라 각 부대에 전달하는데 동두천의 제2대대와 각급 지원부대는 전달되었으나 마차산 제1대대는 무선교신이 끊겨져 전달되지 못했다. 이로써 동두천 지역을 포기하고 덕정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2포대장 김한주 중위는 보병과 포병을 동시에 철수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항변하면서 5문의 포를 8km후방에서 덕정리까지 무사히 끌고나왔으며 병사들은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각개 약전하며 대부분이 목적지에 집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령을 받지 못한 제1대대는 부대장 김봉룡 대위 이하 200명의 장병들이 마차산 고지의 9부 능선에 버티고 있었다. 어둠과 함께 동두천에 불이나자 소대장 1명이 동두천으로 나갔으나 이미 인민군이 동두천을 접수한 후였다. 대대는 사단의 반격에 기대를 걸고 현지에서 다음 날까지 기다렸으나 끝내 연락이 없자 작전관들의 의는 끝에 철수키로 결론짓고 26일 저녁에 퇴로에 나섰다. 당시 4중대장 박찬궁 중위는 철수 과정을 소대 단위로 나누어 의정부를 향해 철수하기로 했으나 물과 식량이 없는 정상에서 2일을 굶다보니 행군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보리밥과 몇 알의 감자를 얻어 허기를 채웠다. 배고픔은 다시 식곤증에 빠져 어둠속에서 낙오자가 속출하였다. 여기서 몇 차례 교전을 벌이다 보니 부대대장 김봉룡 대위가 전사하고 대부분 병사들이 분산되어 대오가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다음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의정부에 당도하니 시가 불타고 있었다. 27일 미아리 전선에 도착하였을 때는 1개 분대 병력도 되지 못하였다고 회고 했다. 이 무렵 왼쪽 일선인 제3대대는 내안흥과 오금동간에 2개중대 병력을 배치하여 봉암리 전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두천 보다 3시간 뒤인 18시에 2개 대대의 북한군이 일시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10여분 동안 집중포격으로 양중대의 진지를 강타한 다음 256고지(봉암리 북쪽 2.5km)에서 쏘아올린 청색신호탄 3발을 신호로 양쪽으로 나눠 돌진했다. 동쪽의 대규모 북한군은 급진출해 주력하는 듯 봉암리로 급진격하여 능선을 점령한 중대는 적의 포위망에 빠져들게 되었다. 대대장 김

항목 소령은 장병들을 독려하며 내 안흥 계곡으로 침습하는 적의 도보 부대를 저지했으나 2시간 동안 화력의 약세로 252(봉암리 뒷산)고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로부터 양 중대는 크게 혼란이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연대본부와 통신마저 두절되어 후속대비의 길이 막히자 대대장은 20시를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소대병력을 이끌고 은현면 하폐리 용암리를 거쳐 덕정으로 철수하였다. 북한군은 제1차 공격 때와는 달리 제107전차연대를 선봉에 내세워 3번 도로를 따라 동두천으로 직행하였다. 17시경 선두가 동두천 창말고개를 넘어 일몰과 함께 돌입했을 때 우리 국군제1연대(호부대)장병들은 물러서지 않고 어둠속에서도 시가전으로 대항하였으나 무기의 열세로 손실만 커지자 22시를 기해 덕정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연대 개전은 18시간 만에 동두천을 포기하고 덕정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제1연대장 함호준 대령은 명령을 받고 작전주임 동성삼 대위를 대동하고 06시 연대 주력의 집결지인 덕정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그는 제1, 제3대대장을 소집하고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대대장 한태원 중령은 현지 집결된 혼성1개 대대 병력을 지휘하여 송내리 지행리를 거쳐서 동두천의 남쪽으로 진격하고 제3대대장 김항목 소령은 용암리의 중대병력으로 이와 병진(竝進)하여 측방을 엄호하며 서쪽에서 협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양 대대는 08시를 기해 반격의 신호를 올렸다. 이때 어느 지휘관이나 참모도 북한군의 진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왼쪽에서 제18연대가 병형 공격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동두천 탈환만을 목표로 북진하였다.

한태원 중령이 지휘하는 혼성부대가 오른쪽 일선에서 봉양리 북쪽 299고지를 넘어 송내리 부근에 이르렀으나 아무런 적정이 없었다. 오전 10시쯤 북한군이 동두천으로 돌입할 때도 몇 명의 경계병이 산발적으로 저항할 뿐이었다. 결국 대대는 특기 할 만한 교전 없이 동두천을 되찾고 북쪽에 위치한 소요산 진지를 목표로 진격전날까지 제2대대 관측소였던 소요산 입구 219고지에서 항거하는 북한군을 격퇴하고 적의 관측장교1명을 포함한 5명의 인민군을 생포하여 소요산 일대 진지를 모두 회복하였다. 1950년 10월 6일 우리 국군 제8사단은 3일간에 걸쳐 부대 정비를 마치고 이날 미아리 부근을 출발하여 의정부를 경유하여 동두천 방향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제10연대장 고근홍 대령과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을 선두 부대로 하고 제16연대장 유의준 중령을 예비대로 집결한 다음 의정부를 통과하는 즉시로 송전리에 이르러 사단 수색대로 하여금 361고지와 동북쪽의 219고지일대의 적정을 수색하고 진격부대는 덕정리까지 진출하였다. 이곳에서 8km북쪽에 있는 동두천에 이르는 국도연변에는 동쪽으로 철봉산(507m)이 우뚝 솟아있으나 퇴각하는 북한군은 이 고지를 확보 할 시간이나 가치가 없으므로 사단장 이선주 준장은 전투부대 진격로에 근접한 동쪽의 299고지와 서쪽의 288고지를 경계하면서 동두천 방향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제10연대는 사단의 선발대로서 동두천까지 진격하였을 때 100일간을 적 치하여 사달된 동두천(이담면)주민들의 열렬

한 환영을 받았다. 일부 낙오병들은 청년들과 힘을 합쳐 사면초가 속에서 힘에 겨운 전쟁을 치러온 유격대원들과 합세하였다.

12. 저지(沮止)작전 상황

북한 인민군에 비해 모든 것이 열세(劣勢)였던 우리 국군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적의 침공이 늘어남에 따라 탱크(전차)한대도 없던 취약한 상황에서 적의 주 공격 방향을 의정부 문산을 검토하였으나 전쟁 당일 오후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적이 침공하면 지연전(遲延戰)으로 후방의 예비사단을 복상시켜 반격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임 사단장 이후식(李後植)준장은 연대장들과 숙의 끝에 몇차례에 걸친 주 진지 점령 훈련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작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군은 6월 26일 제7사단은 동두천 가도로 제2사단은 포천 가도로 길을 따라 38선을 향하여 공격한다. 이를 위해 현재 포천 부근에 있는 9연대를 동두천 가도로 전용하여 우선 동두천 정면의 적을 격파한 다음 포천 방면에 있는 적을 격멸한 제2사단은 내일 아침에 가용한 병력으로 포천 가도를 따라 38선을 공격한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이형근(李亨根)준장은 즉석에서 반대했다. 채병덕(蔡秉德)장군은 일본 육사49기이고 이형근 준장은 같은 일본 육사56기였다. 이 장군은 평상시 채병덕 장군을 대선배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 명령에는 승복 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제2사단의 이동거리는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160km로서 일부 병력은 복상하고 있으나 사단 전열(戰列)은 하룻밤 사이에 이동시켜 26일 반격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 장군은 공격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명령한 시기에 공격을 개시 하려면 병력을 축차적(逐次的)으로 투입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장군은 적어도 사단의 주열(柱列)이 집결을 끝낼 때까지는 공격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 채병덕 장군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조연과 충고를 하고 있던 하우스만 소령과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도 이형근 준장에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 장군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채 장군은 다음날인 6월 26일 이른 아침에 계획대로 반격 할 것을 명령했다. 이때 채 장군은 정치적인 배려에서 신속히 반격 할 것을 상부로 부터 지시받았다는 설(設)도 있었다. 제2사단은 복상(北上)을 서둘렀고 제5사단은 저녁때 광주(光州)에서 북상길에 올랐으며 제3사단22연대와 제3공병대대 및 57밀리 대전차 포중대는 이날 밤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부대의 이동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반격 명령이 하달되었을 무렵 제1선 장병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절망감에 빠졌다. 상대는 지금까지 여러번 싸워 격퇴시켰던 적과는 전혀 다른 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전면

의 적은 전차를 동반하고 수십문의 포병지원과 공군의 엄호까지 받고 있는 근대화된 북한의 인민군대였다.

가. 전략전 작전계획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침공 징후가 있음에 따라 정보계통에서는

- ① 사단은 육본교육각서(陸本教育覺書)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제1연대와 제9연대로서 사지리 - 초성리 - 적성간 책임구역을 방어해야 한다. 양(兩)연대는 전투지 경계선은 증현산 - 국사봉 - 해룡산 - 천보산 - 연(連)하여 경계선은 제9연대에 속한다.
- ② 제9연대는 포천방면의 사지리-증현산간을 방어하되 1개대로서 양문리-추동리간을 경비케하고 주력은 금오리에서 소정교육을 실시한다. 교전상황에 돌입하면 주력으로서 천주산(天柱山) - 기림산(加郎山)간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격멸한다.
- ③ 제1연대는 동두천 방면의 증현산-적성을 방어하되 1개대대는 초성리 - 적암을 경비케 하고 주력은 직동에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라. 교전상황에 돌입하면 주역으로서 소요산, 마차산 간의 진지를 점령하여 적을 저지 격멸하라.
- ④ 제5포병대는 상황에 따라 배속 또는 지원하라.
- ⑤ 1연대와 9연대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하라.
- ⑥ 양 연대의 주 진지에 파탄이 생기면 송우리 - 덕정간의 제2선을 점령하고 이를 고수하라.
- ⑦ 이후 철수선은 축석형-불국산간을 예정하되 증원부대가 참가 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라.
- ⑧ 사단장은 의정부 중양 십자로(사거리)부근에 위치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단의 방침은 6월 10일 유재홍 준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나 더 구체적인 시간 화력 병력 계획과 예비대 운영의 보안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따르지 못한 채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 인민군은 이를 전부터 38선 북쪽의 운천-연천-전곡 부근에 대대 이상의 병력과 전차대대의 부대가 수시로 기동하였고 유정리 북쪽의 43번 도로상에 30~40대의 전차를 출동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첩보가 6월 24일 21시 제9연대장 윤춘근 중령으로부터 보고되자 사단에서는 전날 외출 실시에 앞서 각 연대에 비상대기 기동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5포병대대 M-3색인차를 대기시키는 동시에 저장 연료 200드럼을 즉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배속중인 보국대대(報國大隊)2중대장 박군암 중위에게 운천 근방의 적군의 활동을 탐색하는 등 일련의 비상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평상시의 국부적인 도발에 대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47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2개 대대 병력으로 전담케하고 사단의 주력이 30km후방에 있었으므로 허점이 많은 상태였다. 마치 이를 실증(實證)하려는 듯 이날 04시를 전후하여 적의 침공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포천 방면의 제9연대 제2대대장 전순기(全舜基)중령은 03시 40분에 시작된 적의 폭격이 양문리와 가양리 일대와 동쪽의 기산리 계곡까지 맹타하고 있었

다. 동두천 방면의 제1연대 제2대대장 이의명(李義明)소령은 지역에 서로 거의 같은 시각에 시작된 폭격이 초성리와 양원리 일원을 휩쓸었다. 당직 사령 이영규 중령은 육군본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곧 비상에 돌입하여 영의 거주자를 소집하고 대기 중대로 하여금 출동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적은 04시 40분을 기해 폭격을 계속하며 제1선의 경계 진지로 침공하였다. 제9연대 지역에서는 포천 영평천을 넘어선 전차가 양문리로 밀려들고 제1연대 지역에서는 초성리와 화방촌(양원리 동쪽마을)부근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적은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여단을 동원 제3여단은 제109전차연대와 협동으로 43번 도로를 따라 포천쪽으로 침공하고 제4단은 제107전차연대와 더불어 경원가도로 침공하여 앞으로 의정부-서울측선으로 밀고 올라 가려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 유재홍 준장이 정황을 보고 받은 것은 05시 15분이었다. 그는 전날밤 육군회관의 개관 파티에 참석한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 돌아와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고 육본에 상황 보고를 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주 진지에 배치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즉시 의정부로 직행하였다. 사단참모장 김종갑 대령은 제25연대의 부대 이동문제와 창설기념행사로 온양에 내려갔고 정보참모 이세호 중령과 최세인 소령은 보병학교의 고등군사반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군수참모 이영모 소령은 서울 이태원 숙소에 있었는데 통신 연락이 되지 않아 이태원 소방본소의 협조를 14시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사단의 참모기능은 일선의 위급을 적시에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거기에 사단의 예비병력은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제9연대와 제1연대는 포천과 동두천 지역에서 각각 단독으로 적과 대결해야하는 고립적인 상태였다.

나. 동두천 전투 현황

동두천 지역은 북한군 제4사단이 국군 제1연대 (성준호(成俊鎬)대령)를 침공하였다. 북한 제4사단은 소장 이권무의 지휘아래 연대 규모의 사단 포병과 제107전차연대 등 보병 포병의 협동으로 경원(京元)가도 3번 국도를 따라 침공하였다. 이들은 포천에서와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공격준비 사격으로 연대의 경계지점인 초성리, 양원리, 적암리 일대를 강타한 다음 제16연대 대좌 박승희(朴勝熙)를 선두로 전곡 동두천간의 3번 도로를 따라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그 뒤를 이어 북한군 제5연대 대좌 최인덕(崔仁德)은 그 서쪽의 적암리, 봉암리 축선으로 동두천을 포함한 주변의 중요 도로를 일거에 탈취하고자 하였다. 당시 우리 국군 1연대는 사단 책임지역의 좌측방향인 종현산(558고지) 초성리 적성면 간의 21km에 달하는 넓은 작전구역을 맡아 국군 이의명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대로 하여금 일선 진지를 전담케하고 제1대대 한태원(韓泰源)중령과 제3대대는 연대 지휘소(의정부 서쪽 1km적동 부근)로 집결시켜 소대 작전 훈련을 실시하는 중이었다. 이 날은 일요일이라 전군에 주말 외출이 허용되었으나 연대의 경우에는 6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방의 적정이 혼미해지자

6월 24일(토)외출 시행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보주임 김명선 대위는 외출을 중지하고 영내 휴무토록 하자고 강조하였으나 인사주임 김만진 대위는 오랫동안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만큼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외출을 허용하자고 주장함으로써 한동안 논란이 되었다. 결국 2대대와 1개 비상대기중대만 남기고 외출을 보내기로 결정하여 1/2병력이 외출 또는 외박 상태에 있었다.

다. 지휘계통의 문제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었다. 제1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부임한지 1개월 밖에 안 되며 아직 부대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다 제1연대장 한태원 중령은 보병학교 고등군사반에서 교육을 받은 중이었으며 제3대대장 김옥목 소령은 30일부로 참모학교 입교명령을 받고 있었다. 결국 제1연대는 제2대대가 홀로 초성리 적성간 일선 진지를 전담하여 경비하고 28km후방의 연대 본부에 1개 비상대기 중대가 잔류한 상태에서 증강된 사단 규모의 북한군과 대결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전투기가 발발하기 3개월 전인 3월 하순 제1대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경계진지를 맡게 되었다. 당시 대대장 이의명 소령은 제5중대 김종상 대위를 오른쪽 제1선으로 삼아 동두천 북쪽 초성리 부근에 제6중대 최춘정 중위는 양원리 적암간의 왼쪽 제1선 진지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7중대 김동훈 중위는 예비로 대대 본부와 함께 동두천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1개월마다 1개 중대씩 교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5월27일 부로 오른쪽 제1선인 초성리 진지를 제7중대가 맡게 됨으로써 결국 이날 제1선은 제7중대와 제6중대가 경계하고 있었다. 제5중대장 김종상 대위는 그동안 연대 정보주임으로 전보되었다가 다시 6월 19일 부로 동두천에 임시 설치될 연합정보처(자 부대의 정보요원이 동두천 부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까닭에 상호의 협조를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의 책임자로 되었다. 그는 40명의 수색원과 20명의 정보요원으로 적성 - 적암 - 고랑포 - 청산리 등 제2대대의 진지간에 공백의 생긴 지점을 골라 1개분대씩 배치하여 첩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육군본부 전투정보와 소속의 첩보대 1개반 20명이 최확모 중위 인솔 하에 24일 1시 30분쯤 초성리를 거쳐서 전곡으로 들어가 북한군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아래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집중포격으로 먼저 경계진지를 강타한 다음 일부는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초성리(학담마을)로 침공하고 나머지 병력은 동이리(전곡면 서쪽 6km부근)에서 임진강을 건너 도감포 화방촌간의 소로를 따라 밀고 내려왔다. 북한 대열을 먼저 발견한 것은 전곡으로 잠입한 첩보대 소속 최확모 중위였다. 그는 공격준비 사격이 감행되고 있을 때 전곡 서남쪽 1km의 사남리 부근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슬비 내리는 이듬속에서 북한군의 공격대열을 확인하고 이를 곧 초성리의 제7중대 초소로 연락하려 하였으나 포격으로 유선이 끊겨 전령을 초소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이

초성리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이미 경계 진지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때 7중대는 초성역 부근에 본부를 두고 최문영 중위가 제1소대를 그 동북쪽의 204고지와 초성리 학담 사이에 배치하는 한편 2개분대의 초병으로서 한탄강 남방의 여로를 경비하고 있었다. 북한군을 공격준비 사격에 이어 주력이 한탄강을 건너 온 다음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전초소대를 집중 공격함으로써 소대장 이하 32명의 소대원들이 혈투를 벌였다. 북한군은 이와 함께 전차대를 몰로 3번 국도를 따라 초성리역 쪽으로 침공 04시 50분 그 선두가 학담 마을을 거쳐 초성교 북쪽 500m까지 근접하고 있었다.

라. 동두천 방어전선

동두천에 위치한 대대본부에서는 04시 10분에 북한군 침입 보고를 받고 예비소대인 제5중대의 1개 소대와 제8중대의 박격포 소대장 장서호 중위가 지휘하는 중화기 소대(박격포개반과 기관총 1개반으로 편성)로 하여금 제7중대로 지원토록 조치하였는데 이 무렵에 지원부대가 초성리 역에 도착하였다. 제5중대와 1개 소대는 초성역에서 청산리 열두개울로 들어가는 173고지 북쪽 기슭에 급히 진지를 구축했으며 중화기 소대는 바로 남쪽의 신천(강화천 동두천에서 한탄강으로 흐르는 개울)동쪽 연안에서 공격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국군은 초성교를 넘어서는 북한군의 전차대에 기관총, 박격포, 소총 등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탱크로 무장한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공격을 뚫고 유유히 남침 초성역에 이르러 노출된 중화기 진지를 목표로 전차포격을 가하였다. 이로부터 중대는 사본오열로 제1선 경계진지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동두천 소요산 536고지의 연대 진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당시 박격포 소대장 정서호 중위는 우리는 전차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다. 보병 화력으로 북한군의 탱크를 파괴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전에 알았다더라면 공병으로 하여금 초성교를 폭파시키거나 대전차호를 파괴 저지 했어야 했다. 전차포의 공격을 받고나자 중대는 풍비박산이 되어 누구의 명령을 기다릴 틈도 없이 동두천 방향으로 밀리게 되었다. 하복암 부근에 이르러 전초 소대의 병사에게 상황을 알아보니 거의 다 전사하고 몇 명만 혈로를 뚫게 되었는데 자신은 청산리 쪽으로 빠져 사선을 넘었다고 하였다. 아마 중대 병력의 3분의 2 이상이 초성리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중대가 교전을 치루고 있을 무렵 오른쪽선인 제6중대는 양원리(초성리 북서쪽 3.5km)부근에서 북한군 제2연대의 선봉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6중대 본부는 동두천 서쪽 3km의 봉암리에 두고 양태윤 소위가 지휘하는 그 소대가 8km떨어진 이 경계진지를 지키고 있다가 북한군에 고립되어 일격에 무너져 봉암리에서 급보를 받은 중대장 최준정 중위가 주력으로 간파리(봉암리 북쪽 2km)고개를 넘고 있었다.

마. 소요산 전투

소요산과 마차산으로 이어진 연대의 주진지 전방에서 지연전을 펴기로 하고 제5중대와 중화기 중대의 남은 병력을 모아 소요산 하봉암리간에 저지 진지를 급편하는 한편 일선 분산병력의 수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무렵 최확도 중위가 인솔한 첩보요원과 김종산 대위가 이끄는 수색대원들이 동두천으로 속속 집결하여 전방의 상황을 종합 확인한 결과 적은 사단규모 이상으로 판단되었으며 서쪽의 320번 도로에서 북한군 전차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연대본부에서 이날 새벽 제1대대 제4중대와 박관금 중위가 당직사령으로 있었다. 이날은 돌연한 사태가 잇달아 일어났다. 전날 15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전화로 전차가 나타났는데 몇대인지 확인하라는 등 지시가 분분하였다. 그는 당직계통으로 일선경비를 강화토록 지시하는 한편 연대 첩보 주임 김명선 대위를 통해 동두천의 연합정보처 김종상 대위 휘하의 정보요원에게 확인을 지시하였다 새벽이 되자 동두천의 제2대대본부에서 북한군 포격이 시작되었다는 급보가 날아오고 곧이어 04시 20분 연대장으로부터 연대 비상을 발령하라는 긴급지시가 떨어졌다. 이에 연대장 함준호 대령은 부대 앞 관사에서 04시 10분 제2대대장으로부터 앞서와 같은 북한군의 적침 현황을 보고받고 비상을 발령토록 조치하였다. 비상에 돌입한 연대는 주력의 출동태세를 갖추고 우선 대기 중인 제3중대를 동두천 소요산 전투 현장으로 급파하였다. 제3중대 중대장 이기형 대위가 보병학교 초등 군사반에 교육중이라 선임 장교인 한 중위(본명 미상)가 인솔하여 대기 차량을 타고 동두천으로 직행하였다. 06시 30분경에 제2대대 본부에 도착했으나 대대장 이하 지휘본부가 이미 동막동 뒷산 관측소로 올라가 연락이 닿지 않아 다시 초성리 쪽으로 북상하던 중 선두에서 차가 고장으로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2소대장 박종희 소위가 선두에서 동두천 초등학교를 지나 초성리로 북상하던 중 초성역 남쪽 2km의 176고지를 지나면서부터 적의 포격이 격심해져 차량가동이 어려웠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전방의 용연동 고개에서 신호탄 2발이 오르고 이어 대규모의 적이 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이열중대로 대로를 따라 유유히 남하하는 것이 보였다.

이때가 07시 10분으로 이들 북한군은 소요산의 제7중대의 진지를 휩쓴 다음 그 여세를 몰아 동두천을 침탈코자 보병과 포병의 협동공격에 나선 것이었다. 이에 3중대는 즉시 176고지 북쪽 기슭에 산개하여 적의 대열 선두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대오를 흐트러뜨리고 상당한 손상을 주기도 하였으나 북한군의 막강한 화력에 화기 소대장 한대섭 중위가 전사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 제2대대 관측소에서 전령이 달려와 소요산 입구로 전진하여 소요산 뒷산에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전했다. 이는 대대장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전한 까닭에 중대의 위치가 대대의 비치선을 넘어 홀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빠진 것을 조정하기 위한 대대장의 긴급조치였다. 급히 병력을 소요산 입구 능선에 배치하였으나 북한군은 중대의 뒤를 따라

제2대대 진지로 물러들었다. 이에 따라 신천(강화천)서쪽 159고지 일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에 계속되었다. 이 진지는 제2대대 제8중대 선임장교 옥창호 중위가 기관총 1개소대를 지휘하여 강서쪽으로 침공하는 북한군과 전투가 벌어졌다. 옥 중위 소대는 하봉암 동막동 남쪽 능선에서 기관총 사격을 지휘하는 8중대의 제2소대장 윤태근 소위와 함께 최후 저지 사격으로 교차 사격을 가하여 통쾌한 일격을 하였다. 이 처럼 2중대는 제3중대의 증원을 맡고 일선 분산 병력의 일부를 수습하여 대대의 본부요원까지 총망라하여 혼신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제5중대의 기관총 소대장 윤태근 소위를 비롯한 김만성 하사와 위생병까지 부상하는 등 혈전을 거듭하여 11시가 넘도록 이 진지를 고수하였다. 이처럼 2대대가 혈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연대본부에서는 주력부대를 출동시켰다. 제1대대는 제3중대를 제외한 300여명의 잔류병력(殘留兵力)을 부부대장인 김봉용 대위 지휘 하에 캐도차(트럭을 개조하여 철도 캐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편으로 동두천을 향하여 출발하고 제3대대는 참모학교 입교 명령을 받았다. 대대장 김옥복 소령이 09시 현재까지 집계된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연대의 일선인 봉암리로 떠났다. 사단에서도 제5포병대장의 제2포병(김한주 중위)으로 동두천으로 직행하여 연대대를 지원토록 조치하였다. 결국 제1대대와 제2포대는 동두천으로 제3대대는 덕정을 거쳐 봉암리로 급진격하게 되었다. 제1대대가 09시에 동두천에 도착했을 때는 읍내까지 북한군의 포탄이 떨어져 금융조합, 우체국 건물 등이 파괴되었다.

바. 마차산 전투

제1대대는 연대장 명령에 따라 81mm박격포 1개 중대와 기관총4정과 일부의 2.36인치 로켓포를 뽑아 지원토록 하고 주력은 마차산 진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이것은 연대의 주 진지가 마차산 588고지에 편성된 까닭에 좌측방향의 허점을 메우고자 조치하였다. 그러나 목전에 북한군의 공세가 치열한 것을 보고 제4중대장 박찬근 중위가 마차산 정상까지 올라 그 동쪽 기슭 봉동(상봉암)부근의 진지를 점령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고 건의했으나 부대대장은 연대장 명령에 따라 주력부대가 마차산 고지를 올라가게 되었다. 12시가지 9부 능선에 병력을 투입시켜 제2대대 전면의 적을 강타하자 북한군 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마차산 고지 넘어 간파리에 숨어들었다.

북한군은 예기치 못한 우리국군의 집중 포화에 전열이 무너져 버렸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지역에서 북한군을 최소한 대대규모의 병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같은 제2포대의 활약으로 제2대대는 적을 격퇴할 수 있었으며 연대 주력은 진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마차산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북한군은 연천에서 침투한 북한군과 합세하여 12시를 기해 전차대를 앞세우고 3번 도로를 따라 중앙돌파를 기도했다. 이들은 창말고개(동두천 북쪽 2km)에서 윤종호 중위가 지휘

하는 전차포중대의 포화에 막혀 제1대대의전차를 잃고 초성리 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공격 상황을 목격한 제2대대 제8중대기관총 소대장 윤태근 소위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동막동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창말 어느 동두천 국민(초등)학교 교정으로 후송되었을 때 북한군의 전차가 연대의 주 저항선을 돌파하여 학교 서쪽의 고개를 넘어서자 개울가에 포진한 대전차포 중대가 제1탄에 선 북한군 선두 탱크를 파괴하였다. 뒤따르던 탱크들은 진로를 잃고 한동안 서성대다 물러서고 말았다고 한다. 북한군 전차를 격퇴하지 못하면 우리 국군의 연대의 주력은 적중에 빠지고 부상병 후송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로서 제1연대는 북한군 제16연대의 제1차 침공을 물리치게 된 것으로 이승리의 채보가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거쳐 전파를 타고 반격설까지 와전(訛傳)되었다. 그러나 연대는 휴대한 탄약을 모두 소모한데다 보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사상자로 전력이 반감되었으며 포병 제2포대는 한발의 포탄도 없이 채보급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새로운 증원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왼쪽 일선으로 달려간 제3대대는 11시 봉암리에 도착하여 내안흥 오금동간에 병력을 배치하여 마차산 서쪽으로 다시 침공하는 북한군은 막기 위해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런 적정(敵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대장 김옥목 소령은 제9중대 선임장교 김재규 소위를 정찰대장으로 임명하여 봉암리에서 적암리에 이르는 320번 도로를 따라 북상정찰을 시킨 결과 간파리 부근에 2개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다시 나타나 집결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3대대는 81mm박격포로 간파리 부근에 위협사격을 가하여 계속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은 14시가 지나도록 조용했으며 정찰대와 교신도 끊어지고 말았다. 북한군은 어두운 밤이 되자 간파리에서 마차산 남쪽계곡으로 잠입하여 동두천으로 빠지는 협로 이동을 기도하고 있었으나 우리 국군 정찰대는 계곡으로 북한군을 뒤따라가는 바람에 교신이 불통되었던 것이다. 북한군이 동남쪽으로 진로를 바꾼 것은 3번 도로로 침공한 주력이 동두천 북쪽에서 타격을 받고 물러서자 측후방의 협곡을 노려 먼저 동두천을 침습코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국군은 15시 북한군이 3번 도로상의 기계화 부대와 더불어 간파리 안흥리 측선에서 측방 돌입할 때에 뒤늦게 북한군의 기도를 알아차렸으나 에 대비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만일 마차산 주봉을 김봉용 대위가 지휘하는 제1대대를 뿔아 안흥리 부근에 배치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차례 북한군의 기세를 꺾어 놓은 연대의 전열을 보강하여 병력을 계속 제1선으로 급파하였다.

13. 미국 보병사단의 전투 현황

가. 제24사단

우리 시에 주둔기간은 1951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주둔하였으며 사단장은 “딘” 소장이었다. 맥

아도 사령관은 주일 미 보병 제24사단장 “딘” 소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지시에 따라 1950년 7월 1일에 선발대로서 제21연대 1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일본(이다쓰케)으로부터 한국 부산에 공수되어 7월 2일 대전으로 항발하였는데 이것이 UN군과 미군의 첫 출병이었다. 7월 5일에 미 보병 제24사단 주력부대가 상륙을 완수하고 금강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한 바 있었으나 인민군이 금강을 도하하였으므로 사단은 다시 대전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미 보병 제24사단과 미 제1군단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되자 금천 - 대전 - 수원으로 진격하고 미24사단은 1951년 1월 3일 38도선 방어 당시 동두천 북쪽에서 한탄강을 끼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눈이 쌓이고 지반이 동결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진지와 보조진지까지 작업을 마치고 완전한 방어선을 형성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1월 4일 다시 서울 후방으로 철수하였다. Ridg Way중장은 1월 27일 한강 남안의 적을 치기로 단안을 내려 미 제1사단과 제9군단에 전면 공격 태세를 갖추게 하니 1월 31일에 미 제9사단은 여주 - 이천 - 용인 일대로부터 미 24사단의 우측에서 미 1기갑사단이 좌측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여주 - 양평간의 적을 격퇴하고 2월 초에는 양평-남한산으로 진격하였다. 또한 계속 진격하여 KANSAS선(영평천 - 한탄강 - 임진강 하구)전투에 참전하여 중공군 제40군과 대치하여 금화-서울을 차단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나. 25사단

25사단이 우리 시에 주둔한 기간은 미상이고 사단장은 William.B.Kean 소장이었고 25사단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사단으로 1950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국에 참전하였다. 미8군 사령관 Ridg Way는 “1995년 1월 25일을 기하여 대규모 전투수색대를 여주 - 수원선으로 주둔시켜 적을 교란시키고 최대한의 타격을 가하라”는 작전명령에 따라 진격을 시작한 미 제1군단 제9군단은 미 제1기갑사단과 함께 이천을 탈환했다. 미 25사단은 수원 남쪽까지 진출한 다음 26일에는 인천-수원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반격의 서막이 열렸다. 1월 31일 미1군단은 금양장-수원-철용곡 일대로부터 우익인 미3사단과 좌익인 미25사단이 광교산-수리산 일대의 적에 대한 공격을 하였는데 이때 미25사단에 아군 제1사단의 15연대가 배속되었다. 연대는 미25사단의 최일선으로서 미특동 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2월3일 창곡산의 적을 격퇴하고 계속하여 9일에는 관악산을 탈환한 다음 10일에는 동작동 - 노량진에 이르는 한강 남안을 확보하였다. 미25사단도 영등포 - 소사 - 인천 일대를 점령하였고 1951년 3월 22일 08시를 기하여 군단장은 미25사단에 작전지시를 하여 포천을 점령하라는 지령에 따라 미24연대는 수위봉 - 해룡산을 제65연대는 호조산(의정부 서쪽 4km) - 감악산을 제27연대는 주엽산-왕방산을 Turkey 여단은 주엽산 - 국사봉(547m)을 각각 목표로 공격하였다. 3월 28일에 동두천과 포천을 점령(187공수연대와 함께)하였으며 이 전투에서 적사살 1,892

명 포로 94명의전과를 올렸다. 4월 22일 미25연대는 사령부를 영평에 두고 제35연대를 영평천 북안리 서소성리에 주력은 한탄강 북안으로 하여 철원군 남쪽까지 진출하였다.

다. 미 보병3사단

3사단이 우리 시에 주둔한 기간은 1952년부터 1953년까지이며 사단장은 소장 Robert, Hsoule로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이를 만에 작전에 돌입하였다. 1950년 11월 12일 사단부대와 원산에서 합류해 가장 큰 전투를 치렀다. 중공군으로 인하여 후퇴한 미1군단(미3사단과 미25사단이 배속)은 1951년 1월 31일에 금양장 - 수원 - 구룡곡 일대로부터 군단 우익에 미3사단이 좌익에 미25사단이 광교산 - 수리산 일대의적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3사단은 2월 2일 광교산을 탈환하고 4일에는 판교리 - 문이산 일대로 진격한 다음 좌인접한 아군 제15연대의 진출에 힘입어 용이하게 청계산을 탈환하여 10일에는 천호동 - 잠실일대까지 진출하였다. 3월 14일 부터 한강을 도하(渡河)하여 서울 시내로 진출하여 16일에는 미3사단이 퇴계원 - 쌍문동간을 점령함으로써 70여 일만에 수도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 연이어 23일에는 미3사단이 의정부를 점령하고 28일에는 포천과 동두천을 점령하였다. 4월 중순에는 연천 일대까지 진격하여 적 사살 101명과 포로 449명의 전과를 거두었다. 4월 24일 사령부를 전곡에서 동두천으로 옮긴 가운데 초성리 - 적성 남쪽으로 계속 적의 중대를 물리치고 있었다. 또한 Utah-Wyoming선은 미3사단 전투지역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임진강 우측으로 임하는 선으로서 사단 정면을 반분하면서 Kansas선과 수직을 이루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동측방인 사단의 우익선 연대는 Kountless작전의 공격부대로서 전곡 - 연천축선으로 진격하고 사단의 좌익선인 영 제29연단(BEL-LUX대대배속)은 현주저항선인 Kanss선을 고수하기도 하였다. 휴전 후인 1954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포트베닝으로 귀환하였다.

라. 미 보병7사단

미7사단은 1952년부터 1970년까지 약 17년 간 우리 시에 주둔하였으며 한국과 인연이 깊어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로 정하여 부르고 있는 유일한 사단이다. 미8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는 주일 미7사단과 신편(新編)한 미제1해병사단으로 편성한 제10군단을 상륙군단으로 새로 편성한 다음 5,000대 1의 도박인 상륙작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9월 15일 사령선인 마운드맥킨레를 위시한 함선 261척으로 구성된 상륙군단을 인천에 무사히 상륙시킨 후 이어서 김포 비행장과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낙동강의 한미 양군이 총반격을 개시하기 시작하였고 미7사단의 일부 병력이 영동포에서 수원으로 남진하여 인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들의 퇴로가 끊길 것을 두려워 9월 23일 드디어 총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미제7사단이 서울의

동남쪽을 포위함으로서 9월 28일에 빼앗긴지 98일 만에 수도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다. 한편 낙동강의 한미 양군은 9월 16일 09시를 기하여 총 반격을 개시하였다. 휴전 후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다가 1970년 귀국하여 미군 캘리포니아주 마리나시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시 수차에 걸쳐 참여한 사단이기도 하다. 현재는 미2사단(1970~2012)이 캠프케이시 캠프호비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14. 인천상륙작전과 동두천 전투의 승전(勝戰)

1950년 9월 중순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 동남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엔군의 부산교두보는 북한군의 9월 공세로 멀지 않아 대한해협으로 밀려 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점차 전력을 증강하여 9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함과 동시에 부산교두보에서 일제히 반격으로 전환 전세는 만회하여 북한군을 격멸했으며 곧이어 38선을 돌파하여 중국의 국경선인 압록강까지 북진했다. 이 전국의 전환점이 된 것이 미국 맥아더 원수의 세계적인 명 작전인 바로 1950년 8월 22일에 있었던 인천상륙작전인 것이다.

(1)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은 유엔군의 각 부대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공격이 밤새도록 계속되고 각 진지를 점령한 유엔군과 우리국군은 1950년 9월 21일 수도 서울을 탈환했으며 일주일 후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으로 진격하였다. 미제5해병연대는 북한군의 경계 부대를 몰아내면서 저녁때에는 서울 북쪽 관문인 도봉구까지 진출 도봉산을 9월 22일 아침부터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미 보병7사단은 32연대로서 서울 동남쪽 한강 아래를 소탕 중이었으며 북진에 대비 태세를 하고 있었다. 수도 서울은 3면이 협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임진강으로 공격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는 쉬운 지형으로 역사상 이곳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서울 시민은 서울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2) 서울을 점령한 미제1해병사단은 서울 북쪽 교외지대를 소탕했다. 10월 1일 미제5해병연대의 일부는 평양을 향하여 북진하면서 문산과 임진강변을 소탕해나갔는데 삼삼오오 북으로 도주하는 낙오병을 보았을 뿐이었다.

미제5해병연대는 의정부를 향하여 양주, 동두천까지 추격하면서 동두천 북쪽 북한군 제31사단 31연대의 조직적인 저항을 받았지만 다음날인 3일 만에 북한군 38선 이북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10월 초순 북한군은 임진강을 위주로 게릴라 부대를 남기고 철수할 상태였다.

(3) 10월 7일 제8사단은 전날 동두천까지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부대정비를 하는 동시에 수색대로 38도선 부근 적정을 수집토록 하였다. 북한군은 38도 선상에서 미리 구축된 진지를 보강

점령하고 일대 진격을 준비 중이었으며 한탄강의 38도선과 철교는 이미 폭파하였고 이 교량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능선일대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었다. 제8사단은 이날 제10연대장 고근홍 대령을 선봉대로 하고 제2연대장 김용배 대령과 제16연대장 유의준 중령 순으로 38도선 남쪽 2km 지점(초성리 까지)진격하여 일기에 38도선을 돌파 할 준비를 갖추었다. 10월 8일 제10연대는 이날 날이 밝아오자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50포병대 대장 박병주 소령의 전 화력은 38도 선상의 적진지를 맹타하기 시작하였다. 포병부대들이 앞을 다투어 정면을 돌파하여 전곡읍까지 돌진하였다 북한군 전곡읍에서 남쪽으로 황지리를 경유하여 임진강변을 따라 패주하면서도 전곡읍에서 연천에 이르는 국도 양쪽 요지를 확보하고 계속 저항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장 이선주 준장은 제10연대장 고근홍 대령과 제21연대장 김용배 대령은 공격부대로 연천 동쪽 통현리 부근까지 진격토록하고 제16연대장 유의준 중령은 전곡읍에서 공격부대를 뒤따라 진진하며 부근경계를 철저히 하였다. 이날 20시에 이르러 제10연대와 제21연대는 통현리까지 진격하였으나 북한군은 연천 지역 일대에서 완강히 저항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총성은 멈추고 제8사단은 다시 수색대로 하여 연천 주변의 적정을 수색토록 하였다. 이날 밤 총반격을 개시하여 북한군은 격멸하고 탈환하여 승전고를 울리게 되었다. 침공 당시는 13만5천명 이었던 북한군이 38 이북으로 철수한 병력은 겨우 2만5천에서 3만 명에 불과했다.

인천상륙작전은 워싱턴 당국이 염려했던 사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맥아더 원수가 희망하고 예측했던 대로 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III. 맺는말

자주국방 태세를 다지는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조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우리 모두가 생활화하고 체질화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결의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분명히 인식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안전과 평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해외파병 월남전은 최신 무기 도입으로 국군 현대화 계획으로 우리 국방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했다. 국군 전력 증강에 공훈을 세운 월남 참전 전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 국전쟁이 발발한지도 어언 62년의 세월 저편에 반백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수많은 민족의 비극

을 넣었던 6.25 한국전쟁을 이제 역사 속으로 자리할 연륜을 쌓아 올린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한 전범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민족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똑바로 기록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원칙위에 서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충실해야 한다는 철칙(鐵則)이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히는 것은 역사의 기술(記述)이요 사명(使命)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그 연륜만큼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만큼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배워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라틴어(Latin語)가 있듯이 평화 통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키우고 내실화시켜 장비면에서도 취약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주적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증강에 거국적 기본병기 고도의 정밀전자병기와 항공기 까지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겸허하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남겨 온 자국들을 되돌아보며 역사는 우리 손으로 냉정히 강하고 빈틈없이 엮어 나갈 때 우리 후손들은 경각심(警覺心)을 갖고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신 차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참고문헌

- 향토지 1988년 12월 31일, 동두천시에향동지회, 동두천향토지편집위원회
동두천시사 1998년 4월 30일,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
포천군지 1997년 3월 20일, 포천군지 편찬위원회
한국지명총람 1985년 11월 28일, 한글학회
국사대사전 1982년 5월 15일, 한국출판사
한국전쟁 10권 1987년 2월 28일, 군사연구실
향군 1992년 6월 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동란 1973년 7월 27일, 한국홍보협회
장병설진법 1983년 9월 30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6·25 한국전쟁 초기전쟁사

- 의정부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 I. 들어가며
- II. 6·25 전쟁 발발
 - 1. 북한군의 남침 계획
 - 2. 개전초기 주요전투 상황
 - 1) 용진반도 전투
 - 2) 개성·문산 전투
 - 3) 춘천·홍천지구 전투
 - 4) 동해안 일대 전투
- III. 의정부지구 전투과정
 - 1. 작전계획
 - 2. 축석령 전투과정
 - 3. 후방지역 예비사단의 의정부 투입
 - 4. 호원동 백석천 일대의 지연전
 - 5. 창동·미아리 방어선 전투
 - 6. 의정부지구 전투의 교훈
- IV. 의정부지구 전투 기념비
 - 1. 전쟁영웅 김풍익 중령
 - 2.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 기념비
 - 3. 전적지를 교육현장으로 활용
- V. 맺으며

집필자

최영희

의정부시 시정 40년사 편집위원, 의정부 문화원 이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유물 해설(도슨트) 자원봉사

I. 들어가며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부터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고는 60년 전 그 시절 전투를 직접 지휘한 장교의 기록, 또는 연구자들의 기록에 의지해 초기 전투인 의정부지구 전투를 재구성해본다.

전투가 시작된 이래, 쌍방(남과 북)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리며,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6·25 한국전쟁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북한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낙동강까지 이르렀던 북한군의 남침기이며, 둘째 단계는 한국군과 UN군이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38도선을 넘어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하였던 UN군의 반격 및 복진기이다. 셋째 단계는 중국군의 개입과 더불어 단행된 공산군의 대공세를 UN군이 평택 - 제천 - 삼척을 연결하는 선까지 후퇴한 다음, 재 반격작전으로 38도선을 회복하게 된 중국군 침공 및 UN군의 재 반격이며, 넷째 단계는 휴전회담 진행과 더불어 38도선 부근에서 공방전을 전개했던 교착전기이다.

이중에서 본고는 1950년 한국전쟁의 첫째 단계인 개전초기 전투기간중 3일간의 전투인 의정부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전적지(戰迹地)를 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6·25 한국전쟁 발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해안의 양양군 잔교리에 이르는 38도선의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야포의 포문을 열고 약 30분 동안 한국군 방어진지를 포격한 후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했다. 이와 동시에 동해안을 따라서 후방지역인 강릉 방면에는 북한군 유격대와 육전대(陸戰隊)¹⁾가 침투하였다. 정동진과 임원진에 이들이 상륙하여 전면전과 국지전(局地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38도선 부근과 동해안 일대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 육전대(陸戰隊) : 해병대의 이전 명칭이며, 해병대가 없는 국가에서는 해군의 소속되어 상륙작전이나 지상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가리킨다.

북한군의 주공(主攻)인 제1군단은 서울에 대한 집중 공격을 감행하였고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 전선의 강릉 방면에서도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한국군은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여 취침 중이던 병사들은 다급히 새벽잠에서 깨어나 바쁘게 전투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많은 병력이 휴가 및 외출·외박을 나가 있어서 그 긴박했던 순간에 남아 있는 병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시각 38도선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이미 전개되고 있었다. 방어태세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던 한국군의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은 T-34전차와 SU-76자주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은 자주포를 보유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북한군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조차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의 전차 부대는 말 그대로 '무적(無敵)'이었다.

날이 밝은 뒤에는 북한군 전투기가 김포공항을 폭격하고 서울 시가지에 기총소사(機銃掃射)²⁾를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든 전황이 한국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특히 전장에서 북한군 전차의 위력을 눈으로 직접 바라본 한국군은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어 전의(戰意)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군 병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북한군은 한국군이 대전차포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방심하여 해치(hatch)³⁾를 열어놓은 채 진격하였다. 이때 한국군 용사들은 북한군 전차에 올라타 전차 내부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포탄을 등에 지고 육탄으로 전차를 향해 돌격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은 한국군 용사들의 몸을 던진 활약으로 인해 북한군은 예상치 못했던 타격을 받았으나, 결국 이러한 눈부신 활약도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1. 북한군의 남침 계획

북한군의 남침계획인 '반격계획'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29일까지 5일 동안을 제1단계 작전으로 설정하여 수원·원주·삼척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핵심적인 목표는 서울이었다.

제1단계 작전시 북한군의 부대운용을 요약하자면, 서울 북쪽의 38도선에서 서울을 향해 공격하는 정면공격 부대로 제1사단을 문산·서울방향으로, 제3·4·13사단과 제105기갑여단을 동두천

2) 기총소사(機銃掃射) : 주로 근접 또는 저공비행을 하면서 기체에 장비된 기관총·로켓포 등으로 적의 지상·해상 목표를 난사하는 일.

3) 해치(hatch) : 본래는 선박의 창구(艙口) 및 승강구를 가리키는 말.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사람이 출입하기 위하여 갑판에 여러 있는 구멍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차에 병사가 출입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구멍 또는 그 뚜껑을 가리키고 있다.

4) 1950년 6월 25일~28일의 초기전투에서 한국군은 북한군의 전차 및 자주포 20대를 파괴하였다.

및 포천에서 서울을 향해 투입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는 포위부대로 제6사단을, 김포반도·영등포 방향으로 제2·12·15사단을, 춘천 및 홍천 일대에서 서울 동남방향을 향해 투입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서울을 직접 압박하는 부대로 4개 사단과 1개 전차여단. 그리고 후방을 차단하는 포위부대로 4개 사단을 운용하였다.⁵⁾ 그렇다면 서울점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는 동해안 축선의 제5사단으로 북한군은 동해안 축선의 기동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가용부대인 10개 사단 중 평양방위를 위한 1개 사단을 제외하고 9개 사단을 전선에 투입했으며 그 중 동해안의 1개 사단을 제외한 8개 사단을 서울 점령과 서울의 후방차단을 위해 투입하였다. 따라서 북한군은 ‘서울 점령에 전쟁의 성패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개전초기 주요전투 상황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진 한국군은 웅진, 개성, 문산, 동두천, 의정부, 포천, 홍천, 강릉에 연하는 38도선 부근의 서부·중부·동부 전선에서 대응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병력의 숫자와 전투력, 그리고 무기 및 장비의 질적·양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온몸을 던지며 치열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림 1〉 개전초기 주요전투상황도



1) 웅진반도 전투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웅진반도에서는 한국군 독립 제17연대가 45km에 달하는 광정면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곳은 1개 연대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지역이다. 물론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곳에서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국지적인 충돌이 몇 번 있었다. 한국군은 그때마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비교적 잘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정말 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남침을 개시하여 웅진반도로 치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규모는 무려 제6사단 제14연대와 제3경비여단 등 2개 연대의 규모로, 한국군 제17연대가 단독으로 방어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 한국군 제17연대는 기습 남침한 북한군에 맞서 광정면에 부대를 배치하여 지연전(遲延戰)⁶⁾을 진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보고서(제1권)』 2001, pp. 139~177. 재인용

개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각에 개성과 문산 지역에서 북한군에 밀린 한국군이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17연대가 적의 수중 안에 고립되어 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전지역 및 주저항선이 양분됨으로써, 연대장 백인엽 대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연대를 해상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⁷⁾

마침내 철수를 시작한 제17연대는 6월 27일~28일에 걸쳐 인천을 경유하여 수원으로 집결한 후에 육군 예비전력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렇게 철수를 완료한 제17연대는 정비 후에 훗날을 기약하게 된다.

2) 개성·문산 전투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를 중심으로 청단으로부터 고랑포에 이르는 94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은 한국군 제1사단이 지키고 있었다. 이때 제1사단은 방어 정면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적의 정면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임진강 남쪽 기슭에서 방어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남쪽 예비진지로 철수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던 상태였다.

개전 직후 이 지역에는 북한군 제203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날 바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밀고 내려왔다. 한국군 제1사단은 임진강과 곡릉천이라는 천연 장애물을 활용하여 이곳에 주저항선을 편성한 후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 내고 있었다.⁸⁾ 그러나 6월 28일 서울이 실함(失陷)⁹⁾ 되어 한강교가 폭파됨에 따라 퇴로가 차단되어 버렸고, 결국은 이산포·행주나루에서 한강을 도하해 시흥으로 철수 할 수 밖에 없었다.

사단이 철수하고 있던 도중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측면이 노출되었는데, 이때 하필이면 도하장비까지 부족하여 결국 병력이 분산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용화기(公用火器)¹⁰⁾와 장비가 유실되는 손실까지 입게 되었다. 반면 북한군은 한수 이북지역을 손아귀에 넣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한강 방어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전투 이후 한국군 제1사단은 한

6) 지연전(遲延戰): 시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결전을 피하면서 적의 전진을 늦추기 위해 치르는 전투를 뜻함.

7) 만일 용진반도가 전면공격을 받았을 시 부득이한 경우 해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만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당시 한국군 독립 제17연대의 주력 병력은 해군의 LSD(병력 전차 등을 상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양륙함(揚陸艦))를 이용하여 철수를 하고, 제2대대는 기관선과 목선을 이용하여 철수를 하였다.

8) 6월 26일에 북한군 전차가 나타나자 제13여대 제1대대장은 대전차 특공조를 편성해 이를 격퇴하여 국군의 사기를 높였다. 또한 육군본부의 조치로 지원부대들이 도착하자, 이에 고무된 백선엽 사단장은 역습을 간행해 주저항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동두천·포천 전선의 제7사단이 철수하자 우측방이 적에게 노출되었고 정면에선 계속 적전차가 공격해옴에 따라 전황은 급격히 불리해지고 있었다.

9) 실함(失陷): 방어하던 진지나 도시가 잘못하여 함락되어 버린 상황.

10) 공용화기(公用火器): 부대의 공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단위가 아닌 공동 단위로 사용하는 화기를 뜻함. 기관총, 박격포 등이 그 예이다.

강 방어선으로 투입되어 차후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3) 춘천·홍천지구 전투

중부·동부전선을 담당했던 한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2연대를 홍천 북쪽 방면에 배치하고, 제19연대를 예비대로 원주에 집결 시켜놓고 있었다. 개전 직후 북한군 제2사단은 화천에서 춘천 방향으로, 제12사단은 인제에서 홍천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북한군 전차부대가 춘천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북한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이 북한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화천과 춘천 사이에 있는 모진교를 건너야만 했다. 만약 북한군이 춘천으로 진입한다면 전차를 비롯하여 그들의 우수한 장비의 화력에 밀려 전황이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한국군 제7연대는 모진교를 폭파하여 북한군의 진군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군은 모진교 폭파에 실패하였고, 북한군의 SU-76자주포에 밀려 주저항선으로 긴급 철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장병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연대 대전차포 중대 소대장 심일 소위가 북한군의 자주포 2문을 파괴함으로써 한국군이 크게 고무되었음을 물론, 무엇보다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뜻밖의 저항에 급해진 북한군은 논과 밭이 펼쳐져 사방이 뽕 뚝려 있는 지대에서 정면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한국군 제6사단 16포병대대가 집중포격을 가함으로써 이곳을 돌파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군은 소양강을 도하하지 못하였다.¹¹⁾ 홍천 북쪽 방면의 한국군 제6사단 2연대는 자주포를 앞세워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북한군 제12사단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제2연대장은 특공대를 편성하여 북한군의 자주포를 파괴하는 등 효과적인 방어 전술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춘천 일대에서는 한국군 제6사단이 소양강을 도하하여 남하하려는 북한군 제2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에 북한군 제2군단장은 신속히 소양강을 도하하기 위해 제12사단의 일부 병력을 춘천전선으로 증원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끝내 북한군은 소양강을 도하하지는 못했다.¹²⁾

이처럼 한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을 상대로 개전 후 유일하게 적의 남하를 완벽히 저지하는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던 와중에 육군본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내용은 “서부전선이 무너졌고 육군본부도 시흥으로 철수 할 것이다. 그러니 이에 따라 제6사단은 사단장의 판단에 따라 철수하면서 중부전선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11) 이때 북한군이 공격하기 위해 위치했던 지역에는 나무 한 그루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12) 이 전투에서 국군은 대전차포와 곡사포로 북한군에 맞서 방어전을 전개했는데, 당시 전사한 북한군의 피로 소양강이 붉게 물들었을 정도로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춘천과 홍천지구의 전투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저지한 것은 분명 눈부신 성과였다. 그러나 주변 전선이 남쪽으로 후퇴함에 따라, 만약 제6사단이 이곳에 계속 남아서 적을 저지한다고 하면 위치상 적에게 둘러싸여버릴 상황이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군 제6사단은 원주 방향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사단은 비록 철수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류탄과 화염병을 이용하여 북한군 자주포 10여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¹³⁾ 이처럼 춘천과 홍천 지역에서 3일이라는 기간에 북한군의 남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던 한국군 제6사단은, 철수¹⁴⁾ 이후 지연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였다.

4) 동해안 일대 전투

동해안 일대의 전투는 주로 강릉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은 한국군 제8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 사단은 예하의 제10연대를 전방 38도선에 배치하고 제21연대는 예비로 삼척에 집결시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38도선에서 적을 저지하고 강릉을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당시 한국군은 전쟁 임박 시점인 6월 중순에 북한군 게릴라를 토벌하기 위해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을 차출함에 따라, 개전 직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4개 대대뿐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제5사단과 38도선 경비 제1여단이 남하해 왔고, 여기다가 제945부대와 제766부대까지 정동진과 임원진 등으로 동해바다를 통해 상륙한 후 합류하였다. 이렇게 되자 강릉 전선의 한국군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다.

전방 38도선 부근에 배치되어 있던 제10연대는 과속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바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한군 제945부대와 제766부대가 후방 지역에 대거 상륙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사단장 이성이 대령은 육군본부에 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때 육군본부에서는 서울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강릉지역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사단장은 삼척에 있는 예비대인 제21연대를 강릉으로 올린 후 사단 주력과 38도선에서부터 철수해 내려온 제10연대를 연합시켜 강릉을 사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군이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관계로 제21연대는 산악도로를 이용하여 겨우 사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합류 이후 사단장은 적의 상황을 유심히 살핀 다음 무모한 전투를 피하기 위해, 27일에 대관령 서쪽의 유천리 및 황계리 방면으로 철수를 감행했다. 제8사단은 이곳에서 부대를 추스르고 강릉 탈환을 위한 반격작전을 세웠다. 그리고 다시 강릉을 향해 이동하였으

13) 6월 28일, 제6사단 19연대 특공대(육탄 11용사)가 말고개(홍천 동북 14km)에서 박격포탄, 화염병, 수류탄 등으로 전차를 파괴하였다.

14) 비록 철수를 하긴 했지만, 이 전투로 인해 한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수도권을 포위하기 위해 2개 사단을 춘천-홍천-이천-수원 축선으로 우회한 후 기동시키려던 최초의 계획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나, 그 시각 육군본부로부터 원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결국 사단은 다시 대관령을 넘어서 원주로 철수를 감행하였으며, 원주에서는 다시 제천으로 철수를 하게 된다.

이후 한국군 제3사단 제23연대가 울진으로 북상할 때까지 북한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남하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부대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으며, 북한군은 한수 이북지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게 되었다.

이렇게 초기 전투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서울이 함락하게 되었다.

III. 의정부지구 전투과정

1. 작전계획

의정부는 경원도로인 3번도로와 철원 - 포천 - 의정부를 잇는 43번도로가 종으로 뻗어있고, 그 사이에 평주산맥과 천보산맥이 종격실을 이루고 있어서 공자(功者)에게는 기제화부대 운용과 중심공격이 용이한 반면, 방자(防者)에게는 횡적연계와 중심방어 배치가 불리한 곳이다.

북한군 제1군단과 2군단은 서울 지역으로 주공격방향을 지향해 놓고 있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수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서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반요소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제1군단은 주공(主攻)을 연천 - 운천 - 의정부 - 서울에 이르는 축선에 집중시키고, 개성 - 문산 - 서울에 이르는 축선에 조공(助攻)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제2군단의 주력을 춘천 - 가평 - 서울 및 춘천 - 홍천 - 수원 방향에 투입함으로써 서울을 양익(兩翼)¹⁵⁾에서 포위하여 점령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다.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동두천과 포천지역에는 한국군 제7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적성에서 사작리까지 47km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109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3사단이 운천에서 포천으로, 제107전차연대의 지원을 받는 제4사단이 연천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15) 양익(兩翼): 양쪽 날개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중간에 있는 군대를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있는 군대를 뜻한다.

〈그림 2〉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도(1)

북방군을 허위적 방향으로 유혹을 조성하였다.



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사단은 예비대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전곡 - 초성리 - 동두천 방향으로 제16연대를 주공(主攻)으로 투입하고, 서쪽 방면에 있는 적암-봉암리 축선에 제18연대를 조공(助攻)으로 투입하여 동시타격을 실시하였다. 전곡에서 한탄강을 건너 한국군 제1연대 2대대의 경계진지를 돌파해 초성리까지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 16연대는 전차를 앞세워 동두천 방향으로 밀고 내려왔다.

한편 동두천 부근 보산리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한국군 제5야전포병대대가 제2대대 정면에서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1개 대대에 포격을 가하여 대부분을 격멸하는 전과를 올리고 하였다.

몇 시간 후, 북한군이 다시 전차 2대를 앞세워 공격을 재개하였고 이때 한국군 제1연대 57mm대전차포 중대장은 창말고개(소요산역 북쪽 500m)에서 적 전차 2대를 집중 사격하여 파괴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기세등등하게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의 공격세대는 다시 초성리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군 제1연대 2대대와 지원부대병력은 탄약이 떨어져 재보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즉각적인 재보급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북한군 제4사단은 한국군의 소요산 일대 주저항선을 돌파하고 25일 해질 무렵에는 동두천 시내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이미 같은 날 오전 9시경에는 북한군 제3사단의 주력이 포천을 북쪽 방면 주저항선까지 진출하였고, 오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포천은 북한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이처럼 첫날 동두천과 포천이 북한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직접적으로 위협에 처한 상황이 되었다.

의정부의 위기는 곧 수도인 서울의 위기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육군본부에서는 서울 부근의 부대는 물론, 후방에 있는 부대들까지 이곳 전선에 투입해 북한군을 막으려 했다. 곧 대전의 제2사단, 대구의 제3사단, 광주의 제5사단에 의정부로 투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동두천을 담당하였던 한국군 제1연대와 포천을 담당하고 있던 제9연대의 주력은 의정부에서 교육훈련 중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감악산 - 마차산 - 소요산 - 가랑산 - 천주산을 연하는 주저항선에 투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게다가 사단 예하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 되어 변경되고, 그 대신 충남 온양에 있는 제3사단 예하의 제25연대가 편입되도록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하는 데

그러나 전황이 워낙 급했기 때문에, 이 3개 사단은 완전한 편성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대대단위로 각기 출동하게 되었다.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먼저 도착한 단위부대와 후발부대인 본대가 제대로 합류하지 못한 채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림 3〉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도(2)



이처럼 대부분의 부대들은 100%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채병덕 총참모장은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과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에게 동두천과 포천 공격을 지시하였다. 이 공격은 누가 봐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지만, 제7사단은 26일 아침 기습적인 역습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막강한 화력의 북한군으로부터 동두천을 탈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제2사단이 포천공격에 실패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포천을 손에 넣지 못한다면 동두천에 있는 한국군의 퇴로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시간이 더 흐른다면 북한군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버릴 위험도 컸다. 이에 한국군은 분산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부대의 전투력도 분산되었으며 이후 의정부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2. 후방지역 예비사단의 의정부 투입

육군본부가 후방지역 예비사단에게 서울 이동을 명령한 것은 25일 08:00경이었다. 그러나 후방지역 부대들도 집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대 및 연대 단위로 분산하여 후방지역 공비토벌 작전에 임하고 있었고, 또한 많은 병력이 휴가와 외출·외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건제단위 부대이동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채병덕 총참모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부터 우선적으로 의정부와 문산 축선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원래 제7사단의 예하부대였던 수도사단 제3연대를 25일 11:00 부로 제7사단에 배속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제18연대를 추가 배속했으며 제8연대는 제6사단에 배속하여 가평지역으로 투입하였다. 이어서 육사 및 보병학교 교도대대로 서울특별시연대를 편성해 제1사단에 배속하

고, 육사 생도대를 서파·퇴계원 축선의 중간에 위치한 내촌(부평리)에 배치하였다.

계경지역 부대를 전방 지역에 증원했음에도 25일 오후부터는 의정부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서울에 도착하기 시작한 예비사단 부대들까지 건제에 관계없이 도착하는 즉시 의정부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 투입하여 반격작전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선 부대 증원을 위해 투입된 부대는 27개 대대에 이르렀다.

가용한 모든 전력을 서울 북방에 투입하도록 명령한 채병덕 총참모장은 26일 01:00경에 의정부에 있는 제7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방어책임부대장인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과 대전에서 증원된 제2사단장 이형근 대령에게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장들은 반격을 반대했지만 채장군의 명령은 완고하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 방향의 역습은 제7사단이, 포천 방향의 역습은 제2사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4〉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도(3)



동두천 방향의 역습부대는 제7사단 제1연대를 기간(基幹)으로 증원부대들을 통합하여 총 5개 대대였으나 실제 병력은 1개 연대 규모였다. 제1연대의 역습은 26일 08:00에 동두천과 소요산을 향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저항은 없었다. 사기를 회복한 제1연대 제3대대가 동두천을 탈환하고 소요산으로 진입하고 있을 때 북한군 기갑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북한군의 전차가 공격을 시도하자, 제3대대의 공격은 과감한 돌격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제3대대장은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면서 우이동 방향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포천 방향에 대한 제2사단의 최초 역습은 1개 대대로 실시되었다. 당시 의정부 북쪽 금오리에 도착한 병력은 제5연대 제2대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총장의 불과 같은 독촉 때문에 우선 1개 대대로 역습을 시작하고 후속부대가 도착하는 대로 증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6일 03:00경에 포천을 향하여 금오리를 출발한 제5연대 제2대대가 이날 새벽 축석령의 고갯마루에 도착했으나, 이 일대에서 방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제3연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때는 이미 제3여대가 축석령을 포기하고 철수한 후였기 때문이다.

제5연대 제2대대장은 제3연대와 제9연대의 낙오병들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축석령 고개 좌우측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뒤이어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제2대대는 전차를 목표로 집중적인 사격을 퍼부었으나 전차는 괴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전차가 방어진지를 밀고 올라오자, 상황은 삼시간에 바뀌어버렸다.

제2대대는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한지 10분도 못되어 축석령 진지를 포기하고 분산된 채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하여 제2대대를 증원하기 위해 축석령을 향해 이동 중이던 제1대대는 축석령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북한군 기갑부대에 밀려 퇴계원 방향으로 철수 하고 말았다.

3. 의정부 축석령 전투과정

의정부 부근 전투는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벽두부터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중이던 국군 보병 제7사단이 포천, 동두천, 축석령 일대에서 제105전차여단으로 증강된 북한군 제1군단의 침공을 받아 2일간 치른 전투이다. 즉, 6·25 전쟁 발발과 동시에 북한군의 3대 주공(主攻) 축선 중 하나인 의정부-서울 축선을 둘러싼 전투였던 것이다. 당시 북한군은 개성-문산-파주-서울 축선, 의정부-서울 축선, 춘천 축선으로 서울공략을 노렸다.

이 3개축선 중 춘천 방면은 남한군 제6사단의 선전과 춘천 방면의 북한군에는 전차가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간 반면, 개성 - 문산 방면은 남한군 제1사단으로 인해 1일 정도 지체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의정부 방면은 쉽게 무너졌다.

북한군은 105탱크여단으로 보강된 3사단 및 4사단이 주력이었고, 남한군은 제7사단이 주력이었다. 그러나 T-34/85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전력은 제7사단 이외에 제2사단 및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이 추가 투입되어도 막지 못했다. 제7사단은 38선에 위치한 방어선에서 밀려난 후 포천과 동두천 방면에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아 의정부로 밀렸고, 다급해진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제2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병력을 투입했지만 역시 별 소득이 없었다.

벽두에 제7사단이 포천과 동두천 부근에서 서전을 치르는데 이어, 대전에서 증원한 제2사단이 의정부 부근에서 격돌하게 되었다. 이 지역은 수도 서울의 관문과도 같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은 처음부터 여기에 공격의 중점을 두고 병력과 화력을 집중투입한데 반하여, 국군 측에서는 아무런 대비 없이 이와 맞섬으로써 전투초기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해갔다. 특히 이 지역은, 경원 본도인 3번 도로를 비롯하여 동측의 43번과 서측의 316번이 모두 양호한 노면에 열을 지는 듯 남북으로 뻗힌 데다, 광주산맥과 천보산맥이 종벽을 이루어, 방어하는 입장에서선 획정연계와 중심배치에 불리한 데 비하여 공격하는 입장은 기계화 부대의 운영과 공격 돌입이 용이해졌다.

육군총참모장 채병덕은 제7사단사령부를 2회 시찰한 후 제경부대를 의정부지역에 우선 투입하

는 동시에 후방 3개 사단을 서울로 이동시키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5일~26일 사이에 의정부 지구에 투입된 중원부대 1개 경찰대대를 포함해 총 15개 대대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부대들은 건제를 고려하지 않고 축차적으로 투입되었다. 더욱이 탄약을 위시한 각종 보급지원이 뒤따르지 못했으며, 유·무선통신망이 구성되지 않아 횡적 연락과 협조는 고사하고, 상·하급 계부대간에도 통신이 소통되지 않아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그림 5〉 의정부지구 전투경과상황도(4)



6월 26일 01:00에 제7사단사령부를 시찰한 육군총참모장 채병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정부를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 이형근이 이끄는 제2사단장은 반격작전을 전개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과, 다음날 제2사단 주력이 도착한 후에 전투력을 집중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방어에 유리한 한강선에서 방어 작전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총참모장의 반응은 매우 강경하였다. 그는 무조건 반격으로 전

환하라고 엄명하고 북한군 전차는 육탄공격으로 파괴하라고 강보하였고, 이에 따라 6월 26일 아침부터 제7사단은 동두천을 목표로 반격을 감행하게 되었으며, 제2사단은 축석령을 경유하며 포천을 목표로 반격하였다.

제7사단은 포천에 투입된 제9연대와 제3연대가 분산되었으므로 가용병력은 제1연대 예하 2개 대대와 제3연대 2대대 및 전날 6월 25일 사단에 배속된 제18연대 예하 2개 대대를 합쳐 모두 5개 대대였지만, 실제 병력은 증강된 1개 연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제7사단은 제1연대로 하여금 동두천을 공격하게 하는 한편, 배속된 제18연대는 신산리를 공격토록 하였다.

이 무렵 제7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4사단은 동두천에서 공격을 위한 재편성을 완료하고 공격 개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즉 북한군 또한 국군의 반격과 거의 같은 시간에 의정부를 탈취하기 위한 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군은 국군이 3번 도로를 강력히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두천 - 덕정 - 의정부로 이어진 3번 도로를 피하여 그 서쪽의 봉암리 - 덕정 간 도로에 주공을 투입하여 기습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제7사단은 수색정찰이나 관측을 통한 적정수집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적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6월 26일 08:00시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주공인 우일선의 제1연대는 적의 저항이 전혀 없는 가운데 동두천-소요산까지 진출하였으나, 조공인 제18연대는 봉암리 부근에서 강력한 북한군과 조우하여 분산되고 말았다. 그 얼마 후에 북한군이 덕정을 최우측에서 협공하였으므로 제7사단은 부득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7사단이 반격을 전개한 자체가 무모한 작전행동이었다. 제1연대는 반격 중에 적의 강력한 공격에 봉착하여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소대, 또는 중대단위로 흩어져 우이동·창동·태릉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또한 이날 저녁까지 마차산에서 연대로부터 명령이 하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제1대대는, 어두워진 후에 마차산에서 철수하였으나 끝내 대대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병력은 사방으로 흩어져 창동, 태릉 등지로 분산되었다.

한편 제1연대보다 2시간이 늦은 6월 26일 10시에 반격을 개시한 임충식이 이끄는 제18연대는 이날 12시경에 은현초등학교 부근에서 방어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적의 계속적인 압력으로 의정부가 위협받게 되자 사단에서 취한 조치였다.

제18연대는 은현초등학교 서쪽 감제고지에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중 적의 기갑부대가 덕정으로 접근하였으나 연대는 북한군을 그냥 통과시켰다. 이는 엄청난 전투력의 전차를 직시한 연대장이 무모한 대결을 회피하고 후속하는 적 보병과의 일전에 대비하여 아군의 배치상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부대는 나타나지 않고 사단본부로부터 이날 밤중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제18연대장은, 의정부가 적에게 점령되었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개시하여 삼송리를 경유하여 28일에 행주나루터에서 한강을 도하한 후 소사·오류동 지역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제2사단장은 26일 03:00시에 반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단의 병력은 제5연대 이하의 2개 대대밖에 없었다. 전날 청주를 떠난 제16연대는 이날 04:00시에야 창동에 도착하였다.

2개 대대병력으로는 포천탈환이 어려우므로 축석령을 방어하고 있을 제3연대를 초월하여 공격하겠다는 것이 사단장의 작전구상이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한 반격이었다. 이 무렵 제3연대는 이미 분산되었는데, 제2사단장과 제7사단장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작전구상을 함으로써 제2사단의 반격작전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작전이 되고 말았다. 최창언이 이끄는 제5연대는 제2대대를 선발대로 먼저 축석령으로 진출시켰으나 제3연대는 그곳에 없었다.

이윽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 전차의 굉음이 들리더니 북한군 기갑부대가 차갑준이 이끄는 제2대대 진전에 나타났다. 이에 국군 제2대대 장병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히 싸웠으나 교전한 지 10분도 못 되어 탄약이 떨어지고 투지마저 꺾여 분산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2대대장은 병력의 일부를 수습하여 태릉으로 철수하고, 나머지 병력은 분산되어 한강 남쪽의 낙오자수집소에 집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후속부대인 제1대대(대대장 소령 이정도)는 고갯마루에 도착하기도

전에 적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퇴계원방면으로 철수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2사단은 북한군을 저지하는 데에도 급급한 지경이 되자, 문용재가 이끄는 제16연대를 상금오동 부근의 감제고지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전차 20여 대를 앞세운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하자 국군은 전차를 파괴할 수단이 없어 전전공궁하였다. 다만, 김진동 대위가 지휘하는 제16연대 1대대 특공대가 2.36인치 로켓포의 기습적인 집중포격으로 선두 전차 1대를 배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잠시 동안 북한군 진출을 지연시켰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제16연대의 2개 대대는 북한군 보병부대와 한차례의 교전을 치른 후에 태릉과 호원동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6월 26일 12시쯤 제16연대 방어진지를 돌파한 북한군은 의정부를 향해 계속 남하하고, 덕정을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은 의정부를 서쪽에서 협공하고 있었다.

〈그림 6〉 M3 105m 곡사포



이와 같이 다급한 상황 아래에서 금오리에 포진한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 대대장 김풍의 소령은 1개 분대 분대원과 105m 야포 1문을 직접 이끌고 축석령이 잘 보이는 고개 밑으로 16km 까지 전진하여, 직접 조준사격 준비를 완료하였다. 때마침 커다란 굉음과 함께 축석령 고개를 돌아 내려오는 적전차를 발견한 결사대는 100여m 접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직접 사격을 실시하여 선두의 적 전차를 파괴하였다. 이것은 서울

을 향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내려오던 적의 전차대열의 남하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서울의 함락은 만나절이나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김풍의 소령과 결사대는 후속하는 전차의 집중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원 산화하고 말았다. 그 직후부터 적 전차대는 아군의 저항이 거의 없는 가운데 6월 26일 13시경에 의정부 읍내로 진입하였다.

결국 26일 오후 1시에 서울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인 의정부가 북한군에 점령당하면서 서울의 위기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후 의정부 읍내에서는 철수하는 군인과 뒤늦게 피난길에 오른 주민 및 부상병들의 인파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나 국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제7사단과 제2사단 전술지휘소는 창동으로 철수하여 새로운 전술지휘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4. 호원동 백석천 일대의 지연전

6월 26일 오전에 창동으로 열차 이동한 제25연대(연대장 중령 김병휘)는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의정부 남쪽 교외의 호원동 백석천에 제2, 제3의 2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동두천·포천지역에서 후퇴해 내려온 유재홍 준장은, 부대를 추스르고 창동을 중심으로 도봉산·수락산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을 저지하러 하였다.

북한군 제3사단은 의정부를 점령하자 곧 다음 작전을 위한 재편성과 재보급을 위해 약 4시간동안 지체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이날 17:00시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전차 20대를 앞세우고 접근하는 북한군의 위세에 불안감을 느낀 한국군 어느 병사가 오발하는 순간, 국군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방어 진지가 북한군에게 노출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휴대탄약은 교전한 지 2~3분 만에 바닥이 나고 말았다. 이런 상황 하에서 북한군 전차대는 백석교를 속속 통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다리 밑에 잠복한 2.36인치 로켓 분대장이 5번전차를 파괴시켰으나 후속전차가 발사한 포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뜻밖에 전차 1대를 잃은 북한군은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의정부로 되돌아갔다. 앞서가던 전차 4대는 호원동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한 제16연대 2대대(대대장 소령 김현)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후속전차가 없음을 확인한 듯 약 2km를 후퇴하여 노상에서 사격태세를 갖추고 후속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이들 전차와 격전을 치른 제16연대 2대대는 많은 피해를 입고 분산되었고, 이날 밤 백석교 우측에 배치된 제25연대 11중대장 문일수 중위는 전차 특공대를 편성하고 지휘하여 노상에 정지중이던 북한군의 전차 4대를 습격하여 그 중 2대를 파괴하는 큰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포천과 의정부 전선이 무너진 뒤로 그 파급영향은 거의 전체 전선에 미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왼쪽 인접에서 백선엽이 이끄는 제1사단은 아직 임진강 방어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동측방이 무너지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철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태릉 정면에서도 생도대대가 적선 후방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면, 춘천의 제6사단과 강릉의 제8사단까지도 수도 서울의 위기에 따른 전술적 및 심리적인 충격으로 작전에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북한군은 서울 공격을 제1목표로 삼아 의정부 지역의 전과(戰果) 확대를 획책하는 한편, 일부의 병력을 6월 27일에 벌써 김포반도로 상륙시켜 서측방에서 위협을 가하였다.

5. 창동·미아리 방어선 전투

6월 26일 13:00에 의정부가 피탈 당하자, 다급하게 된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날 17:00부로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을 '의정부지구 전투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제2사단을 포함하여 의정부 일대에 증원된 모든 부대들을 통합 지휘하여 창동 - 우이동을 연하는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에 대구와 광주에서 이동해 오고 있는 제3사단과 제5사단으로 반격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의정부지구 전투사령부는 철수병력을 수습하고 제7사단과 제2사단의 잔여부대 그리고 대구에서 증원된 제3사단 제22연대 등으로 6개 대대 정도의 병력을 우이동과 창동의 구릉지대에 배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지형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대로 적의 기계화 부대 기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날 27일 오전, 미처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도 전에 전차와 자주포의 막강 화력을 앞세워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한국군 제25연대는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탄약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태릉, 능곡, 수원 등지로 분산 철수하였다. 결국 한국군은 창동 지역을 포기하고 미아리, 태릉 방면으로 소부대 단위로 분산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대가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도 전인 27일 10:00경에 40여대의 전차와 자주포로 증강된 북한군이 방어진지를 유린(蹂躪)하였다. 방어부대는 포병학교 교도대대의 105mm곡사포 6문의 지원을 받으며 실탄이 고갈될 때까지 고군분투 했으나 결국 돌파되고 말았다. 방어부대는 또다시 소부대 단위로 분산하여 미아리 일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창동 방어진지를 돌파한 북한군은 계속 진격하지 않고 창동일대에서 진격을 멈춘 후에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아리·회기동을 연결하는 지역일대에는 전날 육군본부로부터 "미아리에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라"며 '미아리지구 전투사령관' 겸 제5사단장으로 명령받은 이용준 소장이 3개 대대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철수병력들을 수습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진격을 멈추고 있는 사이에 이용준 소장과 창동에서 철수한 유재홍 준장은 전력을 다하여 철수부대를 수습하고 투입 가능한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하여, 27일 오후까지 3,000여 명의 병력으로 정릉·미아리·청량리를 잇는 미아리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여 담당구역을 동·서로 양분한 후 나누어 방어를 하기로 하고 전차를 포함한 적의 진입 및 남파를 막아내기 위해 도로를 차단하였다.

이날 저녁 7시경이 되자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의

기마정찰대와 전차 10여대를 선두에 세워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의 화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였다. 방어부대는 이번에도 적의 전차를 당해낼 수 없었다. 공병이 도로에 매설한 폭약을 폭파시켜 전차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국군은 대전차포, 박격포, 105mm곡사포 등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집중 포격을 가하였다. 이때 북한군 선두에 있던 전차를 파괴하면서 1차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8일 자정이 되자 북한군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전차를 앞세워 공격해 들어왔다. 보병 정찰대의 선도하에 수대의 전차가 기습적으로 미아리 방향으로 진격, 삼거리에 설치해 놓은 장애물을 간단히 밀어내고 길음교로 진입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침투해 있던 북한군의 편의대(便衣隊)¹⁶⁾가 후방에서 국지적 교란 작전을 펼침으로서 한국군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투가 지속되면서 실탄이 거의 고갈되어 갔다. 이윽고 실탄이 다 떨어진 한국군은 육탄공격을 감행하면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28일 새벽 1시경, 2대의 북한군 전차가 길음교를 건넜다. 이 전차들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 서울 도심으로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을 방어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미아리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 시내로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새벽을 맞이하게 된 미아리 방어선의 한국군 잔류 병력들은, 날이 밝은 후 북한군 보병 부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어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군이 서울의 중심부에 돌입한 것은 28일 11:30경이었다. 서울을 장악한 북한군은 마포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를 비롯하여 각 경찰서에 들어가 정치범은 물론이고 일반 죄수까지 모두 석방시켰다. 이들은 죄수들을 인민의 영웅으로 치켜 올리면서 북한군을 환영하는 선봉에 내세웠고, 소위 반민족주의자들의 색출에 앞장세웠다. 김일성은 28일에 서울점령의 축하연설을 방송하고 서울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장에 사법상 이승만을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의 일각에서는 그들이 국군의 주력을 격멸하고 서울을 점령하면 “남한 전 지역에서 남로당원이 봉기하여 이승만 정부가 붕괴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서울을 완전히 장악한 6월말까지도 민중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참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미국의 지상군이 참전하기 전에 한반도를 조기에 석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 방어선의 조기돌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6월 30일부터는 한강 방어선 돌파에 전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16) 편의대(便衣隊) : 무장하지 않고 사복차림으로 적지에 잠입해서 후방교란을 주 임무로 하던 비정규군 부대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중공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6. 의정부지구 전투의 교훈

육군본부는 1950년 3월 25일자 의 육본작전계획 제38호에서 “적의 주공이 철원 - 의정부 - 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방어중점을 의정부 지구에 두고 적의 공격을 방어진지 전 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 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의정부축선의 실질적인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6월 위기설이 팽배위하게 퍼져 있는 가운데 6월 10일에 북한의 요인교환(要人交換) 제의를 속임수로 보고, 다음날인 11일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던 육군본부가, 6월 15일에 의정부축선의 방어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제7사단의 제3연대를 수도 사단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제3연대를 전환시키면서 온양에 위치하고 있던 제2사단 제25연대를 제7사단으로 전환시키는 명령도 동시에 있었다. 그러나 제3연대는 즉각 수도 사단지역으로 이동한 반면, 제25연대는 수용시설의 미비로 전쟁 당일까지 이동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 방어의 가장 중요한 축선을 담당하고 있던 제7사단은 2개 연대로 북한군 4개 사단 및 전차여단의 공격을 받았다. 국군 제7사단이 3개 연대로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북한군의 대등한 상대가 될 수는 없었으며, 25일 오전 중으로 제3연대가 다시 제7사단에 배속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부터 방어진지에 배치된 병력과 추가로 증원된 병력은 전투력 발휘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군의 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대전차 방어대책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절한 대전차 화기가 없었고 전투헬기가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에는 전차로 전차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전차와 대전차 화기가 지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군의 능력으로 대전차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군 수뇌부는 ‘북한이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미국이 전차를 지원해 주지 않은 사실만 탓하고 있었다. 대전차 장애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제6사단 등 일부 부대에서 극히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부대들은 서울 북방으로 지원한 후 의정부 축선의 표면적인 병력 숫자는 북한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병대대 수를 기준으로 볼 때 국군은 기존의 6개 대대와 증원된 27개 대대를 합할 경우에 33개 대대로 최초 투입된 북한군 27개 대대를 능가하였다. 그러나 국군 부대들은 후방지역에서 황급히 이동한 후에, 견제는 물론 전장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북

한군의 전차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대대단위로 투입됨으로써 한강에 돌 던지기과 같은 역활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결국 최초부터 승산도 없이 무모하게 감행된 반격작전(실제로 역습 수준)은 후방지역에서 증원된 예비병력 까지도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의정부 방어의 실패가 곧 서울 함락과 '국군 주력의 소진(消盡)'이라는 결과를 불러와 차후작전까지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육군본부가 이처럼 전제조차도 갖추지 못한 증원부대들을 의정부 반격작전에 투입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정부를 고수해야 한다.”는 채병덕 총참모장의 의지가 완고했기 때문이었다. 평소 채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군이 남침한다면, 즉각 반격으로 전환하여 평양까지 진격하겠다.”는 등 발언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자신에게 스스로 올라미를 씌운 채 장군은 융통성 있는 작전을 구사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의정부 사수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아집에 의한 부대지휘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 비극적 사태를 불러오고 말았다.

채병덕 총참모장의 의정부축선 반격 명령에 대하여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은 회고록에서 “제5연대 제2대대와 함께 14:30에 기차 편으로 노량진에 도착하여 용산 육군본부로 이동했으며 채 장군을 만나 ‘축차투입은 전술에서 가장 금기사항임으로 후방 3개 사단을 노량진·영등포로 추진시켜 한강 선에서 질서 있는 반격작전을 펼쳐야 한다’ 고 건의했다.”고 기술했다.

IV. 의정부지구 전투 기념비

1. 전쟁영웅 김풍익(1921~1950) 중령

(그림 7) 김풍익 중령 흉상

김풍익 소령은, 1921년 8월 6일(음력)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나 1941년 3월 31일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8년 8월 17일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특임으로 입교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1948년 10월 12일 육군 소위(군번 11645)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6·25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5월 1일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그 직후인 5월 5일 육군 포병학교 제2교도대대의 대대장으로



로 보임되었다. 그는 육군본부의 명에 의거 의정부지구 전투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6일 적 전차의 포탄에 의해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는 의정부는 물론 수도 서울의 방위문제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장이었던 의정부 북방 축석령에서 6·25전쟁 발발 당시 일반 화기로 격파하지 못했던 T-34전차를 야포로 직접 조준하여 파괴하는 놀라운 전공을 인정받아 1950년 8월 24일 육군 중령으로 일계급 특진이 추서되었고, 동년 12월 30일에는 을지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1980년 6월 25일에는 육군 포병학교에 그의 동상이 건립되었으며, 또한 동작동 국립현충원 위패 봉안소에 그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1988년 10월 25일에는 그의 전사 장소인 의정부 축석령에 전적비가 건립되었으며,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 48관 212번 위패로 봉안되었다. 또한 의정부 자일동 축석고개에 의정부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김풍의 중령과 10명 분대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8년 10월 김풍의 중령 전적비가 세워졌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개시한 북한군은 소련제 T-34형 전차를 앞세워 38도선을 돌파하고 포천을 점령한 후 계속 의정부 방면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교두보라 할 수 있는 의정부를 위협하였다.

육군본부는 의정부 북방의 축석령과 금오리 중간에 위치한 155고지와 202고지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는 한편, 이 선에서 적을 섬멸하고 반격을 개시하기 위해 후방지역의 예비사단을 전선에 투입하였다.

육군포병학교 제2교도대대도, 제2사단을 직접 지원하라는 명령에 따라 6월 26일 새벽 금오리 방어선에 포진하였다. 이미 포천을 점령한 북한군은 이 무렵엔 선두 전차가 자일리 방면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당시 제7사단이 담당했던 동두천과 포천으로 돌격중인 북한군은 서울 장악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군은 서울을 방어하고자 후방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였고, 이상근 중령이 지휘하는 수도경비 사령부 제3연대를 투입하였으나 전차의 포격을 받아 2개 대대로 분산되어 버렸다. 당시 대전차 장비 57mm대전차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량을 가지고 있어 효과가 없었고, 전투기나 전차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류탄이나 화염병으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매서운 공격에 방어가 불가능해져 축석령과 금오리 중간 155고지와 202고지로 후퇴하여 방어선을 새로이 만들었으며, 이 방어선이 서울을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이곳에 6월 25일, 김풍의 소령은 의정부 지역의 화력지원임무 수행을 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금오리 방어선에 포진하게 된다.

대대장 김풍익 소령은 금오리에 제2포대를 포진시키고 자일리 부근의 적진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했으나, 105mm M3 구형 야포의 화력으로는 T-34 전차의 전진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 군은 그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 때문에 300여대의 전차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적의 포격을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참이었다.

당시 김풍익 소령은 대전차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적의 전차를 격파하는 길은 오로지 야포의 직접조준 사격뿐이라 판단하고, 제2포대의 6번포를 서남쪽 1km지점의 교량 부근까지 전진시켜 43번 도로변에 배치하였다.

6월 26일 09시 40분경 적의 선두 전차가 길모퉁이를 돌아 50m전방까지 접근하자, 그는 제2포대 장 장세풍 대위를 비롯한 6번포 반원과 함께 직접조준 사격으로 제1탄을 발사하여 적의 전차를 파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제2탄을 장전하는 순간 후속하던 적 전차가 발사한 직격탄이 6번포에 작렬하였고, 김풍익 소령을 포함한 전원이 현장에서 산화하였다.

김풍익 소령은 축석령 하단부 전방이 잘 보이는 급커브길에 진지를 구축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잠복해 있다가 적의 전차가 등장하자 직접조준 사격으로 포를 명중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당시 누구도 착안하기 어려웠던 방법으로 죽음을 각오할 만큼 어려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김풍익 소령은 굴하지 않고 적의 전차를 향해 포를 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선두 전차는 측면에서 화염을 내뿜더니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일반 야포로 전차를 격파하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전차를 향해 포를 쏘려 하던 중 적 전차의 폭격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전사하여 29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후에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운전병의 진술에 의하면 김 소령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대한민국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김 소령을 포함한 포대원들의 활약은 당시 거칠 것 없이 남하하던 북한군의 서울 침공을 지연시키는데 기여했으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북한 전차에 대한 장병들의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 기념비

국가 보훈처는 지난 봄에 “육군 출신인 김풍익 중령을 2012년 6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2012년 6월의 호국인물로 김풍익(金豊益) 육군 중령이 선정되었다.

이 전적비는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지구 전투에서 전사(戰死)상 최초로 야포로 직접조준 사격하여 적전차 격파후 29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散華)한 김풍익 소령 외 10명의 포병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1988년에 건립되었다.

〈그림 8〉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기념비



〈그림 9〉 국가보훈처 포스터



〈그림 10〉 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와 포병용사들 모습



◇ 소재지 : 의정부시 자일동 92-2

◇ 좌측표석 전면 : 건립취지문

포병 군신 김풍익 중령과 6·25 전몰 포병 용사들의 숭고한 살신 보국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젊음을 조국에 바친 그들의 넋을 추모하고자 육군 전 포병장병과 고인의 고향친구,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배, 동료와 후배들의 정성을 모아 기념비를 세운다.

◇ 우측표석 후면 : 포병용사 김풍의 전투기념비

설계조각 : 조각가 김행신, 헌시 : 민영 문중섭, 글씨 : 장전 하남호, 그림 : 모후산인 오지호,

시공 : 학림산업 박노춘, 후원 : 육군본부 · 육군전투병과학교 · 육군포병예비역 및 현역 장군단,

협찬 : 대한항공(주) · 육군사관학교 제7(특)기 동기회 · 선린상업고등학교 및 동문회 · 충남 당진초등학교
동문회, 1968. 10. 26. 풍익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허 전

◇ 지대부 후면 : 헌시(獻詩)

조국에 사랑하는 자유민들에게 전하여 다오!

여기 대한민국 심장부에 칼을 꽂으려고

남침해오는 공산군의 전자부대를 맞아

평소 연구하여 가르치던 직접조준사격으로

적군의 전투 전차를 격파하고

그들의 공격을 지연시키면서 부하 장병들을 지휘하다가

적군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장렬하게 산화한 포병부대 장병들의

그 충혼을 길이 추모하고자

기억속에 사라져가는 옛 격전지 갈림길 마루턱에

선후배 포병장병들과 친지, 동료, 후배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돌 하나를 다듬어 기리나니

조국의 수호신이 되어

자유를 사랑하는 나그네들의 가슴속에

흘려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신보국 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한 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포병의 투혼이 되어

이 나라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길이 전송되어 가나니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청사에 빛나리라!

한편 서부의 임진강 북쪽에서는 1사단 보병부대의 육탄으로 탱크를 저지했다 하여 육탄 10용사가 있는데 수류탄을 꺼서 탱크로 접근하여 탱크 위 문을 열고 수류탄을 던져 넣어 탱크 안에서 터지게 했던 것이다.

3. 전적지(戰迹地)를 교육현장으로 활용

〈그림 11〉 전투기념비 표시판



의정부 시내에서 포천을 가기위해 43번 국도(일명 호국로)를 가다보면 포천과 경계 지점에(자일동 산92-2, 3번지) 축석고개가 있다. 이곳을 지나는 구도로 옆의 능선에 북쪽을 향하여 직접조준 사격을 하는 대포모양을 디자인한 19.8m의 커다란 탑신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름 하여 '포병용사 김풍익 전투기념비'이다.

6·25전쟁 당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김풍익중령 외 10명의 분대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전적비다. 김풍익 중령은 6월 26일 포천방면으로 남하하던 전차 40대와 맞서기 위해 축석령이 잘 보이는 고개로 105mm포를 이끌고 대기하였다. 선두 전차를 발견 후 100m 이내로 접근할 때 까지 기다린 후 직접사격을 하여 선두 전차를 파괴하였으나 후속전차에 집중포격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높이 약 20m에 이르는 김풍익 중령전적비는 고인의 용기와 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만 전차를 상대로 사격하는 직접사격연습을 한다. 6·25 한국전쟁 때 전차 한대 없던 우리나라가 근접하는 북한의 전차를 명중시켜서 기동을 저지한데서 유래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북괴군이 소련제 탱크 T-34를 몰고 남하할 때 의정부 지역에서 포병장교 김풍익 소령이 105밀리 곡사포를 직사 화기처럼 탱크를 직접 조준하여 사격해서 격파한 무용담은 당시 최고의 영웅적인 기록이었다. 지금도 김풍익 소령의 직접조준 사격을 가르켜 0(영)거리 사격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포병학교 내 강당의 이름을 풍익당이라 명하여 부른다.

요즘 토요일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곳도 전쟁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쟁 유적지를 단순히 전적지(戰迹地)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치지 말고 그 지역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지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제안이 잘 활용되면 애항심과 아울러 애국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지(戰迹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의정부의 경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에게는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장소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에 연계하여 내고장 문화를 탐방(探訪)하는 프로그램 중에, 근현대 유적지로 이곳 전적지를 둘러보고 문화해설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 일반시민에게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요즘 일반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의정부에는 자연 친화적 숲길 ‘의정부 소풍길’이라는 시민대상 홍보프로그램이 있다.

의정부 대표시인 천상병의 작품<귀천> 중에서, 우리네 삶을 표현한 시어(詩語)인 ‘소풍’에서 착안된 명칭으로 ‘어릴 적 소풍가는 마음으로 의정부 곳곳을 즐기고 느끼시라’는 의미이다. 의정부 시를 에워싸고 있는 원도봉산, 사패산, 홍복산, 천보산, 수락산 등 시 외각(外角)의 대구간 6개 코스와 중랑천, 부용천 등 시내를 가로지르는 소구간 3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며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이 9개 코스 중 ‘의정부 소풍길’ 대구간 제4코스 ‘삼림욕의 길’ 코스에서 의정부 현충탑과 전쟁영웅 김풍의 전적지를 만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적지를 잘 활용하면 통일안보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에게 전쟁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새로운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연계하여 용산 전쟁박물관이나 국립서울현충원(구 동작동국립묘지) 참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전쟁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이 싹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IV. 맺으며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한반도를 지나는 북위 38도선 이북을 점유하고 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민군이 38도선을 넘어 이남의 대한민국을 남침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다.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까지 서류상으로 정전 중이지만, 정전 이후 생방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는 우선 반공적 국가질서를 강화시켰다. 처참한 전쟁의 경험은 국민들로 하여금 반공정신으로 무장토록 하였고, 공산주의는 살인주의 또는 비인간주의와 같은 것으로 매도되었다. 반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구원자이며 은인이라는 믿음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 주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한 유엔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대화의 방식보다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을 채택하게 하였다.

6·25전쟁은 민족의 대이동을 초래하여 6·25의 발발로부터 휴전 성립 이전에 약 29만 명이 월북하였거나 납북되었고, 약 45~65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의 대이동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쟁은 도시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50년대 중반과 후반의 실업률이 심각할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6·25한국전쟁은 많은 전쟁고아(戰爭孤兒)와 전쟁미망인을 파생시켰고, 상이용사들의 생활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아울러 미군의 주둔에 따라 〈양키문화〉로 불리는 낮은 수준의 미국문화가 유입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갈등을 빚는 한편, 한국의 학문과 기술 및 예술은 미국문화와의 접촉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의정부에서 시작된 부대찌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도, 6·25 전쟁 후에 10캠프 가까운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전적지(戰迹地)를 그냥 일년에 한번 현충의식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권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004.
김성우·김용현, 『한국전쟁사』, 도서출판 진영사, 2008.
최용호·최용성 저, 『6·25 전쟁의 이해』, 양서각, 2008.
정명복, 『잊을 수 없는 생생 6·25 전쟁사』, 집문당, 2011.
인터넷, 네이버 지식IN 사이트 인용.

京畿郷土史學(第17輯)

발행인: 정상종

편집인: 최영주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쇄: 2012년 12월 20일

발행: 2012년 12월 31일

인쇄처: 홍익문화사 (02-2274-8110)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7-2 저동BD 200호

이 책은 “2012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1. 연천지역의 선사와 고대 문화 | 최우장
2. 여주 혼암리(欣岩里)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고찰 | 조성문
3. 허남의 도미나루가 시새(示曉)하는 백제도성(百濟都城) | 이강범
4. 남양주 봉선사 대종영문(奉先寺 大鐘銘文) 이해
- 남양주 유일한 보물중 (제397호) - | 엄중오
5. [三幕寺]의 名稱 表記와 創寺 由來 | 김정석
6. 경기 파주지역의 時祭 연구 | 권호숙
7. 포천의 영평팔경가(永平八景歌) | 이석구
8. 조선 후기 안성시지역 삼읍(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부역실총(賦役實總)』을 중심으로 - | 홍완표
9.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천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왜곡된 박진(朴震) 역사 연구 | 양경직
10. 근대 문화재 제408호 연천유엔(UN)화장장 | 이준용
11. <구술자료> 내가 겪은 6·25 | 천재원
12. 경기중부전선과 동두천지구 6·25 남침(南侵) 자료조사 연구 | 이명수
13. 6·25 한국전쟁 초기전쟁사
- 의정부지구 전투를 중심으로 - | 최영희